장편소설

인생의 함수

류원규



평양출판사
주체112(2023)

장 편 소 설

인생의 함수

류 원 규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장편소설

인생의 함수

누구에게나 삶과 존엄이 귀중하고 재능을 마음껏 떨치고싶은 욕망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란다고 하여, 애쓴다고 하여 이룰수 있는 운명의 선사품이 아니다.

소설은 인민의 참다운 세상, 위대한 수령의 품에 안길 때만이 인간의 존엄과 꿈을 지키고 꽃피울수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주 요 인 물

류기연: 만철기사, 《경성대학》(당시) 학부장

려　주: 류기연의 안해

추진석: 《경성대학》 교원

강영창: 흥남지구 인민공장 기사장

한홍식: 교원, 흥남비료공장 기사

사은룡: 만철기사, 《경성대학》 교무주임

스미스: 미《군정청》 문교부 담당관

시라가와 유끼: 만철기사

제 1 장

1

중국 대련에 일장기가 펄럭거리는 3층석조건물이 우뚝 서있다.

곡선미를 이룬 붉은 지붕과 궁륭식창문들로 둘러싸인 그 건물은 지난날 봉건의 철쇄에 묶이워 신음하던 유럽대륙을 자유와 개성, 문명에로 인도하였던 문예부흥기의 후광인양 우아하고 신비해보였다. 그러나 특이한 건축양식으로 하여 행인들의 시선을 모으는 그곳에는 어이없게도 중일전쟁과 더불어 한껏 비대해진 만철(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략칭)본부가 틀고앉아 기름진 대륙을 노리며 군침을 삼키고있었다.

한바탕 비가 쏟아질것같은 음울한 1942년 3월말 만철본부앞에 름름한 체구의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려순공과대학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만철기사로 입직한 조선사람 류기연이다.

그의 눈길은 어리무던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겉모양과 달리 차거운 느낌을 풍기는 서양식건물을 주의깊이 더듬고있었다. 만철본부에는 전부 일본인들뿐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치도 맹수들이 욱실거리는 원시림속에 단신으로 들어선것처럼 저으기 긴장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압박감을 털어버리려고 숨을 크게 내쉬는데 불현듯 대학동창생인 추진석의 격한 목소리가 귀전을 아프게 울렸다.

《머지않아 꼭 후회할거네.》

…류기연은 만철본부청사 정문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퍼그나 지났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추진석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5분 늦는것보다 한시간 앞당기는것이 더 현명하다.》

이것은 그가 대학시절에 늘 외우던 말이였다. 실지로 추진석은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약속한 시간만은 꼭꼭 지켰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체면을 봐주지 않고 싫은소리를 냅다 퍼붓군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물론 친구의 심정은 십분 리해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자신을 다잡을것이라고 믿고싶었다.

오늘 두사람은 만철본부에 첫 출근을 하기로 되여있었다.

만철본부 기사, 그것은 두손을 모아잡고 하늘에 대고 간절히 빈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직업이 아니였다. 더구나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의 말과 글, 이름까지 빼앗긴 식민지백성으로서 만주의 명맥을 틀어쥔 일본독점기업체의 심장부에 들어간다는것은 보통일이 아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람이라면 눈살부터 꿋꿋해지는 만철본부가 그들에게 정문을 순순히 열어준것은 려순공대졸업증과 학사증덕분이였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것은 결코 높은 월급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였다.

문득 류기연의 길둥그런 얼굴이 해빛을 받은것처럼 훤해졌다. 저쯤에 낯익은 모습이 나타난것이다.

그러면 그렇겠지.

꽁무니에 불이 달린것처럼 성급히 다가오는 추진석을 향해 마주가던 그의 걸음은 점점 떠졌다. 친구의 작은 눈에 어려있는 서늘한 빛을 알아본것이다.

《기연이, 난 그만두겠네.》

아닐세라 마주서기 바쁘게 친구가 내뱉은 말이였다.

류기연은 가슴속에 드리워있던 기대의 끈이 툭 끊어지는것을 느꼈다.

《그게 정말인가?》

그때 꽥액ㅡ 하고 날카로운 기적소리가 울렸다.

전기에 감전된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며 역전쪽을 노려보던 추진석은 단호하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렇네. 난 죽어도 만철엔 들어가지 않겠네.》

이제 와서 그의 결심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은 확실하였다. 하긴 오늘 이곳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자기의 꾸준한 설복으로 이루어진것이였다.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고있는 격정을 누르려는듯 잠시 동안을 두었던 친구는 마뜩지 않은 어조로 물었다.

《자넨 기어코 만철에 들어가겠다는건가?》

류기연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가슴속에 세워진 초지의 성벽은 끄떡없었던것이다.

《그렇단 말이지. … 그렇단 말이지.》

다짐을 받으려는듯 같은 말을 곱씹고있던 추진석은 강굴강굴한 고수머리를 성칼스레 쓸어넘겼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나타나는 버릇이였다.

《자넨 이놈 세상에서 목적을 이룰수 있다고보나?》

《길고짧은거야 대봐야지.》

《정 그렇다면 말리지 않겠네.》

미처 붙잡을새도 없이 뒤로 홱 돌아선 추진석은 빠르게 몇발자국 걸어가다가 머리를 돌리지도 않은채 소리쳤다.

《머지않아 꼭 후회할거네.》

힘들고 괴로웠던 대학시절의 막역지우는 이렇게 떠나가버리고말았다. …

푸드득—

얼어붙은 대기를 활기롭게 휘저어놓은 그 소리는 귀전에서 감돌고있던 친구의 목소리를 슬며시 밀어냈다.

고개를 들자 시꺼먼 구름장들이 엉금엉금 몰려드는 음산한 하늘가를 배경으로 하얀 비둘기가 보였다. 그 새는 설사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도 두려울게 없다는듯 배심좋게 상공을 선회하고있었다. 기이함을 넘어 비장한 느낌까지 자아내는 광경이였다.

푸득, 푸드득—

어느새 머리우에 날아든 비둘기가 땅우에서 고심하는 인간에게 고무를 보내듯 날개를 힘차게 퍼덕이고있었다.

순간 류기연은 한가닥 그늘이 비꼈던 가슴속으로 희망의 밝은 빛이 비쳐드는것을 느꼈다. 친구는 비록 떠나갔지만 그 빛만은 영원히 헤여질수 없는 벗처럼 마음속에 남아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었다. 심신에서 일어나는 뚜렷한 변화를 의식하며 고마운 비둘기가 가져온듯싶은 그 절묘한 빛을 음미하느라니 지금껏 혼신을 깡그리 기울여 줄달음쳐온 인생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공학자여서 그런지 류기연은 가끔 인생이란 일종의 함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군 하였다. 하다면 오늘에 와서 한생을 바쳐 풀어야 할

인생의 함수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내가 추진석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사코 만철에 들어가려는 목적은 조선사람은 결코 렬등민족이 아니라는것을 기술로 증명하자는것이다. 만약 그 기술을 독립변수로 놓는다면… 그럼 인생의 함수는 조선사람의 존엄으로 변할것이다. 그래, 인생의 함수!

가슴이 뿌듯해진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인차 폭우가 쏟아지려는지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만철본부청사 정문에 걸려있는 외등이 떨어질것처럼 위태롭게 흔들거렸다.

그런데도 비둘기는 불길한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유유히 날아예고있었다. 그 새가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곤두박힐것같은 걱정이 슬그머니 갈마들었다.

두손을 우로 쳐들고 후여— 하고 내저었다.

그제서야 비둘기는 폭우가 쏟아져도 굴하지 말라는 인간의 당부를 알아들은듯 상공으로 쑥쑥 솟구쳐오르며 기운차게 날아가기 시작하였다.

새가 점으로 보일 때까지 지켜보던 류기연은 심호흡을 하고 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만철본부청사 정문으로 들어서자 마늘코밑에 짧은 수염을 쪼아박은 접수원이 고개를 갑삭거리며 맞아주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류기연은 양복주머니에서 증명서를 꺼내주었다.

공경스러운 자세로 증명서를 넘겨받은 접수원은 《가네모또 가쯔오》 하고 입속말로 외웠다.

가네모또 가쯔오란 류기연의 일본식이름이다. 당시 왜놈들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조선사람들을 《비국민》, 《불온분자》로 몰아 사정없이 박해하였고 징용의 첫번째 대상으로 뽑았다. 뿐만아니라 그 어떤 직장이든 채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저, 어느 부서에 가시렵니까?》

《기술과에 가오.》

새로 입직한 기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사근사근 대해주던 접수원의 얼굴에 경계의 빛이 어렸다.

《혹시 가네모또씨는 반도인이 아닙니까?》

하루에도 숱한 손님들을 대상하느라고 눈치가 말짱한 그자는 상대방의 발음과 억양을 듣고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제꺽 판단한것이다.

《그렇소. 조선사람이요.》

접수원은 일본인들이 우글거리는 만철본부에 부나비마냥 뛰여든 조선인기사가 맞갖지 않는지 아래우를 올리훑고 내리훑고 하였다. 그러다가 이쪽의 근엄한 눈길과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증명서를 돌려주었다.

《2층에는 들리지 말고 3층으로!》

정문이나 지키고있는 주제에 당당한 만철본부의 기사를 하대할수 없고 그렇다고 눈꼴사나운 조선사람을 존대하기도 싫으니 《올라가십시오!》라는 뒤말을 살짝 뽑아버린 쪽발이다운 처사였다.

류기연은 그 대접이 방금전 만철본부청사를 보면서 느꼈던 위구심의 예령처럼 느껴졌으나 주저없이 걸음을 내짚었다. 현관복도를 따라가다가 2층계단을 톺아오르자 앞에 호화로운 부각장식을 한 출입문이 나타났다.

저 방때문에 들리지 말라고 한게 아닐가?

다음층계를 올라 3층복도에 들어서자 《기술과》라는 명판을 붙인 밤색문이 보였다.

여기로구나!

그 문너머에 아직은 몸을 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웅크리고있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방안에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듣지 못했는지 응대가 없었다. 처음보다 문을 더 크게 두드렸다.

《제길, 들어오지 않구 자꾸 두드리긴.》

짜증기배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허술하게 닫겨있는 문틈사이로 새여나왔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누군가?》

문에서 가까운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도끼에 얻어맞은것처럼 코허리가 움푹 들어간 남자가 빤히 쳐다보고있었다.

《기술과에 배치받았습니다.》

《여기에?》

이곳은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방이라는것을 강조하려는듯 벽면을 따라 주련이 놓여있는 책상들과 여기저기 앉아있거나 서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난 《안장쿄》는 다시금 따져물었다.

《여기에?》

류기연은 심문조로 따지는 그의 태도가 불쾌하였지만 선선히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반도인이라지?!》

접수원이 반지빠르게 전화로 련락한 모양이였다.

《안장쿄》옆에 앉아 할깃할깃 훔쳐보던 말라깽이가 짐짓 탄식을 늘어놓았다.

《오, 망조가 들었군. 망조가…》

그 말이 떨어지자 굉장한 모욕이라도 받은것처럼 씩씩거리던 《안장쿄》가 손에 들고있던 주산을 힘껏 내동댕이쳤다.

짝— 하고 주산틀이 깨지고 수판알들이 사방으로 뿌려졌다. 그중 한알은 류기연의 얼굴을 아프게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다.

명치끝에서 불덩어리 같은것이 솟구쳤다.

이곳으로 오면서 이런저런 경우를 예견하였지만 명색이 기사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나올줄은 몰랐었다. 그렇지만 이왕 내짚은 걸음이니 주춤거리거나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창문곁에 있는 빈 책상이 띄웠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가시같은 눈초리들을 그대로 받으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어잇, 건방진 자식!》

새로 온 조선인기사가 감히 반발을 하랴싶어 까치다리를 흔들거리던 《안장쿄》가 무서운 기세로 뛰쳐일어났다. 의자에 앉았을 때는 키가 커보였는데 정작 일어난것을 보니 어방없이 작았다. 대신 상체는 하체보다 길고 단단해보였다.

《나와 맞서보자는건가?》

류기연은 안장쿄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는 그자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안장코》는 유도개나 배웠는지 앙바틈한 목을 좌우로 놀리고 손목과 발목을 잽싸게 움직이였다.

부지불식간 집에 있는 야구방망이가 생각났다. 려순공대시절 류기연은 대학야구팀 타수였는데 손에 익은 야구방망이는 상대편투수가 던진 공을 멀리 쳐내기도 하였지만 때로 조선사람이라면 덮어놓고 깔보는 왜놈대학생들의 골통과 잔등도 보기 좋게 후려갈기군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때와 비슷한 정황과 부딪치자 그 시절의 흥분이 되살아난것이다.

상상속에서 야구방망이를 틀어쥐고 어깨뒤로 넘겼다. 동시에 《안장코》는 빠르게 날아드는 야구공으로 바뀌였다.

류기연은 상대가 다신 움쩍 못하게 답새기려는듯 한발자국 내짚었다.

찰나 출입문쪽에서 《구마모도군!》 하는 엄한 말소리가 날아왔다.

《함께 일할 동료들끼리 그게 뭐요?》

《안장코》는 뭍에 오른 가물치처럼 푸들쩍거렸다.

《선배님, 이자가 건방지게 굴어서…》

《뭐가 건방지다는거요? 제자리에 돌아가오.》

《예예.》

《안장코》가 비실비실 물러나자 류기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분별없이 날뛰는 일본인기사를 단번에 눌러놓은 사람은 녀자들도 무색해할만큼 얼굴이 희고 이목구비가 그쯘한 남자였다. 게다가 키꼴도 후리후리하고 몸가짐마저 위풍이 있었다.

《온다는 련락을 받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자, 우리 알고지냅시다. 난 오노 사부로입니다.》

자기소개를 한 미남자는 인상좋은 웃음을 지으며 스스럼없이 악수를 청하였다.

류기연은 속으로 이런 일본인도 있는가 하고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상대방의 손을 마주잡으며 자기소개를 하였다.

악수를 나누자 오노라는 남자는 방안에 떠도는 팽팽한 분위기를 가시려는듯 이런 말을 꺼냈다.

《참, 우리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마모도군입니다.》

오노한테 제지당하고 기가 죽었던 《안장코》가 마지못해 일어

났다.

《나이는 서른살, 려순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결함은 술만 마시면 월급봉투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겁니다.》

다소 익살기가 배인 말이였지만 구마모도라는 일본인기사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기사와 인사를 나누게 된것이 자존심 상한듯 애꿎은 안장코만 잡아당겼다.

마음이 내키지 않기는 류기연도 마찬가지였다.

구마모도의 태도는 결코 리해부족이나 과격한 성미가 빚어낸 무례가 아니였다.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일본인대학생들도 거리낌없이 드러내군 하던, 조선사람이라면 무턱대고 깔보는 종주국 국민일반의 고질적인 악습이였다.

《허, 이렇게 서있기만 하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고있던 오노가 권투심판처럼 두사람의 손을 끌어당겨 마주 붙였다. 그바람에 상반되는 감정이 응축된 두손은 허공에서 억지로 합쳐졌다가 인차 떨어졌다.

《다음은 이노우에군!》

말상에 억지웃음을 머금고있는자는 망조가 들었다면서 구마모도를 살살 부추기던 말라꽹이였다.

《역시 려순공대졸업생인데 부족점은 식사량에 비해 체중이 늘지 않는겁니다. 자, 악수를…》

이런 식으로 오노는 일본인기사들과 인사를 나누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분위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 류기연은 물론이고 일본인기사들도 자기들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한번의 악수따위로 풀릴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고있었지만 화해의 탑을 열심히 쌓아올리는 오노를 실망시킬수 없어 응한것이다. 아마 오노자신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것이다.

인사소개가 끝나자 오노는 현재 과장은 결원중이고 자기가 림시로 기술과를 맡아본다고, 오늘은 첫 출근이니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료해하라고 이르고나서 나가버렸다.

그가 사라지자 사무실안의 공기는 힘껏 잡아당긴 활시위처럼 더욱 팽팽해졌다. 구마모도는 안장코를 계속 잡아당기였고 이노우에도 그의 귀가에 뾰족한 입을 가져다대고 뭐라고 주절거리고있었다.

류기연 역시 눈길은 기술잡지에 박고있었지만 마음이 편치않았다.

첫인사가 안겨준 인상은 말할수 없이 불쾌하였다. 그래도 지식인들이니 조선사람이라면 무작정 따귀를 후려갈기는 왜놈경찰보다 좀 낫겠지 하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보니 섬나라족속들은 경찰이건 기술자이건 모두 한본새였다.

가슴속에서 경계의 종소리가 울리고있었다.

2

《아이, 지금 오세요?》

아들애의 손목을 잡고 대문앞에 나와있던 안해는 여느때없이 반겨맞았다. 가방을 넘겨주었는데도 그냥 따라서며 묻는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일은 없었나요?》

류기연은 못들은척하고 허리에 매달린 아들애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아부지, 나… 목마!》

손가락을 입에 문 아들애는 아빠가 목마를 태워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근심스럽게 올려다보고있었다.

순간 이름할수 없는 정회가 뭉클 솟아올랐다. 여태 아들애를 애무해준 기억이 별로 없었다. 극상해야 머리를 몇번 쓸어준것이 전부였는데 오늘은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고싶었다.

《그래!》

아이를 버쩍 들어 어깨우에 올려놓고 손바닥만한 뜨락을 뚜벅뚜벅 돌기 시작하였다.

정작 높은 곳에 올라서자 겁을 집어먹었던 아이는 차츰 담이 커져서 동네가 떠나가라고 쟁쟁하게 소리쳤다.

《아부지, 더 빨리, 빨리!》

말을 탄것처럼 엉치를 들썩거리는 아들애를 꽉 붙잡고 기세좋게 뜨락을 또 한바퀴 돌았다.

《그러다 애를 떨구겠어요.》

부엌문가에 선 안해는 말로는 걱정하면서도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

히 웃고있었다.

어, 그만하자!

숨을 헐떡거리며 어깨우에서 아들애를 내려놓았다.

《아부지, 래일 또 태워줘야 해?》

《음.》

안해가 맑은 물이 출렁거리는 소랭이를 들고왔다.

양복소매를 슬슬 걷어올리고 씻지 않겠다고 버둥거리는 아이를 소랭이앞에 꿇어앉혔다.

《아까 엄마가 씻어주었는데… 잉, 엄마?》

아이가 도움을 청했지만 안해는 방긋 웃기만 하였다.

《잉, 엄만 거짓말쟁이야. 씨.》

아들애의 머리를 끌어당긴 류기연은 보동보동한 두볼과 말랑말랑한 코를 씻어주고 팔도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게 밀어주었다.

《아파. 아부지!》

안해가 내준 세수수건으로 칭얼거리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다가 속으로 놀랐다. 어떻게 된건지 온몸에 서려있던 고독감이 스르르 녹아내렸던것이다.

집이란 이래서 좋은것이구나!

오랜만에 찾아온 소중한 행복을 깨뜨리고싶지 않았다. 온종일 집에서 첫 출근한 남편을 두고 이래저래 속태웠을 안해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것을 보고싶지 않았다.

《이젠 들어가자!》

류기연은 씻은 팥알처럼 말쑥해진 아이를 닁큼 안고 방에 들어갔다.

그동안 밥상을 다 차린 안해가 아들애를 넘겨받으며 권하였다.

《식사하세요.》

둥그런 밥상우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올라있었다. 그중에는 작은 접시에 따로 담은 새우젓도 있었다. 여느때는 저렇게 비린걸 어떻게 먹나 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한번 맛보고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밥을 한술 푹 뜨고 물큰물큰한 새우젓을 씹었다. 금시 입안에 이름할수 없는 비린내가 가득 들어찼다. 차마 내뱉을수 없어 이마살

만 찡그리는데 안해가 희한해서 쳐다보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로 꿀꺽 삼키고말았다.

《오늘은 어떻게 된거예요?》

안해가 이상해하며 물었지만 고개를 수굿하고 밥을 푹푹 떠서 먹기만 하였다.

그런대로 밥그릇을 비우고 수저를 내려놓자 안해가 정색해서 재촉하였다.

《이젠 말해주세요.》

《뭘 말이요?》

《직장에서 있은 일 말이예요.》

《일은 무슨… 피곤한데 자기요.》

자기의 얼굴에서 뭔가 알아내려는듯 찬찬히 살펴보던 안해는 더 이상 따져묻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그날 밤 류기연은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언제인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셈세기를 하면 좋다는 말을 들은것이 생각나서 입속으로 오백까지 줄줄 세였지만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오늘따라 불편스러운 베개를 밀어내고 두팔을 머리뒤에 고이자 되창너머로 검푸른 밤하늘에 간신히 매달려있는 쪼각달이 안겨왔다. 그 주위에는 그처럼 흔하던 별들이 하나도 없었다.

어쩐지 자신의 처지를 련상시키는 달을 보느라니 불쑥 사무실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떠올랐다.

…고막을 찢는듯한 전기종소리가 쨍쨍— 울렸다.

깨진 주산을 붙들고 끙끙거리던 구마모도가 선참 일어났다.

《어잇, 점심시간!》

《자넨 점심시간이 오면 제일 좋아하누만.》

이노우에가 비죽 나온 주걱턱을 좌우로 흔들며 그를 놀려주었다.

《흥, 먹지 않구 일할수 있나?》

《집에 가야 무슨 변변한 음식이 있겠다구.》

이상한 냄새를 맡은것처럼 구마모도는 안장코를 발름거렸다.

《그건 무슨 소린가?》

《자네가 이달에도 월급을 기생한테 통채로 안겨준걸 모르는줄 아나?》

《그래서?》

《자네 처가 그걸 알면 어떻게 될것같나?》

《어잇, 고발하겠다는건가?》

이노우에는 뾰족한 입술을 묘하게 오무리고 웃었다.

《고발은 왜. 자네와 난 입술과 이발과 같은 사이가 아닌가.》

비로소 긴장이 풀린 구마모도는 코구멍이 들여다보이도록 안장코를 쳐들고 경망스러운 녀자처럼 깔깔 웃었다.

《자, 가세!》

일본인기사들은 사무실에 혼자 남은 조선인기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밀려나갔다. 직장에서 가까운 종업원사택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는 모양이였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류기연은 정신을 집중해서 최근기술잡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다. 늘 만족을 모르는 창자가 때식을 잊고 책에 열중한 주인의 처사에 불만을 터치고 있었다.

이젠 밥을 먹어야지 하고 가방을 책상우에 올려놓은 다음 밥곽과 찬곽을 꺼냈다.

빨간 양념을 들쓰고 누워있는 김치, 산뜻한 콩나물무침, 구수한 된장냄새가 풍기는 두부지지개…

안해가 아침일찍 일어나 만든 음식이였다. 다른 음식도 그렇지만 안해는 특별히 김치를 맛있게 담그었다. 벌써부터 입안에 군침이 슬슬 돌았다.

수저를 집어들고 밥이며 김치를 주근주근 먹기 시작하였다. 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먹는 밥이였지만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을 때처럼 맛이 좋았다.

밥을 절반쯤 축냈을 때 삐걱— 하고 출입문소리가 났다.

도적고양이마냥 소리없이 들어온 사람은 이노우에였다.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지 두눈을 살살 굴리던 그가 갑자기 손으로 코를 싸쥐였다.

《어이구, 이거 무슨 냄새야?》

속통좁은 아낙네처럼 옹알옹알하던 이노우에는 부리나케 창가로 달려가더니 창문들을 활짝활짝 열었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련이어

들어서는 동료들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구마모도가 퉁탕거리며 사무실에 들어선것은 그때였다.
《왜들 그러나?》
《무슨 냄새가 나지 않나?》
답답하게 생긴 안장코를 발름거리던 그는 동료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뜨아해하였다.
약이 오른 이노우에는 그의 코를 떨어져라 하고 잡아당겼다.
《김치냄새도 못맡는 이걸 코라고 달고 다니나?》
빨개진 안장코를 붙잡고 아부재기를 치던 구마모도는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어잇, 여기가 어디라구 함부로 김치냄새를 피우는가?》
류기연은 밥곽과 찬곽들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먹겠으면 집에 가서 먹으란 말이다.》
려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방금 대련으로 온 류기연은 만철본부청사와 퍼그나 떨어진 곳에 있는 세집에서 살고있었다. 그래서 점심밥을 싸가지고 왔는데 구마모도는 집에 가서 먹으라고 야단이다.
《다시 또 김치냄새가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안장코》는 생트집을 걸고있었다. 이노우에가 창문을 열어놓아서 이제는 음식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큰일난것처럼 떠들고있는것이다.
《왜 보는거야? 진짜 혼나보겠어?》
첫 대면부터 못마땅해하던 그자는 이때다 하고 접어들었다.
《아아, 구마모도군!》
팔짱을 끼고 느물거리던 이노우에가 짐짓 만류하는척하였다.
《우리야 지성인들인데 막로동자처럼 그러면 쓰나. 차라리 팔씨름을 하라구.》
《뭐, 반도인하구 팔씨름을? … 싹 걷어치우라구.》
구마모도는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것처럼 펄쩍 뛰였다. 하기야 조선인기사와 악수하는것조차 꺼려하였던 그자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이리 오게.》
우둔한 동료를 끌어당긴 이노우에는 남들이 듣지 못하게 소곤소곤하였다.
버릇처럼 안장코를 만지며 듣고있던 구마모도는 마침내 《알겠

네.》 하고 응하였다.

동료의 잔등을 두드려준 이노우에가 이쪽으로 돌아섰다.

《내 생각은 두사람이 팔씨름을 해서 결판짓자는거요. 구마모도군이 이기면 당신은 사무실에서 식사를 못하고 만일 당신이 이기면 해도 좋고. 그래, 어떻소?》

류기연은 잠시 생각을 더듬었다.

이노우에가 어째서 팔씨름을 하자고 할가? 분명 구마모도의 팔힘을 믿고 그랬을것이다. 좋다. 이 기회에 이자들의 기를 꺾어놓자!

두 적수는 책상을 사이두고 손을 마주잡았다. 구마모도는 금방 대학을 졸업한 조선인기사를 책과 만년필밖에 모르는 알량한 책상물림으로 알았는지 자못 기세등등해하였다.

《단판에 끝내라구.》

《제발 비네. 이 방에서 김치냄새가 다신 나지 않게 해달라구.》

초록은 동색이라고 일본인기사들은 모두 구마모도를 응원하였다.

《승부는 단판이요. 절대로 흥정하면 안되겠소.》

두사람한테서 단단히 다짐을 받은 이노우에는 《시—작!》 하고 량쪽켠의 어깨를 쳤다.

구마모도가 먼저 《어잇!》 하고 손을 썼다. 그러자 합쳐진 두손은 류기연쪽으로 사정없이 기울어졌다.

《잘해, 잘해!》

《역시 팔씨름에선 구마모도군을 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승이 나서 응원하던 일본인기사들은 웬 일인지 잠잠해졌다. 조선인기사가 음— 하고 기운을 쓰자 이번에는 두손이 구마모도쪽으로 쏠렸던것이다.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느라고 구마모도의 안장코는 빨개졌다. 쉽게 이길것이라고 여겼던 조선인기사가 다년간의 야구훈련으로 단련된 체질이라는것을 미처 몰랐던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구성이 약한 섬나라족속의 허점이 드러났다. 구마모도는 안장코는 말할것도 없고 동글납작한 얼굴전체가 익은 딸기빛으로 변했지만 류기연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의 손등이 책상우에 닿을듯말듯하는데 이노우에가 움직이였다.

류기연은 자기의 등뒤로 돌아가는 그가 수상쩍었지만 언제 거기

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엉치를 잔뜩 쳐들고 안깐힘을 쓰는 구마모도의 안장코만 보일뿐이다.

마지막누르기를 시도하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걸상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더니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다. 바빠맞은 이노우에가 수세에 빠진 동료를 도우려고 발로 걷어찬것이다.

그 틈을 리용하여 구마모도는 《어잇!》 하고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아짜아짜한 순간 류기연은 요행 몸중심을 바로잡았다.

하여 또다시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렇지만 구마모도의 손은 종시 책상우에 철썩 눕고말았다.

책상에서 물러난 류기연은 제자리에 돌아가려고 하였다.

《가만!》

뒤를 돌아보니 이노우에가 주걱턱을 흔들며 말을 걸어왔다.

《세상에 단판으로 끝나는 경기가 어디 있소? 한판 더해야지.》

그야말로 면상을 한대 후려갈기고싶을만큼 뻔뻔스러운 인간이였다.

류기연은 주먹을 불끈 틀어쥐였다.

그래, 두번이면 두번, 스무번이면 스무번 다 응해주마!

드디여 2회전이 시작되였다.

구마모도는 패배를 만회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온몸의 힘살에 축적되였던 힘을 깡그리 짜냈고 규정을 란폭하게 어기면서 날뛰였다. 그러나 큰 바위처럼 뻗치고있는 류기연을 이기지 못한채 동료들의 비난과 욕설이 기다리고있는 구석으로 물러가고말았다.

치렬한 대결로 끓어번지던 사무실안은 커다란 얼음덩어리를 들여다놓은것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약삭바른 일본인들은 조선인기사의 면전에서 가련한 패배자를 몰아주는 우둔한짓을 벌려놓지 않았다. 했으나 휴지장처럼 구겨진 소위 대일본제국 국민의 체면을 고스란히 감수하기가 고통스러웠던지 화가 나서 도면을 벌컥벌컥 뒤적거리기도 하고 혹은 출입문을 걷어차고 나가버렸다.

류기연은 통쾌하기 그지없었다. 구마모도와의 팔씨름은 단순히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는가 못하는가를 판결하는 내기가 아니였다. 같은 기사이지만 조선사람이라고 멸시하는 왜놈들과의 첫 대결이였다.

그래서 힘껏 싸웠으며 결코 만만치 않았던 구마모도를 끝끝내 이긴 것이다.

하지만 괴괴한 침묵속에서 사무라이들은 복수의 칼을 벼리고있었다. …

생각에서 깨여난 그는 다시금 승산없는 셈세기를 시작하였다.

하나… 다섯… 스물…

3

《저 사람은 대학물을 먹었다는데 왜 무지렁이처럼 땅을 뚜진다오?》

《그걸 누가 알겠소?》

《듣자니 만철기사로 들어가게 된걸 본인이 싫다고 했다누만.》

《원, 그런 자리를 마다하다니. 쯧쯧.》

옆에서 농군들이 들으라는듯 큰소리로 떠들었지만 추진석은 호미로 허리치게 올라온 밭김만 북북 맸다.

만철본부청사앞에서 류기연과 다투고 시골로 내려온지도 어느덧 두달이 지났다. 그동안 륙촌벌 되는 친척집에 얹혀살면서 날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농사일을 하고있었다.

이곳은 대련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산골인지라 기차도 볼수 없고 도시처럼 소란하지도 않다. 온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밭일을 한다음 달을 등에 지고 륙촌형네 집으로 돌아가 뿌연 막걸리를 둬사발 걸치고나면 심신이 노근해지면서 여기에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뿐이다. 물론 지금처럼 귀간지러운 뒤소리를 들을 때면 정말 내 한생을 이 땅에 그냥 파묻어야 하는가 하는 허무감이 밀려든다. 그렇지만 다른 수가 없다. 왜놈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힘들게 배운 지식을 좔좔 흐르는 땀과 함께 땅속에 묻어버릴수밖에.

땀에 절은 수건으로 얼굴을 대충 훔친 추진석은 또다시 김을 매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슬슬 뒤번져지는 흙우에 지나온 날들이 펼쳐지는것이였다.

…대학시절 그의 꿈은 만철본부에 배치받는것이였다. 그곳에 들

어가면 월급이 높고 괜찮은 집도 차례진다고 한다. 한마디로 만철기사라고 하면 책임성높은 가장이 되기를 원하는 남자한테는 리상적인 직업이라고 할수 있었다.

추진석은 대학기간 어머니의 성화를 견디지 못하고 이웃마을에 사는 처녀와 성례를 치르었다. 녀고등학교를 졸업한 안해는 교양있고 마음씨도 착하였는데 병약한 시어머니공대를 잘하여 온 동네가 입을 모아 칭찬하였다.

구질구질한 홀아비생활이 빠근해서 려순에 오라고 몇번 편지를 보냈으나 안해는 어머니가 병을 털고 일어나면 모시고 가겠다면서 응하지 않았다.

내가 좋은 녀자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수록 어떻게든 만철기사가 꼭 되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려순공대에는 자기를 내놓고 조선사람이 불과 서너명밖에 안되였는데 그중 제일 가까운 사람은 철도공학부에서 함께 공부하는 류기연이였다. 그는 4학년때 《제동장치》라는 학위론문을 발표하여 전교를 들었다놓았다. 그런 정도라면 쉬염쉬염 공부해도 되겠는데 두눈에 충혈이 지도록 극성스럽게 기술참고서들을 뒤지고 도면을 그리군 하였다.

한번은 대학도서관에서 만나 자네 같은 인재가 뭣때문에 몸을 혹사하는가고 물었다.

《진석이, 우린 설사 나라는 빼앗겼지만 기술까지 왜놈들한테 짓밟힐순 없네.》

비장하게 울리는 그 대답은 추진석의 평온하던 가슴속에 던져진 커다란 돌이였다.

그래, 난 망국노가 아니란 말인가. 그런데도 좋은 직업이나 구할 생각만 하다니. 이제라도 실력을 높이자. 왜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

그날부터 류기연의 방조를 받으며 공부에 달라붙었다.

피타는 노력속에 한해가 지나고 또 한해가 흘러갔다. 그 과정에 추진석은 공작기계전동장치와 관련한 학위론문을 발표하여 전교적으로 학사증을 받은 두번째 학생으로 되였다.

조선사람이라면 덮어놓고 깔보는 일본대학생들도 그들의 실력에 위압되여 감히 건드릴념을 못하였다. 간혹 두뇌속에 고차방정식이나 원

소주기표보다 소위 대일본제국의 국민이라는 우월감을 더 많이 쑤셔넣은 망나니들이 거들먹거리며 달려들면 류기연의 야구방망이가 가만있지 않았다.

대학졸업을 앞두고 두 친구는 진지한 토론끝에 만철본부로 들어가 조선사람은 결코 렬등한 민족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자고 약속하였다.

입직수속을 하던 어느날 추진석은 안해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마을에 염병이 돌아 앓고있던 시어머니는 그만 숨지고 이웃집녀인의 도움으로 자기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였다.

험악한 세상에 홀몸으로 남은 안해걱정이 하늘같아서 허위단심 고향으로 내려간 추진석은 어머니장례를 치르고나자 안해를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병이 채 낫지 않아 운신하기 힘들어하기에 후날을 기약하고 혼자 올라오고말았다.

입직수속을 끝내고 첫 출근을 앞두었을 때 안해한테서 이젠 병이 다 나았으니 하루이틀내로 떠나겠다는 전보가 날아왔다.

손바닥만한 그 전보가 사랑하는 안해처럼 생각되여 자꾸만 쓸어보며 밤을 새운 추진석은 그래도 혹시나하고 매일 대련역으로 나가보군 하였다.

그날도 그는 역으로 향하였다. 전보를 친 날자와 기차시간을 따져보면 적어도 오늘쯤은 도착해야 하였던것이다.

안해를 놓칠가봐 개찰구를 지키고 서서 기차를 기다렸다.

30분… 한시간…

별안간 잠자고있던 레루가 쩡쩡— 울리더니 산굽이에서 허연 증기를 앞세운 기관차가 불쑥 나타났다.

기차가 레루를 갉아먹는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역홈에 멎어서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 긴 려행에 지친 려객들은 밀치고 닥치고 하면서 개찰구로 몰려들었다.

추진석은 두눈을 크게 뜨고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손님들을 한명한명 살폈다. 마지막으로 신식양복을 쭉 빼입은 중년남자까지 통과하자 개찰구는 조용해졌다.

그동안에 해는 저물어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오늘도 오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왜놈군대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기차의 마지막차량을 철통같이 둘러쌌다. 그 분위기

가 어찌나 삼엄한지 마치도 큰 인물이라도 도착하는것같았다.

이윽고 승강대문이 열리자 뜻밖에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손에 보짐을 든 녀자들이 내렸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자 왜놈병졸이 보총격발기를 절컥 잡아당기며 꽥 소리쳤다.

《쏜다! 죽지 않겠으면 빨리 사라지란 말이다.》

그러자 공포감에 휩싸인 사람들은 비실거리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는 속에서도 조선녀자들은 계속 쓸어나왔다.

《야야, 줄을 맞추라!》

《넌 왜 옆으로 삐져나와? 들어서란 말이다.》

왜놈군대의 감시속에 대렬을 짓고있는 녀자들속에는 열두세살밖에 안되는 애리애리한 소녀들도 있었다.

잠시후 여러대의 군용화물차가 도착하자 왜놈군대들이 녀자들을 짐승처럼 마구 몰아가며 강제로 태웠다.

옆에서 잡일을 하고있던 철도로동자들이 웅성웅성하였다.

《저 녀자들이 정말 불쌍하구만.》

《대체 무슨 녀자들이요?》

《그것두 모르우? 왜놈군대 <위안소>로 끌려가는 녀자들이 아니요.》

그제서야 추진석은 사연을 알았다. 당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왜놈들은 제놈들의 병사들속에서 만연되고있는 성병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전투력상실을 모면한다는 구실밑에 식민지조선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녀성들을 만주로 끌어오고있었다.

밭에서 김을 매고있던 처녀들과 학교에서 돌아오던 녀학생들, 젖을 먹이고있던 애기어머니들이 왜놈들의 《사냥》에 걸려들었다. 그렇게 강제랍치된 녀성들은 기차로 수송되여 조선과 만주는 물론 왜놈들이 강점한 동남아시아지역에 널려있는 왜놈군대들의 《위안소》들에 보내여졌고 그곳에서 야수같은 왜놈군대들의 성노예가 되여 청춘도 생명도 무참히 짓밟히였다. 결국 조선에서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끌려온 녀성들은 왜놈들의 철저한 성노리개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다.

돌연 돼지멱따는것같은 고함소리가 터졌다.

《야, 서라!》

한 녀자가 철길을 넘어 허겁지겁 달아나고있었다. 그뒤로 여러명의 왜놈군대가 먹이를 노리는 야수처럼 조야한 소리를 내지르며 쫓아갔다.

급해맞은 녀인은 손에 들고있던 보짐을 집어던졌다. 그 모습에서는 죽으면 죽었지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는 필사의 몸부림이 느껴졌다.

뜀박질을 멈춘 왜놈들이 사격자세를 취하였다.

땅, 따당!—

가슴을 찢어발기는듯한 총소리가 연방 울리자 죽기내기로 달려가던 녀자는 뚝 멈춰서더니 몸을 흠칫흠칫 떨다가 푹 꼬꾸라졌다.

잠시후 원한과 슬픔으로 몸부림치는 녀자들의 비명소리, 울음소리를 싣고 역구내를 빠져나가는 왜놈군용차들을 노려보고있는데 옆에서 녀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저, 추진석씨가 아니예요?》

고개를 돌리자 머리에 무명수건을 둘러감은 녀인이 서있었다.

《예, 접니다.》

《아이구, 옳구만요. 심순이 남편이 옳아요.》

찬찬히 보느라니 고향마을의 이웃집녀인이 틀림없었다.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반가와서 손을 내젓던 녀인은 얼굴을 싸쥐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만나기 바쁘게 슬피 우는 그를 보자 불길한 예감이 갈마들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

무명수건을 벗어들고 눈물을 훔치던 녀인이 목멘 소리로 대답하였다.

《심순이는… 오지 못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이구,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지 눈물을 꾹꾹 삼키며 무명수건을 잡아비틀던 녀인은 한참후에야 말문을 열었다.

며칠전 추진석의 안해인 심순이가 그 녀인을 찾아왔다. 이번에 염병을 앓고있던 자기를 돌봐주어 고맙다고 인사한 그는 이사짐을 다 싸놓았으니 래일 아침 중국 대련에 있는 남편을 찾아 떠나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녀인은 마침 자기도 중국 동북지방에 돈을 벌러 간 남편을 찾아 가려댔다고 하면서 같이 떠나자고 약속하였다.

다음날 아침 밥을 지을 삭정이를 주으려고 마을뒤산에 올랐던 녀인은 무심결에 산밑을 내려다보다가 너무 놀라서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글쎄 누런 군복을 입은 왜놈군대들이 마을을 둘러싸고있는것이 아닌가.

마을에 들어간 왜놈들은 무작정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어놓고 불을 질렀다. 간혹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관총사격을 들이댔다.

순식간에 마을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하였다.

왜놈들이 돌아간 다음 산을 내린 녀인은 먼저 심순이한테 들렸다.

불타다 남은 집뜨락에 피자박이 되여버린 그가 쓰러져있었다. 아마 불속에서 뛰쳐나오다가 왜놈들의 총에 맞은 모양이였다.

《언니, 그이를 만나거들랑… 아이도 낳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게 미안하다구…》

이것은 그때까지도 숨이 겨우 붙어있던 심순이가 남긴 마지막말이였다.

《후에 알고보니 그때 우리 마을주변에 주둔하고있던 왜놈군대들이 자기네한테 염병이 옮는다고 하면서 그런 귀축같은짓을 했다더군요.》

전후사연을 알려준 녀인은 또다시 통곡하였다.

하도 억이 막히면 눈물마저 나오지 않는 법이다.

추진석은 두눈을 부릅뜬채 주먹으로 동가슴을 쾅쾅 두드렸다.

《이 쪽발이놈들아, 내 안해가 무슨 죄를 지었다구 죽인단 말이냐?》

실성한 사람처럼 비칠거리던 그는 자신을 끝없이 후회하였다.

아, 그런데도 이놈은 정신이 쑥 나가서 왜놈들한테 복무하자고 만철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가. 이놈의 세상 콱 무너져라. 무너져!

추진석은 또다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하였다. …

회억에서 깨여난 그는 축축해진 눈굽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리고는 굳은살이 박힌 손바닥에 침을 바르고나서 상실의 아픔을 갈아엎듯 뙤약볕에 말라서 꽛꽛해진 땅을 걸싸게 갈아엎기 시작하였다.

4

《야마또》호텔은 여느때없이 흥성거렸다.

최근 더욱 치렬해진 중일전쟁을 계기로 엄청난 황금소나기를 맞은 만철에서 총재의 생일을 맞으며 성대한 연회를 차린것이다.

연회에 초청된 손님들은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 고위장교들과 《만주국》의 실력가들, 만철본부에 근무하는 성원들이였다.

뺨을 얻어맞아도 그냥 생글생글 웃을것만 같은 예쁘장한 접대원들이 그들을 동양과 서양의 이름난 술과 산해진미가 올라있는 식탁으로 안내하였다.

《여러분!》

술잔을 쳐든 총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내는 조용해졌다.

다들 이제 저 억만장자, 만주의 모든 경제명맥을 한손에 거머쥔 권력가한테서 무슨 말이 쏟아져나올것인가 하고 귀를 강구었다.

《에, 우리 만철은 30여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회사로서 제국의 번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왔소. 우리가 조달한 군수물자덕으로 제국의 대동아공영권구상은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섰고 점차 대륙적판도에로 확대되고있소. 에, 제국이 거둔 승리의 기저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깃들어있소. 본관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제국을 위해 멸사봉공하리라고 믿으면서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하는바이요.》

사방에서 술잔찧는 소리, 축하의 인사말이 들려오더니 요란한 웨침소리가 터져올랐다.

《만철 만세!》

《대일본제국 만세!》

장내가 떠나갈듯하던 환호성이 가라앉자 손님들은 제자리에 앉았다.

주탁에서는 연회의 주인공인 총재와 귀빈들이 점잔을 뽑으며 예측할수 없는 전쟁형편과 복잡한 국제정세를 론의하였고 다른 식탁들에서는 어쩌다 호화로운 연회에 참가한 월급쟁이들이 음식을 료정내기 시작하였다. 도수높은 꼬냐크나 위스키를 들이킨 그들은 어느덧

거나해져서 여느때에는 곧잘 입에 올리던 기관차이니, 교량이니 하는 따위의 철도문제는 뒤로 젖혀놓고 세상을 들었다놓은 쏘도전쟁을 론하기 시작하였다.

《난 리해되지 않네. 로씨야가 어째서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죽도록 얻어맞고 모스크바까지 퇴각했는가 말일세.》

《그야 뻔하지 않나. 비스마르크의 후예들이 뾰뜨르대제의 후손들보다 강하니까.》

《아마 도이췰란드친구들이 한두달내로 우랄산맥을 넘을거네.》

《그럼 우린 뭘 하고있나. 제꺽 씨비리를 타고앉아야지.》

《오, 숫처녀 씨비리여. 그대 고개를 숙이고 야마도민족한테 수청들라!》

이마를 마주 대고 킬킬거리는 그들을 쓰겁게 보고있던 오노가 좌중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공상이 망상으로 될가봐 걱정이구만.》

잔치보러 왔다가 초상본다더니 모두 뗑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쏘도전쟁에선 큰 변화가 일어나고있소. 전 전선에서 도이췰란드군의 공격이 좌절되고 모스크바는 끄떡없단 말이요. 오히려 쏘련군이 기를 펴고 반공격으로 넘어가고있는 형편이지. 정세분석가들도 히틀러가 100여년전의 나뽈레옹처럼 쏘련에서 쫓겨날것으로 보고있소.》

그때 악대쪽에서 서정적인 무도곡이 흘러나왔다.

동맹국의 난감한 처지를 두고 심란해하던 일본인들은 슬금슬금 녀자들과 짝을 뭇고 화려하게 꾸려진 무도장으로 향하였다.

흥에 겨워 빙글빙글 돌아가는 젊은 남녀, 방금전에 만났지만 마치도 오래전부터 알고있는 애인들처럼 몸을 바싹 붙인 중년남녀…

누군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악대쪽에 대고 요청하였다.

《왈쯔!》

악대는 경쾌한 왈쯔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휘저어놓은것처럼 무도장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처음부터 열정적이던 짝패들은 말할것도 없고 움직이는듯 마는듯하던 쌍들도 활기를 띠였다.

한곡을 넘긴 춤군들이 다음곡을 기다리고있을 때 연회장에 젊은

녀자가 들어섰다.

상큼 솟아오른 목주위에 폭포처럼 흘러내린 까만 머리칼, 반달같은 속눈섭밑에서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 누구에게라 없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니 반가워요!》라고 살뜰한 인사말을 던질듯 반쯤 열려진 입술…

그중에서도 눈부시도록 하얀 피부는 액틀마냥 그 녀자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있었다.

《피부가 희면 7가지 흠이 가려진다.》는 일본속담도 있듯이 하얀 피부를 갈망하는 녀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우유빛살색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혼을 앗아갔다. 그뿐아니라 무용배우처럼 날씬한 몸을 휘감은 검은 비로도의상 역시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용모를 유감없이 장식하고있었다.

초연한 미소를 머금고 연회장을 둘러본 녀인은 구석진 식탁쪽으로 사뿐사뿐 걸어갔다.

잠시후 놀라움에 찬 목소리가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그 녀자가 찾아간 사람은 만철에 입직한지 얼마 안되는 조선인기사였던 것이다.

《기연씨, 오래간만이예요!》

목금을 두드리는것같은 랑랑한 말소리에 고개를 든 류기연은 두 눈을 끔뻑거렸다.

이게 누군가? 그렇다.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하고 소리없이 웃고 있는 녀자는 려순공대시절 자기를 미친듯이 따라다녔던 시라가와 유끼였다. 기억속에서 영영 지워버렸던 이 녀자가 이렇게 연회장에 나타날줄이야.

《그래, 대학동창생을 이렇게 세워둘셈인가요?》

유끼는 상냥하면서도 세련된 어조로 자리도 권할줄도 모르는 상대방을 가볍게 나무랐다.

류기연은 마지못한듯 식탁 맞은켠을 손으로 가리켰다.

《언어를 절약하는 그 솜씨 여전하군요.》

몇해만에 만난 유끼는 몰라보게 변하였다. 연한 화장을 한 얼굴에는 세련미가 풍기고 언행도 품위가 있었다. 한마디로 자기가 반한 조선청년앞에서 솟구쳐오르는 애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고불고하던

지난날의 랑만적인 일본처녀가 아니였다.

하얀 손가방을 식탁우에 올려놓은 그는 매출한 손가락을 들어 지나가는 접대원을 찾았다.

《포도주 한잔!》

접대원이 물러가자 유끼는 두사람사이에 생겨난 아득한 공간을 메워버리려는듯 친절한 어조로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럭저럭.》

대충 대답한 류기연은 묻는듯한 눈길로 유끼를 건너다보았다.

그 녀자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물결쳤다.

《여름방학때 고향에 내려갔던 일이 생각나세요? 그때 결혼식을 하고 대학에 나타난 당신을 보니 마음이 괴로워서 더 견디지 못하겠더군요. 나중에는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른 대학에 전학갔어요. 졸업후엔 어느한 연구소에서 일했구요.》

쓰디쓴 과거와 영영 리별하려는듯 가방을 손바닥으로 탁 내려친 유끼는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한가지 알려줄게 있어요.》

《말하오.》

《사실 난 당신을 찾아서 만철에 왔답니다.》

류기연은 놀란 눈으로 유끼를 쳐다보았다.

《왜, 제가 또 당신을 따라다닐가봐 겁나는가요? 마음놓으세요. 다신 그런 일이 없을테니.》

불룩한 젖가슴이 들여다보이도록 웃몸을 앞으로 숙인 유끼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난 당신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 녀자의 은근한 말소리가 식탁우를 맴돌고있는데 접대원이 술잔을 올려놓은 다반을 들고 나타났다.

《부탁한 포도주입니다.》

숙녀답게 우아한 자세로 술잔을 넘겨받은 유끼는 유정한 눈빛을 지었다.

《상봉을 축하해서 들자요.》

류기연은 오랜만에 만난 대학동창의 제의를 거절할수 없어 술잔

을 들었다.

세상에 자기의 청을 거절할 남자는 없다는듯 자신만만한 웃음을 머금은 유끼는 두눈을 사르르 내려감더니 포도주를 졸금졸금 들이켰다.

반쯤 비운 술잔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입술을 훔친 그 녀자는 무도장쪽을 할깃 넘겨다보았다.

《우리 춤추지 않겠어요?》

《내가 춤을 모른다는거야 알지 않소.》

《그건 걱정마세요. 제가 배워주겠어요.》

류기연은 자기의 생활령역에 느닷없이 뛰여든 일본녀자, 대학시절 자신을 난감한 처지에 몰아넣었던 유끼에 대한 경계심으로 하여 응하지 않았다.

그쯤하면 아무리 천사라도 모욕을 느꼈으련만 유끼는 난 당신을 노엽게 생각지 않아요라고 하듯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허, 인사불성이구만. 미인이 청하는데 거절하다니.》

이런 말을 건네며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대리과장 오노였다.

류기연은 시무룩한 웃음으로 그한테 유끼를 맡아달라는 암시를 보내였다.

《그럼 내가 대신해줘야겠구만.》

옷매무시를 바로잡은 오노는 유끼를 향해 정중하면서도 절도있게 고개를 숙여보였다.

《아가씨, 춤추지 않겠습니까?》

《고마워요.》

유끼는 방금전에 받은 모욕을 보상하려는듯 그가 내민 손을 주저없이 잡고 무도장으로 걸어갔다.

춤판에 들어선 두사람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인차 호흡을 맞추더니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유끼는 아름다운 얼굴과 늘씬한 몸매에 어울리는 우미하면서도 생기있는 동작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혹은 허공에 쳐든 짝패의 손밑에서 맵시있게 원을 그렸다. 오노 역시 남아답게 시원시원하면서도 배려심있는 춤동작으로 짝패를 이끌어갔다.

자기한테는 응당 그럴 권리가 있다는듯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

보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유끼를 보자 류기연은 마음이 불안해났다.

날 찾아서 만철에 왔다구? … 대체 무엇을 도와준단 말인가?

사실말이지 그 녀자의 출현은 맑은 하늘가에 야금야금 밀려드는 먹구름과도 같았다.

5

교실에 들어선 한홍식은 얼떨떨해졌다.

한주일전 이곳 루씨녀고등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가르쳐야 할 제자들이란 변덕이 심한 사춘기처녀애들이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 하나같이 예쁘고 성숙한 아가씨들이였던것이다.

문득 좀전에 일본인교장이 알려준 말이 생각났다.

《우리 학교는 원래 미국인들이 세웠소. 그래서 학교이름도 창시자의 성을 따서 R자에 성씨자를 붙여 루씨학교라고 부르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인들이 본국으로 떠나가자 우리가 학교를 차지했소. 그건 그렇구 내가 말하자는건 선생이 담임한 학생들이 간단치 않다는거요. 처녀들이라고 우습게 여겼다간 큰코를 다칠수 있소.》

아닌게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이 자기를 말끄러미 쳐다보는 녀학생들을 보자 은근히 긴장되였다.

…보름전에 있은 일이다.

그날도 금붕어들이 헤엽치는 정원에서 아령운동을 맹렬히 하고있는데 군청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눈을 가로뜨고 질책하였다.

《넌 밤낮 그 놀음이냐? 류학물까지 먹었다는 녀석이.》

《…》

《쯧쯧, 남들은 대학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몸가짐부터 달라진다는데.》

한홍식은 난 그런 책상물림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혀끝에까지 묻어나왔지만 어머니가 눈짓하는 바람에 그만두고말았다.

《인차 조선총독부에 들어가는 고등문관시험이 있는데 응시해야겠다.》

《싫습니다.》

한홍식은 손에 들고있던 아령을 땅에 던졌다.

《어째서 말이냐?》

《아버지처럼 왜놈들한테 굽신거리고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대뜸 붉으락푸르락해졌다.

《이놈, 애비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당장이라도 귀뺨을 얻어맞을것같았지만 한홍식은 하고싶은 말을 다하고말았다.

《제가 뭐 잘못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왜놈군수라는거야 온 천하가 알지 않습니까.》

격노한 아버지의 눈두덩이가 푸들푸들 떨었다.

《그럼 네놈은 왜놈이 밉다면서도 어째서 섬나라까지 기신기신 건너가 공부했냐?》

《쪽발이들하구 실력을 겨뤄보려구 그랬습니다.》

말문이 막힌 아버지는 《에익, 건달군같은 녀석!》 하고 욕설을 퍼붓더니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

아령을 도로 집어든 한홍식은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실은 분을 풀자고 하는노릇인데 그럴수록 가슴속에서 울분이 울컥울컥 솟구쳐올랐다.

아버지, 설사 이 아들이 건달군이라고 해도 쪽발이들한텐 굽신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 그런 너절한데나 들어가겠다고 공부한줄 아십니까?

몇해전 한홍식은 아버지한테 졸라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알아보니 섬나라에서는 도꾜제국대학이 제일 이름난 대학이라고 하기에 응시하였다. 천성적으로 머리가 좋고 높은 성적으로 오산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학생들이 문제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있을 때 가득 채운 시험지를 바쳤다.

시험을 다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있는데 도꾜제국대학에서 찾았다.

으리으리한 방에 들어서자 나이지숙한 학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험성적을 종합해보니 이번 응시자들가운데 군의 성적이 제일 높더군. 그래,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싶소?》

《예.》

《우리도 군을 입학시키려고 하오. 헌데 한가지 조건이 있소.》

《뭡니까?》

《그건 군이 우리 야마도민족으로 귀화해야 한다는거요.》

아무리 대학입학을 원한다고 해도 정신이 온전한 조선사람이라면 도저히 접수할수 없는 조건이였다.

《학장선생님, 교육은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험성적이 높으면 누구든지 입학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학장의 눈에 야릇있는 미소가 늠실거렸다.

《그건 옳소. 허지만 우리 대학에는 야마도민족만 들어올수 있소. 그래, 어떻게 하겠소?》

《그 조건이라면 전 대학을 그만두겠습니다.》

《흥분해서 그러지 말구 잘 생각해보우. 만일 학생이 귀화한다면 우린 면비교육을 받도록 해주겠소. 어떻소?》

누구에게나 있어서 면비교육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였지만 한홍식은 단호히 학장방을 나섰다.

며칠 지나 도꾜제국대학정문에 입학공시가 크게 나붙었다. 혹시나하고 입학자명단을 살펴보았으나 어디에도 자기 이름은 없었다. 왜놈들은 제놈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대한 복수로 시험성적이 제일 높은 조선청년을 입학시키지 않았던것이다.

좋다. 끝까지 맞서보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일본에서 수재들만 배출한다는 도꾜물리과대학이였다.

이번에도 그는 입학시험에서 성적이 단연 우수하였다. 은근히 속을 조이며 기다리는데 《운명의 신》이 눈을 감고있었는지 입학자명단의 첫 순위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게 아닌가.

대학에 입학한 그는 모든 과목성적에서 일본인대학생들을 훨씬 릉가하였다.

어느날 학년말시험을 치르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대학적으로 완력이 제일 세다고 알려진 왜놈학생이 거들먹거리며 앞을 가로막았다.

《야, 넌 아무리 실력이 높아도 우리 집 개보다 못해!》

상대가 주먹까지 흔들며 야료하였지만 한홍식은 싱글싱글 웃기

만 하였다.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몰려들었던 왜놈학생들이 역시 식민지백성은 할수 없구나 하고 비웃고있는데 별안간 그의 손이 언뜻하더니 왜놈학생의 육중한 몸뚱이가 복도에 곤두박혔다.

그 일로 한홍식은 왜놈경찰에 끌려가 죽도록 매를 맞았다.

《반도인인 주제에 감히 제국의 대학생을 때린단 말인가?》

채찍이나 몽둥이가 날아들 때마다 어김없이 따르는 욕설이였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오는 길로 그 왜놈학생을 찾아가 또다시 둘러메쳤다.

그 학생의 에미가 기모노자락을 줄줄 끌며 경찰서에 달려가자 한홍식은 두번째로 류치장에 갇히웠다.

얼굴이 퉁퉁 붓고 팔다리가 떨어져나가도록 얻어맞았지만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로 비실비실 달아나는 왜놈학생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어디 또 고발해봐라!》

조선청년의 완강한 기질앞에서 얼혼이 나간 왜놈학생은 손을 쓰기도 전에 기절해버렸다.

이번에는 왜놈학부형들이 도무지 무서운줄을 모르는 조선청년을 대학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들고일어났다.

한홍식은 몇번씩이나 대학을 그만두고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앞날을 위해 꾹 참았다.

그럭저럭 대학을 졸업하자 학장이 따로 불렀다.

《우리가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공부시킨건 그 실력이 아까와서요. 그러니 조선에 돌아가지 말구 여기 남는게 어떻소? 원한다면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소.》

그 권고에 대한 한홍식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단호하였다.

《싫습니다.》

그렇다. 왜놈학생들보다 조선학생의 실력이 우월하다는것을 증명했으니 이 저주로운 땅에 남아있을 리유란 없는것이다.

그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맞춤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채 집안에 들어박혀 공밥을 먹고있었다. 그런 판에 아버지한테서 고등문관시험에 응시하라는 말을 들으니 화가 동했던것이다.

밸통사나운 아들을 걱정스레 지켜보던 어머니가 다가왔다.

《얘야, 이젠 아령은 그만하구 바람이나 좀 쏘이려무나.》

한홍식은 왜놈군수노릇 하는 아버지앞에서는 날이 선 도끼였지만 눈물많고 인정헤픈 어머니앞에서는 화로불앞에 놓인 양초 한가지였다.

대문을 열고 길가에 나서자 향긋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하늘도 그 하늘이고 땅도 그 땅이지만 오래간만에 보는 읍거리는 생소하게 안겨왔다.

음식점과 잡화점이 늘어선 거리를 흔들흔들 걸어가는데 별안간 옆골목에서 《누가 없어요?》 하는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야 하고 골목에 뛰여들자 대여섯명의 왜놈망나니들이 한 조선녀학생을 둘러싸고 희롱하고있었다.

하오리를 걸친 뚱뚱보가 녀학생의 턱을 건드리며 시시덕거렸다.

《나하구 하루밤 곱게 자면 돈을 많이 준다. 히히히!》

녀학생은 눈에 겁기가 어렸지만 고개만은 담차게 가로저었다.

《어, 대일본제국을 위해 봉사나 하기 싫은가?》

그자의 더러운 입김이 얼굴에 확— 끼치자 녀학생은 진저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뒤에 있던 망나니들이 이때다 하고 처녀의 몸에 손을 댔다.

《앗!》

처녀가 몸부림쳤으나 갈퀴같은 손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히야, 통통한게 젖맛이나 있다.》

《다 풀어진 기생들것보다 좋다나.》

징그러운 벌레를 털어버리듯 몸을 비튼 처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사방 징그러운 낯짝일뿐 빠져나갈 틈은 보이지 않았다.

《이 쪽발이놈들아!》

이를 꽉 사려문 처녀의 입술귀로 선지피가 흘러내렸다.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하오리》가 졸개들에게 호령하였다.

《야, 들쳐업어라. 오늘 조선계집맛을…》

그자의 다음말은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뒤에서 뻗쳐온 억센 손아귀가 목덜미를 꽉 움켜잡았던것이다.

엉겁결에 목을 움츠렸다가 상대가 조선청년이라는것을 알아본 《하오리》의 낯짝이 이그러졌다.

《이… 이걸 놓지 못하겠는가?》

숨이 막혀 컥컥거리던 《하오리》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주먹을 날렸다.

그 주먹은 조선청년의 무쇠팔뚝에 부딪치고말았다. 동시에 번개처럼 날아든 한쪽발에 복부를 걷어채우고 너부러졌다.

팔짱을 낀 한홍식은 겨울잠을 깬 누에처럼 꿈틀거리는 《하오리》를 내려다보며 특유의 배포유한 웃음을 짓고있었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하오리》는 멍하니 서있는 졸개들을 보자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뭣들 하는가? 이놈을 죽여라!》

왜놈망나니들이 야구방망이와 일본도를 추켜들고 달려들었다.

한홍식은 먼저 정수리우에 떨어지는 야구방망이를 피해 몸을 슬쩍 옆으로 뽑으며 상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다음은 일본도를 휘두르는 털보의 상통을 차돌이마로 들이받았다. 그러느라니 등뒤에서 단도를 뽑아들고 살금살금 접근하는 왜놈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위기일발의 순간 누군가 왜놈의 다리를 걸어챘다.

온 정신이 조선청년의 뒤통수에 쏠려있던 왜놈은 《엇!》 하고 꼬꾸라졌다.

그제야 위험을 알아차린 한홍식은 돌아서며 왜놈의 멱살을 잡고 둘러메쳤다. 그다음 한쪽발은 땅에 지지하고 다른 발로 콤파스로 원을 그리듯 련거퍼 회전하며 덤벼드는자들을 족족 쓸어눕혔다. 이어 겁에 질려 달아나려고 하는 《하오리》앞으로 다가갔다.

다음순간 왜놈의 몸뚱이를 휘감은 하오리가 두갈래로 쫙 찢어져나가더니 애기기저귀같은 훈도시가 드러났다.

급해맞은 왜놈은 두손으로 사타구니를 덥석 가리웠다.

《또 못되게 놀겠는가?》

《하오리》는 서푼도 못되는 자존심때문인지 응답하지 않았다.

한홍식의 손이 왜놈의 턱을 보기 좋게 후려갈겼다.

《어헉!》

숨넘어가는 비명을 지른 《하오리》는 옆으로 돌아간 턱을 붙잡고 죽는 시늉을 하였다.

《그래, 조선처녀를 희롱하겠어?》

왜놈은 창황중에도 황급히 입을 벌렸다. 그런데 턱이 제자리

에 돌아가지 못해서 그런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는노릇이 그만 《예!》 하고 대답하고말았다.

《뭐야? 이놈이…》

눈앞에 큼직한 주먹이 불쑥 나타나자 《하오리》는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다시 대답해!》

《아, 안그러겠습니다.》

《더 크게!》

아직도 무서운 주먹이 자기를 겨누고있는것을 알아본 왜놈은 야마도민족의 존엄이고 뭐고 죄다 집어던지고 목청껏 소리질렀다.

《안그러겠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나오자 한홍식은 《작별인사》라도 하듯 박력있는 옆차기를 한대 먹였다.

저쯤에 뿌리워진 왜놈은 끙끙거리다가 이쪽에서 발을 한번 구르자 턱을 부여잡고 잽싸게 달아났다.

한편 녀학생은 자기를 구원해준 청년을 고마운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이 사람이 아니였다면 난 어떻게 됐을가? 왜놈들한테 끌려가 수치를 당했을거야. 아이, 박천땅에 이런 사나이가 있다니.

하지만 처녀는 그가 중학교시절 동창생인 손기정(베를린올림픽경기에서 우승하였지만 앞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던 비극의 주인공)과 어깨를 겯고 서울장안을 밀려다니던 젊은이였으며 도꾜물리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자기를 깔보는 왜놈학생을 둘러메친 청년이라는것을 알수 없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쫓겨가는 왜놈무리를 바라보던 한홍식은 녀학생이 자기를 향해 나부시 절을 하자 당황해났다.

《이러지 마오. 참, 다친덴 없소?》

녀학생은 얼굴을 붉히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럼 가보오.》

녀학생은 다시한번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다.

그 모습을 흐뭇해서 지켜보던 한홍식은 아차! 하고 뒤를 돌아보

았다. 저쯤에서 녀인과 함께 아이의 손목을 잡고가는 남자가 보였다.

한달음에 뛰여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고맙습니다. 형장이 아니였다면…》

한홍식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던 왜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생명의 은인에게 사내답게 큰절을 하였다.

듬직하게 생긴 그 남자는 그게 무슨 큰일이냐고 하듯 씩 웃었다.

그것은 일부러 겸손한 티를 내려고 지어낸것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웃음이여서 한홍식은 대뜸 마음이 끌리고말았다.

《우리 집이 가까운데 식사라도 같이하지 않겠습니까?》

은인의 얼굴에 딱해하는 기색이 어렸다.

남편을 대신하여 유순한 눈매를 가진 안해인듯한 녀인이 량해를 구하였다.

《성의는 고맙지만 우린 바쁘답니다.》

《그럼 대신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생명의 은인은 다시금 사람좋게 웃어보이더니 돌아섰다. …

누군가 헛기침을 하는 바람에 한홍식은 정신을 차렸다. 호기심을 담은 수십쌍의 눈동자가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다들 앉으시오!》

6

교실안은 그림자들이 앉아있는것처럼 조용하였다.

《내 이름은 하마다 다찌죠입니다.》

한홍식은 《나의 진짜이름은 한홍식입니다.》 하고 말하고싶은것을 꾹 참았다. 어른들은 말할것도 없고 소학교아이들까지도 조선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벌금 5전을 물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목검이나 회초리로 얻어맞거나 머리에 물통을 올려놓고 학교운동장에 몇시간동안 꿇어앉아야 하는 모진 세월이였다. 더구나 복도창문너머에 일본인교장의 머리가 얼른거리고있었다.

《오늘부터 내가 학생들을 담임하게 되였습니다. 먼저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출석부에 씌여진 학생들의 이름들을 차례차례 부르던 한홍식은 마지막이름을 불렀다.

교실중간쪽에서 몸이 뚱뚱한 녀학생이 느릿느릿 일어났다.

《어디 아픕니까?》

《아닙니다.》 하고 대답한 녀학생은 책상우에 두손을 벌려짚었는데 퍼그나 불손해보였다.

《학생, 바로서시오!》

녀학생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한본새였다. 오히려 교원의 요구가 불만스럽다는듯 두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는것이였다.

한홍식은 첫 수업인데 그냥 넘어갈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렇지만 양보하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 듣지 못했습니까?》

《…》

《듣지 못했는가?》

교원의 어성이 높아졌지만 녀학생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있었다.

한홍식의 너부죽한 얼굴에 싱글싱글 웃음이 떠올랐다. 잘못 판단하면 큰코를 다치는 심상치 않은 웃음이였다.

아닌게아니라 녀학생은 교원이 자기를 용서한줄로 알고 자리에 앉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찰나 쾅!— 하고 요란한 소리가 터졌다. 한홍식의 두터운 손바닥이 교탁을 내리쳤던것이다.

《어마나!》

《아야!》

깜짝 놀란 녀학생들은 불판에 오른 콩알들처럼 콩당콩당 뛰여일어났다.

한홍식의 입에서 불호령이 쏟아져나갔다.

《당장 뒤에 가지 못하겠는가?》

교원의 험악한 기상에 겁을 집어먹은 녀학생은 황황히 교실뒤로 갔다.

그때 교실안에 드리운 팽팽한 공기를 헤가르며 청아한 목소리가 울렸다.

《선생님!》

한홍식은 창가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눈빛이 류달리 맑은 눈동자가 마주보고있었다.

가만, 어디서 봤더라?

분명 낯익은 얼굴인데 잘 기억나지 않았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허, 대단한 인도주의자로군.

슬쩍 복도쪽을 살폈다. 첫 수업을 감시하던 교장은 일이 그쯤되자 마음을 놓았는지 자리를 뜨고 없었다.

《학생의 조선이름은 뭐요?》

교원의 입에서 별안간 조선말이 튀여나오자 녀학생은 흠칫 놀랐다. 수업시간에 조선말이 오간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던것이다.

그는 반사적으로 복도쪽을 살폈다. 그러다가 동료들이 손짓과 고개짓으로 안전신호를 보내자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박순애입니다.》

《박순애. 헌데 어째서 대신 벌을 서겠다는거요?》

《저 진희는…》

얼핏 교실뒤쪽에 서있는 동료를 돌아본 녀학생은 우물쭈물하였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동무를 도와주려는 순애의 고운 마음씨가 달아올랐던 가슴을 식혀주었다.

《순애학생은 앉으시오. 그리구 학생은 이름이 뭐요? … 음, 김진희, 이젠 제자리에 가앉으시오.》

김진희가 약간 살룩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가자 한홍식은 흑판에 백묵을 가져갔다.

《제4절 뉴톤의 제1법칙》

흑판에 쓴 제목을 보느라니 대학시절 학문을 파고들 때 솟구치군 하던 향학열이 되살아났다.

《오늘 배우게 되는 뉴톤의 제1법칙은 물체의 속성으로써 관성운동을 표현한 법칙입니다. 물체가 자기의 등속직선운동상태 또는 정지상태를 보존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뉴톤의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며 정지 또는 등속직선운동을 관성운동 혹은 관성에 의한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던 한홍식은 제 동무를 대신하여 벌을 서겠다고 나섰던 순애를 지명하였다.

《학생은 달리기를 좋아합니까?》

《예.》

《학생이 지금 100메터를 달린다고 가정합시다. 뒤에선 일본학생들이 바싹 따르고있습니다. 학생은 그들을 떨구려고 힘껏 뛰고있소. 이렇게… 이렇게 말이요.》

교탁을 에돌아나온 한홍식은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고 냅다 달리는 시늉을 해보였다.

교실뒤쪽에서 누군가 키득키득 웃었다.

겁에 질려 할끔할끔 문쪽을 돌아보던 녀학생들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있는 교원을 보자 일제히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끝내 학생은 결승테프를 끊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순애학생, 결승선에 들어섰다고 해서 즉시 그 자리에 멈춰설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몇발자국 더 뛰여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지 또는 등속직선운동을 하는 물체는 밖으

로부터 힘의 작용을 받지 않는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젠 알만합니까?》

《예.》

《이번에는 학생이 실례를 들어보시오.》

생각을 굴리느라고 깜빡거리던 순애의 두눈이 반짝 빛났다.

《어제 교장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옆에 앉은 녀학생이 순애의 옷자락을 톡톡 잡아당겼다. 다른 녀학생들도 아짜아짜한 눈으로 순애와 교탁쪽을 번갈아 보았다.

그런데도 순애는 개의치 않고 설명을 계속하였다.

《…앞에서 미야모도경부가 나타났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급히 자전거를 멈춰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 굴러가다가 전주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만약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교장선생님은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수리소에 가지 않았을겁니다.》

한홍식은 일본인교장을 감히 실례로 삼은 순애의 대담성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원래 일이 제대로 되자면 교장소리가 처음 나왔을 때 중지시켜야 했었지만 실감있게 설명하는 제자를 방해하고싶지 않았다.

그가 설명을 잘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녀학생들은 야!—하고 탄성을 올렸다.

계속하여 다른 학생들의 리해정형도 료해한 한홍식은 대답을 잘한 학생은 칭찬해주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런 속에서 교실안의 분위기는 점차 활기롭게 번져갔다.

한홍식의 설명은 더욱 열정적으로 흘러갔다.

《뉴톤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며 수학자, 천문학자이기도 하였지만 운명은 불행하였습니다. 그가 태여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전에 세상을 떠났고 세살 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재혼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뉴톤은 할머니손에서 자랐는데 다행히도 그의 재능을 발견한 삼촌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할수 있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입학하여 기하학교수 바로우의 영향을 받아 케플레르의 광학, 데까르뜨의 기하학과 굴절광학 등을 연구하였고 졸업한 후 고향에 돌아와 수학과 력학, 광학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고 연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시기에 벌써 뉴톤은 빛의 스펙트르분해, 만유인력 및 미적분법발견

의 기본실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느라고 뉴톤은 종신 결혼하지 않고 한생을 과학에 깡그리 바쳤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강조하겠습니다.》

녀학생들은 정숙해서 엄엄한 표정을 지은 교원을 지켜보았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생은 그가 누구이든 용서치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하겠습니다.》

교수안을 들고 출입문가로 걸어가던 한홍식은 무춤 멈춰섰다. 작고 동그란것이 또르르 굴러오다가 반들반들한 그의 구두와 부딪쳤던 것이다.

순간 뚜껑이 열리며 하얀 가루가 확 쏟아져나왔다.

《어마나!》

앞책상에 앉아있던 박명숙이라는 녀학생이 바삐 뛰여나오며 손으로 곽을 덮쳤다.

《이건 뭐요?》

얼굴이 빨개진 녀학생은 분곽을 등뒤에 얼른 감추었다.

《앞으론 가방에 분곽보다 책을 더 많이 넣고 다녀야겠소.》

첫 수업을 마친 교원한테서 공부도 아니고 분곽때문에 지적을 받은 녀학생은 너무나 부끄러워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교원이 나가버리자 녀학생들은 빨래줄에 올라앉은 제비들마냥 지지배배거렸다.

《정말 대담한 선생님이구나.》

《난 선생님이 우리 말로 수업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

《나도 같애. 참, 얘들아, 이건 절대비밀이야!》

《아무렴, <국어애용함>에 가는 애는 가만두지 말자!》

《국어애용함》이란 일본말을 쓰지 않고 조선말을 한 교원,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집어넣도록 교실과 복도에 만들어놓은 함이였다. 그 함에서 이름이 나오면 그가 누구이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분곽때문에 망신당한 명숙은 그 일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은 모양 입에 밤알을 물고 토달거렸다.

《흥, 그래두 난 그 사람이 미워. 꼭 고대로마의 폭군 네로같다니까.》

하마트면 벌을 설번하다가 관대하게 용서받은 김진희도 앵돌아져

서 합세하였다.

《인정미란 꼬물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남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찧고 까부는 그들의 머리우에 오달진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뒤에서 선생님을 욕하는건 옳지 않아.》

불평을 쏟아놓고있던 명숙이와 진희는 두눈을 찌프리며 돌아보았다.

《넌 왜 그 사람 편역을 드니? 미리부터 잘 보여서 시험에서 통과되자는거지?》

명숙은 큰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떠들었다.

《애두 참, 난 그저 우리가 너무한것같애서 그러는거야.》

동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교원을 옹호한 녀학생은 다름아닌 순애였다.

한편 첫 수업을 끝내고 복도로 걸어가는 한홍식의 마음은 서름서름하였다.

아직도 자신이 교단에 섰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어느한 집앞에서 멈춰섰다. 널직한 뜨락에서 한 남자가 어머니인듯한 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는데 뜻밖에도 아까 헤여진 은인이 아닌가.

곁에는 바쁘다면서 량해를 구하던 그의 안해도 보였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집구석에 박혀있다보니 사람들을 별로 알지 못하였지만 좋은 사람을 또 놓칠것같아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녀인을 향해 먼저 허리를 굽석한 한홍식은 생명의 은인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건 하늘의 뜻인것같습니다. 전 한홍식이라고 합니다.》

은인도 의젓하게 자기소개를 하였다.

《류기연이요.》

두사람이 소통을 하는 동안 류기연의 안해는 시어머니한테 귀속말로 소곤소곤 알려주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임자 목숨을 구원해

주었다면 필시 보통인연이 아닐듯싶으니 방에 들어가자고 손을 잡아 끌었다.

한홍식은 은인을 집에 데려가고싶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모자간의 상봉을 깨뜨릴수도 없고 더구나 왜놈군수노릇을 하는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될가봐 두려워 못견디는척하고 끌려들어갔다.

점심식사가 끝난 후 류기연과 한홍식은 살구꽃이 하얗게 피여있는 뜨락으로 나왔다.

한홍식은 어쩐지 친형처럼 생각되는 류기연앞에 마음속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왜놈군수를 하는 아버지, 도꾜물리과대학시절, 집에 박혀 보낸 지루한 나날…

이야기를 다 듣고난 류기연은 이런 말을 꺼냈다.

《홍식군은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오?》

《기술이 약해서입니다.》

《옳소. 기술이 약해서 왜놈들이 대포로 무장하고 군함을 바다에 띄울 때 화승대와 매생이밖에 없었던거요.》

한홍식은 귀를 세우고 비분강개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말이요. 난 군이 교편을 잡는게 어떨가 하오.》

《예? 교편 말입니까?》

한번도 자기가 교원노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로서는 놀랄수밖에 없는 일이였다.

《에이, 난 재목이 못됩니다. 이걸 보십시오.》

한홍식은 몸단련을 부지런히 하여 울근불근한 팔근육과 솥뚜껑같은 손을 내보였다.

류기연은 씩 웃었다.

《그렇다고 교원을 못한다는 법이 있소? 문제는 교육을 진흥시켜 민족의 힘을 키우는거요. 그래야 하루빨리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소.》

그 견해에 공감한 한홍식은 주먹으로 가슴을 툭 쳤다.

《에라, 그럼 형님말대로 교편을 잡아보리다.》

《리해해주니 고맙소.》

두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속이 후련하게 웃었다.

생활에서는 잠간 만나도 뜻이 통하는 사람이 있기마련인데 류기연과 한홍식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였다. 두사람이 만난지는 고작해야 한겼도 안되는데 그동안에 가까운 사이로 되여버렸다.

그날 밤 《하오리》의 고소를 받은 왜놈경찰이 한홍식의 집에 들이닥쳤다.

가해자의 부친이 군수인데다 묵돈까지 듬뿍 받아쥐자 경찰들은 군수령감님이 자식통제를 잘해야지 우리가 난처해집니다 하고 우는 소리를 늘어놓다가 돌아갔다.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는 소개신을 써주었다.

《내가 찾을 때까지 원산에 내려가있거라.》

아버지는 자식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였지만 한홍식한테는 울고싶은데 뺨쳐준 격이였다. 이렇게 되여 박천군을 들었다놓은 쾌남아 한홍식은 녀학생들이 우글거리는 녀고등학교에 온것이다. …

《하마다선생, 첫 수업을 하고보니 감상이 어떻소?》

교원실에 들어서자 일부러 기다리고있던 교장이 묻는 말이였다.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흠, 그럼 좋구만.》

당신이 도꾜물리과대학을 졸업한 수재라고 해도 내가 받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유명한 학교에 들어올수 있었느냐고 암시하듯 거드름스러운 표정을 지은 교장은 훈시를 늘어놓았다.

《전번에도 말했지만 선생이 담임한 학생들의 경향이 좋지 못하오. 얼마전에도 도미에라는 학생이… 참, 그 학생을 아오?》

한홍식은 교장이 말하는 도미에가 순애라는것을 알았다.

《…그 학생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소. 그게 어디 있을법한 일이요? 경찰서에서 당장 취조하겠다는걸 내가 겨우 무마시켰소.》

그 어조에는 일종의 자랑기가 넘쳐났지만 전혀 무근거한 말이라고 볼수 없었다. 며칠전에도 대여섯살 나는 총각애가 뗨박질을 하느라고 《신사》앞을 그냥 지나갔는데 경찰이 채찍으로 야들야들한 종아리를 사정없이 갈기고 나중에는 부모들까지 끌려와 곤욕을 치르었던것이다.

《<천장절>(왜왕의 생일)행사때도 보면 그 학급 학생들이 대충절을 하는데 단단히 통제해야겠소. 그건 그렇구 과덜커낼전투소식을 들었소?》

한홍식은 교장이 왜 그 말을 꺼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듣지 못한게구만. <황군>은 진주만해전에서 승리한 후에도 계속 대승하고있소. 지난달에도 과덜커낼전투에서 적군을 크게 이겼다더군.》

교장은 무슨 소식을 얻어들으면 남한테 전달하지 않고 못견디는 사람이였다. 하지만 그속에서도 푼푼히 남아돌아가는 《애국심》을 발휘하였으니 전투의 진짜내막을 뒤집어서 마치도 《황군》이 승리한것처럼 묘사하고있었다.

한홍식은 소태를 씹은것처럼 입안이 쓰거워났다. 그는 밤마다 아버지가 사준 성능좋은 라지오를 듣군 하여 그 전투소식을 상세히 알고있었던것이다.

미국은 수십척의 함선과 병력을 내몰아 일본군이 솔로몬제도일대의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장을 건설하고있던 과덜커낼섬을 불의에 공격하였다.

당시 그 섬에는 수만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있었는데 식량과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기아와 무방비상태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미군의 무자비한 함포와 기관총사격앞에 나선것은 굶주려서 허덕이는 거대한 거지무리였다.

결국 전투는 일방적인 살륙행위로 끝났으며 태평양전쟁에서 왜놈들이 당한 가장 치욕스러운 패전으로 기록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자기한테 엄청난 거짓말을 늘어놓은것은 소위 대일본제국의 위력을 과시하여 식민지백성을 고분고분하게 만들자는 속심때문이였다.

7

《기연씨, 한번 조용히 만났으면 해요. 시간과 장소는 당신이 정하세요. 유끼.》

사무실에서 편지를 읽고난 류기연은 심중이 복잡해났다.

연회장에서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유끼는 《난 당신을 도와주려고 해요.》라고 말했었다. 그날도 마음이 편치않았는데 이렇게 편지까지 받고보니 더욱 께름해났다.

어째서 만나자고 할가? 혹시 그때 일을 잊지 않고있는게 아닐가?

편지를 양복주머니속에 집어넣고 기술도서를 펼쳐들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건지 글줄은 흐늘흐늘 사라지고 그우에 려순공과대학 운동장이 두루마리를 쭉 편것처럼 나타나는것이였다.

…원뿔모양의 마분지나팔을 입에 댄 심판원이 소리쳤다.

《다음은 800메터달리기, 선수들은 입장하시오!》

응원석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출발선을 차지하였다.

《준비!》

심판원이 신호총을 머리우로 쳐들자 머리를 모으고 쑤군거리던 일본선수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경기에 반도인이 참가했는데 퇴장시키십시오.》

《그와 함께 뛰는건 야마도민족의 수치입니다.》

《우린 집단퇴장하겠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출발자세를 취하고있던 류기연은 얼굴이 굳어졌다. 일본선수들이 말하는 반도인이란 바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였던것이다.

그는 일본선수들이 어째서 자기를 기어코 퇴장시키려는지 알고있었다. 그자들은 야구팀 타수로서 워낙 달리기를 잘하는 자기가 우승할가봐 불안해하고있었다.

문제는 심판원의 태도였다. 일본선수들의 위협에 놀랐는지 아니면 그자신도 일본인이여서 조선청년의 존재가 눈에 거슬렸던지 당장 퇴장하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던것이다.

류기연은 우뚝 뻗치고 서서 따져물었다.

《내가 왜 퇴장해야 합니까?》

《퇴장하라면 퇴장하지 무슨 말이 많은가?》

《난 퇴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중국인대학생들이 앉아있는 응원석에서 우ー 하는 불만소리가 터져올랐다.

《그 선수를 참가시키라!》

《경기는 공정해야 한다!》

응원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움츠러든 일본인심판원은 할수없이 류기연의 경기참가를 승낙하고말았다. 하지만 그가 일본선수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지는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땅ー 하는 신호총소리가 울렸다.

선수들은 둥지에서 쏟아져나온 새들마냥 와르르ー 내달렸다.

류기연은 앞장에 서지 않고 중간에서 달렸다. 800메터달리기는 100메터달리기와 달라서 처음부터 기운을 뽑으면 끝까지 달릴수 없다. 힘을 조절하면서 뛰고있는데 앞서나갈줄 알았던 일본선수들이 주위에서 맴돌고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달리였다.

운동장을 세바퀴 돌았을 때부터 점점 속력을 내기 시작하였다. 다른 선수들을 따라앞서며 앞으로 쭉 빠져나갔다.

갑자기 앞에서 달리고있던 일본선수가 납작 엎드렸다.

그통에 류기연은 미처 피하지 못한채 그의 잔등을 타고 허공으로 솟구쳐올랐다가 꽝 하고 떨어졌다. 땅에 짓쫗은 무릎이 못견디게 아파났다.

가까스로 참고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지나가던 일본선수가 발을 헛디딘것처럼 하면서 몸으로 콱 밀쳤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또다시 넘어지고말았다.

《기연이!》

이를 사려물고 고개를 들자 일본선수들은 멀리 달아나고 고수머리를 마구 쓸어넘기는 추진석의 모습이 안겨왔다.

《세상에 이런 너절한 경기가 어디 있어? 싹 걷어치우라구!》

얼핏 가늠해보니 힘껏 달린다고 해도 일본선수들을 앞서기는 힘

들었다. 아니, 불가능하였다. 아마 그때문에 친구도 경기를 걷어치우라고 한것이다. 하기야 이제 와서 경기를 포기한다고 해도 탓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자신을 위안하던 류기연은 채찍에 후려맞은것처럼 정신이 버쩍 들었다.

아니, 포기할수 없다. 끝까지 달려서 이겨야 한다!

자리를 차고 뛰쳐일어나 아픔을 참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기연이, 서라구. … 내 말을 못들었나?》

뒤에서 친구의 성난 목소리가 따라왔지만 그냥 뛰여갔다.

얼마쯤 달리는데 운동화뒤축이 벗겨졌다. 언제 그걸 바로 신을사이도 없었다. 거치장스러운 운동화를 아예 벗어던지고 있는 힘껏 내달렸다.

다른 선수들한테 퍼그나 뒤떨어진데다 다리까지 절면서 달리는 조선청년은 이미 관객들의 관심밖에 밀려나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결승선으로 육박하고있는 일본선수들한테 쏠려있었다.

모두의 상상을 뒤집어엎는 일이 일어난것은 그때였다. 까마득하게 떨어졌던 조선청년이 폭발적인 힘으로 선수들을 따라앞서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이제는 모든 관중들이 숨을 멈추고 두번째 순위에서 달리고있는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히야, 저 친구 대단한데.》

《쾌속정같구만.》

폭발적인 속력을 내고있는 류기연의 몸에서 불가항력의 의지가 뿜어나오고있었다. 누를수록 튀여오르는 용수철과도 같은 기개가 솟구치고있었다.

빨간 종이테프가 드리운 결승선이 가까와오고있었다. 두팔을 휘저으며 죽기내기로 달리는 일본선수의 잔등이 시시각각 육박해왔다.

읍!— 하고 그를 따라앞서는것과 동시에 가슴으로 결승테프를 통쾌하게 끊어버렸다.

응원석에서 함성이 터져올랐다. 응원자들은 비록 일본선수들의 방해로 도중에 쓰러졌지만 끝까지 달리고달려 우승한 조선청년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었다.

추진석이 달려와 류기연을 버쩍 안아올렸다.

《정말 잘했네. 끝내 1등했단 말일세. 하하하!》

자기가 언제 경기를 걷어치우라고 만류했던가싶게 좋아하는 그를 보며 류기연은 씩 웃었다.

《헌데 꼭 맨발로 뛰여야겠나?》

《어쨌든 왜놈들을 이기지 않았나.》

피범벅이 된 친구의 발을 아픈 눈길로 내려다보던 추진석은 잔등을 들이댔다.

《자, 업히라구.》

류기연은 한손으로 그의 잔등을 슬며시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을 한쌍의 매력적인 눈동자가 쫓고 있었다.

다음날 오후 류기연은 책가방에서 편지봉투를 발견하였다.

속지에 갸씀갸씀하고 획이 또렷한 일본글자가 적혀있었다.

《기연씨, 당신은 <우리는 승리하였다!>라는 말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진 아테네군인보다 더 장해요! 앞으로 계속 분발하기를 바라면서. 당신의 지지자로부터.》

필체와 내용을 보면 녀자가 쓴것이 분명하였다.

대체 누굴가?

며칠 지나 하숙집에 돌아오니 종이포장을 한 꾸레미가 놓여있었다.

포장지를 펼치자 웬간한 대학생들은 엄두를 못내는 비싼 륙상신이 나타났다. 그우에… 쪽지편지가 놓여있었다.

《여기에 제 마음을 다 담았으니 받아주세요!》

명백한것은 이 모든것이 한 처녀의 소행이라는것이였다.

륙상신을 방구석에 밀어놓았다. 천사같은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싶었지만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받을수 없었다.

그후에도 글줄마다에 련정을 담은 편지는 가방과 하숙집에서 때없이 발견되였다.

달이 바뀌여 여름방학이 닥쳐왔다.

류기연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이번 방학기간 대학에서 공

부하겠다고 편지를 띄우고 대학도서관에 들어박혀 철도기술과 관련한 참고서들을 뒤적거렸다.

그날도 대학에서 돌아와 압축기구조를 그리고있는데 가볍게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싱겁기란, 언젠 두드리지도 않고 잘만 들어오더니.

이맘때면 추진석이 찾아와 온 세계를 들었다놓은 도이췰란드의 뽈스까침공에 대한 견해를 나누군 하였던것이다.

이제 들어오겠지 하고 도면을 마저 그리는데 또 문을 두드린다.

《그만 두드리구 들어오게.》

방문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친구가 제발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였다.

갑자기 방안에 진한 분냄새가 들어찼다.

웬 일인가 하고 머리를 들던 류기연은 몸이 굳어졌다. 문가에 서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무척 아름답게 생긴 처녀였다.

《안녕하세요? 전 유끼라고 해요.》

그러고보니 강의실중간에 앉아있는, 가끔 자기쪽을 돌아보군 하던 녀학생이였다. 그를 인차 알아보지 못한것은 늘 입고 다니던 학생복이 아니라 화려한 양복차림을 했기때문이였다.

《저, 앉아도 될가요?》

유끼라고 소개한 처녀가 생긋 웃으며 건네는 말이였다.

그제야 류기연은 자기가 손님한테 자리도 권하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았다.

서둘러 방바닥에 널려있는 도면을 걷자 유끼는 두손으로 치마자락을 쓸어내리며 얌전하게 꿇어앉았다.

《말씀드릴게 있어 왔어요.》

《?》

《어째서 륙상신을 신지 않는가요?》

아, 이 처녀였구나!

처녀가 볼가봐 구석에 밀어놓았던 륙상신을 몸으로 슬그머니 가리웠다.

《달리 생각마세요. 그저 한번 물어본거랍니다.》

유끼는 얼굴도 곱지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간도 가

지고있었다. 다른 처녀 같으면 자기의 성의를 무시한 남자가 섭섭하겠는데 그런 기색이란 꼬물만큼도 없었다.

구석에 빨래감들이 박혀있고 먹다 남은 음식그릇들이 널려있는 방안을 재미난듯 둘러보던 유끼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만난김에 한가지 부탁해도 될가요?》

《말하오.》

《기연씨한테서 학습방조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류기연은 속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 처녀는 어째서 하필 나한테서 학습방조를 받자고 하는가?

《물론 절 가르쳐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허지만 어쩐지 눈에 차지 않는군요.》

잠시 말을 끊었던 유끼는 간절하게 청하였다.

《전 꼭 기연씨한테서 배우고싶어요. 뛰여난 실력, 불패의 야구팀 타수, 맨발로 우승한 사나이… 그런 남자를 존경하고 따르는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가요?》

류기연은 이런 경우와 부닥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그리고 설사 공부를 배워준다고 해도 처녀총각이 한방에 같이 있는것은 좋은 일 같지 않았다. 더우기 상대는 일본처녀가 아닌가.

《기연씨, 승낙해주세요. 예?》

유끼는 안타까운 모양 무릎걸음으로 바싹 다가들었다.

순간 처음 맡아보는 녀자의 살냄새가 풍겨왔다. 페장으로 흘러들어간 그 냄새는 몸안에서 이상한 반응을 일으켰다. 방금전까지 멀쩡하던 머리가 어질어질해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관자노리도 풀떡풀떡 뛰기 시작하였다.

《아이, 어서요!》

유혹의 빛을 띠운 두눈과 빨갛게 연지를 바른 입술이 가까와지고있었다.

찰나 가슴속에서 경계의 종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안됐지만 난 배워줄수 없소.》

《제가 일본처녀라고 멀리하는건 아닌가요?》

유끼는 자기의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있었다.

뭐라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도면에 눈길을 박았다.

유끼도 승낙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으려는듯 방바닥에 뜻모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젊은 남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있는 방안에는 뭐라고 이름할수 없는 야릇한 공기가 흐르고있었다.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주인집녀자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식사준비가 됐는데 어쩔가?》

류기연은 마침이라는듯 얼른 몸을 일으켰다.

《아주머니, 수고했습니다.》

그때에야 일이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유끼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전 돌아가겠어요. 안녕히!》

방문이 닫기고 또각거리는 구두소리가 멀어지자 류기연은 후유-하고 막혔던 숨을 내쉬였다.

다음날부터 유끼의 태도는 달라졌다.

강의실이나 복도에서 만나면 고개를 돌리고 못본척하였다. 한번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책상에 앉았는데 빈 책상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것이였다.

류기연은 자기와 유끼사이의 일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단정하였다.

어느날 하숙집에 들어서니 방가운데 밥상이 놓여있었다.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숙집 주인녀자는 얼마동안 조선에 있는 친정집으로 건너갔던것이다.

문득 어디선가 자기를 지켜보는 눈초리를 감촉하였지만 그가 누군지 알수 없었다.

며칠후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뜨락을 가로건너간 빨래줄에 게으른 독신자가 처박아두었던 옷가지들이 맑은 물을 뚝뚝 떨구며 걸려있었던것이다.

마치도 풀기 어려운 복잡한 방정식과 맞다들었을 때처럼 머리가 뗑해났다.

그무렵 려순거리에는 랑설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그 처녀가 반도인녀석한테 홀딱 반했다누만.》

《망할 년, 야마도민족을 망신시키다니.》

《글쎄 그 녀석이 방을 청소하라고 하면 <하이!> 하고 청소하고 발을 씻으라면 <하이!> 하고 발을 씻어준다누만.》

날개가 돋친것처럼 퍼진 그 소문은 류기연의 귀에도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자기와 유끼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 꺼릴게 없다는듯 공부에 전심하였다. …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회의실에 모여야겠소.》

오노의 다급한 말소리에 눈앞에 펼쳐졌던 추억의 두루마리가 사라졌다.

류기연은 눈에 안겨오지도 않는 기술도서를 접고 일어났다.

일본인기사들이 빠져나가는 출입문가로 걸어가는데 오노가 멈춰세웠다.

《류기사는 먼저 퇴근하오.》

그가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남들은 회의에 참가하는데 왜 나만은 먼저 퇴근하라고 하는가?

다음순간 몹시 따분해하는 오노를 보자 소스라치듯 깨달았다.

그렇다. 자기는 회의에 참가할 자격도 없는 기사 아닌 기사였다. 지금까지는 구마모도나 이노우에의 태도를 개별적인간들의 감정으로 여겨왔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였다. 만철이라는, 아니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조선사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있었다.

류기연은 손에 들고있던 기술도서를 꽉 움켜쥐였다.

8

오늘도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천연스러웠다.

아무 일도 없었던듯 아들애를 불안고 돌아가더니 서툰 재간에 나무권총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톱으로 판자를 켜고 손칼로 썩썩 깎다가 그만 손을 베고말았는데 천오래기로 둘둘 감고는 칼질을 계속하는것이였다.

려주는 더는 참을수 없었다. 이제 속을 터놓겠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남편은 며칠이 지나도록 한본새가 아닌가.

남편한테 좋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눈치챈것은 첫 출근날이였다.

그날 대문앞에서 퇴근해온 남편을 만나자마자 다른 일은 없었는

가고 물었었다. 남편은 못들은척하고 아들애를 어깨우에 올려놓더니 말처럼 뜨락을 뛰여다녔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였다.

대학시절 남편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오면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들애의 볼을 슬쩍 만져주는것이 고작이였다. 세해전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등을 떠밀려 만주로 건너왔을 때도 이녀석, 퍼그나 컸는걸 하고 발발 걸어다니는 아이의 엉치를 두드려주었을뿐이다. 그랬던 사람이 아이를 목마태우고 얼굴과 손까지 씻어준것이다.

《음!—》

또 칼에 베였는지 남편은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재간도 재간이지만 그보다는 정신이 다른 곳에 가있기때문이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럴가?

대부분의 안해들이 그러한것처럼 려주도 남편의 눈빛과 손짓 하나 놓치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두었다가 마치 배추를 송송 썰듯 분석해보군 한다. 그러느라면 《배추》의 속살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기쁨은 곱절로 커지게 하고 슬픔은 한결 덜어지게 하는 방도가 생각났다. 지금도 그렇다. 좀전에 남편의 가방에서 꺼내보았던, 절반도 비우지 못한 밥곽과 김치그릇을 보자 그로부터 산생된 감정이 마음속에서 열심히 《료리》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남편은 김치라면 오금을 못쓴다. 간혹 입맛이 떨어져 밥상에서 물러났다가도 김치만 오르면 슬금슬금 다가앉아 밥을 료정내군 하였다. 하도 김치를 좋아하기에 한번은 김치가 그렇게도 맛있는가고 물어보았었다.

《맛있지 않구.》

그런 사람이 유리단지에 차곡차곡 넣어준 김치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직장에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사실을 숨기려 한다. 어쩌면 그럴수 있담? 날 안해로 여긴다면 무슨 일이든 숨기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남편은 아직도 아들애한테 줄 나무권총을 깎아주느라고 극성이였다.

《여보, 식사하세요!》

《어, 먹어야지.》

손칼과 나무권총을 토방우에 내려놓은 남편은 모르쇠를 하고 방

으로 들어갔다. …

깊은 밤 려주는 아이가 차던진 이불을 덮어주고 몸을 일으켰다.

미닫이문을 조용히 열자 뜨락에 서있던 남편이 뒤를 돌아보았다.

《여보, 그러다 밤을 새우겠어요.》

뜨락으로 내려선 려주는 맥없이 늘어진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좀더 있겠소.》

휘영청 밝은 보름달도 가셔내지 못한 그늘이 남편의 얼굴에 비껴있었다.

그 모습을 보느라니 가슴속에 련민의 정이 그들먹하게 차올랐다.

《물론 온종일 집안에만 박혀있는 제가 당신을 크게 도와드리진 못할거예요. 그래도 알고싶어요. 전 당신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눠야 할 안해이기때문이예요. 헌데 당신은 어째서 제가 안해의 본분을 다할수 있게 해주지 않는가요? 어째서 괴로움을 저한테 터놓지 않는가 말예요.》

그 안타까운 호소가 마음을 울렸는지 빗장을 지른것처럼 다물려있던 남편의 입술이 벙싯 열렸다.

《미안하오. 당신이 알면 속을 썩일가봐 그랬소.》

《제가 왜 당신 마음을 모르겠어요. 허지만 혼자서 속을 썩이는걸 더는 못봐주겠어요. 어서 말씀해주세요. 예?》

헛기침을 깇은 남편은 그동안에 있은 일들을 이야기해주었다.

려주는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팠다.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였지만 그래도 소위 대학을 나왔다는 왜놈기술자들이 그렇게까지 고약할줄은 몰랐었다. 오늘은 식사문제로 그들과 부딪쳤지만 래일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지 알수 없었다. 당장 급한것은 남편의 점심식사였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 하고 생각을 굴리던 려주는 밤하늘에 매달려있는 쪼각달을 발견하였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애기별이 깜빡거리고있었다. 마치도 쪼각달과 애기별은 뭔가 다정하게 속삭이는듯싶었다. 아마 애기별은 쪼각달에게 맥을 놓지 말라고, 머지않아 보름달이 되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고무해주는것같았다.

《걱정마오. 본부청사앞에 있는 공원에서 밥을 먹겠소.》

남편의 그 말에 속으로 걱정스러웠다.

만약 그곳에서 식사한다면 왜놈들한테 트집을 잡힐 념려는 없다. 그렇지만 찬밥을 그냥 들면 몸에 탈이 날수 있다. 가만, 내가 점심

시간에 맞춰 더운 음식을 가지고 가면 안될가? 아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가?

기뻐서 그 의향을 터놓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기가 어디라구.》

집에서 만철본부까지는 남자걸음으로 거의 한시간 걸린다. 그 길을 밥을 가지고 매일 오간다는건 헐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남편도 반대하는것이다.

《당신만 마음 편하다면 전 천리를 걸어도 힘들지 않아요.》

《그만두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이 문제에서만은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고 려주는 생각하였다.

《그 일은 제 말대로 하자요.》

남편은 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여보!》

려주는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남편의 팔을 잡아끌었다. 자기의 따뜻한 사랑으로 남편의 어두운 마음을 가셔주고 싶었다. 뜨거운 정으로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고싶었다.

《어서 들어가자요!》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9

1943년 5월중순 강영창은 일본의 항구도시 고베에 도착하였다.

려순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부모처자가 있는 대구에 들렸다가 현해탄을 건너오는 길이였다.

낡은 트렁크를 들고 배에서 내린 그의 눈앞에 100여만의 인총이 바글거리는 낯선 도시가 나타났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옆으로 알락달락한 기모노를 입은 녀인이 게다를 찰찰 끌며 지나가고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걸음을 멈춘 그 녀인은 분을 진하게 바른 얼굴을 쳐들고 무슨 일

이예요라고 묻듯 빤히 쳐다보았다.

《미쯔비시전기주식회사 연구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녀인의 눈에 경계심이 떠올랐다.

《당신은… 반도인이군요.》

《예, 조선사람입니다.》

흥 하고 코웃음을 친 녀자는 길도 대주지 않고 총총히 가버렸다. 조선사람이라고 하면 아녀자들까지도 멸시하는 섬나라족속들의 고약한 태도였다.

쓴웃음을 입귀로 내뱉은 강영창은 발이 나가는대로 걸음을 내짚다가 다행히도 같은 조선동포를 만났다. 그한테서 미쯔비시전기주식회사가 있는 곳을 알고 고베에서 제일 번화하기로 소문난 신까이찌거리에 들어서는데 저쯤에서 궤도전차가 멎어섰다.

껑충껑충 뛰여가 궤도전차에 오른 다음 차표를 사고 빈 좌석에 앉았다.

먼지가 살짝 달라붙은 차창너머로 요꼬하마와 함께 2대무역항구도시로 알려진 고베시의 전경이 흘러가고있었다.

사람들로 흥성거리는 백화점, 남녀가 입맞추는 그림을 걸어놓은 영화관, 기모노를 입은 녀자들이 갑삭거리며 손님들을 유혹하는 음식점…

이따금 폭격에 불타버린 목조건물들이 나타나고 위장망을 씌운 군용차들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비웃듯 우릉, 우르릉 달려가기도 하였다.

승객들은 그런 소동에는 습관되였는지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집은 이번 폭격에 무사했소?》

《무사할게 뭐요? 다른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니 글쎄 처와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았겠소.》

《거참 안됐구만.》

《후— 쩍하면 공습이니 이거야 마음을 놓겠소.》

강영창은 그들이 말하는 공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있었다.

한해전 4월 평온하던 섬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미항공모함에서 리륙한 폭격기들이 도꾜와 고베, 나고야, 요꼬스까 등 여러 도시들의

상공에 날아들어 폭탄을 퍼부었던것이다.

약간의 사상자를 낸 그 공습은 전쟁형세에는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진주만해전이후 《전승》분위기에 들떠있던 사무라이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떻게 되여 우리 령공에 양키들이 날아들수 있단 말인가? 제국의 용감한 비행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자빠졌는가?

그무렵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기습으로 태평양함대가 큰 타격을 입고 절대적인 수세에 몰린 상태였다. 특히 지난해 2월 일본잠수함이 미국본토에 접근하여 캘리포니아의 저유소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자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양키들은 방자해진 난쟁이들한테 버릇을 가르쳐야겠다고 별렀다. 그렇게 되여 고안해낸것이 바로 일본본토를 타격하는 복수적인 군사행동이였다. 그때부터 섬나라는 때없이 공습을 당하군 하였던것이다.

어디선가 앙, 앙ㅡ 하는 고동소리가 울렸다.

기세좋게 달리던 승용차들과 자동차들이 연방 멎어서고 한가하게 거닐던 행인들도 목을 잔뜩 움츠리고 뛰여갔다.

강영창이 타고있던 궤도전차에서도 소동이 일어났다. 벌떡벌떡 일어난 승객들은 저저마다 먼저 내리겠다고 싸움질하였다. 어떤 사람은 차창유리를 박산내고 궤도전차밖으로 굴러떨어지기까지 하였다.

맨 나중에 내린 강영창은 피신자들을 아귀아귀 집어삼키는 방공호를 향해 휘적휘적 걸어갔다.

뽀얀 담배연기와 시큼털털한 땀냄새가 엉켜도는 침침한 방공호에 금방 들어서는데 싱겁게도 해제고동소리가 울렸다.

줄레줄레 방공호를 나서던 사람들은 폭탄 한발 떨어지지 않은 거리를 보자 불평을 터뜨렸다.

《이거 사람을 놀리는거야?》

《똑똑히 알아보지도 않고 공습경보를 울리다니.》

습관적으로 안경을 추슬러올린 강영창은 굼벵이처럼 움직이는 궤도전차에 다시 올랐다. …

미쯔비시전기주식회사 연구소 소장은 눈의 흰자위가 별스레 큰 중년남자였다.

이것저것 묻던 그의 작은 눈동자는 상대방의 입에서 조선사람이

라는 대답이 나오자 안쪽으로 모아졌다.

《우리 연구소엔 반도인을 받지 않소.》

강영창은 가지고 온 트렁크에서 대학졸업증과 학사증을 꺼내보였다.

그것들을 깐깐히 살펴보는 사이에 안쪽으로 모아졌던 소장의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흠, 좀 생각해보겠소.》

삼일후 강영창은 연구소에 다시 찾아갔다.

《우리 연구소에 입직하겠다는 리유가 뭐요?》

소장의 질문에 강영창은 하마트면 사실대로 털어놓을번하였다.

《우리가 왜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긴것은 문명에서 아득히 뒤떨어졌기때문이다. 망국노의 멍에를 하루빨리 벗어던지자면 왜놈들을 릉가할수 있는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것은 려순공대시절 강영창의 가슴속에 고패치고있던 신조였다.

대학졸업이 박두해오자 그는 생각이 많았다. 선배들처럼 만철에 들어가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왕이면 《명치유신》후 발전된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여 개화되였다고 떠드는 일본에 건너가 견문을 더 넓히고 연구사업도 해보고싶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연약한 안해의 어깨우에 한가정의 부담을 떠맡기고 용약 바다를 건너왔으며 한다하는 연구사들이 모여있는 이 연구소에 찾아왔던것이다.

《명성이 자자한 이 연구소에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자기네 연구소를 높이 사주는 조선청년이 밉지 않았던지 아니면 학사증이 은을 냈는지 소장은 수화기를 들고 누군가를 찾았다.

조금후에 실험복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들어섰다.

《이마무라군, 연구는 어떻게 돼가오?》

《일정대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실험을 혼자 하자니 힘들지 않소?》

《힘듭니다. 이것저것 손이 가는게 많아놔서…》

《내 그래서 조수를 붙여주려고 찾았소.》

소장은 이마무라라고 하는 일본인연구사에게 강영창을 손짓하였다.

《중국에서 려순공대를 졸업했구 재학기간에 학사자격을 받았소. 헌데 유감스럽게도 반도인이요.》

이마무라의 아래입술이 조개살처럼 비죽 나왔다.

《소장님, 절 놀리는겁니까? 어째서 나한테 반도인을 조수로 붙여주는가 말입니다.》

소장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였으나 이마무라는 손을 홰홰 내저었다.

《아아, 싫습니다.》

이마무라를 설복하지 못한 소장은 흰 접시우에 떨어진 작은 먹물같은 눈동자를 빙글빙글 돌리다가 강영창에게 일렀다.

《당신은 좀 나가있소.》

복도로 나온 강영창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자기가 조수로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었다. 당시 일본인들속에도 재학중에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흔치 않았다. 하기에 당당한 연구사로 임명될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조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나마도 이마무라는 조선사람이라고 반대하고있지 않는가.

출입문밖으로 얼굴을 내민 소장이 손짓하였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마치도 큰 은혜를 베푸는듯한 어조로 알려주었다.

《이마무라군한테 인사하오. 마음을 크게 먹고 당신을 조수로 쓰겠다고 했소.》

강영창은 이마무라한테 인사할념을 않고 그냥 서있었다.

《왜 인사를 하지 않는가?》

《소장님, 내가 왜 조수를 해야 합니까?》

《음?》

소장의 눈동자가 또다시 안쪽으로 모여들었다.

《건방지게. 실력을 고려해서 조수로 받아주려고 했는데 싫으면 그만두라.》

복도에서 미처 가라앉히지 못하였던 울분이 되살아났다.

아,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여기에 붙어있어야 한단 말인가?

당장 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가고싶었다. 아니, 마음은 이미 소장방을 벗어나고있었다.

찰나 가슴속에서 리성의 목소리가 속삭이였다.

영창이, 여기에 온 목적을 잊었는가? 참으라. 참아야 해!

이런 경우 늘 그랬듯이 안경을 벗어들고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

기 시작하였다. 안경알이 흐려져서가 아니였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결심하기 힘든 문제가 나설 때마다 안경알을 닦느라면 마음이 한결 진정되기때문이였다.

그렇다. 우선 연구소에 입직하고보자!

안경을 끼고나서 이마무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비죽 나왔던 이마무라의 아래입술이 도로 들어갔다.

《그럼 이마무라군을 따라가오.》

이마무라의 연구실은 벽에 흰 타일을 붙인 크지 않은 방이였다. 가운데 놓여있는 넓은 탁우에는 측정계기들과 전기부속품들이 가득 널려있었다.

이마무라는 조수가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잊었는지 탁자우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장안에 밀어넣고 큼직한 자물쇠를 절컥 잠그었다. 그리고는 실험복을 벗고 양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그런가부다 했는데 돌연 뭔가 휘익— 날아왔다. 얼굴에 들씌워진 그것을 붙잡고보니 이마무라의 실험복이였다.

놀라서 실험탁 건너편에 서있는 이마무라를 쳐다보았다.

심술사납게 내민 《조개살》이 움직이였다.

《그걸 빨아놓으라!》

《?!》

결국 이마무라는 자기가 입고있던 실험복세탁을 조수의 첫 과제로 내준것이였다.

이자가 사람을 어떻게 보구 그래?

그의 면상을 향해 실험복을 도로 집어던지고싶은 생각이 치밀어올랐지만 코등에 흘러내린 안경을 추스르자 다지고다진 눈덩이처럼 마음이 굳어졌다.

좋다. 두고보자!

제 2 장

1

《렬차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데 어떻게 된건지 제동이 먹지 않더군요. 속이 덜컥 해서 제동변을 계속 잡아당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렬차는 미친것처럼 날아내렸는데 뒤쪽을 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창문을 까구 뛰여내립디다. 살겠다고 말입니다. 난 바람난 렬차가 레루에서 탈선하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만하면 난 운수가 좋았습니다. 아짜아짜하게 경사길을 통과한 렬차가 평지에 들어섰거든요.》

사고경위를 주절주절 늘어놓던 일본인기관사는 뒤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기관조사가 그의 손에 사기고뿌를 쥐여주었다.

꿀꺽꿀꺽 물을 들이킨 기관사는 내가 사지판을 헤매고있을 때 당신들은 대체 어디 있었소라고 따지듯 눈을 디룩디룩 굴리며 계속하였다.

《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습니다. 그런데 전방을 감시하던 조사가 기겁해서 화물렬차가 나타났다고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정말 화물렬차가 멀리에서 마주 오더군요. 연방 기적을 울렸지만 망할 놈의 화물렬차는 멎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제동기가 고장났는지.

우리와 화물렬차는 점점 가까와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죽었구나 하고 눈을 꽉 감는데 옆에서 징징 울고있던 조사가 <기관사님, 탈출합시다!> 하고 소리치는게 아니겠습니까. 찰나 본선옆에 있는 대피선을 발견했습니다. 부랴부랴 렬차를 대피선에 몰아넣었지요. 기차꽁무니가 대피선에 겨우 들어서는데 화물렬차가 와당탕— 하고 지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으흑!》

기관사는 그때를 생각하면 잔등에 소름이 돋는지 어깨를 으쓱하

였다.

《자, 모이시오.》

죽음이 도사리고있는 레루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기관사를 동정하던 기사들은 송장처럼 숨을 죽이고있는 《아시아》호에서 물러나 몸집이 부한 기술부장주위에 모여들었다.

《이자 들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번했소. 만철의 상징인 <아시아>호가 전복됐다면 우린 제국앞에 만회할수 없는 죄를 지었을 거요. 상부에서는 최단기일에 <아시아>호를 수리해서 정상운행시킬것을 요구하고있소. 가만, 마쯔모도군!》

기술부장의 부름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쯔모도, 없소?》

기사들속에 끼워있던 대리과장 오노가 앞으로 나서며 알려주었다.

《마쯔모도군은 전달에 귀국했습니다.》

《아, 그랬지. 그럼 아게찌군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이무라군은?》

《출장갔습니다.》

거침없이 따르는 오노의 대답때문에 화가 났는지 기술부장은 왈칵 역증을 냈다.

《그럼 우리 만철에 제동기전문가가 더는 없다는거요?》

그때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구마모도가 시뚝해서 걸어나왔다.

《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술이면 얼마든지 기차를 고칠수 있다는듯한 그 태도에 기술부장의 구겨졌던 얼굴이 한결 펴졌다.

《그래, 고장을 퇴치할수 있겠지?》

상급에 잘 보이려고 군인처럼 부동자세를 취한 구마모도는 의기양양해서 답변하였다.

《물론입니다.》

《삼일내로 수리를 끝내야겠소. 상급에서 독촉이 불같단 말이요.》

포치가 끝나자 기사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밀려갔다.

그들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던 류기연은 누군가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느끼고 옆을 돌아보았다.

이쪽을 찬찬히 보고있던 오노가 뭔가 말할듯말듯하다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고있었다.

오노선배가 왜 저럴가?

며칠후 만철본부 회의실에서 기술부장의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구마모도, 이게 어떻게 된거요? 제동기를 수리했다는 기차가 왜 그 모양인가 말이요?》

일인즉 《아시아》호의 시운전이 있었는데 경사급한 비탈길을 내리다가 전번처럼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그만 전복될번하였던것이다. 두번이나 죽을고비에 들었던 일본인기관사는 다시는 기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나자빠졌다. 그 일로 총재한테 불리워가 눈알이 쑥 빠져나오도록 추궁을 받은 기술부장은 구마모도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구마모도는 안장코를 잡아당기며 변명하였다.

《아시겠지만 <아시아>호는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동장치를 가지고는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기술부장이 만년필로 책상을 딱딱 두드렸다.

《그럼, 우리 만철의 기술을 가지고 <아시아>호를 살려낼수 없다는건가?》

《…》

《구마모도, 전시법에 걸어야 정신차리겠는가?》

아녀자들까지 떨쳐나 악악하며 군사훈련을 하고있는 본토는 말할것도 없고 만주를 비롯하여 왜놈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일억옥쇄》, 《맹투필승》의 처절한 웨침소리가 터져나오는 판에 기술부장이 떠드는 전시법소리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었다.

얼굴이 석탄덩어리처럼 새까매진 구마모도는 머리우에 떨어진 재앙을 털어버리려는지 죄없는 안장코만 계속 잡아당겼다.

삐걱— 하고 걸상을 밀어내며 오노가 일어났다.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말하오.》

《구마모도군은 안됩니다.》

당자는 물론이고 위태롭게 번져가는 형세를 불안하게 주시하고있

던 다른 기사들도 움찔 놀랐다. 이런 경우를 두고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를 누른다고 하는것이다.

오노의 랭정한 태도에 발끈한 구마모도가 뒤발로 걸상을 걷어찼다.

《선배님, 난 할수 있는껏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쩌자는겁니까?》

오노의 가슴속에는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솟아있는것같았다. 부하의 맹렬한 항변이였지만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서늘할만큼 차겁게 내뱉았던것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이요. 그러니 각자는 자기가 맡은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단 말이요.》

구마모도는 주먹을 꽉 틀어쥐였지만 감히 대들지는 못하고 몸을 우들우들 떨기만 하였다.

낡은 기관차를 바라보는듯한 쓸쓸한 눈길로 그를 일별한 오노는 기술부장쪽으로 돌아섰다.

《부장님, 제동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가네모또군입니다.》

《가네모또?》 하고 반가와하던 기술부장의 얼굴이 금시 어두워졌다.

《그야 반도인이 아니요?!》

《옳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귀를 강구고있던 일본인기사들이 우우－하고 불평을 터뜨렸다.

《저 량반은 대체 어쩌자는거요?》

《정신나갔군. 그래, 우리가 반도인보다 못하다는거요?》

《그러게나 말이요. 허 참.》

둥지를 기습당한 벌떼처럼 왁작 떠들어대는 그들의 머리우로 오노의 침착한 목소리가 날아갔다.

《물론 그는 반도인입니다. 하지만 대학시절에 학사론문을 발표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리없는 체면만 차리면서 <아시아>호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상급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의실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책상우에 방아를 찧고있던 기술부장의 만년필도 잠잠해졌다.

《좋소. 그를 데려오우.》

얼마후 오노의 안내를 받으며 조선인기사가 회의실에 들어섰다.

미심쩍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던 기술부장은 좌중에 대고 말하였다.

《오노과장하구 가네모또군만 남고 다들 돌아가오.》

일본인기사들이 투덜투덜하며 빠져나가자 기술부장은 류기연을 가까이 불렀다.

《대학시절에 학위론문을 발표했다는데 사실이요?》

《예.》

《흠, 사실이란 말이지.》 하고 외우던 기술부장은 은근한 어조로 뒤말을 이었다.

《군도 알겠지만 오늘 <아시아>호시운전이 실패했소.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류기연은 그 문제를 두고 이미 생각을 하고있던 참이였다.

《<아시아>호는 제작된지 오랬고 제동장치들도 낡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는 급경사길에서 제동작용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습니다.》

구마모도와 비슷한 견해가 나오자 기술부장은 더욱더 락담한 기색이였다.

옆에 서있던 오노가 기대어린 어조로 물었다.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겠소?》

잠시 생각을 더듬고있던 류기연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한가지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 오노보다 기술부장쪽에서 더 반가와하였다.

《그게 뭐요?… 어서 말하오.》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류기연은 대학시절에 발표한 《제동장치》라는 론문에서 밝힌 고속도제동기에 대해 생각하고있었다. 그 제동기의 요점은 《아시아》호처럼 속도가 빠른 기차들의 제동통에 고속도압력덜기변을 설치하여 렬차의 속도가 떨어짐에 따라 제동구두의 쓸림결수가 커져서 제동효과가 커지게 하는것이였다. 만약 그 장치를 차틀에 설치하면 경

사가 급한 구간이라고 해도 제동작용이 충분해서 가능한껏 전복사고를 막을수 있었다. 물론 종이우에 적혀있는 착상이였지만 이번과 같은 때 한번 시험해보자는것이였다.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다고 해서 그런지 기술부장은 별로 탐탁해하지 않는 표정을 짓고있는데 오노가 옆에서 지원포를 쏴주었다.

《부장님,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만년필을 불안하게 두드리던 기술부장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렇게 하기요.》

류기연은 속으로 놀랐다. 오노가 한번 맡겨보자고 제기했을 때 설마 승인하겠는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일이 그렇게 된것이다. 입직한지 얼마 안되는 자기한테, 그것도 만철본부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참가시키지도 않던 조선인기사한테 그런 과제를 맡길줄은 몰랐었다.

《하지만 실패하면 즉시 해고하겠소. 알겠소?》

울며 겨자먹기로 할수없이 《아시아》호를 떠맡기면서도 기술부장은 로골적으로 위협하고있었다.

《알겠습니다.》

류기연은 차라리 잘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회에 론문의 실효적가치가 확증된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없었던것이다.

《잘해보우.》

비로소 한숨이 나가는지 기술부장은 긴장해서 손에 꽉 틀어쥐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러는데 오노가 놀라운 제기를 하였다.

《부장님, 절 가네모또군의 조수로 임명해주십시오.》

류기연은 뜨아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지내보니 오노는 자기의 전공인 교량학에 정통하고있었다. 게다가 대리과장일을 맡아보고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조수노릇을 한다는건 말도 되지 않았던것이다.

《선배님, 그건 안됩니다.》

《또 선배라고 하누만.》

류기연은 5년 앞서 려순공대를 졸업한 그를 선배라고 부르고있었다. 오노는 오노대로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류기사(오노는 단 둘

이 있으면 꼭 류기사라고 불렀다.)만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만류했었다.

류기연은 구원을 청하듯 기술부장을 쳐다보았다.

그 역시 뜻밖이였던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가 《그건 좋도록 하오.》 하고 승낙하였다.

《자, 이젠 날 조수로 받아주오. 허허허.》

지성과 인정이 조화롭게 반죽된 오노의 얼굴에 헌헌한 웃음발이 피여올랐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웃음을 보자 불현듯 역구내의 《아시아》호결에서 헤여질 때 뭔가 말하려다가 손을 내젓던 모습이 떠올랐다.

오노는 이런 일이 있을줄을 내다본게 아닐가?

《가네모또군은 먼저 가오. 오노과장은 좀 남소.》

회의실을 나서던 류기연은 걸음을 멈추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간줄 알았던 일본인기사들이 출입문앞에 푸르딩딩해서 모여있었던것이다.

그들속에 끼워있던 구마모도가 다가왔다.

《<아시아>호를 맡았다면서? 그래, 우릴 눌러보자는건가?》

그의 짝패인 이노우에는 주걱턱을 내밀고 이죽거렸다.

《앉을자리, 설자리를 알아야지.》

고약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을 둘러보던 류기연의 입에서 저력있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당신들이 할수 있다면 왜 날 찾았는가?》

그 당당한 태도에 일본인기사들은 뻐꾹소리도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다.

2

만철은 영양좋은 암바퀴처럼 수많은 《후대》를 번식시켰다.

1만키로에 달하는 철도외에도 탄광, 제철소, 해운 및 도시교통, 영화제작, 호텔, 병원은 물론이고 신문사까지 운영하고있었다.

대련철도공장도 그중의 하나였다. 식민지독점기업체인 만철의 운영전략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이 공장에 《아시아》호가 의사의 진찰을 기다리는 중환자마냥 공손히 누워있었다.

기관차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류기사, 정말 자신있소?》

《예.》

《론문하구 실천이 맞아떨어질가?》

《론문도 실천을 위해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하긴 그렇소. 허허허.》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대차밑에서 작업하고있는 사람들은 류기연과 오노였다.

어제 오후 류기연은 집에 들려 작업복을 꿍져가지고 곧장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밤을 꼬박 밝히며 도면을 완성하고 자신이 직접 선반과 볼반작업을 하면서 시제품을 만들었다.

철도공장의 로동자들은 완성한 시제품과 같은 제품을 수십개나 제작해서 기차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자 두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움쩍하지 않았다.

《우리가 뭐 무쇠덩어리인줄 아오?》

《이걸 다 깎으면 돈을 얼마나 주겠소?》

오노가 나타나자 형편은 달라졌다.

《이틀내로 <아시아>호를 움직이지 못하면 당신들은 모두 직무태만죄로 헌병대에 끌려갈거요. 해고는 더 말할것도 없고… 그래도 팔짱을 끼고 로임타령을 하겠는가?》

뜨뜨해하던 로동자들은 움찔해서 입을 쩝쩝 다시였다.

오노는 선반공과 용접공들은 제작작업에 동원시키고 조립공들은

제품이 나오는족족 설치하도록 작업조직을 하였다. 그다음 류기연과 함께 제일 중요한 기관차에 고속도제동기를 설치하는중이였다.

마지막나트를 힘껏 조인 오노는 작업장갑을 벗어 엉치에 깔고앉더니 작업복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냈다.

《한대 피우기요. … 아, 안피운다고 했지.》

그는 손수건을 꺼내여 별로 어지럽지 않은 두손을 깨끗이 닦고나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전에도 몇번 느꼈지만 오노는 개체생활에서 무척 단정한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였다.

파르스름한 연기를 내뿜고있던 오노가 미안해하는 기색으로 말을 끄집어냈다.

《류기사, 안됐소.》

류기연은 말뜻을 알수 없어 그를 건너다보았다.

《아직두 류기사에 대한 우리 일본인기사들의 태도가 좋지 않더구만.》

오노의 말처럼 입직한지 몇달이 지났지만 자기를 대하는 일본인기사들의 태도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즈음 자기가 공원에서 식사를 하니 더 트집잡을 일은 없어졌으나 그래도 코코에 건덕지를 잡고 늘어졌다. 오노도 그것이 못내 걱정스러운 모양이였다.

땅에 떨군 담배꽁초를 발로 꼼꼼히 비벼끈 오노는 깔고앉았던 장갑을 다시 끼고 일어났다.

《또 일해볼가?》

마치도 노래라도 부르는듯 흥겹게 뇌이며 나서는 그와 함께 다음 차량으로 건너간 류기연은 작업을 계속하였다. 아침부터 시작한 작업은 철야로 벌어졌다.

캄캄하던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오자 밤을 꼬박 밝힌 로동자들은 마가을 잠자리처럼 맥없이 곯아떨어졌다. 온밤 로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오노마저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의실에 누워버렸다.

공기마저 멎어있는것같은 작업장에서 움직이고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 류기연뿐이였다.

그도 잠을 자지 못해 눈에 피발이 섰지만 발가는 황소처럼 수걱수걱 일손을 놀렸다. 이제 남은것은 마지막차량이였다. 그 차량만 끝

내면 오후쯤에는 시운전을 할수 있을것같았다.

또다시 몰려드는 피곤을 쫓느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나서 어둑시근한 대차밑으로 기여드는데 문득 인기척이 났다.

오노선배가 깨난게로군.

저쯤에서 끙끙거리며 나트를 조이고있는 사람이 보였다. 키가 크지 않고 몸매도 호리호리한걸 보니 오노는 아니다. 아마 작업에 동원된 로동자인 모양이다. 남들이 다 잠든 이른아침에 열심히 일하는 그가 고마웠다.

그쪽으로 다가가며 중국말로 인사를 건넸다.

《수고하오.》

《어마나?!》

등을 돌리고있던 사람한테서 튀여나온 외마디 조선말이였다.

류기연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웬 녀자가 여기에 있을가 하고 살피는데 뒤로 돌아서던 그가 《여보!-》 하고 소리치는것이 아닌가.

아침공기를 타고 날아온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

찰나 한줄기 해빛이 비쳐들더니 갸름한 얼굴이, 너무도 눈에 익은 유순한 두눈이 드러났다. 그 녀자는 뜻밖에도 안해였다.

《이게 어떻게 된거요?》

《당신이 오죽 바쁘면 집에도 못들어오겠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나왔어요.》

그 말은 사실이였다. 오노가 그만큼 닥달질하였지만 로동자들은 마력을 내지 않았다. 지금처럼 일하다가는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몰랐다. 그런데 안해가 불쑥 나타난것이다.

《헌데 정문을 어떻게 통과했소?》

대련철도공장은 만철산하의 주요공장이여서 단속이 심하였다.

《통과시킬게 뭐예요? 절대로 못들어간다고 막더군요. 그래 당신 약을 가져왔다고 했더니 저희네가 전해주겠다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약은 꼭 내가 대접해야 한다고 하고는 만약 당신이 앓아누워서 기차수리에 지장을 준다면 책임지겠는가고 들이댔지요 뭐. 그랬더니 인차 약을 주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살며시 웃고있는 안해를 보자 고맙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였다. 설사 남편을 돕고싶다고 한들 아녀자의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았는지 안해는 자신만만하게 나왔다.

《저두 나트를 조일줄 알아요. 당신이 하는걸 봤거든요.》

이렇게 말한 안해는 제법 나사틀개를 나트에 끼웠다. 그런데 힘이 모자라서 안깐힘을 쓰기만 하였다.

류기연은 슬며시 안해의 손을 잡고 나사틀개를 돌렸다.

끄떡하지 않던 나트는 삐걱삐걱 잘도 돌아갔다.

《이젠 제가 하겠어요!》

나사틀개를 넘겨받은 안해는 성수가 나서 나트를 조이기 시작하였다.

6월의 아침해빛이 작업장의 뿌연 창문유리를 넘어 비쳐들어서야 그들은 대차밑에서 빠져나왔다.

《아이, 땀 좀 봐요!》

안해는 자기 얼굴의 땀은 훔칠념도 않은채 손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남편의 이마와 턱을 닦으며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과 그 너머에서 웃고있는 정겨운 얼굴을 보자 류기연은 가슴속에 사랑의 물결이 출렁거리는것을 느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당신은 좋은 녀자요!》

《아이참, 새삼스레.》

두눈을 곱게 흘기는 안해는 오늘따라 더욱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순간 대차밑에서 만났을 때부터 가슴속에 차오르던 격정의 파도가 인내의 동뚝을 왈칵 넘어났다. 자기도 모르게 상반신이 앞으로 쏠리면서 발그레하게 익은 뺨이 육박해왔다.

《어마나, 정신나가지 않았어요?》

한쪽뺨을 싸쥔 안해는 누가 보지 않았나 하고 급히 주위를 살폈다.

류기연은 그 모양이 더 우스워 씩 웃었다.

안해도 자기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였는지 따라웃었다.

《참, 어제 책방에 가보니 새로 나온 기술도서가 있더군요. 그래 제꺽 샀어요.》

류기연은 안해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아이, 오늘은 왜 자꾸만 보세요?》

세살 잡힌 아들애를 가진 어머니였지만 아직도 첫날색시처럼 부끄러움을 몹시 타는 안해였다.

《고와서.》

《아이참, 피곤하겠는데 눈을 좀 붙이세요.》

안해의 손에 이끌려 렬차안으로 들어간 류기연은 나무걸상에 드러누웠다. 딱딱한 나무에 잔등이 닿자마자 온밤 쌓였던 피곤이 몰려들었다.

《여보, 신을 벗자요.》

《음, 당신도 쉬오.》

《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긴…》

류기연은 벌써 절반쯤 잠에 취해서 웅얼거렸다.

어느결엔가 안해의 모습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진 눈시울이 아래로 내려덮였다.

…구마모도가 못생긴 안장코를 잡아당기며 이죽거렸다.

《어잇, 열성이 대단한걸. 밤잠도 안자면서 다그친다지?》

류기연은 그자를 거들떠보지 않고 고속도압력덜기변을 설치하고있었다.

《흥, 상대하지 않겠다. 좋다!》

악에 받친 구마모도가 허리춤에서 만능나사틀개를 꺼내들었다.

《똑똑히 알아두라. 설사 기술이 하늘에 닿는다고 해도 넌 죽을 때까지 렬등민족이란 말이다. 렬등민족. 으하하하!》

두어깨를 흔들며 너털웃음을 터치던 그자는 류기연을 향해 나사틀개를 힘껏 던졌다.

묵직한 나사틀개는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별안간 칼날이 시퍼런 검으로 변하더니 머리우에 곧추 떨어졌다. …

억!—

류기연은 두눈을 버쩍 뜨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주위를 둘러보니 구마모도는 보이지 않았다.

제길, 꿈두 더럽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치는데 안해가 조용히 다가왔다.

《나쁜 꿈을 꾼게군요!》

어허― 하고 두팔을 우로 뻗치고 기지개를 켠 류기연은 나무걸상에서 일어났다.

승강대를 내려 대차밑으로 들어가려는데 안해가 따라들어왔다.

《당신은 돌아가오. 아이가 깨났겠는데.》

《간식이랑 꺼내놨으니 울지 않을거예요. 조금만 더 일하구요. 예?》

세상에 이처럼 사랑스러운 안해가 또 어디 있으랴.

안해와 함께 대차밑으로 들어간 류기연은 흔쾌한 마음으로 마지막작업을 다그치기 시작하였다.

3

《선생은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하오?》

일본인교장은 책무지에서 맨우의것을 집었다가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갈피를 펄럭거리며 날아든 교수안은 책상너머에 서있는 한홍식의 앞가슴을 들이쳤다. 이런 때는 그것을 공손히 가져다 바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장은 더욱 성을 내면서 남은 책들을 몽땅 집어던진다고 한다.

한홍식은 교원들이 귀띔해준 《처벌요령》을 기억하고있었지만 구태여 그에 매달리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급선무는 교장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것이였다. 그 여하에 따라 벌금을 무는가 아니면 《비국민》으로 락인되여 경찰서로 끌려가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기때문이였다.

첫 수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한해가 지났지만 그는 복도에 사람이 없으면 조선말로 수업하군 하였다. 그러다가 들키면 자신이 무사치 못하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까다로운 일본말강의를 리해 못하는 제자

들을 위해 애써왔는데 종시 일이 터진것이다.

교장이 어떻게 알았을가?… 누가 고발했을가?

하기야 이제 와서 그것을 따진다고 달라질것은 없었다. 모든 잘못은 제자들을 너무 믿은 나머지 심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자기한테 있었다.

《그래, 쩍하면 녀학생들을 폭군처럼 다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말이요?》

온몸의 신경을 도사리고 그 말의 의미를 자세히 따져보았다.

폭군처럼 다룬다구?… 폭군처럼…

다음순간 막혔던 숨이 후― 하고 새여나갔다. 결국 교장이 따진것은 자기가 우려하던 문제가 아니였다. 그렇다고 방심할수는 없었다. 녀학생들을 폭군처럼 다룬다는 문제 역시 소홀히 대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새 녀학생들은 많이 달라졌다. 불손한 태도때문에 벌을 설번하였던 김진희는 출석을 부를 때마다 몸자세를 바로하였고 분곽이 교실바닥에 떨어지는 일도 더는 없었다. 다들 물리학의 세계에 빠져 교원의 설명을 귀담아들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과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첫 수업끝에 선포한것처럼 한홍식은 공부를 게을리하는 제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방과후에 그들을 따로 남겨놓고 복습과제를 받아내고야 놓아주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앙갚음을 한것이다.

《처음 선생을 받을 때 난 기대가 컸소. 부친의 소개신도 소개신이지만 우리 교원들속에 도꾜물리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없었단 말이요. 더우기 학생들의 물리과목수준이 낮아서 적임자를 물색하던 참인데 마침 선생이 왔기에 총독부 학무국의 결재도 받지 않고 먼저 채용했소. 그런데 다 큰 처녀들을 밤늦게까지 붙잡아두니 대체 어쩌자는거요?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다른 학급에 보내달라고 하겠소?》

교장의 손에 또 다른 책이 쥐여졌지만 더 날아오지는 않았다.

《털어놓고말해서 다른 교원 같으면 당장 사직시켰을거요. 하지만 군수령감체면을 봐서 한번만 기회를 주겠소.》

한홍식은 근육이 불룩한 앞가슴을 내밀었다.

《아버지체면을 봐줄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요?》

《내가 싫으면 이제라도 학교를 그만둔다는겁니다.》

교장방에서 나온 그는 출입문앞에 모여있던 교원들이 급해맞아 고개를 돌리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는것을 보았다. 벌써 자기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온 학교에 퍼진것이다.

하숙집으로 돌아오자 술을 몇모금 들이키고 집에서부터 가져온 아령을 집어들었다. 속이 탈 땐 그저 아령운동이 제일이였다.

열… 서른… 예순…

등골로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숨도 가빠올랐다.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녹초가 될 때까지 아령을 휘두르고서야 그만두었다.

몸을 씻고 들어와 방에 누웠지만 분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자기는 공부 잘하는 몇몇 학생이 아니라 학급전체의 실력을 높이려고 요구성을 높였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는 몹시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물이 새여 누렇게 번진 천정을 올려다보는데 불현듯 류기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작 몇번밖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친형처럼 따르고싶은 사람이였다. 처음은 생명을 구원해준것이 고마웠고 다음은 왜놈들만 욱실거리는 만철본부에 있으면서도 조선사람의 기개를 떨치려고 고심참담하는 인품에 반하였다. 하기에 그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편을 잡았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이 뒤숭숭해지니 저절로 그가 생각났다.

기연형님, 아무래도 난 교사재목이 못되는가 봅니다.

머리말에 놓여있는 술병을 집어드는데 집주인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선생, 학생이 찾아왔수다.》

술병을 밀어놓고 뜨직뜨직 몸을 일으키자 한 녀학생이 들어섰다.

《아니, 순애학생이 아니요?》

순애뒤에 서있던 집주인이 뭐라고 손짓하였다.

뒤를 돌아보니 술병이 띄웠다. 구석에 치우려고 손을 뻗치는데 과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더니 술병이 뚤렁 넘어졌다.

이런, 제길!

쿨럭쿨럭 쏟아지는 술을 보며 어쩔바를 몰라하자 집주인이 슬그머니 걸레를 쥐여주었다.

그것을 알아본 순애가 냉큼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 주십시오!》

《아, 앉아있소. 내가 하지.》

엉금엉금 기여다니며 걸레질을 하는데 뒤에서 제자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참, 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손에서 걸레가 빠져나갔다.

우두커니 서서 순애를 내려다보았다. 녀학생은 얼굴앞으로 흘러내린 까만 머리칼을 곱게 쓸어넘기며 걸레질을 하고있었다.

청소가 끝나자 순애는 문가에 얌전히 앉았다.

《어떻게 왔소?》

녀학생은 선뜻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긋기만 하였다.

순애도 다른 학급에 가겠다는건가?

그는 학급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품행도 바른 녀학생이였다. 이런 제자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문제는 여간 심각하지 않다.

꼭 다물려있던 순애의 작은 입술이 방싯 열렸다.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신다는게 사실입니까?》

《?!》

그런즉 순애가 찾아온 리유는 자기의 짐작과 전혀 달랐다. 어쨌든 생각보다는 사태가 절망적이지 않으니 안도감이 생겨났다.

《선생님이 가시면 본래 배워주던 왜놈선생을 데려온답니다. 그놈은 진희가 실수해서 조선말로 대답하자 치마를 걷어올리라구 했습니다. 진희가 응하지 않으니까 제 말을 듣지 않는다구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때 우린 모두 울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선생님, 제발 학교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저희들을 계속 가르쳐주십시오. 예?》

순애의 눈굽에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올랐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진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진희가 그런건 무릎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앤 어릴 때부터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있습니다. 또 명숙인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돋습니다. 그래서… 분을 바릅니다.》

그런 사정은 모르고 첫 수업부터 신발을 바로 신긴다고 하면서 뚝심을 부린것을 생각하니 면구스러웠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건데.》

손맥을 놓고있던 찰나에 순애를 만나고보니 어둡던 가슴속에 한줄기의 밝은 빛이 흘러드는것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자기도 모르게 롱말이 튀여나갔다.

《이 폭군이 무서웠겠지?!》

순애의 목소리는 개미소리만큼 작아졌다.

《선생님이 교탁을 내리쳤을 때… 우린 간이 떨어지는줄 알았습니다.》

그날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어쩔바를 몰라하던 광경을 생각하니 웃음집이 흔들거려서 참을수 없었다.

《하하하!》

순애도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따라웃었다.

한바탕 웃고나자 아령운동을 하고났을 때보다 마음이 개운해졌다.

《음, 그래서 다른 학급에 가겠다고 다들 제기했구만.》

《아이, 그건 아닙니다.》

《거짓말마오.》

《정말입니다. 사실 우린 처음 선생님을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짬만 있으면 우리 말로 수업해주시고 또 밤늦게까지 락후한 학생들을 배워주시는 선생님을 모두 존경합니다.》

순애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학교에 신소하구 다른 쪽에서는 존경한다니 어떻게 믿겠는가.

《실은 봄순이하구 옥분이가 밤마다 늦으니까 부모들이 따진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말해야겠는데 다 큰 처녀가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차마 할수 없어서 선생님이 괜히 붙잡아둔다고 구실댔답니다. 허지만 지금 그애들은 자기들때문에 훌륭한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신다고 막 울고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학교를 떠나지 마십시오.》

두손을 앞가슴에 모아쥐고 절절하게 호소하는 그 모습앞에서는 무쇠심장이라고 해도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한홍식은 코마루가 시큰해지는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아이, 좋아!》

얼마나 기뻤던지 순애는 어린애처럼 손벽을 찰싹 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자기가 버릇없이 처신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잠잠해있다가 조심히 말을 꺼냈다.

《저, 작년에 박천에서 녀학생을 구원해주신 일이 생각나십니까?》

《녀학생을?》

《예, 그때 왜놈망나니들이 둘러싸고…》

그 일이 왜 생각나지 않겠는가. 만일 그 사건이 없었으면 좋은 벗을 만날수 없었고 지금처럼 교단에 설념도 못했을것이다.

《헌데 그 일을 어떻게 아오?》

순애의 얼굴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어졌다.

《그 녀학생이 바로… 접니다.》

《뭐라구?》

두눈을 크게 뜨고보니 그 녀학생이 순애가 틀림없었다. 아마 그래서 첫 수업시간에 어디서 보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것이다.

《언제부터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야 그때 하지 않았소.》

《그래두.》 하고 죄스러워하던 순애는 미타한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확답을 받았다.

《선생님, 정말 학교를 떠나시면 안됩니다.》

가을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눈동자앞에서 한홍식은 교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남아로서 다짐하였다.

《알겠소.》

《고맙습니다!》

단발머리가 방바닥에 닿도록 절을 한 순애는 조용조용 뒤걸음으로 물러갔다. 이어 대문밖에서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지 않으셔.》

한홍식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으며 뜨락에 나섰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숱한 녀학생들이 순애를 에워싸고 떠들었다.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던?》

《응.》

《야, 됐구나!》

《우리 래일 아침 일찍 나오자.》

《그래, 교실을 깨끗이 청소하구 선생님을 맞이하자.》

기뻐서 웃고 떠들던 녀학생들은 일제히 이쪽으로 돌아서더니 인사를 하였다. 그 모습들은 마치도 따뜻한 봄날에 활짝 피여난 고운 꽃송이들을 련상시켰다.

한홍식은 그 《꽃송이》들이 시들지 않도록 가슴속에 품어안고 애지중지 가꿔주고싶은 심정이였다.

4

《아시아》호의 굴뚝에서 허연 증기가 뿜어져나왔다.

칙, 칙—

기관사와 조사가 분주히 오르내리는 기관차옆에 기름묻은 작업복을 걸친 류기연과 오노, 철도로동자들이 서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얼마간 간격을 두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일본인기사들이 모여있었다.

잠시후 한대의 승용차가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더니 기관차옆에 멎어섰다.

《가네모또군!》

차문을 열고 내린 기술부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찾았다.

오노와 이야기를 주고받고있던 류기연은 그앞으로 걸어갔다.

《자신있소?》

《예.》

기술부장은 조선인기사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는지 침을 놓았다.

《전번에도 말했지만 실패하면 즉시 해고하겠소.》

류기연은 두툼한 입술을 꾹 다물었다.

저희들의 기술로는 기관차를 살려낼수 없어 조선사람한테 손을 내밀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섬나라족속이였다.

《실패하면 스스로 사직하겠습니다.》

고양이손이라도 빌려쓸 처지인지라 할수없이 조선인기사한테 《아시아》호를 내맡겼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한번 엄포를 놓았는데 상대

가 단호하게 나오자 기술부장은 다소 놀라는 기색이였다.

그때 뒤에 서있던 오노가 앞으로 나섰다.

《부장님, 고속도제동기는 실용성이 높은 제동장치입니다.》

오노가 장담하자 기술부장의 낯빛은 어느 정도 풀어졌다.

《좋소. 시작하오.》

기술부장한테서 물러난 류기연은 검차원을 불러 지시를 주었다.

호륵, 호르륵—

제동기사고로 몇번이나 죽을번하였던 일본인기관사가 께름직한 얼굴을 차창밖으로 내밀었다.

검차원이 신호기를 좌우로 흔들었다. 제동시험을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기관사는 기적을 짧게 두번 울리고 제동변을 제동위치에 놓았다. 그다음 제동된 압력을 떨구고 제동변을 보압위치에 옮겨놓았다.

여기저기로 분주히 뛰여다니며 기차의 제동상태를 확인하던 검차원이 신호기를 아래로 내렸다. 드디여 제동기시험이 끝난것이다.

《아시아》호도 꽥, 꽤액!— 하고 화답하였다.

기적소리가 가라앉자 류기연은 기술부장에게 제동장치들이 모두 정상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는데 일본인기사들속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동시험이나 한다구 기차가 무사하다는 담보야 없지.》

《그렇지 않구. 시운전까지 해봐야 한단 말이요.》

기술부장도 미타한 생각이 들었던지 시운전을 해보라고 하였다.

류기연은 일본인기관사를 향해 의미있는 손짓을 보냈다.

기차는 역구내가 떠나갈듯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출발하였다.

멀어져가는 기차꽁무니를 노려보던 구마모도가 속이 요글요글해서 씨벌여댔다.

《성공하면 안되겠는데.》

다른 기사들은 그의 속심을 모르는척하였다. 자기들보다 기술높은 조선인기사가 증오스러워도 아무 말이나 탕탕 내뱉는 그한테 찬동을 보낼수 없었던것이다.

한시간후 《아시아》호가 시운전을 마치고 돌아왔다.

류기연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기차를 돌아보기 시작하였

다. 그러다가 기관차바퀴에 가득 묻어있는 피자국을 발견하였다.

《이건 뭐요?》

기관차에서 내려와 한가스레 차를 마시고있던 일본인기관사가 대수롭지 않은 어조로 대꾸하였다.

《철길을 넘으려던 개 몇놈을 들이쳤소.》

그이상 캐묻지 않았다. 철길주변마을에서 뛰쳐나온 개를 비롯한 짐승들이 달리는 기차에 치우는 사고가 드문히 있군 하였던것이다.

마지막차량까지 다 돌아본 다음 기술부장한테 시운전이 성공했다고 보고하였다.

시운전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심쩍어하던 기술부장은 만족해서 이렇게 장담하였다.

《총재님께 말씀드려서 크게 평가하도록 하겠소.》

온몸이 귀가 되여 그들의 대화를 듣고있던 구마모도가 《어잇!》하고 안장코를 잡아당겼다.

이노우에는 주걱턱을 동료의 어깨우에 올려놓고 약을 바싹 올렸다.

《총재님이 뭘 표창할가? 상금? 아니면 손목시계?》

밸이 꼴린 구마모도는 목에 가시라도 걸린것처럼 헛기침을 쏟아내다가 크악— 하고 누런 가래를 뱉았다. 다른 기사들도 자기들을 톡톡히 망신시킨 조선인기사를 잡아먹을것처럼 노려보았다.

…황혼이 깃든 대련철도공장 인입선옆에 두사람이 서있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오. 힘들겠는데.》

래일부터 정시운행에 들어가는 《아시아》호를 흐뭇해서 보고있던 오노가 던진 말이였다.

《참,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전해주오. 난 웬 녀자가 작업장에서 일하는가 했소. 그런데 류기사의 아주머니일줄이야. 정말 쉽지 않은 녀성이요. 자, 그럼 난 일이 있어 먼저 가겠소.》

그가 가버리자 류기연은 괴물처럼 웅크리고있는 《아시아》호를 바라보았다.

류선형의 푸른색본체, 거대한 차바퀴, 기관차뒤에 길게 늘어선 객차들…

불현듯 《아시아》호가 시운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오노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이제부터 우리 기사들의 태도가 달라질거요.》

류기연은 그 견해가 랑만적이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실지로 일본인기사들은 시운전이 성공했지만 자기한테 수고했다는 말은 고사하고 마뜩지 않아하는 표정들이였다. 그런 인간들이 달라진다는것은 황무지에서 곡식이 자라기를 바라는것과 같았지만 가슴은 불을 지핀 무쇠난로처럼 훈훈하였다.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 건드렸다. 돌아보니 뜻밖에 추진석이였다.

《자네가 어떻게?》

《왜, 내가 온게 반갑지 않은가?》

만만치 않게 생긴 눈에 웃음을 짓고있는 친구는 그새 알쭌한 시골사람이 되여버렸다. 얼굴은 해볕에 타서 검실검실하고 양복은 방구석에 처박아두었던것을 그대로 입고왔는지 주글주글하였다. 려순공대시절의 모습을 용케도 보존하고있는것은 강굴강굴한 고수머리뿐이였다.

《만철에 굉장한 인재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구 달려왔네.》

류기연은 친구의 심사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것을 알았다. 아닐세라 팔짱을 끼고 《아시아》호를 흘겨보던 그는 이마에 내려오지도 않은 고수머리를 대충 쓸어올리더니 시까슬렀다.

《이게 자네 명성을 떨쳐주었다는 쇠달구지인가?》

그 말투가 곱지 않았지만 류기연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기분을 거슬릴가봐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왜놈들이 표창을 듬뿍 주겠구만.》

《표창?… 자네야 내 마음을 잘 알지 않나.》

《아, 그렇지. 조선사람은 결코 렬등민족이 아니라는걸 증명한다면서 만철에 들어갔지.》

추진석의 얼굴에 떠돌던 비웃음이 싹 사라졌다.

《자네가 이런다구 왜놈들이 인정할것같나? 굶주린 여우가 토끼의 하소연을 들어줄것같은가 말일세.》

점점 어성을 높이던 친구는 뭔가 발견한듯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의 눈길이 날아간 곳에 오노가 서있었다. 먼저 간다더니 일이

있어 돌아온 모양이였다.
류기연은 친구한테 함께 일하는 일본인기사라고 오노를 소개하였다.
《초면에 실례하겠습니다.》
인사말을 건네며 다가온 오노가 먼저 악수를 청하였지만 추진석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 사람은 여느 일본사람들과 다르네.》
친구한테 오노가 듣지 못하게 귀속말로 알려주었지만 그는 흥- 하고 코방귀를 뀌였다.
《사꾸라는 열번 졌다펴도 사꾸라일세.》
류기연은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친구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진석과 오노는 다같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였다. 그런데 친구는 악수도 나누지 않고 이죽거리고있었다.
《진석이,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구? 자네 만철에 들어가더니 좀 달라졌구만.》
추진석의 그 말에 속이 좋지 않았다.
《내가 뭘 달라졌다는건가?》
《그래, 달라지지 않았단 말인가?》
《글쎄, 뭐가 달라졌는가 말일세.》
침착한 표정을 지은 오노가 어성을 높이고있는 두사람사이에 끼여들었다.
《나때문에 친구지간에 다툴건 없다고 봅니다. 류기사, 좀 보기요.》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한 그는 가방에서 뭔가 꺼냈다.
《내가 돌아온건 이것때문이요.》
온화한 미소를 지은 오노가 손에 쥐여준것은 네모난 과자곽이였다.
《오늘 보니 부인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왔던데 미안하더구만. 이걸 가져다주오.》
이렇게 말한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추진석을 향해 돌아섰다.
《초면이지만 한마디 해도 되겠소?》
《뭘 한마디 한다는거요?》
《조선속담에 <벗을 따라 강남에 간다.>는 말이 있던데 류기사의

친구라면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어야지 그러면 되겠소?》

가소롭다는듯 쓴웃음을 지은 추진석은 이렇게 내쏘았다.

《벗이 정말로 강남에 간다면 난 얼마든지 따라가겠소. 그러나 강남이 아니라 혹가이도에 간다면 무조건 앞을 막을테요.》

흠칫 놀랐던 오노는 인차 말머리를 바꾸었다.

《이자 들으니 당신은 우리가 류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것같은데 그건 잘못된 견해요. 일본사람들이라구 왜 기술이 높은 조선사람을 인정하지 않겠소. 인정할뿐만 아니라 우대해준단 말이요.》

《여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꼬이지 말란 말이요.》

《난 사실을 말했을뿐이요.》

추진석의 두눈에 경계의 빛이 번뜩이였다.

《리해할수 없구만. 어째서 종주국국민이 식민지백성을 그렇게도 끔찍이 위해주는지.》

《리해 못할건 없소. 단지 당신의 리해력이 협소할뿐이요.》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도 리해력이 넓어서 남의 나라를 침략했는가?》

그들의 설전이 점점 치렬해지자 류기연은 가만있을수 없었다.

《진석이, 좀 자제할수 없나?》

이쪽으로 홱 돌아선 친구의 얼굴에 노여운 빛이 어렸다.

《지금 나보구 그러나? 좋네. 자제할게 없이 아주 가버리면 그만이지.》

류기연은 발걸음을 옮기려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왜 그러나?》

《이걸 놓게. 자네야 이젠 어엿한 만철기사나으리인데 이 촌놈 말을 듣기나 하겠나?》

낯선 사람처럼 뚫어지게 바라보던 추진석은 고수머리를 성칼지게 쓸어넘기더니 씨엉씨엉 가버렸다.

류기연은 멀어져가는 그를 붙들념도 못하고 서있었다.

한해전 만철에 들어가는 문제로 다투고 갈라졌는데 오늘도 좋지 않게 헤여진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처럼 가까왔던 친구와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있었다. 그 리유를 견해상차이라고 말하기에는 지난날

의 우정이 너무도 소중하였다.

변고많은 이 세상과 한시바삐 리별하고싶은지 서쪽하늘가로 기울어진 뿌연 여름해를 망연히 보고있는데 뒤에서 감탄인지 비난인지 알수 없는 말소리가 울렸다.

《저 량반 성미가 꼭 화약갈구만.》

《…》

《너무 마음쓰지 마오. 앞으로 일이 다 잘될거요.》

류기연은 오노가 자기를 위안하느라고 그런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친구의 말이 머리속에서 뱅글뱅글 맴돌았다.

내가 정말 달라졌단 말인가?

그것이 다름아닌 친구의 충고라는데 문제가 있었다. 추진석은 깨끗한 우정 하나만을 가지고도 세상풍파를 함께 헤쳐갈 진실한 벗이였다. 그런 그가 무심히 넘길수 없는 충고를 던진것이다.

아니, 난 달라지지 않았네.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털어버리듯 한숨을 크게 내쉰 류기연은 그 자리를 성큼 떠났다.

5

퇴근준비를 하고있던 일본인기사들은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야마또》호텔의 무도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녀자가 사무실에 불쑥 들어섰던것이다.

비위가 곰발바닥같은 구마모도가 안장코를 잡아당기며 능청을 떨었다.

《소인 구마모도, 만철의 미인께 삼가 절을 올리나이다!》

그의 요령없는 아첨에 고개를 까딱거린 녀자는 늘씬한 몸을 탄력있게 흔들며 걸어갔다.

입을 헤 벌리고 보고있던 일본인기사들의 얼굴이 사나와졌다. 녀자가 멎어선 곳은 조선인기사의 책상앞이였던것이다.

《기연씨, 저예요!》

손바닥만한 수첩에 뭔가 부지런히 적어넣고있던 류기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장기출장갔다가 엊그제야 돌아왔답니다.》

류기연은 그래서 조용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언제인가 유끼한테서 한번 조용히 만나자는 편지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그 녀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었기때문이였다.

그후 어느날 퇴근길에 올랐는데 유끼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타났다.

《제가 보낸 편지를 받았는가요?》

《받았소.》

《헌데 어째서 응답이 없는가요?》

《…》

《알만해요. 이젠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뭐 달리 생각진 마세요. 제가 기연씨를 만나자는건 일전에도 말했지만 진심으로 도와주자는거예요.》

류기연은 유끼의 도움을 받고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여태 자

기의 힘과 기술로 풍파사나운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일본녀자한테서 뭔가 기대한다는것은 말도 안되였다.

그후 유끼는 땅속으로 잦아든것처럼 사라졌다. 그자신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장기출장을 갔댔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은 또 무슨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에까지 찾아왔는가.

《저녁에 시간을 낼수 없는가요?》

《왜 말이요?》

《긴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긴요하게?》

《그래요.》

두사람의 대화를 더 들어줄수 없었는지 일본인기사들은 벌떡벌떡 일어나 출입문가로 몰려갔다.

그들과 어기면서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섰다.

《유끼씨!》

뒤를 돌아본 유끼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이, 오노씨!》

그 녀자는 무도회에서 함께 왈쯔를 추었던 오노한테서 좋은 인상을 받은 모양이였다.

《오늘따라 사무실이 별로 환하다 했습니다. 허허허.》

《아이참, 오노씨두.》

《헌데 어떻게 이런 루추한 곳에 다 왕림하셨습니까?》

오노는 어줍지 않게 익살을 부리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유끼는 생글생글 웃으며 그의 질문을 받아넘겼다.

《전 뭐 여기에 오면 안되는가요?》

《무슨 말씀을, 난 언제나 환영입니다.》

미남형의 얼굴에 친절한 웃음을 담은 오노는 흥미있다는듯 유끼와 류기연을 번갈아 보았다.

《두분사이에 좋은 일이라도 있는게 아닙니까?》

유끼는 숨길것도 없다는듯 흔쾌히 응답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좋은 일이 있답니다. 호호호.》

《아, 그랬군요.》

전번처럼 녀자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는듯 류기연의 어깨를 두

드린 오노는 자기 책상으로 가버렸다.

류기연은 앞에 유끼가 서있는것을 잊은듯 연필을 수첩에 가져갔다. 그러면서도 머리속에는 의문이 맴돌았다.

이 녀자가 왜 왔을가?

자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가벼운 기침소리를 내기도 하고 옷매무시를 바로잡기도 하던 유끼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손가방에서 만년필과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는 몇자 적어넣은 쪽지편지를 책상우에 놓고나서 방을 나섰다.

그때에야 류기연은 정신을 집중해서 일에 착수하였다. …

《류기사, 퇴근하지 않겠소?》

퍼그나 시간이 지났을 때 뒤에서 오노가 말을 걸어왔다.

류기연은 머리속에 떠오른 령감을 놓칠세라 급히 적느라고 미처 응답할수 없었다. 수첩을 다 정리하고 돌아보니 오노는 이미 없었다.

이젠 나도 퇴근해야지.

수첩을 양복주머니에 쑤셔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자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수림속에 들어선것처럼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러고보면 만철은 온몸을 칭칭 감고있는 뱀과도 같았다.

불빛환한 종업원사택구역쪽으로 걸어가는데 옆에서 《기연씨!》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무실에 찾아왔던 유끼였다.

《아이참, 그 건망증은 정말… 아깐 일부러 찾아갔댔어요. 말을 들으니 그새 마음고생이 많았다더군요. 그래 다른 기사들앞에서 당신 위신을 부쩍 올려주고싶었어요. 대학시절 저때문에 신경도 많이 썼는데 그 빚을 갚는셈치고 말이예요.》

무도장에서 만났을 때도 느꼈지만 유끼는 짝사랑에 빠져 울고불고하던 지난날의 순진한 녀대학생이 아니였다.

《가자요!》

그는 제편에서 먼저 상대의 팔을 스스럼없이 잡아끌며 재촉하였다.

《어디 말이요?》

《마침 저도 종업원사택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어서 가자는데두요!》

얼마쯤 걸어갔을 때 유끼가 기쁜듯이 말을 건넸다.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당신이 새 제동기를 제작했다고.》

《별로 큰일도 못되오.》

두사람은 어느새 만철본부 종업원들이 사는 사택구역에 들어섰다.

첫번째 갈림길을 지난 류기연은 낯익은 창문을 보자 멈춰섰다.

《당신네 집인가요?》

《그렇소.》

손가방을 두손으로 모아쥔 유끼의 얼굴에 장난기어린 빛이 남실거렸다.

《제가 들어가자고 할가봐 겁나지 않은가요?》

《…》

《걱정마세요. 대학시절처럼 정신없이 쫓아다니진 않을테니.》

그때 어둠속에서 불쑥 나타난 아이가 류기연의 허리에 매달렸다.

《아부지!》

《오냐.》

한쪽으로 고개를 갸웃한 유끼는 아이를 찬찬히 여겨보았다.

《넌 아버지를 닮았구나!》

낯선 녀자를 말똥말똥 올려다보던 아이는 뒤쪽을 손짓하였다.

《저기 엄마가 있어요!》

류기연은 대문앞에 서있는 안해를 알아보았다.

몸을 곧추세운 유끼는 그쪽으로 맵시있게 걸어갔다.

《부인, 초면에 실례하겠어요.》

남편을 마중나왔다가 뜻밖에 일본녀자와 맞다든 안해는 놀라와하였다. 그러다가 아이의 손을 잡고있는 남편을 보자 영문을 알아차렸다.

《전 유끼라고 기연씨하구 대학동창이랍니다.》

《그랬군요.》

유끼는 부러운 눈길로 안해를 넘겨다보았다.

《부인은 좋겠어요. 기연씨와 같은 훌륭한 남자를 배우자로 맞았으니 말이예요. 우리 녀자들은 누구나 그런 행운을 바라지만 그런다고 누구에게나 차례지지 않는답니다.》

안해는 말없이 유끼를 보기만 하였다.

《그럼 후에 또 만나요!》

안해와 인사말을 나눈 유끼는 자신만만해서 뒤집을 손짓하였다.

《기연씨, 저게 우리 집이예요!》

류기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집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른 기사가 살고있었다. 그런데 유끼는 자기네 집이라고 하는것이다.

《안녕히!》

한손을 살랑살랑 흔들어보인 유끼는 또각또각 걸어갔다.

잠시후 뒤집에서 자물쇠여는 소리가 나더니 방에 불이 켜졌다.

얇은 창가림천너머로 방안을 오락가락하는 유끼가 보였다.

6

그는 경대를 마주하고 앉았다.

동그란 거울에 비쳐진 얼굴은 자기가 보기에도 무척 고왔다. 어찌 보면 밝은 해빛보다 은은한 전등불빛에 비쳐진 모습이 더 아름다운것같았다. 그렇지만 그 미모도 가슴속에서 이글거리는 증오의 불길에 닿으면 타버릴것이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류기연의 안해를 만나보았다. 가리마를 곧게 탄 머리와 유순한 눈매, 숙부드러운 몸짓을 보면 가정생활에 파묻힌 평범한 아녀자였다.

이 녀자가 나한테서 그를 빼앗아갔단 말인가?

지금도 대학시절 자기가 그처럼 사모하던 류기연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밤을 울고불고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를 보기만 하면 가슴이 터지고 질투심이 북받쳐올라 종시 다른 대학으로 전학가고말았었다.

유끼의 두눈은 추억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듯 가느스름해졌다. 이상하게도 영원히 잊었다고 여겼던 가슴아픈 지난날이 새록새록 밝혀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감상적인 사춘기시절 유끼가 숭배한 남자는 《명치유신》의 1등공신 사이고 다까모리였다. 이목구비가 사내답게 큼직큼직할뿐 아니라 어느한 전투에서 총상을 입자 《아, 이젠 그만하자꾸나!》 하고 주저

없이 할복자살하였다는 그의 동상앞에 서있느라면 소녀의 작은 가슴은 영웅남아에 대한 존경으로 부풀어오르면서 앞으로 그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달콤한 공상에 빠져들군 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대폭 수정되였는데 한것은 사이고 다까모리한테는 용맹은 있을망정 지혜가 부족하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였다. 다시말하면 유끼가 원하는 배우자는 용맹과 지혜를 골고루 겸비한 사나이였다.

주변에서 돌아치는 일본남자들속에는 그런 사내가 없었다. 인생을 평범하게 살고싶지 않은, 사랑을 해도 비상한 사랑을 갈망하는 유끼한테는 한형타로 찍어낸듯한 그들이 눈에 차지 않았던것이다.

그런 처녀의 망막에 신선한 모습으로 비쳐든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류기연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끼는 강의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그를 불우한 식민지청년으로, 극상해야 두뇌가 비상한 대학생으로만 여겼었다. 그러나 례사롭지 않게 흘러가는 생활은 류기연을 새로운 눈으로 볼수 있는 극적계기를 조성해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학창립절을 맞으며 열렸던 체육경기중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800메터 달리기였다.

그날 유끼도 응원석에 앉아있었는데 심판원한테서 퇴장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는 조선청년을 보자 동정심이 움터났다. 하여 중국인대학생들과 함께 그를 경기에 참가시키라고 소리쳤다. 그 동정심은 경기주로를 달리던 조선청년이 일본선수들의 지독한 방해에 부딪치는것을 보자 은연중 련대감으로 바뀌였다. 만일 류기연이 도중에 경기를 포기하였다면 그 감정은 눈물 한방울 값도 못되는 동정심으로 되돌아갔다가 인차 사라지고말았을것이다.

했으나 무릎에 강한 타격을 받고 넘어졌던 그가 절룩거리며 달리기 시작하였을 때, 폭발적인 힘으로 결승테프를 끊어버렸을 때 돌연 자신을 걷잡기 어려운 감탄으로 승화되였다. 여태 수많은 구혼자들앞에서도 랭정하던 심장은 뜻밖의 충격을 받고 뛰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그런 정도의 담력과 의지, 육체적조건이라면, 재학기간에 학사론문을 발표할 정도의 지성이라면 한번 사귀여볼만한 사내였다. 단지 아쉬운것은 그가 일본남아로 태여나지 못한것이였다. 하지만 애정으로 불타는 처녀의 심장은 그 아쉬움의 장벽을 어렵지 않

게 뛰여넘었다.

이렇게 되여 유끼는 자기의 감정을 담은 첫 편지를 류기연의 가방속에 몰래 집어넣었다. 며칠후에는 운동화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주로를 달리던 그를 위해 비싼 륙상신을 샀다.

류기연은 자기한테 선의를 베푼 처녀가 누군가 하고 찾았지만 설마 앞책상에 앉아있는 녀대학생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하였다.

일이 그쯤되자 유끼는 자기에 대한 남자의 태도를 알고싶었다. 하여 공부를 배워달라는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류기연의 하숙집에 찾아갔다. 이를테면 그 방문은 사랑이라는 무릉도원으로 통한 오솔길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데 그 《오솔길》에 차단봉이 내리워질줄이야.

언제나 뭇사내들의 불같은 청혼에 시달리고 그로 하여 자부심이 본토의 부사산만큼이나 높은 자기가 조선청년한테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니 분하기 짝이 없었다.

난생처음 모욕을 당한 유끼는 너무 분해서 눈물을 좔좔 흘렸다.

그럴수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류기연을 정복하겠다는 욕망이 더욱 치솟는것이였다.

하루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조선음식점에서 여러명의 사나이가 쓸어나왔다.

《그저 우리 농마국수가 제일이라니까.》

《농마국수뿐인가? 김치는 또 어떻구. 찡한 그 맛이란 셋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르지.》

《아무렴, 이 타향에서야 제일 그리운게 조선음식이지.》

조선말을 어느 정도 알고있는 유끼는 정신이 버쩍 들었다.

그 남자도 조선음식을 그리워하겠구나!

음식을 주문하려고 돈지갑을 꺼내던 유끼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돈을 내고 음식을 주문하는건 성의가 없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야 해. 그러면 그도 일본녀자라고 멀리하지 못할거야.

조용한 때를 기다리다가 조선음식점으로 들어갔다.

료리사들은 일본처녀가 조선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워달라고 하자 놀라와하였다.

유끼는 돈을 꺼내놓으며 제발 배워달라고 사정사정하였다.

그날부터 그는 조선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조선음식은 그 종류와 료리방법이 참으로 신비롭고 다양하였다. 얼마동안 배우고보니 어느 정도 자신심이 생겼다.

다음 단계로 류기연의 일과를 관찰하였다. 그는 방과후 대학운동장에서 야구훈련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녁늦게야 하숙집에 돌아가군 하였다. 게다가 하숙집주인녀자도 한동안 자리를 뜨고 없었다.

그날도 류기연은 대학운동장에서 야구훈련을 맹렬히 하고있었다.

유끼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붙안고 그의 하숙집으로 달려갔다.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만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음식감들을 펼쳐놓고 록두지짐부터 부치기 시작하였다. 록두지짐을 다 부치자 찰떡을 치고 된장을 넣은 두부장과 소고기전도 만들었다. 마지막에는 집에서 담그었던 김치까지 밥상우에 올려놓았다.

밥상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유끼는 집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며칠후에는 다시 찾아가 방구석에 쌓아둔 옷가지들을 깨끗이 빨았다. 그후로는 더 가지 않았다. 자칫하면 하숙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을 두고 신경쓰는 류기연과 마주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어느날 유끼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류기연이 일요일마다 지난 로일전쟁시기 가장 치렬한 격전장이였던 옛 고지에 올라 머리쉼을 하군 한다는것이였다.

그날 아침 유끼는 일찍 깨여나 부지런히 조선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음식들을 등산배낭에 차곡차곡 넣고 집을 나섰다.

굵은 전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한참이나 기다리는데 정말 류기연이 나타났다. 활랑거리는 가슴을 붙안고 살금살금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산정점에 오른 류기연은 우뚝 서서 동쪽하늘가를 추연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보면 그가 이곳에 오는 목적은 공부를 하느라고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려는것이 아니라 바다건너에 있는 고국을 보기 위해서였다.

인기척을 느낀 류기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유끼는 제편에서 먼저 놀란 시늉을 하였다.

《아니, 기연씨가 아니예요?!…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아무 눈치도 차리지 못한 류기연은 무뚝뚝하게 대꾸하였다.

《바람을 쏘이러 올라왔소.》

유끼는 마치도 그 단순한 이야기속에서 자기들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찾기라도 한듯 뜻있는 웃음을 지었다.

《저도 같애요. 이곳 공기가 좋다고 하더군요.》

《음, 그럼 천천히 내려오우.》

기색을 보니 류기연은 일부러 자기를 피하고있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고있는 유끼였다.

《제가 방해한게군요.》

《방해는 무슨…》

《그럼 어째서 절 보자마자 내려가는가요? 혹시 전번에 제가 찾아갔던 일때문에 그러는건 안예요?》

《…》

《그 일은 잊어버리세요. 나도 잊었답니다. 참, 제가 뭘 좀 싸왔는데 이왕 만난김에 같이 들지 않겠어요?》

류기연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지 산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유끼는 얼른 배낭을 내려놓고 음식그릇들을 꺼내기 시작하였다.

놀란 눈으로 그가 차려놓은 조선음식들을 내려다보던 류기연은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사람이 바로 유끼였구만.》

《타향에 와서 고향음식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래서… 아이, 서있지 말구 앉으세요. 어서요.》

유끼는 생글생글 웃으며 음식그릇앞으로 류기연을 잡아끌었다.

차마 거절할수 없었던지 그는 자리에 앉았다.

《솜씨가 서툴지만 제 성의로 알고 드세요.》

음식을 둘러보던 류기연은 먼저 김치그릇에 저가락을 가져갔다.

이 사람은 김치를 제일 좋아하누나!

그가 김치를 우적우적 씹자 혹시 맛없으면 어쩌나 하고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확 트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자고 지금껏 애쓰지 않았던가.

그러는데 류기연이 움쭉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벌써 일어나세요?》

《잘 먹었소.》

순간 온몸의 기운이 땅밑으로 빠져나갔다. 공부를 배워달라는 부탁도, 음식으로 감동시키려던 일도 모두 수포로 돌아간것이다.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없었다.

막 울고싶은 마음으로 류기연을 따라 산을 내리던 유끼는 오똑 멈춰섰다.

이대로 끝날순 없어!

7

멀쩡한 발목을 붙잡고 아부재기를 쳤다.

《아야!… 아이, 아파라!》

앞에서 걸어가던 류기연이 웬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디 다쳤소?》

《예, 오른쪽발목… 아니, 왼쪽발목이…》

머뭇거리던 그는 어쩔수 없었는지 스적스적 다가왔다.

됐구나 하고 유끼는 속으로 웃었다.

《보기요.》

큼직한 손이 발목을 잡자 온몸에 전기가 찡— 흐르는것같았다. 그 흥분을 감추려고 숨을 가만히 멈추었다가 의아해하는 류기연의 얼굴을 보자 다시금 아야야! 하고 비명을 올렸다.

《좀 참소.》

한참동안 발목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던 류기연은 어떤가고 물었다.

《아직… 아파요!》

랑패한 기색을 짓고있던 그는 저쯤에 갔다가 굵은 나무가지를 얻어가지고 왔다.

《이걸 쥐오.》

얼굴을 찡그리고 지팽이를 넘겨받은 유끼는 다리를 살룩살룩 절며 걸었다.

류기연은 부축해줄념은 않고 옆에서 천천히 따라걷기만 하였다.

무슨 남자가 이렇게 뚝할가?

유끼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이 순간을 놓치면 자기가 사모하는 남자를 쟁취할수 없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렇다. 기회란 새와 같아서 푸드득 날아가면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냉큼 지팽이를 내던지고 풀썩 주저앉았다.

《더는… 못걷겠어요!》

류기연의 얼굴에 난처한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우유부단하고있다는 증거였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에 부채질을 해야 하였다.

《제 걱정은 말고 먼저 내려가세요!》

아무도 없는 산중에 다리를 상한 처녀를 남겨두고 내려갈 무정한 남자가 어디 있으랴.

아닐세라 주저주저하던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날 잡소.》

유끼는 너무너무 기뻐서 손벽이라고 치고싶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종시 돌부처같은 이 남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시작한것이다.

몹시 내우하는척하며 남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

《전… 괜찮아요.》

《잡으라니까.》

《일없다는데두요.》

그러자 류기연은 때늦은 대담성을 발휘하여 유끼의 손을 움켜잡았다.

가슴속에서 또다시 웃음이 쏟아져나왔지만 유끼는 못견디는척하고 그를 따라섰다.

보는 사람이 없는 산속에서 처녀의 손목을 잡고있었지만 류기연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이번에도 유끼쪽에서 한걸음 내짚어야 하였다. 힘에 부친척하며 남자의 어깨에 불룩한 젖가슴을 살며시 기댔다.

순간 남자의 어깨가 흠칫 떨리는것이 알렸다. 그렇지만 처녀가 힘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걸음을 내짚는것이였다.

그런 상태에서 얼마쯤 산을 내리자 유끼는 초조해났다. 승용차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가 멀리로 보였던것이다. 이제는 상대를 옴짝 못하게 할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하였다.

류기연의 거동을 살피고있던 유끼는 발목이 아파서 걷기 힘든것처럼 멈춰섰다.

류기연도 덩달아 걸음을 멈추었다.

이때다 하고 유끼는 아픈 흉내를 걷어치우고 대담하게 사내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어?》

뜻밖의 충격에 놀란 류기연은 어리벙벙해있다가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한테 달라붙은 처녀를 떼여내려고 하였다.

그럴수록 유끼는 남자의 품속으로 이악스럽게 파고들었다. 그와 함께 연지냄새가 풍기는 입김을 류기연의 얼굴에 끼얹었다.

《기연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숨을 할딱거리던 유끼는 가슴속에 고패치는 격정의 폭포를 아낌없이 쏟아놓았다.

《저도 이렇게 하는게 례의에 어긋난다는것을 모르지 않아요. 허지만 난…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예요!》

류기연의 가슴은 풍랑을 만난 배마냥 세차게 들먹이였다. 그는 유끼가 열심히 지펴올린 사랑의 불길에 휘말려 갈팡질팡하고있었던것이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요!》

《이, 이걸 놓소!》

남자는 처녀를 품에서 떼여놓으려고 하고 녀자는 사내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싱갱이질이 벌어졌다. 두사람의 발밑에서 애꿎은 풀대들이 꺾어졌다.

마침내 억센 손아귀가 유끼의 두팔을 풀어던졌다.

남자한테서 밀려난 유끼는 수치감으로 빨개진 얼굴을 두손으로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머리우에서 벼락같은 추궁이 울렸다.

《그래, 이러자고 여기에 따라올라왔소?》

유끼는 몸부림을 치며 부정하였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윽고 유끼의 두손이 천천히 내려졌다. 그러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나타났다.

《기연씨, 전… 당신을 사랑할뿐이예요. 설사 당신이 조선사람이라고 해도 개의치 않겠어요.》

《듣기 싫소!》

유끼는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자기의 불갈은 사랑이, 목숨처럼 소중한 애정이 터치는 애처로운 비명이였다.

유끼의 눈에 울분의 빛이 번뜩이였다.

《듣기 싫다구요? 어쩌면 그렇게 말할수 있어요? 난 당신한테 심장을 통채로 내주었는데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가요? 그래, 당신도 사람이예요? 심장에 더운 피가 흐르는 사낸가 말이예요?》

《…》

《저한테도 자존심은 있어요. 목숨과도 바꾸고싶은 그런 자존심 말예요. 허지만 그건 당신에 대한 사랑보다 귀중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어요. 물론 저도 당신이 그러는 리유를 알아요. 그래요. 전 일본사람이고 당신은 조선사람이예요. 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한 처녀가 훌륭한 남자를 만나 온넋을 바쳐 사랑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민족이니, 국적이니 하는 개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말예요.》

숨을 크게 내쉰 류기연의 입에서 폭탄같은 말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우리 다신 만나지 말기요.》

몽둥이에 얻어맞은 고양이처럼 몸을 바르르 떨고있던 유끼는 숨가쁘게 다우쳐물었다.

《그게 진정인가요? 자기를 정신없이 따라다닌 처녀한테 그런 말밖에 할수 없는가요?》

그러거나말거나 류기연은 성큼성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유끼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땅을 두드렸다.

《기연씨, 난 어쩌라는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면 이 유낀 어떻게 하라는가 말이예요?》

묵직한 발자국소리는 천천히 멀어져갔다. …

한달후 유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고향에 갔던 류기연이 결혼했다는것이 아닌가. 그가 자기와 결혼하지 않을것이라고는 짐작하였지만 정작 다른 녀자를 일생의 반려로 선택했다고 하자 미칠 지경이였다.

발이 어떻게 놓이는줄도 모르고 교정을 나서는데 앞에서 두 남자가 마주 걸어왔다. 한사람은 별스레 얼굴이 훤한 류기연이였고 다른 사람은 그의 친구인 추진석이였다.

금시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고 류기연을 쳐다보았다.

《기연씨, 축하해요!》

죽어도 하고싶지 않은 그 말이 자기 입에서 튀여나갔을 때 그는 심장이 아프다 못해 쿡쿡 쑤시는것을 느꼈다. …

유끼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갔다.

불빛이 밝은 앞집에서 쟁쟁한 아이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류기연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고있는것이다.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린 유끼는 원탁으로 다가가 전화기번호판을 찌르륵, 찌르륵 돌리였다.

그러자 붕― 하는 신호음이 나더니 석쉼한 남자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곧 가겠습니다.》

8

얼굴을 잔뜩 찌프렸던 하늘은 저녁무렵이 돼오자 본성을 드러냈다.

정신을 차릴새없이 창살같은 비줄기를 냅다 쏟아붓더니 그것으로 성차지 않은지 폭풍까지 몰아왔다.

가로수들은 위태롭게 휘청거리고 소화능력을 상실한 하수도가 넘쳐나 차길에 물이 출렁거렸다. 그속에서도 궤도전차가 땡땡― 종을 울리며 움직이다가 우로 건너간 전기줄에서 벙긋벙긋 섬광을 일으키더니 멈춰서고말았다.

고베시는 온통 물바다, 물천지로 변하고말았다.

강영창은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들쓰며 신까이찌거리를 걸어가고있었다.

여느때 같으면 어디서든 비가 멎을 때를 기다렸겠지만 지금은 꿈만하였다. 앞이 보이지 않아 도수안경을 벗어들고 물기를 훔쳤으나 인차 흐려졌다. 하기야 이놈의 세상에서 안경알이나 맑다고 달라질게 뭐란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하고 허무하기 그지없었다.

조수로 임명된 첫날 실험복을 세탁하라고 집어던진 이마무라는 한해가 지나도록 연구에는 참가시키지 않고 자질구레한 일감만 안겨주었다.

고장난 손목시계수리, 출근하다가 터진 자전거바퀴수리, 제 집의 창문유리교체…

어제 겨울용석탄을 실어주라고 하기에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이마무라네 집에 갔더니 안주인이 창고안에까지 넣어달라고 하였다. 석탄을 창고안에 다 집어넣자 이번에는 누비돗자리를 밖에 내다가 거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여보시오, 내가 이 집 하인인가 하오?》

안주인의 뾰족한 턱이 바르르 떨렸다.

《당신은 우리 남편 조수가 아니요. 그럼 연구사가 지시한대로 해야지 그게 무슨 태도요?》

안주인도 남편을 꼭 닮아서 사람을 시켜먹는데 이골이 났다.

《그런건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안주인이 앙앙거렸지만 강영창은 짐수레를 끌고 돌아오고말았다.

오늘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자 이마무라가 아래입술을 비죽 내밀고 맞아주었다.

《어젠 뭐야?》

강영창은 그가 생트집을 거는 리유를 알았지만 모르쇠를 하였다.

《뭘 말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방청소를 도와달라고 했으면 도와줘야지 왜 그냥 돌아갔는가?》

《그게 연구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래입술을 보기 흉하게 비틀고있던 이마무라가 주절거렸다.

《좋다. 조수가 싫다면 소장님을 만나라.》

그 말속에는 다른 연구사들은 널 조수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걸 그래도 내가 가엾게 여기고 받아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 내밑에 더는 있을수 없다는 위협이 깔려있었다.

강영창은 또다시 운명적인 선택을 하여야 하였다.

연구소를 그만두는가? 아니면 모욕을 참으면서 연구사로 임명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번에도 그가 이를 사려물고 이마무라곁을 떠나지 않은것은 대학선배인 류기연과 한 약속때문이였다.

《난 만주에서, 자넨 일본에서 힘껏 달려보세.》

일본으로 건너오기 전에 만났을 때 그가 한 이야기였다. 만약 류기연이 앞에 서있다면 이렇게 묻고싶었다.

《형님,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

고베시를 물바다에 잠근 폭우는 여전히 기세등등하였다.

하늘을 찌를것처럼 두손을 우로 쳐들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더 세게 내려라. 그래서 이 더러운 땅을 모조리 삼켜버려라!

하숙집에 돌아오니 또 불쾌한 일이 기다리고있었다.

비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대충 짜고 눅눅한 방바닥에 누웠는데 주인집녀자가 찾아왔다.

《이달 하숙비를 내야겠소.》

한푼이라도 곯을가봐 손에 침을 발라가며 돈을 세여본 주인집녀자는 코맹맹이소리로 돈을 더 내라고 하였다. 전쟁통에 전기값이 껑충 뛰여올랐다고 한다.

요구한 액수만큼 돈을 더 내주고나자 걱정이 들었다. 자기가 타는 월급은 이마무라의 절반에 절반도 못되는데 추가된 하숙비까지 내고나니 고향에 보낼 돈이 몇푼 남지 않았던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남은 돈을 트렁크에 집어넣다가 한장의 사진을 띄여보았다. 힘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꺼내보군 하는 그 사진은 류기연과 함께 찍은것이였다.

대학선배는 의자에 앉고 자기는 뒤에 서있는 모습을 보느라니 불현듯 그를 처음 만나던 일이 생각났다.

…우유병꾸레미를 량손에 갈라쥔 강영창은 중국의 려순거리를 헤매고있었다. 물결치듯 오가는 사람들속을 걸어가는데 언제 한번 만족을 느껴본적 없는 창자가 꼬르륵, 꼬르륵 불평을 터뜨렸다. 좀전에 얄팍한 지짐 한짝을 사먹었지만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는다. 욕심 같아서는 서너짝쯤 사먹고싶어도 돈이 아까와서 참을수밖에 없었다.

대구에서 살고있는 어머니는 여덟이나 되는 가족을 비좁은 방에 몰아넣고 다른 방에 하숙생들을 받아들여 치르다가 중병에 걸리자 그 일을 그만두었다. 앓는 어머니와 여섯 형제의 운명은 보통학교교원인 아버지의 로임에 달려있었다.

청빈한 교육자의 보잘것없는 로임은 모래불에 떨어진 물방울같았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겨울날 누덕누덕 기운 한채의 이불속에 온 가족이 두발을 밀어넣고 《똬리잠》을 자는 형편이였다.

강영창은 부모에게 월사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우유배달이나 신문팔이, 식당청소와 같은 잡일을 닥치는대로 하군 하였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학의 강도 역시 점점 높아졌다.

3학년에 진급하자 그는 방과후에 려순항에서 부두작업을 하였다. 부두로동이란 워낙 육체가 든든한 장정들도 견디기 어려운 고역인데 키만 멋없이 큰 고학생이 큼직한 짐짝을 메고 높은 사다리를 오르내린다는것은 저승사자의 이마우에서 곡예를 하는것과 같았다. 그래도 돈을 받아쥐면 다음달에도 공부할수 있게 되였구나 하는 기쁨으로 무너져내리는 육체와 차돌이라도 삼키고싶은 배고픔을 달래군 하였다.

부두일을 끝내고 하숙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배운 강의내용을 복습하느라고 밤을 밝혔다. 저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새벽닭울음소리에 으시시해서 깨여나면 인중이 뻣뻣한데 이게 뭐야 하고 만져보니 굳어져버린 코피였다.

래일은 월사금을 바치는 날이다. 가난한 대학생에게 있어서 그것처럼 큰 근심거리는 없다. 실력이 뛰여나도 월사금을 내지 못하면 사각모를 벗고 대학정문을 나서야 하는것이다. 죽어도 공부하고싶었지만 그것은 땀젖은 손에 월사금이 쥐여있을 때나 품게 되는 꿈이였다.

한달전부터 려순항에서는 공사를 하느라고 부두작업이 중지되였다. 그렇다고 그냥 앉아있을수 없어서 요즘은 품값이 보잘것없는 우

유배달을 다시 시작하였던것이다.

빵빵!—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던 승용차가 앞에서 멎자 미끈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내렸다. 서로 다정하게 팔을 낀 그들은 온 천하가 자기들의것이라는듯 큰소리로 일본말을 주고받으며 걸어왔다.

손님들과 가까와지자 강영창은 옆으로 비켜섰다. 그런데 활개를 저으며 지나가던 남자의 팔이 우유병꾸레미를 건드렸다.

가뜩이나 맥이 없던 그의 몸이 중심을 잃고 비칠거리다가 그만 우유병꾸레미를 놓치고말았다. 그바람에 땅바닥에 떨어진 유리병들이 련달아 깨지면서 허연 우유가 사방으로 튀여났다.

땅에 쏟아진 우유를 보자 눈앞이 캄캄해났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때 옆으로 지나가던자가 돌아서더니 대뜸 멱살을 그러쥐였다. 방금전 우유병을 건드린 왜놈이였다.

《당장 내 구두를 닦으라!》

우유값때문에 속이 타는데 구두를 닦으라고 하자 화가 치밀었다.

《우유를 깬건 당신인데 내가 왜 구두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찬 타격이 가해지면서 안경이 뚤렁 떨어졌다.

《이 쪽발이새끼!》

강영창의 긴 팔이 허공을 날았다. 하지만 맥이 없는지라 타격이 강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연방 날아드는 왜놈의 주먹질에 얻어맞고 꼬꾸라졌다.

《야앗, 죽어라. 죽어!》

아무런 방비대책도 없는 뒤잔등에 구두발이 곡괭이처럼 내리꽂혔다.

어찌나 아픈지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치는데 주위가 조용해졌다.

안경을 찾아 얼굴에 걸자 성벽처럼 가로막은 넙적한 잔등이 보였다.

《왜 사람을 치는거요?》

왜놈의 말소리가 구원자의 어깨너머로 들려왔다.

《저놈이 내 구두에 우유를 쏟았단 말이요.》
《그럼 닦으면 되는거지 이건 너무하지 않소.》
《당신은 상관말고 가기나 하오.》
《나도 조선사람인데 왜 상관없다는거요?》
상대의 당당한 기상에 겁을 먹었는지 왜놈은 우물쭈물하다가 《어이, 하나꼬!》 하고 뛰여갔다.
무슨 구경거리가 생겼는가 하고 모여든 사람들은 불쌍한 우유배달군의 잔등우에 엽전이라도 던지듯 한마디씩 하였다.
《그놈이 달아난걸 보니 저 대학생이 무서웠던게로구만.》
《지금 세월에 저런 사람도 흔치 않소.》
수다를 떨고있는 구경군들의 머리우로 위엄있는 말소리가 날았다.
《어서들 가보십시오.》
주위가 조용해지자 그 남자는 뒤로 돌아섰다.
강영창은 첫눈에 그가 몇달전 학사론문을 발표하여 대학을 들었다놓은 상급생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혹시 려순공대 학생이 아니요?》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사정이야 어떻든지 상급생앞에서 망신을 당한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더 확인하지 않고 말머리를 바꾸었다.
《일없겠소?》
《예.》
《어서 가보우.》
상급생과 헤여져 터벌터벌 걸어가던 강영창은 걱정스러웠다. 몇푼 안되는 돈중에서 깨진 우유값을 물고나면 월사금은 고사하고 두달째 밀린 하숙비도 물수 없다.
저 멀리 어둠에 잠긴 려순항이 안겨왔다.
로일전쟁시기 수많은 군함들을 삼켜버렸다는 무시무시한 항구.
바다속에 빠진 군함들은 얼마나 편안할가? 나처럼 월사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허 참, 군함이 월사금이 뭔지 알게 뭔가?
이상하게도 두다리는 자석에 끌린것처럼 방파제쪽으로 움직이였다.
방파제를 삼켜버릴것처럼 무섭게 달려드는 시꺼먼 파도를 보자

그속에 풍덩 빠지면 마음이 편안할것같은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까짓, 죽으면 더 편안하겠지.

파도가 덮쳐드는 방파제우에 올라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와락 잡아당겼다.

어깨박죽이 떨어져나갈것같은 충격에 허공에서 둥둥 떠다니던 넋이 황황히 되돌아왔다.

《어쩌자는거요?》

왜놈의 매질에서 구원해준 상급생이였다.

《왜 날 따라다니며 못살게 구는거요?》

상급생의 큼직한 두눈에 열기가 번뜩이였다.

《사내대장부가 이게 뭐요. 응?》

강영창은 입안에서 쓰거운 웃음이 맴도는것을 느꼈다.

《각자는 제갈길이 있습니다.》

순간 얼굴에 강한 타격이 가해지더니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약해가지구 무슨 공불 하겠소?》

어찌된건지 귀뺨은 얻어맞았지만 밤파도처럼 차겁던 가슴이 훈훈해졌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 타향에도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쌓였던 설음이 울컥 북받쳐올랐다.

상대방을 외면하고 옆으로 돌아섰다. 두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저 열기띤 목소리가 귀전을 왕왕 울릴뿐이다.

《그렇게 나약해가지구 무슨 공불 하겠소?》

내가 나약하다구? 아니, 나도 공부를 하고싶소. 그렇지만 월사금을 낼수 없으니 어떻게 한단 말이요. 어떻게?

뒤쪽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더니 손에 뭔가 슬그머니 쥐여졌다. 뭔가 하고 내려다보니 돈이였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상급생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방금전 생명을 끊어버릴 극단한 결심까지 했었으나 이제 와서 돈뭉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강영창은 코등에 내려오지도 않은 안경테를 꽉 움켜잡았다.

9

오늘도 도서관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몰려들어 책을 빌려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있었다.

강영창은 줄곧 출입문앞을 지키고 서있었다.

이젠 나타날 때가 됐는데…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들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자존심과 퇴학이라는 두 적수가 맹렬히 다투고있었다.

남의 돈으로 월사금을 낸다는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도깨비에 홀린것처럼 자꾸만 눈길은 베개옆에 놓인 돈에 쏠렸다.

래일은 월사금을 바치는 날이다. 만일 월사금을 내지 못하면…

온밤 엎치락뒤치락하던 그는 종시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월사금을 바치고 강의실로 들어갔다.

《어디서 금덩이라도 얻었나?》

《하니까 우유배달을 걷어치웠다는거지?》

《그러게 사람팔자란 모르겠다는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지껄이는 동창생들을 보자 속이 불끈거렸다.

에이, 빨리 돈을 돌려주고말아야지.

일이 되려니까 공사를 하느라고 짐군들을 받지 않던 려순항에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젠 값눅고 창피한 우유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였다. 수업을 마치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면 수수지짐짝을 사서 입에 쓸어넣고 부두로 달려갔다. 힘겨운 작업이 끝나면 받은 돈을 품속에 밀어넣고 역시 풀기없는 수수지짐으로 때늦은 저녁끼니를 굶땠다.

어떤 날은 그 잘난 지짐 한짝 값도 아까와 랭수를 벌컥벌컥 들이키기도 하였다. 그통에 가뜩이나 실하지 못하던 몸은 아예 뼈깡다리가 되고말았다.

강의시간에 몰려드는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때가 많아졌다. 그속에서도 하루하루 불어나는 돈을 보느라면 움츠러들었던 존엄이 여봐라 하고 소리치군 하였다. 드디여 그 상급생한테 돌려줄 돈이 마련되였다.

오전수업을 받고 운동장으로 나가니 야구팀이 훈련하고있었다.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우는 선수는 타수 류기연이였다. 야구방망이를 어깨뒤로 넘겼다가 투수가 던진 공을 힘껏 쳐갈기고 진을 향해 질풍같이 달려가는 그 모습은 감탄할만하였다.

그동안 그와는 두번정도 만났었다. 한번은 대학복도에서, 또 한번은 도서관에서…

류기연은 매번 아무 일도 없었던듯 평온한 기색이였다.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굴뚝같은 고학생에게는 그 모습이 부담스러웠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야구훈련을 구경하느라고 대학생들이 가득 모여있는 운동장에서 꾸었던 돈을 돌려주는것은 미욱한짓이다. 저녁에 하숙집으로 갈가? 아니, 그건 좀 구차해. 그럼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가? 그것도 아니야.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거던.

그리하여 강영창은 떠들썩하던 운동장이 조용해지자 도서관으로 왔던것이다.

반시간쯤 지났을 때 류기연이 나타났다. 사서한테서 참고서를 빌린 그는 창문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할 잡도리같았다.

강영창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한테로 다가갔다.

《미안합니다.》

책장을 번지고있던 류기연은 그를 보자 씩 웃었다. 두세번 만났지만 못본척하고 지나가던 그가 찾아온것이 반가운 모양이였다.

강영창은 바지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그땐 고마웠습니다.》

돈을 받을념은 않고 바라보던 류기연이 심중한 어조로 물었다.

《다음달은 어떻게 하겠소?》

《어쨌든 받으십시오.》

원래 돈을 돌려주면서 동정은 필요없다고 말하려댔는데 너무한것같아서 그만두었다.

류기연은 돈을 받을 자세가 아니였다. 그렇다고 계속 서있을수도 없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으니까.

돈뭉치를 류기연의 책가방안에 넣어주고 돌아섰다.

《강군!》

내 이름을 알고있었구나!

《부두일은 관두는게 좋겠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월사금을 마련한단 말인가?

며칠후 하숙집주인이 찾아왔다는 련락이 왔다.

하숙비를 내지 않았다고 노발대발하더니 대학에까지 찾아온것이다. 월사금을 내는것도 빠근한데 참으로 죽을 맛이다.

대학정문을 나서자 한쪽다리를 호들호들 떨고있던 하숙집주인이 능청을 떨었다.

《난 임자가 <도피>했는가 했지?》

강영창은 얼른 그를 잡아끌고 가까운 공원으로 향하였다.

《천천히 걷자구. 이거야 어디 따라갈수 있나.》

조용한 곳에 이르자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댔다.

《돈때문에 오신줄 압니다.》

숨을 할딱거리던 하숙집주인은 돈소리가 나오자 홀쭉한 배를 앞으로 내밀며 위세를 돋구었다.

《아무렴, 내가 뭣때문에 예까지 왔겠나.》

그한테서 쏟아져나올 장광설은 듣지 않아도 뻔하였다.

무슨 사람이 그렇게 뻔뻔스러우냐? 그래도 월사금은 꼭꼭 바친다면서? 오늘중으로 하숙비를 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그저껜 안됐네. 집에 돈이 돌아가지 않아 독촉했는데 어쩌겠나. 대학물을 먹은 임자가 리해하게.》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숙비를 내지 않는다고 두눈에 달이 떴던 사람이 오늘은 한여름날의 엿가락처럼 말랑말랑해진것이다.

《난 임자가 그렇게 속이 깊은줄은 몰랐네. 글쎄, 밀렸던 두달분 하숙비를 통채로 물줄 알았으면 욕을 안하는건데…》

하숙집주인은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만 잔뜩 늘어놓고있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원, 시치미를 떼겠나? 이걸 보게.》

그는 황색조끼주머니에서 지페뭉치를 꺼냈다.

《좀전에 임자 사촌형이 와서 자네대신 왔노라며 돈을 주었는데두?》

도저히 믿을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사촌형은 려순에서 큰 음식점을 운영하지만 심보가 놀부 찜쪄먹을 인간이다. 한번은 하숙비를 변통해볼가 하고 찾아갔었는데 돈을 꿔주기는커녕 나한텐 너 같은 사촌동생이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다시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내쫓았다.

그런 사람이 도움도 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 하숙비를 물어주었다니 얼음우에 꽃이 피였다는 말보다 더 희한한 일이다.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취중에 삭갈린게 아닐가? 아니, 술을 마시지 않았고 또 억병으로 마신다고 해도 가난한 하숙생이 돈을 물었는가 안물었는가쯤은 삭갈리지 않는 인간이다.

메밀눈을 뱅글뱅글 굴리던 하숙집주인이 은근하게 물었다.

《듣자니 다른 집으로 옮겨간다지?》

뭐, 내가 다른 집으로 옮겨간다구?

《이보라구, 다신 하숙비를 재촉하지 않을테니 우리 집에 그냥 남아있으라구.》

도대체 무슨 도깨비판인지 모르겠다.

약삭바른 하숙집주인은 그의 의중을 나름대로 넘겨짚었다.

《하기야 돈많은 사촌형이 있는데 그런 한심한 하숙방에 있겠나.》

짜장 서운해하며 돌아서던 그는 잊을번했다며 덧붙였다.

《임자 짐은 사촌형이 날라갔네.》

하숙집주인은 밀렸던 하숙비를 받은것이 다행스러웠던지 흥흥거리며 가버렸다.

그가 알려준 새 하숙집은 대학에서 엎디면 코가 닿을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여름이면 천정에서 비물이 뚝뚝 떨어지고 썩은 나무울바자사이로 렴치좋은 닭들이 좋아라 하고 드나들던 이전 집과 달리 지붕에 새 기와를 얹고 울바자도 벽돌로 쌓은 아담한 집이였다.

강영창은 한식경이 지나도록 밖에서 서성거렸다.

지금도 사촌형의 덕행이 믿어지지 않았다. 했으나 토방우에 놓여있는 낯익은 이사짐(멜끈이 끊어진 책가방과 학습장만하게 기운 자리가 난 이불)을 보면 거짓말은 아니였다.

들어갈가말가 하고 망설이는데 미닫이문이 드르르— 열리더니 한

남자가 토방우에 성큼 나섰다.

강영창은 자기가 잘못 봤는가 하고 안경테를 추슬렀다. 그는 대학상급생인 류기연이였던것이다.

《왔으면 들어와야지.》

그런즉 밀렸던 하숙비를 물어주고 이사짐을 날라온 사람도 바로 그였다.

《이건 뭡니까? 날 뭘루 보는겁니까?》

그 말뜻을 음미하듯 잠잠하던 류기연은 안으로 들어가자고 손짓하였다.

그까짓것, 들어가자면 들어가지 뭐.

그를 따라 방에 들어선 강영창은 놀랐다.

참고서와 학습장들이 가득 널려있는 둥그런 책상, 방바닥우에 나딩구는 설계도면들, 나무로 만든 기관차모형…

그중에서 눈길을 끈것은 벽에 걸려있는 길다란 족자였다.

《내가 죽거든 시신을 병원에 보내 해부하고 뼈를 추려 잘 철했다가 실험실표본으로 써라!》

《이건 남강 리승훈선생님의 유언이요.》

옆에 서있던 류기연이 알려주었다.

…남강은 오산학교를 설립할 때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것은 물론이고 모자라는 자금은 친구들과 유지들에게서 구하느라고 밤낮을 잊고 뛰여다녔다.

그에게 있어서 오산학교는 학교이기 전에 한가정이고 수련소였다. 설립취지부터 학문보다 나라를 구하는것이 목적이였으므로 교원도 학생도 다같이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낮에는 시간표대로 배웠지만 저녁이면 교원, 학생 할것없이 모여들어 식민지조선의 형편과 세계정세 등을 론하였다.

남강은 다른 교원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일하였다. 그자신이 설립자인 동시에 교장이고 교원이였으며 또한 학생이기도 하였다. 오산학교를 나온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검소하고 소박하며 민족정신이 높은것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모두 남강한테서 배운것이였다.

남강은 조회시간이면 운동장연단에 올라 쇠소리나게 소리치군 하였다.

《이 젊은 놈들아, 정신차렷!》

그 훈시속에는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전심전력할것을 바라는 눈물겨운 소원이 깃들어있었다.

남강 리승훈은 뜻을 이루지 못한채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였다. …

《남강선생님의 뜻은 아직 살아있소.》

이렇게 뇌이고 동안을 두었던 류기연은 계속하였다.

《우린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기술로 왜놈들을 이겨야 하오. 그 길에서 만난 조선사람은 그가 누구든 나의 벗이요.》

비로소 강영창은 류기연이 자기를 도와준 까닭을 알수 있었다.

그것은 값눅은 동정이 아니였다. 타국에서 함께 고생하는 동포들끼리 서로 돕고 위해주면서 곤난을 함께 뚫고나가고싶어하는 진정이였다. 그러한 류기연이야말로 자존심을 숙이고 존경할만한 선배가 아닐수 없었다.

《자, 오늘부터 나하구 함께 있기요.》

마음 같아서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실력높은 그와 함께 있고싶었다. 그한테 마음을 의지하고 기술을 배우고싶었다. 하지만 미안한 일이였다. 본인도 하숙생활을 하고있는데 부담을 줄순 없지 않는가.

《전 원래 있던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 강군의 자존심이 나라잃은 설음보다 크단 말이요?》

그의 절절한 이야기는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제부터 우리 형, 동생처럼 지내기요. 응?》

가식이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진정에 강영창은 눈굽이 확 젖어들었다.

《선배님!》

《이제 보니 영창인 눈물이 헤프구만.》

류기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강영창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다. …

강영창은 사진속의 류기연을 들여다보며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꼭 연구사가 되겠습니다!》

10

만철본부의 회의실은 웅성웅성 끓고있었다.

《들었나? 이제 표창수여식을 한다누만.》

《그 행운아는 누군데?》

《누구긴 누구겠나. <아시아>호에 고속도제동기를 설치했다는 그 반도인이지.》

《에익, 이건 우리 야마도민족의 수치네. 수치!》

중구난방으로 떠들던 그들은 기술부장이 연단에 나타나자 입을 다물었다.

투실투실한 목을 좌우로 돌리며 장내를 둘러본 그는 틀진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에, 모두 보았겠지만 <아시아>호는 정시운행을 하고있소. 만주대륙을 힘차게 달리는 그 모습을 보느라면 <대동아공영권>을 위해 매진하는 제국의 기상이 느껴진단 말이요. 에, 난 총재님의 명의로 <아시아>호의 정시운행을 보장하는데서 공을 세운 기술자에게 금시계를 수여하려고 하오.》

적의가 어린 수십쌍의 눈길이 회의실중간에 앉아있는 조선인기사한테 쏠렸다. 이제 기술부장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튀여나올것은 불보듯 뻔하다.

《오노 사부로!》

일본인기사들은 놀란 눈으로 마주보았다. 기술부장이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여겼던것이다. 그 짐작을 비웃듯 웅글은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오노 사부로!》

조용하던 회의실이 다시금 소란스러워졌다.

《그럼 그렇겠지.》

《어휴, 난 진짜 그자가 금시계를 타는줄 알았구만.》

《아무렴, 총재님이 그자를 표창하겠나?》

《가만, 오노상이 어디 앉았어?》

목표물을 찾는 탐조등처럼 여기저기 훑던 시선들이 류기연의 곁에 앉아있는 오노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그는 뒤에서 빨리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움쩍하지 않았다.

자기가 찾으면 제꺽 일어나 나올줄 알았던 오노가 움직이지 않자 기술부장은 언짢아하였다.

《오노과장, 뭘 하고있소? 빨리 나오지 않구.》

마치 땅속을 뚫고 솟아오르듯 천천히 일어난 오노는 느릿느릿 연단으로 나갔다.

그의 손목에 금시계를 채워준 기술부장은 만장에 대고 선포하듯 말했다.

《에, 내가 이번 일을 두고 새삼스럽게 느낀건 역시 우리 야마도 민족의 기술이 으뜸이라는거요. 오노군이 없었다면 <아시아>호는 지금도 철도공장에 서있었을거란 말이요. 자, 우리모두 제국의 인재를 축하해주기요.》

그가 먼저 투덕투덕 손벽을 치자 요란한 박수갈채가 뒤따랐다.

만사람의 찬사를 받으며 제자리에 돌아온 오노는 딱한 얼굴로 옆 좌석을 보았다.

류기연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그러나 가슴은 분출을 앞둔 화산마냥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내가 착상한 고속도제동기가 《아시아》호를 살려낸 사실은 온 만철이 알고있다. 시운전이 성공했을 때 기술부장도 총재한테 말해서 크게 표창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아니라 오노를 표창하는가?

부지불식간에 추진석의 말이 뇌리를 쳤다.

《자네가 이런다구 왜놈들이 인정할것같나? 굶주린 여우가 토끼의 하소연을 들어줄것같은가 말일세.》

그렇다면 그 친구의 말이 옳았단 말인가?

표창수여식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유끼가 나타났다.

《기연씨, 정말 안됐군요.》

그의 눈가에 비껴있는 동정의 빛을 보자 반발심이 솟구쳤다.

누가 표창을 받았든 《아시아》호는 내 기술로 운행되고있다!

《너무 락심하지 마세요. 기회가 또 있을거예요. 그럼, 안녕히!》

유끼와 헤여져 사무실로 돌아오니 한발 먼저 도착한 일본인기사들이 지분거렸다.

《어잇, 잘됐지.》

《그래서 내가 앉을자리, 설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한거지. 히히히!》

가슴속에서 증오의 불길이 타래쳐올랐다. 만일 야구방망이가 있으면 얄미운 섬나라족속들을 힘껏 쳐갈기고싶었다. 하지만 유끼의 말처럼 기회는 또 있을지도 모르니 그때 입을 벌리지 못하게 눌러놓아야 한다.

퇴근준비를 하고 본부청사를 나서는데 뒤에서 《류기사!》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오노였다.

머뭇거리며 다가온 그는 어줍은 표정을 짓더니 손목에 차고있던 누런 금시계를 벗었다.

《난 일이 이렇게 될줄은 정말 몰랐소. 자, 받소.》

류기연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이왕 받은건데 그냥 차십시오.》

《아니, 이거야 류기사가…》

《내 말대로 하십시오.》

《원, 성미두…》

오노는 그이상 더 권하지 않았다. 리해력이 많은 사람이니 상대의 마음을 잘 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

《참, 전번에 찾아왔던 대학동창생말이요. 성미가 화약같은 사람.》

류기연은 그가 추진석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는것을 알았다.

그날 자기를 찾아왔던 친구는 오노와 언쟁을 벌리다가 제편을 들지 않는다고 성나서 가버렸다. 오랜만에 만난 그에게 식사 한끼 대접하지 못하고 헤여진 일이 지금도 속에서 내려가지 않고있었다. 한번 시간을 내여 그가 농사를 짓고있다는 시골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오노가 친구소리를 꺼낸것이다.

무슨 말인가 더 하려던 그는 길옆에 있는 고급음식점을 가리켰다.

《우리 한잔하지 않겠소?》

《생각없습니다.》

오노는 제잡담 팔을 잡아끌었다.

《그러지 말고 들어가기요. 아, 들어가자니까.》

류기연은 오늘따라 집이 그리워났다.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안해와 귀여운 아들애가 있는 가정이야말로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술생각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속이 타면 술을 찾는 모양이였다.

못견디는척하고 오노를 따라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은 일본기생들이 미닫이문을 열자 누비돗자리를 깐 방이 나타났다. 아늑한감을 주는 그 방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주앉아 한잔하기에는 그저그만이였다.

인차 방가운데 식탁이 놓이고 일본료리가 차려졌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오노는 내가 일본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다. 헌데 어째서 이런것들을 청했는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았는지 오노가 웃으며 물었다.

《한번 맛보지 않겠소?》

《싫습니다.》

《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가령 류기사가 일본에 있다고 가정하기요. 국수나 김치 같은 조선음식은 없으니 어떻게 하겠소? 물론 굶으면 굶었지 일본음식엔 손을 대지 않겠지만 나중엔 몸이 상하고 목숨까지 잃게 될거요.》

얼굴에 진중한 표정을 띠운 그는 말을 이었다.

《졸전에 말했던 대학동창생 말이요. 그의 말처럼 일본이 류기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하겠소?》

모를 일이였다. 그날 오노는 자기를 적극 지지해주었고 그때문에 우연히 만난 추진석과 설전까지 벌렸었다. 그런데 오늘은…

《한가지 더 묻기요. 오늘 일은 어떻게 생각하오?》

《…》

《이제 와서 뭘 더 숨기겠소. 난 수여식이 끝나자 기술부장님을 찾아갔댔소. 시운전에서 성공하면 류기사를 크게 표창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내가 어떻게 그를 마주보겠는가고 들이댔지. 그랬더니 부장님도 난감해하면서 총재님이 조선인기사는 절대로 표창할수 없다고 했다는거요.》

가까스로 꺼버렸던 분노의 불길이 다시금 활활 타올랐다.

조선인기사는 절대로 표창할수 없다구? 그래, 내가 없었더라면 당신들이 《아시아》호를 움직일수 있었는가?

좌석에 떠도는 따분한 분위기를 가시려는듯 오노가 손벽을 쳤다.

꼭 닫겨있던 미닫이문이 드르르- 열리며 기생이 둥글납작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걸 내가라구.》

《선생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음식들을 도로 물리면 저희들은… 쫓겨납니다.》

벌써부터 눈굽을 훔치는 기생의 어깨를 손으로 다독여준 오노는 품에서 돈지갑을 꺼냈다.

《나때문에 쫓겨나면야 안되지. 얼만가?》

먹지 않은 음식값을 치른 그는 이렇게 분부하였다.

《어디 가서 조선음식을 가져오게.》

《선생님, 맞은켠에 조선음식점이 있는데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몇분도 안되여 식탁우에 있던 일본음식은 사라지고 조선음식이 올랐다.

《김치는 없나?》

《선생님, 있습니다.》

《그것두 가져오게.》

조선김치를 가져오자 오노는 자신이 직접 술잔에 조선곡주를 부었다.

《자, 내기요.》

두사람이 술잔을 비우자 그는 김치그릇을 앞으로 밀어주며 개탄하였다.

《솔직히 이런 땐 별의별 생각이 다 드오. 류기사가 우리 야마도민족이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금시계는 둘째치고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은 당초에 없을게 아닌가 말이요.》

두번째 잔을 채운 오노는 호기있게 권하였다.

《그릇의 먼지는 물로 씻고 마음속의 고민은 술로 씻는다는데 어

디 푹 취해보기요.》

류기연은 넘칠듯말듯 찰랑거리는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이 술로 마음속고통을 씻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손은 저도 모르게 술잔을 움켜잡고있었다. 그것은 번거로운 정신과 반사적인 육체와의 뚜렷한 부조화였다.

술을 들이키자 뜨끈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팽팽하던 신경이 한결 누그러졌다.

《허, 찰떡이군. 한번 먹어볼가?》

오노는 오랜만에 별식을 마주한 사람처럼 흥이 나서 찰떡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세상에 이처럼 훌륭한 음식이 어디 있느냐는듯 두 눈까지 굴리며 아귀아귀 먹기 시작하였다.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일본사람이 조선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 아니였다. 모름지기 자기를 동무해주려고 그러겠지만 그 행동에서는 어색한감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밤늦게 음식점을 나선 두사람은 만철종업원사택구역에 접어들었다.

《엇!》

취기가 올라 비칠비칠 걸어가던 오노가 허공을 그러안으며 주저앉았다.

《손을 잡으십시오!》

그를 부축하려고 손을 내밀던 류기연도 몸중심을 잡지 못한채 엉덩방아를 찧고말았다.

《술이라는게 마실 땐 좋지만 후과는 나쁘거던. 허허허!》

양복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흔연스럽게 웃고난 오노는 문득 이렇게 물었다.

《일이 바빠서 가보지 못했는데 집은 어떻소?》

《좋습니다.》

《그럼 됐구만.》

오노는 만족해서 류기연의 팔을 끼고 걸음을 내짚었다.

몇달전에 있은 일이였다.

그날 오노와 함께 퇴근길에 올랐던 류기연은 종업원사택구역이 나타나자 헤여지려고 하였다. 자기의 집은 그곳에서부터 한참이나 가야 있었다. 그러는데 오노가 팔목을 잡아끌었다.

《나하구 같이 가기요.》

《예?》

《가면 알게 되오.》

첫번째 골목을 지났을 때 오노는 아담해보이는 어느한 집을 손짓하더니 그쪽으로 꺾어들었다. 아마 그의 집인듯했다.

오노를 따라 집뜨락에 들어서던 류기연은 두눈을 끔뻑거렸다. 불빛환한 뜨락에서 자기의 아들애가 깡충깡충 뛰여다니고있었다.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자가 나왔다.

류기연은 다시금 놀라고말았다. 그는 다름아닌 안해였기때문이였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거요?》

안해는 옆에 서있는 오노를 눈짓하였다.

《오노과장님이 내가 점심마다 힘들게 밥을 날라온다면서 이 집을 구해주셨어요.》

첫 출근날에 있은 일을 두고 가슴아파하던 안해는 다음날부터 점심밥을 날라오기 시작하였다.

왕복 두시간이나 되는 길을 오가는 안해를 보다못해 다신 오지 말라고 싫은소리를 하였다.

《힘들지 않아요. 제가 오고싶어 그러는걸요 뭐.》

그후에도 안해는 잔등에는 아이를 업고 손에 밥보자기를 든채 땀을 철철 흘리며 찾아오군 하였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좋지 않았는데 오노가 어떻게 알았는지 종업원사택구역에 집을 마련해준것이다. 자기를 멸시하는 왜놈들이 집을 순순히 내주지 않았을것이다. 모름지기 오노가 그때문에 수고를 했을것이다.

《고맙습니다!》

오노는 그러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인사는 무슨… 오히려 내가 미안하오. 대리과장이라는게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아주머니가 밥을 날라오는걸 알지 못했으니 말이요.》

이렇게 되여 류기연은 종업원사택구역에서 살게 되였던것이다.

앞에 갈림길이 나타나자 두사람은 걸음을 멈추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노의 집이고 왼쪽은 류기연의 집이였다.

《류기사, 맥을 놓지 마오. 알겠소?》

이렇게 당부한 오노는 자기네 집쪽으로 걸어갔다.

류기연은 미타한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집앞에 이른 오노는 웃몸을 흔들흔들하며 자물쇠를 절컥거렸다.

불현듯 그한테 가방을 받아주며 반기는 안해나 《아버지!》 하고 달려나와 허리에 매달리는 아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그는 나이가 들도록 가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나이였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위해준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오노가 집안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고 돌아서는데 어둠속에서 챙챙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부진 왜 아직 안오나요?》

《인차 오신단다. 우리 태삼이 보고싶어서… 그렇지?》

《응, 그런데 엄마, 나 추워.》

《그럼 엄마가 꼭 품어주마.》

《해해해, 이젠 따끈따끈해요.》

낯익은 대문앞에 안해와 아들애가 서있었다.

왜놈들만 욱실거리는 종업원사택구역에서 온종일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집안에 박혀있다가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자 마중나온것이다. 그러고보면 가정은 마음속아픔을 치료해주는 훌륭한 의사였다. 날씨도 쌀쌀한데 우정 밖에 나와있는 처자를 보자 오노의 다심한 음식대접과 친근한 고무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매달려있던 설음의 고드름이 스르르 녹아내리는것이였다.

오늘 일로 하여 나약해질번하였던 가슴속에서 힘과 용기가 솟구쳐올랐다.

절대로 주저앉지 말자. 절대로…

11

추진석은 울퉁불퉁한 농촌길을 걷고있었다.

경찰에서 왜 찾을가?

그동안 처음 해보는 농사인지라 손에 설고 힘에도 부쳤지만 마음만은 편했었다. 그런데 방금 촌장이 나타나 경찰서에서 급히 찾는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생각을 더듬어보았지만 속에 짚이는것은 없었다.

새벽안개를 헤치며 밭에 나왔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돌아와 시큼한 막걸리나 마시고 잠에 곯아떨어지는 이 단조로운 생활에 경찰의 관심을 끌만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갑자기 뭔가 발에 걸려 앞으로 넘어질번하였다.

몸중심을 바로잡고 내려다보니 움푹한 소발통자리였다. 해볕에 땅땅 말라버린 그 흔적은 보행자들을 방해할뿐 아니라 잘 없어지지도 않는다. 설사 비가 내려 잠긴다고 해도 물이 빠지면 또다시 나타나군 한다.

그 소발통자리가 한가지 사실을 튕겨주었다.

혹시 그 일때문에 찾은게 아닐가?

지난해 봄, 이곳에 내려온 그는 주재소에 신고하려고 갔었다.

그때 호적관계를 말아보는 경찰에게 자기는 대련에서 막로동을 하다가 안해를 잃고 의지할데가 없어 륙촌벌이 되는 친척을 찾아왔노라고 했었다.

경찰은 자기 말을 그대로 믿는 기색이였다. 그후 아무 기별도 없기에 넘어갔는가 했는데 이렇게 호출하는것을 보면 무슨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소잔등처럼 구붓한 언덕을 오르자 올망졸망한 농가들이 나타났는데 그 복판에 세멘트담장을 두른 건물이 있었다.

어디 부딪쳐보자 하고 주재소안으로 들어섰다.

《넌 전번에 신고할 때 뭐라고 했는가?》

왜놈경찰이 일부러 수갑을 절컥거리며 물었다.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막로동을 하다가 안해를 잃고 의지할데가 없어 여기에 왔다구.》

《아, 그랬지. 좋다. 그럼 이걸 들어보라.》

경찰은 느릿느릿 문건철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였다.

《고야마 하찌로는 려순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만철본부에 배치받았으나 가지 않고 산골로 도주하였다. 그 리유는 녀편네가 <황군>한테 죽은데 대한 앙심을 품고 만철에 복무하기를 거부했기때문이다.》

추진석은 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런즉 왜놈들은 자기의 말을 그대로 믿은것이 아니라 몰래 뒤조사를 한것이다.

《내용이 틀리는가?》

《옳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신고를 했는가?》

《만철에 들어가고 말고는 내 결심이요.》

《네 결심이란 말이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왜놈경찰은 그 말뜻을 음미하듯 오락가락하였다.

추진석은 이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하고 점쳐보았다. 그러느라고 왜놈의 눈가에 맴도는 살기어린 빛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

돌연 몸을 홱 돌린 왜놈경찰의 손에서 뭔가 번뜩거렸다. 순간 미처 피할새도 없이 수갑이 얼굴을 들이쳤다.

불의에 타격을 받은 추진석은 눈앞이 아뜩해서 풀썩 주저앉았다. 쇠고랑에 얻어맞은 이마가 터졌는지 뜨끈뜨끈한 피가 코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가 결심을 내린다구? 나쁜 자식!》

욕질소리와 함께 수갑이 머리와 잔등으로 연방 날아들었다.

순식간에 피가 목을 타고, 뒤잔등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그렇지만 이를 꽉 사려물고 신음소리 한마디 토하지 않았다.

《명심하라. 우리 대일본제국의 치하에서 반도인은 아무런 선택권도 없단 말이다. 너희들은 노예란 말이다. 노예. 으하하하!》

한바탕 웃고난 악마는 이렇게 소리쳤다.

《넌 <징용>이다.》

추진석은 자기가 어떻게 주재소를 나섰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절하게 뉘우칠뿐이였다.

안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그는 왜놈들만 봐도 치가 떨렸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겠는가 하고 속으로 별렀다. 그런 판에 왜놈들이 경영하는 만철본부에 들어간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였다. 그것은 안해를 두번다시 죽이는짓이였다.

그 사정을 알고있는 류기연도 차마 만철에 들어가자고 더 잡아끌지 못하였다.

그날 본부청사앞에서 친구와 헤여진 추진석은 대련에서 수백여리나 떨어져있는 이곳 산골에 찾아왔다. 조선에서 살기 힘들어 솔가도주한 륙촌형한테 얹혀살면서 마음속상처를 잊으려고 하였었다. 그렇지만 왜놈들의 마수는 허줄한 무명옷을 걸치고 온종일 호미질이나 하고있는 자기한테까지 뻗쳐왔다. 다른 지방에 간다고 해도 왜놈들의 통치하에 있는한 처지는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그렇다. 왜놈세상은 도시이든 산골이든 모두 울타리없는 거대한 감옥이였다.

온몸이 나른하고 마치도 깊은 나락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것같았다.

어헉!—

딴딴한 소발통자리에 발이 걸채였다. 아까는 몸중심을 잃지 않은 덕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맥없이 끄꾸라졌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기운이 빠져서 그러는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절망에 빠진 마음이 허둥거리기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석이!》

누군가 찾고있었다.

돌아볼 생각도 나지 않았다. 설마 이런 산골에서 자기를 찾을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뒤에서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겨드랑이에 두손을 쑥 밀어넣고 일으켰다.

《날세. 기연이야.》

돌아보니 정말 류기연이였다.

《이게 어떻게 된건가. 응?》

놀라와하던 친구는 속옷을 북북 찢어 머리에 동여매주었다.

지끈거리는 이마에 손을 가져간 추진석은 중얼거렸다.

《이 촌놈머리가 터진게 대순가? 차라리 잘됐네.》

《그건 무슨 소린가? 어서 가자구.》

추진석의 륙촌형네 집에 들어선 두사람은 낡은 멍석을 깔아놓은 비좁은 방에 마주앉았다.

추진석은 주인의 체면을 차릴념도 않고 막걸리를 세사발이나 들이켰다.

《형님, 막걸리를 더 가져오우.》

부엌문가에 얼굴을 들이민 륙촌형은 딱한 기색을 지었다.

《돈걱정은 마시우. 이 친구가 물어줄테니.》

륙촌형이 머뭇머뭇하며 막걸리를 가져오자 추진석은 두사발을 더 마셨다. 마시지 않으면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내려갈것같지 않았다.

《어, 이제야 취하는것같구만. 하기야 맑은 정신을 가지고야 어떻게 이놈의 세상을 살아가겠나.》

막걸리를 반사발밖에 비우지 않은 류기연은 잠자코 있었다.

한쪽으로 쏠리는 몸을 바로잡은 추진석은 밥상너머로 그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이 촌놈이 없으니 편안하게 지냈겠구만. 안그런가?》

류기연은 마주보며 씩 웃기만 하였다.

《하지만 알아두게. 좋은 약일수록 입에는 쓴 법일세. 그건 그렇네만 자네가 왜 찾아왔는지 알아맞춰보라나?… 전번에 집에 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간것때문에 왔겠지?》

그 일을 돌이켜보는 추진석의 눈빛은 술에 취한 사람같지 않게 맑아졌다.

…그날 볼일이 있어 대련에 갔던 그는 먼저 류기연의 집부터 찾아갔다.

《아주머니, 이 촌놈이 왔수다.》

안주인은 오랜만에 찾아온 남편친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 오랜만이예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방에 들어서니 류기연이 보이지 않았다.

《잘난 서방님은 어디 갔는가요?》

《그인 일이 바빠서 어제 밤 들어오지 못했답니다.》

허 참, 아직 정신이 덜 들었군.

《아주머니, 내 그 사람한테 갔다가 함께 돌아오겠수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 댁 신세를 져야 할것같은데.》

《신세라니요. 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여 류기연이 밤을 새우며 일한다는 대련철도공장으로 갔다가 오노라고 하는 왜놈기사와 언쟁을 하던 끝에 그냥 돌아오고말았다. …

막걸리를 또 한사발 들이킨 추진석은 불쑥 생각나는것이 있었다.

《참, 아주머니한테 들으니 자네 월급이 왜놈들보다 절반도 안된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고개를 주억거린 류기연은 사실대로 토설하였다.

어느날 회계과에 갔던 그는 월급봉투를 보자 기가 막혔다. 만철에 입직한지 한해가 지났고 그동안 기사급수도 올렸다. 얼마전에는 일본인기사들도 쩔쩔매는 《아시아》호를 살려내여 정상운행을 시켜놓았다. 그런데도 월급은 입직하던 날과 같았다. 지금까지는 월급에 신경쓴다는 뒤소리를 들을가봐 참았는데 가만있을수 없었다. 월급문제는 단순히 돈문제가 아니였기때문이였다.

반원형으로 뚫린 유리구멍안으로 월급봉투를 들이밀었다.

유리간막이너머에서 주산알을 톡톡 튀기고있던 회계과장이 올빼미눈을 부릅떴다.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월급과 장부를 대조해본 그는 올롱한 눈을 깜빡거렸다.

《잘못되지 않았소.》

《난 구마모도와 급수가 같은데 어째서 작습니까?》

주산에서 손을 뗀 회계과장은 선웃음을 지었다.

《나도 당신이 <아시아>호를 살려냈다는걸 알고있소. 하지만 규정이 그런걸 어쩌겠소? 가만, 내가 방도를 대줄가?》

그자의 얄팍한 입술이 유리간막이에 바싹 붙었다.

《이제라도 내지인으로 귀화하오. 그러면야 당신의 월급이 구마모도한테 비기겠소?》

류기연은 크게 놀랐다. 월급으로 시작된 문제가 이렇게 번져질줄

은 몰랐던것이다.

회계과장은 싫으면 마음대로 하라는듯 월급봉투를 도로 툭 밀어던졌다.

《반도인인 주제에 사람대접을 받겠다구? 가소롭다.》

모욕감으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생각 같아서는 월급봉투를 집어던지고 뛰쳐나가고싶었다. 그랬으나 안해와 아들애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자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돌아오고말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나자 추진석은 답답한지 고수머리를 쓸어넘겼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래도 만철에 기신기신 붙어있겠나?》

류기연의 관자노리에 퍼런 피줄이 훌떡거렸다. 자존심이 몹시 상한 모양이다. 그래도 채찍을 계속 휘둘러야 한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전번에도 말했지만 자네의 기술이 높아도 왜놈들은 인정하지 않네. 나라를 빼앗은 놈들이 식민지백성을 인정할것같은가? 그리구 날 보게. 시골에 내려왔지만 이 꼴이 되고말지 않았나. 그래, 이런 생지옥에서 과연 뜻을 이룰수 있다고 보나?》

류기연의 두눈에 열기가 번뜩이였다.

《그렇다고 죽었소 하고 가만있겠나?》

속이 달아오르는지 그는 남은 막걸리를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만하게. 마실줄도 모르면서…》

친구의 손에서 그릇을 앗아낸 추진석은 또다시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하였다.

류기연도 제손으로 막걸리를 사발에 붓더니 들이켰다.

그러다보니 두사람은 함께 마시고 함께 취하고말았다. 혀꼬부라진 소리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던 그들은 나중에는 서로 붙안고 잠들어버렸다.

이튿날 아침 빠개지는것같은 머리를 싸쥐고 깨여난 추진석은 방바닥우에 놓여있는 편지를 발견하였다.

《진석이, 왜놈들한테서 모욕을 받을 땐 나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네. 공연히 이 길에 뛰여들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도 없지 않네. 그렇지만 일단 한번 나선 길인데 끝까지 가보겠네. 참, 한가지 알려줄

게 있네. 얼마전부터 난 <자동공기제동기>라는 새형의 제동기를 연구하고있네. 그 연구가 성공하면 다시 오겠네.》

편지를 내려놓은 추진석은 허거프게 웃었다.

이 곰발통같은 친구야, 자넨 언제면 그 망상에서 깨여나겠나.

머리말에 놓여있는 보꾸레미를 발견한것은 그후였다.

보자기를 풀자 얼마간의 돈과 내의, 양말 등이 나타났다. 친구의 안해가 홀아비를 위해 보낸것이였다.

아주머니, 면목이 없수다. 그 사람은 만철이라는 등불속에 뛰여든 부나비요. 내 힘이 모자라 그를 돌려세우지 못했으니 어쩌면 좋소?

그날 오후 재산의 전부가 들어있는 물낡은 배낭을 덜렁 둘러멘 추진석은 륙촌형한테 알리지도 않고 밖으로 나섰다.

제 3 장

1

분명 책상우에 놓고 나갔댔는데.

서랍을 열어보니 없다. 혹시나하고 가방을 뒤졌지만 역시 없다.

누가 치웠을가?

얼마전부터 류기연은 친구한테 남긴 편지에 밝힌것처럼 자동공기제동기를 연구하고있었다.

현재 렬차들에서 쓰이는 직통공기제동기는 여러가지 결함이 있었다. 우선 편성이 긴 렬차에서는 제동전파속도가 늦고 앞뒤차량들에서의 제동 및 제동풀기작용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차량간에 충격이 생긴다. 또한 렬차분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제동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렬차운전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없다.

류기연은 그 결함을 퇴치하기 위해 고속도제동기를 제작하여 《아시아》호뿐 아니라 다른 기관차들에도 설치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의술에 비유한다면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도 같았다. 렬차의 전복사고를 결정적으로 막자면 설사 운행중에 제동기가 고장났다고 해도 예비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동작하도록 하여야 하였다. 그럼 그 장치는 어떤 구조이고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여 연구를 시작한것이 바로 자동공기제동기였다.

연구에 착수하면서 그 구상을 오노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상급도 상급이지만 《아시아》호에 고속도제동기를 설치할 때 보니 제동장치분야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자동공기제동기원리를 설명하자 오노는 제꺽 리해하였다.

《하니까 원래 있는 직통공기제동기에 삼등변과 보조공기통을 더 보충한다는거구만. 음, 착상이 기발하오. 현재 제동장치의 결함을 퇴치하면서두 크게 품들이지 않고 제작할수 있으니 말이요.》

무슨 일이 제기되면 침착하게 따져보고 움직이던 그였지만 이번만

은 즉석에서 류기연의 손을 잡아끌며 기술부장한테 데려갔다.

기술부장은 《아시아》호시운전때처럼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더니 정 파악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한마디 뱉았다.

류기연은 속이 좋지 않았으나 일단 성공만 하면 기술부장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는 오노의 위로에 다소 진정이 되였다. 그후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는데 머리속에서 불꽃처럼 튀여오르는 착상들을 적어넣은 수첩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것이다.

여태 그 수첩을 몸에서 떨군적이 없었다. 출근해서는 늘 붙들고 씨름하였고 퇴근할 때는 양복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좋은 생각이 나면 적어넣군 하였었다. 오늘도 섬광처럼 떠오른 착상을 그려넣고있다가 잠간 자리를 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제 할 일들을 하고있었다. 구마모도는 안장코를 만지며 이노우에한테서 무슨 설명을 듣고있고 다른 기사들도 주산알을 튀기거나 도면을 붙들고있었다. 바로 그들속에 수첩을 훔친자가 있었다.

제일 의심가는자는 구마모도였다. 자동공기제동기연구에 관심을 가진자가 바로 그였기때문이였다. 수첩에 적어넣을 때마다 예리한 눈초리를 의식하군 하였는데 고개를 쳐들면 영낙없이 《안장코》와 눈길이 마주치군 하였다.

《왜 그러오?》

뒤를 돌아보자 오노가 의아해서 보고있었다.

《수첩이 없어졌습니다.》

《뭐, 수첩이?… 잘 찾아봤소?》

《예.》

잠시 생각을 굴리던 오노는 확신성있게 단정하였다.

《누군가가 훔쳤소.》

그는 한사람한사람 뜯어보다가 먼저 《구마모도군!》 하고 찾았다.

《안장코》는 듣지 못했는지 뭐라고 계속 주절거리다가 이노우에가 알려주자 이쪽을 건네다보았다.

《날 찾았습니까?》

《수첩을 보지 못했소?》

《무슨 수첩 말입니까?》

오노는 손으로 류기연의 책상을 가리켰다.
《여기에 있던 수첩 말이요.》
배불리 먹고 낮잠을 청하는 고양이처럼 가느스름하던 구마모도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그런 수첩도 있었습니까?》
《정말 못봤소?》
《아무렴 제가 반도인의것을 가지겠습니까?》
오노는 불쾌한듯 미간을 찌프리며 주의를 주었다.
《안가졌으면 그만이지 반도인은 뭐요? 같은 기사들끼리.》
구마모도는 침맞은 지네처럼 잠잠해졌다. 아마 상대가 다른 사람이라면 가만있지 않고 소란을 피웠을것이다.
다음순서로 오노는 기술도서를 뒤적거리는 이노우에를 짚었다.
《과장님, 아무렴 제가… 치웠겠습니까?》
그가 잠시 말을 끊은것을 보면 그 짧은 순간에 입속말로 《반도인》이라는 말을 열번도나마 했을것같았다.
《과장님, 수첩인지 뭔지 하는게 언제 없어졌답니까?》
이렇게 묻는 이노우에의 얼굴에 궁금해하는 빛이 맴돌았다.
《방금전이요. 그리구 난 아직 정식과장이 아니니 그렇게 부르지 마오.》
《거야 뭐 뻔한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구 난 혐의대상에서 제외하는게 좋을겁니다.》
《어째서 말이요?》
《자리를 뜬적이 없으니까요. 구마모도군, 맞지?》
《맞습니다. 자리를 뜬적 없습니다.》
동료가 제꺽 확인하자 이노우에는 자기를 의심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듯 히물히물 웃었다.
오노도 미꾸라지처럼 재치있게 빠져나가는 그를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른 기사들도 따져보았으나 누구도 수첩을 보았다거나 가졌다는 사람은 없었다.
할수 없다고 여긴 오노가 기대어린 눈으로 류기연을 바라보았다.
《그 내용을 되살릴순 없겠소?》

류기연도 마침 그 생각을 하던 참이였다. 자기를 질투하다 못해 별의별짓을 다하는 무리들을 짓눌러놓기 위해서라도 수첩에 적혀있던 내용을 무조건 되살려내야 하였다.

《해보겠습니다.》

한시간후 기술부장한테 갔던 오노가 돌아오더니 나직이 말했다.

《날 따라오우.》

망각의 늪속으로 가라앉은 기억의 단편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여 새 수첩에 적고있던 류기연은 영문을 몰라하며 따라나섰다.

사무실을 나선 오노는 반대켠 복도로 걸어가다가 《성원외 출입금지!》라는 패쪽이 붙은 출입문을 열었다.

그를 따라 방에 들어서니 책상과 걸상, 설계대만 있을뿐이였다.

《이제부터 여기서 일하오.》

《예?》

《이 방은 류기사와 나, 기술부장외에는 누구도 출입 못하오. 그러니 오늘처럼 수첩을 잃어먹을 일도 없고 혼자서 사색하기도 좋을거요.》

보매 오노는 기술부장을 찾아가 수첩이 없어진 사실을 말하고 독방을 주자고 제기한 모양이다.

《한번 더 실력을 떨쳐보우. 그럼 남들이 더는 어쩌지 못할거요.》

격려의 말을 해준 오노는 자물쇠를 넘겨주고 방을 나섰다.

류기연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두터운 창가림이 드리워진 창문, 금붕어들이 꼬리치며 뛰노는 동그란 어항, 떨기떨기 피여난 화분들…

그 하나하나에는 연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오노의 진심이 어려있는듯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였다. …

그날 저녁, 《야마또》호텔에 한 신사가 나타났다.

으슥한 방에서 기다리고있던 구마모도가 허리를 굽석거렸다.

《수첩은 어디 있나?》

구마모도는 그 말뜻을 알아차렸지만 시치미를 뗐다.

《무슨 수첩 말입니까?》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할수 없구만. 좋네. 이것으로 우리 거래를 끝내자구.》

신사가 랭소를 흘리며 돌아서자 구마모도는 바빠맞았다.

《가… 가지 마십시오. 죄다 말하겠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린 신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건 불태워버렸습니다.》

《어째서?》

《그자가 새 제동기를 연구하면 우리 일본인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사나이는 선배연한 어조로 일렀다.

《자넨 속이 좁구만. 그자가 새 제동기를 연구하면 그만큼 우리 만철에 리득이 아닌가. 그래, 제국의 리익을 일개인의 복수심과 대비할수 있나?》

대답이 궁해진 구마모도는 안장코를 잡아당기기만 하였다.

《이제부턴 그와 관련되는 일은 모두 나하구 토론해야겠네. 그리구 한가지 일을 해야겠네.》

방문이 닫겨있는가를 확인한 신사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예예 하고 듣고있던 구마모도가 《어잇?!》 하고 놀란 소리를 질렀다.

《그래두 일없겠습니까?》

신사의 두눈에 서늘한 기운이 맴돌자 구마모도는 살맞은 메돼지처럼 움쩍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신사는 안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주었다.

《이거면 되겠나?》

《예예, 됩니다.》

은혜를 베푼 신사는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처하구는 사이가 어떻나?》

《아주 좋습니다.》

구마모도는 월급을 타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한테 통채로 안겨주고 그가 눈을 빨며 던져주는 적은 돈을 집에 들여가군 하였다. 그때문에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악악거리는 처와 쩍하면 대판들이로 싸

웠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처는 이제 또 월급을 떼먹으면 리혼하고 본국에 돌아가겠다고 위협하였다.

구마모도는 골머리를 앓았다. 당신이 없으면 난 살고싶지 않아요 하며 울고불고하는 기생과 아무리 죽자살자 하더라도 처와 리혼하면 당장 홀아비신세가 될 판이였던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데 돌연 그 신사가 찾아왔다.

《임자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남편이구만.》

놀랍게도 그는 자기네 집안일을 손금보듯 알고있었다.

《자네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모른척할수야 없지.》

이렇게 말하며 신사가 내준 돈뭉치는 퍼그나 두툼하였다.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게 인생이 아니겠나. 바쁜 고비부터 메우라구.》

그야말로 부처님같은 사람이였다. 하여 그 돈은 기생한테 주고 월급은 한푼도 떼지 않고 고스란히 집에 들여갔다. 염라대왕도 돈앞에서는 한쪽눈을 감는다더니 당장 본토로 달아날것처럼 야단하던 처는 불룩한 월급봉투를 보자 태도가 돌변하여 곰살궂게 대해주었다.

그때부터 구마모도는 기생과 처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남자가 되였다.

하루는 그 신사가 려순공대를 졸업한 조선사람이 만철본부에 들어온다고 알려주었다.

《처음부터 기를 꺾어놔야 하오. 자신이 반도인으로 태여난걸 수치로 여기게 말이요.》

구마모도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것을 모를만큼 바보가 아닌지라 신사의 요구에 제꺽 응하였다.

《그러다가 만철에서 나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말게. 나름대로 뜻이 있고 포부도 가지고있는 량반이니 쉽게 물러나진 않을거네.》

약속대로 그는 조선인기사가 처음으로 출근하자 공연히 트집걸어 주산을 내던졌으며 점심에는 조선김치를 먹었다고 야단쳤다. 비록 팔씨름에서 패했지만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류기연을 괴롭혔다. 그러나 오늘 받은 지시는 그전과는 성격이 달랐다. 도중에 발각되면 망신은 둘째치고 만철에 붙어있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돈도 돈이지만 야마도민족의 존엄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이였다.

류기연은 제동기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를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있었다. 그런 그를 가만두면 조선사람이 야마도민족보다 우월하다는것이 또다시 증명될지도 모른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이번 일을 멋지게 꾸미고 그자를 눌러놓아야 한다!

구마모도는 안장코를 만지며 생각을 굴리기 시작하였다.

2

려주는 총총히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다.

이즈음 남편은 마지막단계에 이른 연구를 다그치느라고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끼니때가 되면 밥을 싸들고 직장에 찾아가군 하는것이다.

《한꺼번에 다 날라오면 되겠는데 괜히 그러누만.》

안해가 하는 일에 참견한적 없는 남편이 보다못해 한 말이다.

한꺼번에 세끼식사를 다 날라가면 편안한줄을 누가 모르랴만 왜서인지 그렇게 하고싶지 않다. 손길이 많이 가고 힘은 들어도 수고하는 남편한테 하루 세끼 꼭꼭 더운 음식을 대접하고싶다. 그렇게 해야만 안해로서 할바를 한것같고 마음도 그득해진다.

하지만 만철본부청사에는 성원외에 누구도 들어갈수 없다. 그래서 정문옆에 달려있는 면담실에서 남편을 만나 음식그릇을 넘겨주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그다음은 또 바쁘게 다음끼니를 준비하고.

가끔 아들애가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면 약을 먹이고 품에 꼭 껴안고있다가도 식사시간이 되여오면 아빠한테 인차 갔다오겠다고 겨우 달래고는 정신없이 남편에게 달려가군 한다.

지금도 려주는 자기의 성의가 깃든 음식들이 식을세라 등골에 땀줄기가 흐르도록 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여 낯익은 3층짜리 석조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정문접수실로 급히 다가서자 코수

염쟁이접수원이 창문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었다.

《오이, 또 왔는가?》

매번 찾아올적마다 언제 한번 편안하게 대해준적이 없는 고약스러운 인간이였다. 오늘은 또 무슨 구실을 대고 까다롭게 나오겠는지 모르겠다.

좀스러운 코수염을 쫑긋거리던 접수원은 매몰스럽게 말하였다.

《오늘은 남편을 못만난다. 일체 면회를 금지시키라는 상급의 지시가 내렸단 말이다.》

려주는 손으로 밥보자기를 감쌌다.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힘들게 가져온 음식을 남편한테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생각을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침식사를 가져왔는데 좀 찾아주세요. 부탁이예요.》

접수원은 창문밖으로 손을 내밀더니 홰홰 내저었다.

《못만난다고 하지 않아.》

그렇다고 순순히 돌아갈수 없었다. 혹시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가 하고 주위를 살폈다.

《반도인의 녀편네가…》

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증이 났는지 접수원은 토달토달하며 밖으로 나왔다.

《상급의 지시가 있었다는데 왜 듣지 않는가? 당장 돌아가라!》

그래도 움직이지 않자 그자는 다짜고짜 잔등을 콱 떠밀쳤다. 그 바람에 어쩔수없이 정문밖으로 밀려나왔다. 안타까운 나머지 발을 동동 구르고싶었다.

그이가 식사를 못하면 어쩌나?

뒤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돌아보니 오노였다. 남편과 가깝게 지내는 그를 보자 반가운 생각이 솟구쳐올랐다.

인사를 건네자 오노가 말했다.

《허, 류기사가 식사를 못한게군요.》

그는 자기가 끼니때마다 남편한테 식사를 가지고 온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잠간 기다리십시오. 내가 류기사를 내보내겠습니다.》

정문안으로 들어가던 오노는 고개를 갑삭거리는 접수원을 보자 엄하게 질책하였다.

《왜, 류기사를 찾아주지 않소?》

《예예, 실은 자꾸만 찾아오는게 시끄러워서…》

려주는 그만 억이 막혔다. 결국 왜놈접수원은 상급의 지시때문이 아니라 조선사람인 남편이 달갑지 않아서 찾아주지 않았던것이다. 일개 접수원의 태도가 그 정도이니 만철본부안의 분위기는 보지 않아도 뻔하였다. 그런 속에서 일하는 남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할가 하고 생각하니 더 위해주고 돌봐주고싶었다.

오노는 여전히 접수원을 다불러세우고있었다.

《류기사가 하는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하오? 오죽 바빴으면 엎디면 코가 닿을 집에도 못들어가겠는가? 가족이 찾아왔으면 만나게 해줘야지 그게 뭐요?》

《오노과장님!》

《당신 혹시 그 자리에 붙어있기 싫어서 그러는건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접수원이 머리를 갑삭거리자 오노가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몇분도 못되여 남편이 나타났다.

《언제 왔소? 이자 선배님이 알려주더구만.》

려주는 언제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남편을 데리고 면담실에 들어가자 식을가봐 꽁꽁 싼 보자기를 풀고 음식들을 꺼내놓았다.

《이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구만.》

남편이 반색하며 두손을 썩썩 비비는것을 보자 정문에서 속을 태우던 일이 감감 잊혀졌다.

《아이, 보지만 말고 어서 드세요!》

남편은 속이 출출했던지 부지런히 수저를 놀렸다.

려주는 얌전히 앉아 그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이런 때가 제일 좋았고 마음도 무척 즐거웠다.

문득 남편의 턱에 난 꺼밋한 수염이 보였다. 그러나 더욱 눈길을 끈것은 바빠서 깎지 못한 그 수염이 아니라 꺼칠해진 두볼이였다. 흔히 사람들은 사무일을 보는 사람들은 땅을 파고 짐을 나르는

것과 같은 로동을 하지 않기때문에 육체적부담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오히려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정력소모가 더 크고 피곤도 인차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날이 갈수록 점점 수척해지기만 한다. 하도 자기의 성의를 생각해서인지 가져오는 음식그릇을 다 비우군 하는데 그만해도 다행스러웠다.

어느새 식사를 끝낸 남편은 일어났다.

려주는 얼른 남편의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가만. 속옷이 덻지 않았어요?》

《엊그제 갈아입지 않았소?》

하긴 속옷을 갈아입은지 이틀밖에 안된다. 그래도 깨끗한 속옷을 입고있어야 몸이 거뜬하고 연구도 잘될것같았다.

《좀 덻었군요. 저녁에 다른걸 가져오겠어요.》

남편과 헤여져 가뿐한 마음으로 정문앞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화려한 양복차림을 한 젊은 녀자가 또각거리며 마주 왔다.

만철본부에서 일하는 직원이겠지 하고 그냥 스쳐지나갔다. 그런데 그 녀자가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건네는것이였다.

《부인, 안녕하세요?》

어디서 본것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 그때 기연씨와 함께 퇴근하다가 만났던…》

려주는 그제서야 언제인가 아들애를 데리고 대문앞에 나와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났던 유끼라는 일본녀자임을 알아보았다.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밥보자기를 알아본 그 녀자는 생글생글 웃었다.

《식사를 가지고 오셨댔군요.》

말투를 보면 남편을 위하는 안해의 정성에 감탄하는것같았지만 눈빛은 어째서인지 싸늘하였다.

《기연씨두 참, 집도 가까운데 공연히 부인을 고생시키는군요.》

연구에 열중하여 밥시간도 잊군 하는 남편을 나무라는지 아니면 안해의 수고를 칭찬하는지 뜻모를 말을 던진 유끼는 짐짓 감동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남편을 위하는 부인의 정성에 탄복하게 되는군요. 정말 부인은

쉽지 않은 녀성이예요.》

그 말의 의미를 감촉한 려주는 담담한 어조로 응답하였다.

《뭘요, 녀성이라면 다 그런걸요.》

유끼의 얼굴에 흐르던 자신만만한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꾹 다문 입술마저 가늘게 떨고있었다.

그렇다. 사실 유끼는 자기앞에 서있는 려주가 죽이고싶을 정도로 증오스러웠다. 대학시절 별의별 열성을 다 기울였지만 끝내 류기연의 심장을 점령하지 못하였는데 바로 이 녀자가 사랑을 앗아간것이다. 아물지 않은 그 상처는 려주를 보자 복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사랑의 적수앞에서 자기의 용모와 세련미를 보여주려고 하였었다. 하지만 어리숙하게 보았던 려주는 한손으로 거머쥐고 잡아당기면 뽑혀나오는 연약한 나무가 아니였다. 힘껏 잡아당겨도 끄떡하지 않는 거목이였다.

유끼는 자기가 류기연과의 관계에서 실패한것처럼 려주와의 대결에서도 패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스스로 고배를 들이키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부인, 그럼 실례하겠어요.》

인사말을 던진 유끼는 고개를 도고하게 쳐들고 정문안으로 들어갔다.

그와 반대방향으로 걸음을 내짚는 려주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대학시절 남편을 정신없이 따라다녔다는 유끼가 무슨 목적으로 다시 나타났을가? 혹시 남편한테 무슨 화를 불러오려는게 아닐가?

3

강영창은 식은땀을 쫠쫠 흘리고있었다.

오른쪽아래배가 어찌나 쑤시고 아픈지 허리를 펼수 없었다. 한바탕 고함이라도 지르면 아픔이 덜어질것같은데 좀전에 공사장에서 돌아와 쉬고있는 인부들한테 불편을 줄가봐 가까스로 참고있었다.

배가 아파나기 시작한것은 정오가 지나서부터였다.

조수인 주제에 실험을 했다고 고아대는 연구소 소장과 한바탕 다투고 함바로 돌아오는데 명치끝이 무죽해났다. 이마무라가 없는 틈에 연구를 하느라 아침도 건넜는데 음식을 잘못 먹은것처럼 속이 후리후리해났다. 그런대로 참고있으면 일없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오른쪽아래배가 띠끔띠끔 쑤셨다. 그때부터 배를 그러쥐고 누워있는것이다.

뒤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성산이, 자네 꿈에서 웬 녀자를 찾더구만.》

《거짓말 말라요.》

《거짓말이라구? 그럼 이실직고하게. 숙희가 누군가?》

《…》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나? 이실직고하라니까.》

《뭘 자꾸 이실직고하라고 그래요? 가만, 연구사형님이 아파서 그래요.》

뭐야뭐야 하고 벌떡벌떡 일어난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거 맹장염같구만.》

《그럼 빨리 둘쳐업구 병원에 가야지.》

《허리를 펴지 못하는데 어떻게 둘쳐업는다구 그래?》

왁자지껄 떠들던 그들은 마침내 환자를 일으키고 량쪽에서 부축하였다.

《조심히 걸으라구. 맹장이 터지면 야단이야.》

《아, 밀지 말라구요. 이거야 어디 걸을수 있나.》

강영창은 자기를 위해주는 인부들의 텁텁한 인정미에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아마 쩍하면 전기값이나 수도값이 올랐다며 하숙비를 잔뜩 올리는 세집에 그냥 남아있었더라면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것이다. 그러고보면 고향의 안해한테 보내는 돈을 절약하려고 이곳 함바에 거처를 옮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랐다.

…두해전 여름방학때 강영창은 류기연이 자기 고향에 가지 않겠는가고 하자 제꺽 응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아들과 함께 지내는 가난한 자기의 월사금까지 다달이 보내준 류기연의 어머니를 만나뵙고 인사를 드리고싶었던 찰나였다.

그를 따라 덜렁덜렁 박천으로 가니 병원에서 약제사로 일한다는 한 처녀가 앞에 나타났다. 류기연의 누이동생이였다.

얼굴이 옥같이 희고 곱살하게 생긴 그 처녀는 자기 어머니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절을 하는 안경쟁이대학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달은 강영창의 가슴속에서 일어났다.

처녀는 자기 오빠와 함께 하숙하는 고학생을 만나면 례의적으로 인사를 보냈을뿐인데 그때마다 강영창은 얼굴이 빨개서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뒤늦게야 그는 자기가 처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는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수학공식처럼 고정된 인사말과 담담한 얼굴을 보자 정신이 펄쩍 들었다.

이거 내가 짝사랑에 빠진게 아니야?

그런 까닭에 류기연이 《영창이, 내 동생이 어떤가?》 하고 물을 때 그가 날 놀리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한편 하긴 뭐 바보온달도 평강공주를 안해로 삼았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 하는 배심도 우뚝 생겨났다.

강영창은 혀가 돌아가는대로 응답하였다.

《그런 처녀를 마다할 총각이 어디 있습니까?》

류기연은 정색해서 다시 물었다.

《그러니 마음에 있다는건가?》

《마음에 있다뿐이겠습니까. 헌데 누이동생이 나 같은 놈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음, 알겠네.》

그가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곧이 믿어지지 않았다.

며칠후 류기연의 어머니가 그날따라 푸짐한 음식상을 차렸다.

류기연은 강영창더러 한사코 누이동생옆에 앉으라고 하였다.

에라, 이제 못앉으면 언제 앉아보겠나 하고 슬쩍 처녀옆에 앉았더니 류기연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강군, 오늘 우리 누이동생과 약혼한것으로 하자구.》

처음엔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고 류기연을 쳐다보았다. 그가 제 동생이 어떤가고 물었을 때 진심을 터놓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줄은 꿈에도 몰랐던것이다.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한 행복이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반사적으로 옆을 보니 처녀도 발깃한 얼굴을 소곳하고있었다.

그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다.

《이러면 안됩니다. 나 같은 놈한테 어떻게 귀한 누이동생을… 아니, 절대로 안됩니다.》

류기연은 엄한 기색을 지었다.

《이젠 소용없네. 래일이면 자네와 내 동생이 약혼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겠는데 우리 집을 망신시키려나? 다른 말 말게.》

강영창은 구원을 청하듯 맞은켠에 앉은 류기연의 어머니를 넘겨다보았다.

《옳네. 임자가 싫지 않다면 오늘부터 자넨 우리 집 사람일세.》

어머니가 방안이 환해지도록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어안이 벙벙해났다. 마치도 꿈을 꾸는것같았다.

류기연의 누이동생이 어떻게 되여 자기의 약혼녀로 되였는지, 어떻게 되여 인물도 없고 가난한 고학생인 자기가 그의 매부감으로 되였는지 그 까닭을 알수 없었다. 결국 강영창은 아무 생각없이 류기연을 따라왔다가 약혼이라는 큰 선물을 받아안게 되였던것이다.

다음날 류기연은 그를 찾더니 정색해서 이야기하였다.

《내가 자네한테서 뭘 보구 누이동생을 맡긴줄 아나? 그건 자네가 량심이 곧고 정의감이 강한 사내이기때문이네.》

그후 강영창은 약혼녀와 성례를 치르었다.

다음해 봄, 려순공대를 졸업한 강영창은 류기연을 찾아왔다.

《형님, 난 미쯔비시전기주식회사 연구소에 들어가렵니다.》

《일본에 있다는 연구소 말인가?》

《예, 수재들이 많다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더 배우겠습니다.》

류기연은 그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좋네. 난 만주에서, 자넨 일본에서 힘껏 달려보세.》

그와 헤여진 강영창은 임신중의 안해를 대구에 있는 부모한테 맡기고 섬나라로 건너왔다.

미쯔비시전기주식회사 연구소에 취직하자 그곳에서 멀지 않은 세방에 짐을 풀었는데 하숙비가 비싸서 고향에 보낼 돈이 모자랐다.

온실의 화초같은 안해한테 부모와 형제들을 맡겨두고 떠나왔는데 돈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면 집살림이 말이 아닐것이다. 좀 창피하고 고생스러워도 함바에 들어가면 절약한 돈을 안해한테 보내줄수 있었다. 이렇게 되여 강영창은 원래의 세집에서 나와 인부들이 묵고있는 함바로 옮겨왔던것이다.

처음 인부들은 말쑥한 얼굴에 도수높은 안경을 낀 학자나부랭이가 왜 이런 루추한 곳에 들었는가 하고 곁을 주지 않았다.

어느날 저녁, 함바로 돌아오던 강영창은 부산에서 끌려왔다는 젊은 인부가 나무에 매놓은 올가미에 머리를 들이미는것을 발견하였다.

《이게 무슨짓이요?》 하고 소리치는데 청년은 벌써 발밑에 놓인 쪽걸상을 걷어찼다. 그러자 그의 몸이 허공에 둥둥 매달렸다.

강영창은 얼른 그 청년의 몸을 붙잡고 한손으로 올가미를 풀었다.

청년은 마구 몸부림치며 반항하였다.

《날 놓소. 난 죽고싶단 말이요!》

한참만에야 바줄을 풀어버린 강영창은 정기가 흐려진 청년의 얼굴을 힘껏 후려갈겼다.

맥없이 땅에 쓰러졌던 청년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태여났다가 그렇게 값없이 죽는단 말이요. 응?》

청년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토설하였다.

《내가 오죽하면 죽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고향에 계시는 홀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누웠다는것이다. 그런데 몇푼 안되는 로임에서 밥값을 제끼고나니 어머니한테 부칠 돈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 고민끝에 어머니약값도 보태지 못하는 아들이 더 살아선 무엇하겠는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것이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앓는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소? 그처럼 세상에 불효한짓이 어디 있는가 말이요.》

성산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가슴을 북북 잡아뜯었다.

《형님, 그럼 난 어쩌면 좋수? 예?》

망설이던 강영창은 품에서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안해한테 송금하려던 돈을 꺼냈다. 자기 사정도 딱하였지만 자살을 기도하던 청년의 처지가 더 처참하였던것이다.

《이 돈을 부치오.》

청년의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이걸 다 주면 형님은 어떻게 하우?》

《그까짓 돈이 없어 못살겠소? 인정이 모자라서 못사는거지.》

강영창은 미안해하는 그의 손에 돈을 쥐여주며 당장 송금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후에 그 사연을 안 인부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언제 그랬던가싶게 슬슬 피하던 강영창의 손을 덥석 잡았다.

《강선생이 이런 사람인줄은 모르구. 날 용서해주시우.》

《우린 선생이 왜놈들한테 붙어사는 사람인줄 알았수다.》

그 일이 있은 후 강영창과 인부들사이에 솟아있던 경계의 담은 없어졌다. 성산이는 그를 친형님처럼 따랐고 나중에는 가갸거겨와 더하기, 덜기까지 배워달라고 졸랐다.

하루종일 고된 로동을 한 인부들이 피곤을 무릅쓰고 앓고있는 강영창을 위해 너도나도 떨쳐나선것은 이와 같은 인연때문이였다.

그들이 병원에 들이닥치자 까나리처럼 빼빼 마른 왜놈의사가 위생복을 팔에 꿰며 나타났다.

《선생님, 빨리 좀 봐주십시오.》

《이러다가 생사람 죽겠수다. 어서 봐주시우.》

의사는 아래배를 그러쥔 강영창을 자세히 내려다보았다. 아마 보잘것없는 인부들이 데려온 환자한테서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가 하고 점쳐보는 모양이였다.

성산이가 의사의 귀에 대고 귀띔하였다.

《우리 형님은 미쯔비시전기주식회사 연구소에 다닙니다.》

랭랭하던 의사의 얼굴표정이 느슨해졌다.

《환자를 침대에 눕히구 다른 사람들은 나가오.》

침대에 강영창을 눕힌 인부들은 출입문쪽으로 밀려갔다.

《어디 봅시다. 몸을 바로하고 무릎은 올리고…》

그의 아래배를 슬슬 누르던 의사가 진찰하던 손을 뗐다.

《아이구!》

《급성충수염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충수가 터질거요.》

두손을 위생복주머니에 찔러넣고 우물거리던 의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듯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술하지 않고 고치는 비방이 있긴 한데.》

끙끙 신음소리를 지르던 강영창은 겨우 물었다.

《어떤… 비방입니까?》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있은듯 의사는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다.

《이건 빠른 시간에 염증을 제거하는 특효약이요.》

수술도 하지 않고 약만 먹어서 낫는다고 하니 강영창은 응하고말았다.

《먼저 주사를 맞기요. 그래야 약이 효력을 나타내니까.》

주사를 놓은 의사는 물고뿌까지 들고와서 약을 내주었다.

강영창은 손바닥우에 놓인 누런 알약을 내려다보았다.

이 약을 먹으면 수술하지 않고 낫는단 말이지?

《어서 먹소. 좀 있으면 효력이 나타날거요.》

정말 약을 먹은지 조금 지나자 참을수 없이 아프던 배가 편안해졌다.

《내 말하지 않습디까. 특효약이라구.》

의사는 래일 아침에 먹으라고 하면서 또 알약을 내주었다.

남의 부축을 받지 않고 제발로 걸어가는 강영창을 보자 인부들은 신기해하였다.

《강선생, 거 무슨 약인지 정말 좋구만요.》

《나두 충수염에 걸리면 그 약을 쓰겠수다.》

《쯧쯧, 말이 씨가 된다는걸 모르나? 그러다가 정말 맹장이 터지면 어쩔려구.》

강영창은 웃고 떠드는 인부들을 보며 빙긋 웃었다.

4

의식을 차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독수냄새가 진하게 배인 침대, 팔에 꽂혀있는 길다란 점적관…

벌써 하루가 지났구나!

머리말에 놓여있는 안경을 찾아끼고 창밖을 보느라니 그제 밤에 벌어졌던 일이 악몽처럼 펼쳐졌다.

…함바에 돌아와 잠들었던 강영창은 한시간도 못되여 배를 그러쥐고 대굴대굴 굴었다.

《아이구 배야, 아이구!—》

그 신음소리에 인부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강선생, 또 아프우?》

《성산이, 석유등을 켜라구.》

드윽— 하고 성냥소리가 나자 컴컴하던 함바안이 훤해졌다.

《특효약인지 뭔지 마저 먹는게 어떨가요?》

《그건 래일 아침 먹으라고 하지 않았나?》

《언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건가? 강선생, 빨리 드시우다.》

강영창은 간신히 주머니를 뒤져 《특효약》을 꺼내먹었다.

이제 낫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픔은 점점 더해만 갔다.

미타해서 지켜보고있던 인부들이 술렁거렸다.

《거 특효약이라는게 가짜가 아닐가?》

《하긴 지금 생각해보니 쪽발이의사가 노는 꼴이 좀 수상했어.》

《우선 병원에 데려가고 보세.》

얼마후 인부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도착하니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성산이가 발로 병원문을 부서져라고 걷어찼다.

《쪽발이새끼,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구 어딜 달아났어?》

《여기서 우물거리다간 일을 치겠네. 다른 병원에 가자구.》

강영창은 더해지는 아픔을 이겨내지 못한채 그만 정신을 잃고말았다.

이튿날 오후, 그는 배가죽을 마구 잡아당기는듯한 아픔에 의식을 차렸다.

불그레한 아침해빛이 비쳐드는 창문을 배경으로 비죽비죽 솟아있는 인부들의 얼굴이 안겨왔다.

《이제야 깨여났구만.》

《후유, 난 또 장사를 치르는가 했수다.》

《방정맞을 소리. 강선생이 그렇게 약골인줄 아나?》

강영창은 아픔때문에 미간을 찡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어떻게… 된겁니까?》

인부들은 입은 열지 않고 싱글벙글하는데 성산이가 눈물이 글썽해서 알려주었다.

그에 의하면 《특효약》을 먹고 기다리는 동안 곪을대로 곪은 충수가 터져 복막염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서 오랜 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피를 많이 흘려 수혈을 하여야 하였다.

인정사정없는 왜놈세상이지만 같은 동포들인 인부들은 강선생을 무조건 살려야 한다면서 저저마다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여 진실하고 인정많은 그들의 피가 환자의 몸으로 흘러들었던것이다.

강영창은 인부들이 너무도 고마와 눈굽을 적시였다.

《강선생, 미안해할건 없수다.》

《그렇지 않구요. 우리야 같은 조선사람이 아니요.》

《형님, 그 말 한마디만은 잘했시다. 하하하!》

의리깊은 인부들은 성산이를 간호자로 남겨두고 돌아갔다. …

밉살스러운 쉬파리들이 앵앵 날아다니는 천정을 올려다보던 강영창은 후회하였다.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특효약》으로 충수염을 고칠수 있다는 왜놈의사의 말을 믿었다가 인체실험대상이 되였던것이다.

《연구사형님, 더 아파요?》

성산은 자기가 조수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도 형님의 실력이 아무렴 왜놈보다 못하겠는가고 하며 한사코 연구사형님이라고 불렀다.

《괜찮네.》

《그런걸 난…》

원탁우에 물주전자를 올려놓고 돌아서는 성산의 몸에서 웬 종이

장이 너풀너풀 떨어졌다.

《뭘 떨어졌구만.》

《예?》 하고 종이장을 집어드는 성산의 얼굴에 당황해하는 빛이 어렸다.

《뭔데 그러나?》

《별… 별게 아니예요.》

강영창은 짐짓 노여운체하였다.

《성산이, 나한테 숨기는게 있지?》

주밋주밋하던 그는 작업복주머니에 집어넣었던 종이장을 내주었다.

《함바에 갔댔는데 우체부가 주더군요.》

《우체부?》 하고 종이장을 들여다보던 강영창은 두눈을 크게 떴다. 뜻밖에도 그것은 해고통지서였던것이다.

해고통지서를 뚫어지게 보는데 불현듯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실험대우에 놓여있는 전화기가 계속 울었다.

할수없이 수화기를 들자 소장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수인가?… 당장 내 방으로 오라!》

소장이 무엇때문에 호출하는지 알고도 남았다.

이즈음 이마무라의 태도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한해가 지나도록 잡부처럼 부려먹더니 처음으로 실험실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실험기구들을 건사하고 실험실을 청소하는 일감을 맡겼다. 했으나 조수가 자기의 연구내용을 알가봐 극력 경계하였다.

어느날 이마무라는 실험도중에 고열이 나서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시간도 못되여 비칠비칠 달려나오는것이였다. 무슨 보물이기라도 하듯 책상우에 펼쳐있는 실험일지를 집어든 그는 측정기구들을 거두고있는 강영창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조수가 실험일지를 훔쳐보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하는것같았다.

그 모습이 역스러웠다.

건덕지를 잡지 못한 이마무라는 실험일지를 철궤안에 넣고 두번세번 확인하고 돌아갔다. 몸이 아파도 조선사람한테는 절대로 실험내용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속심이였다.

강영창은 이제는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자기한테는 대학시절부터 준비해온 《베릴리움에 의한 전해연마의 계기정밀측정》이라는 연구과제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마무라가 자질구레한 일을 시키고 실험설비와 측정기구들을 내주지 않아 연구를 할수 없었다. 그가 아파서 며칠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지금이야말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날부터 연구에 착수하였다. 실험은 낮에 밤을 이어 새벽에도 진행되였다. 두눈이 충혈지고 대학시절에 자주 쏟군 하던 코피까지 터졌지만 중단하지 않았다.

오늘 정오무렵, 정신없이 실험하고있는데 삐걱― 하는 소리가 났다.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니 이마무라가 쥐를 노리는 고양이상통을 하고 서있었다.

《지금 뭘 하는가?》

첫 순간 당황했으나 생각나는대로 둘러쳤다.

《심심해서 이것저것 해보는중입니다.》

이마무라의 아래입술이 비죽 나왔다.

《흥, 누굴 소경으로 아는가? 네가 몰래 뭔가 연구한다는걸 모르는줄 아는가 말이다.》

그런즉 이마무라는 집에서 달아오른 이마우에 찬물수건을 올려놓고 찜질만 하고있은것이 아니였다.

《이건 제국의 재산이니 넌 함부로 쓸수 없다.》

실험기구들을 와락와락 장속에 밀어넣고 열쇠를 채운 그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그랬는데 10분도 못되여 소장이 전화를 걸어온것이다.

소장방에 들어선 강영창은 망짝같은 입술을 심술사납게 내밀고 앉아있는 이마무라를 보았다.

《당신이 남몰래 연구를 한다는데 사실인가?》

강영창은 소장의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소장의 두눈이 안쪽으로 몰려들었다.

《이마무라군의 말을 들어보니 조수일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무슨 연구를 한다는건가?》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이마무라는 자기 집의 지붕을 고쳐라, 석탄

을 날라주라 하고 실컷 부려먹더니 소장한테는 조수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고해바친것이다. 당장 사실을 까밝히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그만두고말았다. 그러나 이왕 일이 터진김에 결판을 봐야 하였다.

《소장님도 알지만 난 대학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고 학사론문도 발표했습니다. 조수로 있은지도 한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젠 단독으로 연구과제를 맡겨주십시오.》

《자신이 누구라는걸 잊은게 아닌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모들뜨기로 변한 소장의 두눈에서 싸늘한 빛이 뿜어나왔다.

《넌 반도인이다. 그러니 조수도 과남하단 말이야.》

강영창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들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맑은 안경알을 닦기 시작하였다.

조수도 과남하다구? 그럼 한평생 너희들의 수족노릇이나 하란 말이냐? 아니, 똑똑히 알아두라. 내가 별의별 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뻗치고있는건 연구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뭐가 어쨌다구?

안경알을 닦고 또 닦았으나 오히려 가슴속에 분기만 차올랐다. 안경을 얼굴에 걸자 든든히 쌓았던 인내성의 동뚝이 왈칵 터져나갔다.

《당신은 조선사람을 잘못 봤소. 나도 일단 연구에 착수하면 당신들 못지 않게 해낼수 있단 말이요.》

소장과 이마무라가 동시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썩 나가!》

《여기서 사라지란 말이다!》

증오에 찬 눈길로 모들뜨기눈과 비죽이 나온 아래입술을 노려보던 강영창은 문을 걷어차고 나왔다. …

결국 왜놈들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자기를 해고해버린것이다.

해고통지서우에 왜놈의사와 연구소 소장, 이마무라의 얼굴이 차례로 겹쳐졌다. 그 상통들은 흐늘흐늘 춤을 추다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렇다. 왜놈들은 조선사람의 지식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초에 배우겠다고 이곳으로 건너온것부터가 어리석었다.

줌안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해고통지서가 락엽처럼 뿌려졌다. 그 종이쪼박들사이로 류기연의 모습이 언뜻 비쳐들었다.

얼마전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현재 자동공기제동기를 연구하고있

는데 그것만 성공하면 왜놈들을 통쾌하게 눌러놓을수 있다고 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술로 조선사람의 존엄을 지키려고 나선 처남의 기개가 장해보였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쫓겨난 지금은 그가 수령을 가려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눈먼 사람처럼 안겨왔다.

형님, 왜놈세상에선 우리의 꿈을 절대로 이룰수 없습니다!

한달후 강영창은 고향에서 건너온 안해의 부축을 받으며 현해탄을 건너갔다.

5

드디여 자동공기제동기연구가 끝났다.

으득으득 뼈마디소리가 나도록 기지개를 켠 류기연은 책상에서 물러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캄캄한 밖에서 불빛환한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안달아하던 찬 공기가 쓸어들며 얼굴에 확 끼쳤다.

《어허!》

무수한 선과 점, 부호로 가득찼던 두뇌에 맑은 산소가 들어가자 쌓였던 피로가 하품으로 변하여 쏟아져나갔다.

기분이 상쾌해서 상상속의 상대측 선수가 던진 야구공을 힘껏 쳐내는 동작을 두세번 하고난 그는 탁하던 방안공기가 맑아지자 창문을 닫았다.

벽시계를 보니 퇴근시간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다.

오노한테 제출하자!

책상우에 놓여있는 도면을 둘둘 말고있는데 마침 그가 들어섰다.

《좋은 일이 있는게로군. 혹시 도면을 완성한게 아니요?》

관찰력이 세심한 그는 상대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알아맞춘것이다.

류기연은 그를 향해 씩 웃어보였다.

《내 짐작이 맞았구만. 어디 좀 보기요.》

도면을 꼼꼼히 따져보며 때로 주산으로 계산도 해보던 오노는 기쁨을 금치 못하며 악수를 청하였다.

《류기사,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소.》

잘 생긴 얼굴이 환해지도록 웃고있던 그는 닫겨있는 창문을 보자 미간을 약간 찌프렸다.

《공기가 나쁘구만. 머리도 쉬울겸 밖에 나가지 않겠소?》

류기연은 밖에 나가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오노는 공기가 나쁘다고 하였지만 방금전에 공기갈이를 하였던것이다. 하지만 그가 권하는데 싫다고 할수 없었다.

본부청사앞에 있는 공원으로 나오자 오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거닐다가 도면은 래일 제출하자고 하는것이였다.

당장이라도 기술부장한테 도면을 가져갈줄 알았던 그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수 없었다.

《달리 생각마오. 부장님은 일이 있어 먼저 퇴근했소. 그러니 래일 첫시간에 제출하기요.》

그와 헤여져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우에 물이 절반쯤 담겨있는 유리고뿌가 놓여있었다. 도면을 완성한 후 목이 말라서 마시고 남았던것이였다.

물을 마저 마시고 도면을 철궤속에 넣으려는데 졸음이 밀려들었다. 어찌나 졸리는지 도면을 거두지도 못한채 연구도중 피곤하면 쉬라면서 오노가 가져다놓은 침대까지 겨우 걸어갔다.

조금만 자고 집에 가자.

이것은 그가 걷잡을수 없이 기울어지는 몸을 침대우에 눕히며 한 생각이였다. …

머리우에서 똑딱똑딱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벽시계소리구나. 몇시쯤 되였을가?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속눈섭에 무거운 추를 매달아놓은것같았다. 게다가 팔다리도 오래동안 물속에서 헤염치다가 나온것처럼 나른하였다.

기억을 더듬자 물을 마시고 너무 졸려서 침대쪽으로 다가가던 일이 생각났다.

그래, 조금만 자고 집에 가자고 했댔지.

땡땡—

시계종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눈을 떴다. 먼저 안겨온것은 맞은

편 벽에 걸려있는 벽시계였는데 20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몸을 일으키고 둘러보니 금붕어들이 헤염치는 어항, 반쯤 열려진 철궤가 차례로 보였다. 그제서야 흐리멍텅하던 머리가 물로 씻은것처럼 맑아졌다.

침대우에서 일어나 도면을 철궤속에 넣고 돌아서는데 뭔가 보였다. 의자밑에 떨어져있는 가죽장갑이였다.

이건 누구건데 여기에 있을가?

피뜩 오노가 생각났다. 사무실에 찾아왔던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장갑을 살펴보니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지고 담배불구멍까지 나있었다. 그렇다면 오노의것은 아니였다. 그는 담배를 어느 정도 피웠지만 옷에 불찌를 떨구는 법을 몰랐고 장갑도 깨끗한것을 끼고 다녔다.

그렇다면 누가 사무실에 들어왔댔을가?

고개를 기웃거리는데 눈이 까매서 기다리고있을 안해와 아들애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랴부랴 방열쇠를 잠그고 청사정문밖으로 나서자 안해가 맞아주었다.

《여보!》

《아, 당신이요?》

《어떻게 된 일이예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다고 하시더니.》

안해가 걱정할가봐 듣기 좋게 설명하였다.

《피곤해서 잠들었댔소.》

《그런걸 난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했군요.》

《일은 무슨. 아이는 어떻게 하고 나왔소?》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걸 겨우 얼려서 재웠어요.》

안해를 정겹게 보고있던 류기연은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여보, 우리 좀 걷지 않겠소?》

안해의 눈에 놀란 빛이 떠올랐다.

《아이, 당신도 그럴 때가 다 있어요?》

안해가 아이를 데리고 려순으로 온 다음에도, 만철에 입직한 후에도 그들은 언제 한번 같이 거닐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최근에는 자동공기제동기를 연구하느라고 더 바빴다.

언제인가 안해에게 롱삼아 소원이 뭔가고 물었었다.

《첫째는 당신이 앓지 않고 건강하는거예요. 두번째는 당신하구 실컷 거니는거구요.》

이제는 연구가 끝났으니 그 소원을 풀어주고싶었다. 자기를 위해 고생많은 안해를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주고싶었다.

그 심정을 가슴에 묻어둔채 류기연은 짐짓 섭섭한 티를 냈다.

《누군 뭐 목석인가 하오? 나두 여기가…》

그가 주먹으로 가슴을 툭 치자 안해는 소리내여 웃었다. 그러더니 이 기회를 놓칠가봐 겁이 난듯 살며시 남편의 팔을 꼈다.

《여보, 래일부턴 푹 쉬세요.》

《당신두 쉬오. 그동안 수고많았는데.》

《그게 무슨 수고겠어요. 전 그저 당신 일만 잘되면 아무리 뛰여다녀도 힘들지 않아요.》

두사람은 서로 위하는 따뜻한 정을 안고 집으로 향하였다.

이튿날 아침, 오노는 약속대로 사무실에 찾아왔다.

류기연은 도면과 함께 낡은 가죽장갑을 보여주었다.

《이런 장갑을 낀 사람은 없는데… 하여튼 나한테 맡기요.》

장갑을 건사한 그는 도면을 옆구리에 끼고 사무실을 나섰다.

이젠 무엇을 할가 하고 생각하던 류기연은 어항에 눈길을 주었다. 오래동안 관심을 돌리지 않아 뿌옇게 흐려진 물속에서 금붕어들이 흐늘흐늘 움직이고있었다.

숨이 막히겠군.

금붕어들을 건져낸 빈 어항을 세면장에 들고가서 깨끗이 청소하고 물도 갈았다. 그다음 금붕어들을 다시 어항에 넣고 먹이를 주었다.

금붕어들은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듯 꼬리를 살살 저으며 헤염쳤다.

그 모양을 보자 기분이 즐거워졌다. 아마도 연구를 끝낸 기쁨까지 합쳐져서 더욱 그럴것이다.

따르릉― 하고 책상우에 놓여있는 전화기가 울었다.

수화기를 들자 기술부장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방에 오우.》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서있었다. 도면을 보는데 적어도 한두시간쯤은 걸릴줄 알았는데 반시간도 못되여 찾을줄은 몰랐기때문이였다.

기술부장의 방에 들어서자 방주인은 심드렁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도면에서 결함이 많이 발견된 모양이였다.

《안되겠소.》

역시 시답지 않아하는 그의 말을 듣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전 오노와 함께 사무실에 들렸던 기술부장은 마감단계에 이른 연구정형을 료해하고나서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였었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만나자마자 안되겠다고 하는것이다.

기술부장은 책상우에 놓여있는 두개의 도면중에서 하나를 집어들더니 내밀었다.

《당신건 가져가오.》

류기연은 말뜻을 몰라 그를 바라보았다.

《꼭같은 도면을 다른 사람이 먼저 제출했단 말이요.》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누가 먼저 내것과 꼭같은 도면을 제출했는가? 이노우에? 아니면 다께다? 아니, 그들은 제동기전문가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가보우.》

기술부장은 더 대상할 필요도 없다는듯 손을 내저었다.

안정을 잃은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열흘쯤 지난 어느날 오후, 본부청사 회의실에 기사들이 가득 모였다.

총재와 기술부장이 주석단에 나타나고 그뒤로 키작은 남자가 따라섰다. 걸개에 도면을 걸어놓은 그는 안장코를 슬쩍 잡았다놓았다.

류기연은 하마트면 자리에서 일어날번하였다. 꼭같은 도면을 먼저 제출했다는 기사가 뜻밖에도 구마모도였던것이다.

만족한 웃음을 지은 총재가 구마모도를 향해 말했다.

《한번 설명해보우.》

《예예.》

본토의 총리앞에서도 할 소리를 탕탕한다는 총재의 그 한마디에 너무도 황송해서 어쩔바를 몰라하던 구마모도는 떠듬떠듬 설명하였다.

《본인이 연구한… 자동공기제동기의 구조는…》

귀를 강구고 설명을 듣고있던 류기연은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저건 내가 연구한거다. 삼등변도 보조공기통도…

어느덧 구마모도의 발언은 끝나고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구마모도군이 인재인줄은 몰랐구만.》

《저 량반 밤마다 기생집에 붙어산다고 하더니 기생하구 밤새 도면을 그린게 아닌가?》

《그럴수도 있지. 흐흐흐!》

어디선가 당돌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인재가 되자면 나도 구마도모상을 따라다녀야 하겠군요.》

수십쌍의 눈길이 뒤쪽으로 쏠렸다.

서로 교차되는 무수한 시선들의 중심에 초연히 앉아있는 사람은 동력과 녀기사 유끼였다.

참으로 대담한 녀자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철의 제왕인 총재가 직접 참가한 모임에서 감히 큰소리로 말하다니.

모두 그 녀자가 욕을 볼가봐 아짜아짜해서 지켜보는데 유끼는 안하무인격으로 나왔다.

《참, 거기에 남자기생도 있는가요?》

기사들은 주석단쪽을 흘끔흘끔 살피며 쑤군거렸다.

《미인들은 다들 저렇게 담이 큰가?》

《그야 물론이지. 영웅호걸도 미인앞에선 노예나 같다지 않나.》

기술부장이 조용하라고 손을 흔들었다.

《구마모도군이 제출한 설계는 종전의 제동기보다 안전하고 구조도 간단하기때문에 인차 제작에 넘기자고 합니다. 에, 다음은 총재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총재가 뚱기적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엄청난 전쟁비용으로 아우성치는 섬나라의 돈주머니를 용케도 불구어주고있는 거물이 이런 모임에 참가한것은 보기 드문 일이였다.

《난 기쁘오. 정말 기쁘단 말이요. 일전에는 오노군이 <아시아>호를 살려냈고 오늘은 또 구마모도군이 고심분투하여 자동공기제동기를 개발했으니 과시 야마도민족의 후손들답소. 앞으로도 우리 만철과 제국의 영화와 번영을 위해 멸사봉공하기 바라오.》

총재의 발언이 끝나자 기술부장이 알려주었다.

《에, 오늘 저녁 총재님이 구마모도군의 성공을 축하해서 만찬을 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와- 하고 환성이 터져올랐다.

류기연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주변에서 수백마리의 찌르러기가 목청껏 울고있는것같았다.

누군가 어깨를 와락 잡아흔들었다.

《류기사,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고개를 돌리자 격분에 찬 오노의 얼굴이 안겨왔다.

6

《부친이 보낸 서신이요!》

점심을 먹고 학교에 나가려던 한홍식은 우체부가 넘겨주는 등기편지를 받았다. 내용인즉 이젠 네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언제까지 부처님흉내를 내겠냐, 맞춤한 대상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보내라는 것이였다.

그런 편지를 써보낸 아버지의 심정은 리해되였다.

한홍식은 일본에서 돌아온 후 몇번 선을 보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성사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장의 권한으로 혼사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움쩍하지 않으니 불효자식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그렇지만 등기편지까지 보낸것을 보면 한살두살 나이를 먹어가는 아들때문에 안달이 난 모양이였다.

하다면 정말 나한테는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단 말인가? 없었다. 아니, 마음에 든다고는 할수 없지만 인상에 남은 처녀가 있다.

관절염을 앓는 제 동무를 대신해서 벌을 자청한 녀학생, 제발 학교를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사정하던 순애.

티끌만한 가식도 없는 그 진심이 그려낸 순애의 초상은 그의 가슴속에 이상야릇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정기가 빛나는 까만 눈동자를 그려보자 저절로 가슴이 흥

그리워졌다.

…실험실에서 과외학습을 지도하던 한홍식은 벽에 걸려있는 큐리부인의 초상화(그것은 몇해전 학교를 졸업한 녀학생들이 남긴것이였다.)를 하염없이 쳐다보는 순애를 보았다. 늘 손에 《큐리부인전》을 들고다니는 그의 가슴속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여받은 큐리부인처럼 세계적인 녀성학자가 되려는 꿈이 자리잡고있는듯싶었다.

어찌나 심취되였는지 순애는 사람이 옆에 다가가는줄도 몰랐다.

《순애학생!》

교원을 알아본 순애는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였는지 얼굴을 붉혔다.

《큐리부인이 부러운게지?》

순애는 솔직하게 토설하였다.

《선생님, 전 나라가 해방되면 꼭 녀성과학자가 되고싶습니다.》

그때까지 한홍식은 그를 물리학에 남다른 취미를 가진 녀학생으로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가슴속에 이처럼 큰 포부를 안고있을줄이야.

다섯손가락중에도 특별히 긴 손가락이 있는것처럼 담임한 제자들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탐구심도 강한 순애야말로 남다른 관심을 두어야 할 제자였다.

그래, 만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만 않았더라면 순애는 꼭 녀성과학자가 되였을것이다.

다음날부터 그를 따로 남겨놓고 교수안에 반영되지 않은, 도꾜물리과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확실히 순애는 총명하고 열정적인 제자였다. 하나를 배워주면 제꺽 리해했고 또 다른것을 배워줄것을 바라는것이였다.

《밤도 깊었는데 그만하고 가기요.》라고 하면 《선생님, 먼저 가십시오. 전 문제를 마저 풀고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이악쟁이였다.

며칠 그러다 말겠지 하고 여겼는데 한주일, 한달이 지나도 한본새였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순애한테 배고프지 않는가고 물었다.

《문제를 푸느라면 배고픈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간 병나겠구나 하고 가까운 음식점에서 두사람분의 식사를

날라오게 하였다.

책상우에 음식그릇이 나타나자 순애는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전… 전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그러지 말구 앉소. 앉으라니까.》

순애는 마지못해 의자에 도로 앉았지만 수저는 받을념을 하지 않았다.

《허, 그럼 공부를 배워주지 않겠소.》

그제서야 순애는 부끄러워하며 수저를 받아쥐였다.

식사가 끝나자 한홍식은 약속한대로 다른 과제를 내주었다.

스승과 제자는 밤늦도록 복습문제를 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저녁, 순애가 책상우에 음식그릇들을 차려놓았다.

《이건 웬거요?》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대접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배워주는 값을 낸다는거요?》

순애는 한홍식이 롱을 하는줄도 모르고 바빠맞아하였다.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고맙다고…》

한홍식은 두손을 마주 대고 썩썩 비볐다.

《이왕 가져온거니 맛 좀 볼가?》

기다렸던듯이 순애는 얼른 저가락으로 송편을 꿰여주었다.

《우리 어머닌 송편을 맛있게 합니다.》

그 말은 어머니에 대한 외동딸의 편애한 자랑이 아니였다. 실지로 먹어보니 솔잎냄새가 상긋한 송편은 별맛이였다. 그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 떡을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퍼그나 축냈다.

식사가 끝나자 한홍식은 정색해서 일렀다.

《어머니한테 또 이런 수고를 하면 내가 공부를 아예 배워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씀드리오. 알겠소?》

순애는 새물새물 웃기만 하였다.

며칠후 한홍식은 앓아누웠다. 교사노릇을 하느라고 아령운동이랑 몸단련을 게을리해서 그런지 그전에는 우습게 보았던 독감에 걸린것이였다. 고열이 나고 팔다리가 쑤시는데다 입맛까지 잃어서 황소같던 사람이 졸지에 약골이 되고말았다. 옆에 간호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공교롭게도 하숙집주인은 당분간 집을 비우고 없어서 병세

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 소식을 들은 녀학생들은 안타까와서 두발을 동동 굴렀으나 어쩌는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주일쯤 지나 한홍식은 학교에 나타났다. 그새 얼굴은 좀 수척해졌지만 두눈에는 정기가 흘러넘쳤다.

교실에 모여앉아 스승에 대한 걱정보따리만 풀고있던 녀학생들은 그를 둘러싸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선생님, 이젠 다 나았습니까?》

《우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진희랑 숙녀랑 선생님이 아주 못나오시면 왜놈교원이 학급을 맡을가봐 걱정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한홍식은 우정 심술을 부렸다.

《모를 소리요. 이 <폭군>이 어디가 곱다구. 오히려 아주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겠는데.》

그 말에 두눈이 동그래서 서로 마주보던 녀학생들은 뒤늦게야 그가 롱담을 하고있다는것을 깨닫자 허리를 그러안고 까르르 웃었다.

찰나 한홍식은 동료들뒤에 조용히 서있는 순애한테 눈길을 보냈다.

순애도 밝은 미소를 머금고 마주보았는데 아무도 두사람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눈길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일인즉 이렇게 된것이다.

…한홍식은 텅 빈 하숙방에서 혼자 앓고있었다.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가슴이 터져나갈것처럼 줄기침이 터져나왔다. 나중에는 의식마저 가물가물해졌다.

어머니가 몹시 그리웠다. 남편이 어성을 조금만 높여도 눈물부터 앞서는 유약한 녀인이였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댈 용감한 어머니였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사냥총사건》이였다.

언제인가 한홍식의 아버지는 친구인 광산주와 사돈을 맺으려고 하였다. 광산주는 체격이 든든하고 학식도 있는 총각을 사위로 삼아 장차 기업을 넘겨주려고 하였다. 전문학교를 나왔다는 처녀도 온 박

천땅을 뒤흔들어놓은 담이 큰 총각을 반려자로 정한것을 기뻐하였다.

약혼을 앞둔 어느날 한홍식의 집에 마른벼락이 떨어졌다. 당사자가 약혼을 포기한다고 선포하였던것이다.

이젠 아들을 장가보내는가부다 하고 흡족해하던 아버지는 엄하게 리유를 캐물었다.

며칠전 거리를 거니는 처녀총각앞에 동냥을 구하는 로파가 나타났다.

한홍식은 한팔이 없고 허기진 로파를 보자 불쌍해서 돈을 꺼내주었다.

그러자 처녀가 랭담한 어조로 내쏘았다.

《그만하세요. 이런것들은 다 우리의 동정심을 악용해서 배를 채우는 건달군들이랍니다.》

한홍식은 어쨌든 로파가 불쌍하지 않는가고 하였다.

처녀는 로파의 손에 쥐여있던 돈을 앗아내더니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다.

로파는 옆으로 물러서려고 하였지만 비칠거리다가 쓰러지고말았다.

《정말. 산보도 제대로 못하겠다니까.》

손수건으로 코를 싸쥔 처녀는 더러운 물건을 피하듯 로파를 에돌아 지나가버렸다.

혼자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로파를 부축한 한홍식은 주머니의 돈을 털어서 쥐여주었다. 그리고는 처녀더러 어쩌면 그렇게 매정한가고 질책하였다.

《홍식씨는 자비심이 많군요. 허지만 전 리익없는 지출은 원하지 않는답니다.》

역시 기업을 하는 광산주의 딸다운 대답이였다.

숨을 크게 내쉰 한홍식은 우린 함께 갈수 있는데까지 다 왔다고, 안됐지만 아가씨와 일생을 함께 하고싶은 용기가 없다고 말하고 돌아섰던것이다.

아버지는 그렇다고 파혼하면 군수인 자기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고 설복하고 나중에는 위협하였다.

한홍식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미전부터 아들에 대한 고까운 감정이 쌓여있던 아버지는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벽에서 사냥총을 벗겨들었다. 그 총은 언제 한번 탄약을 재워본적 없는 장식용이였는데 그것으로 아들의 밸통을 꺾어놓으려고 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이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줄로 여겼는지 자기보다 덩지가 큰 아들을 몸으로 와락 덮었다.

《여보, 이앤 안돼요. 정 죽이겠으면 날 죽이라요!》

그 모습앞에서 부자는 동시에 놀랐다. 아버지는 자기한테 움쩍 못하던 안해가 무섭게 반발해나서는데 놀랐고 아들은 아들대로 늘 량순하던 어머니한테서 뿜어나오는 강인한 모성애에 놀랐던것이다.

한홍식은 그날의 어머니를 영원히 잊을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순간에도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면, 찬물찜질도 해주고 약도 먹여주었으면 하고 바랬었다.

어머니… 어머니!

문득 이마우에 찬물수건이 올려지더니 시원해났다.

아, 어머니가 오셨구나!

반가와서 두눈을 뜨자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학생복을 입은 처녀의 모습이 뿌옇게 안겨왔다.

《누… 누구요?》

《선생님, 순애입니다.》

뭐, 순애라구?

자세히 보니 정말 순애가 틀림없었다.

이 처녀가 지금 제정신인가? 독감이 옮으면 어쩔려구.

《순애학생, 당장 돌아가오!》

순애는 듣지 못한듯 다른 찬물수건을 이마우에 또다시 올려놓았다.

《못들었소? 당장 돌아가란…》

여기까지 말하는데 별안간 눈앞이 아뜩해지며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저 몽롱한 의식속에서 누군가 찬물찜질을 해주고 약을 입안에 떠넣어준다는것만 알고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린것은 다음날 오후였다. 아직 열은 깨끗이 내리지 않았지만 첫날보다는 몸이 한결 거뜬해지고 기침도 멎었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부엌문이 열리며 순애가 들어왔다.

《아이, 선생님!》

약그릇을 방바닥에 내려놓은 순애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거요?》

《선생님, 밤새 고열이 나구 헛소리도 쳤습니다.》

그러고보면 어제 밤에 자기를 간호한 사람은 바로 순애였다.

그 제자가 어머니를 대신하여주었다고 생각하니 코마루가 시큰해났다. 하지만… 이제 순애는 두달만 있으면 학교를 졸업한다. 나이도 벌써 19살이다. 그 년령이면 웬간한 녀자들은 출가를 했을것이다. 그런데 다 큰 처녀가 온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남자를 간호했으니 사람들이 알면 좋지 못한 소문이 나돌지 않겠는가.

《수고했는데 어서 돌아가오.》

방금 끓인 탕약을 숟가락으로 젓고있던 순애가 걱정하였다.

《선생님,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못들었소?》

순애는 약을 계속 저으면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홍식은 할수없이 께름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혹시 나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겠소?》

《전 선생님의 병만 나으면 그만입니다.》

단순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당돌하다고 해야 할지 모를 그 대답에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이어 입술가에 약숟가락이 살며시 와닿았다.

《드십시오.》

《…》

《빨리 병을 털구 절 배워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애의 눈가에 진정이 어려있었다.

《저녁엔 무조건 돌아가오. 알겠소?》

《예.》

그렇지만 순애는 그날 밤에도 집에 돌아갈수 없었다. 얼마간 내렸던 열이 또다시 치달아올랐던것이다.

우려하던 일이 끝내 터졌다.

다음날 아침, 순애가 떠주는 탕약을 먹고있는데 웬 중년남자가

헐레벌떡 찾아왔다.

《이년, 당장 나오지 못할가?》

포목가게를 운영한다는 순애의 아버지였다.

《못들었느냐?》

아버지가 방안이 무너지라고 발까지 구르며 야단하자 구경군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요?》

《저 사람 딸이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질 않소.》

《허, 그거 참 변괴로다.》

사람들의 비난을 들은 아버지는 더 기가 뻗쳐서 고함쳤다.

《이년, 네가 아니면 간호해줄 사람이 없을가봐 그러냐? 시집갈 나이의 처녀가 망신스러운줄도 모르구.》

순애는 눈을 내려깔고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었다.

《가자!》

아버지가 손목을 잡아끌었으나 제자는 방문턱을 꼭 잡고 뻗쳤다.

한동안 부녀간에 싱갱이가 벌어졌지만 결판은 나지 않았다.

숱한 사람들앞에서 톡톡히 망신당한 아버지는 길길이 뛰였다.

《이년, 어디 돌아오기만 해봐라. 정갱이를 분질러놓을테다!》

따분해난 한홍식은 순애더러 어서 돌아가라고 재촉하였다.

아버지의 요구에 불응한 녀학생은 스승의 권고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때가 되면 돌아가겠습니다.》

저녁무렵이 되자 그처럼 기승을 부리던 병세는 숙어들고 잃어버렸던 입맛도 되살아났다. 잉어탕을 성의껏 끓여준 순애는 스승이 맛있게 드는것을 보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

녀학생들이 물러가자 한홍식은 순애를 조용히 불러 집에 돌아가서 다른 일은 없었는가고 물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다 리해하셨습니다.》

속으로 걱정했는데 그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하지만 순애가 채찍자리를 가리우기 위해 바지를 입고있다는 사실을 알수가 없었다. 그러다나니 제자가 흔연스럽게 대답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7

《이번에 총독부에선 국경지대의 <황군>부대들에 <학생위문단>을 보내기로 했소. 그래서 인물곱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선발되였는데 선생네 학급에서는 도미에가 뽑혔소.》

교원모임이 끝난 후 교장이 따로 남으라고 하더니 꺼낸 말이였다.

아닌밤중에 홍두깨같은 소리에 한홍식은 크게 놀랐다.

《어째서 그 학생이 뽑혔습니까?》

금붕어처럼 불룩 나온 교장의 눈에 묘한 빛이 맴돌았다.

《도미에는 인물이 곱고 품행도 단정하니 총독부에서 정한 기준에 제일 적합한 학생이요.》

《그 학생은 안됩니다.》

교장의 붕어눈이 희번득거렸다.

《왜 안된다는거요?》

《대학입학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한홍식은 순애가 학교를 졸업하면 도꾜물리과대학에 가서 공부하라고 권고할 생각이였다. 그래서 래일이나 모레쯤 순애를 불러 의향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것이다.

지금껏 자기가 한마디 하면 굽신거리는 교원들만 보아온 일본인 교장은 감히 면전에서 지시를 거부하는 조선인교원을 보자 천둥같이 화가 났다.

《보내라면 보낼게지 무슨 말이 많은가?》

한홍식은 끄떡하지 않고 배심을 부렸다.

《다시말하지만 그 학생은 못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같습니다.》

풍을 만난것처럼 후들후들 떨기 시작한 교장의 손이 버릇처럼 책상우에 놓여있는 책무지를 더듬고있었다.

《여보, 이건 당신이 결론할 일이 아니요. 학교에선 이미 총독부 학무국과 합의를 보았소.》

한홍식은 마치 앞을 가로막은 담벽을 밀어버리기라도 하려는듯 가

슴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런 문제를 왜 나하구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끝내 교수안이 갈피를 펄럭거리며 날아들었다.

《당신이 뭐가 돼서 토론한단 말이요? 교장이 결심하면 그만이지.》

《난 그 학생의 담임교원입니다.》

교장의 붕어눈에 거만한 빛이 어렸다.

《담임교원? 아니, 그보다 먼저 반도인이지. 그 주제에 대일본제국에 감히 맞서보자는건가? 당장 도미에를 찾아서 보내라!》

한홍식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자가 어째서 순애를 기어코 《위문단》에 뽑으려고 하는가? 혹시 그 일때문이 아닐가?

엿새전 학교수직을 서고있던 한홍식은 순찰을 하고있었다.

1층과 2층을 돌아보고 3층복도에 올라서니 깜깜세상이였다. 그러나 실험실에서만은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그곳에서 순애가 물리복습문제를 풀고있는것이다.

공부에 방해될가봐 발소리를 죽이며 실험실로 다가가던 그는 몸이 굳어지고말았다. 순애가 혼자 있는줄 알았는데 교장도 같이 있었던것이다.

이자가 어쩌자고 밤중에 나타났을가?

제자들의 반영에 의하면 왜놈교장은 품행이 좋지 못한 인간이였다. 교원들앞에서는 교육자의 량심이니, 지성이니 하고 떠들지만 돌아서면 곱게 생긴 녀학생들을 상대로 나쁜짓을 곧잘한다는것이다. 얼마전에도 졸업반녀학생을 교장방에 불러다놓고 추잡한짓을 하려다가 사람들한테 들켰다고 한다.

《어이가 없구만. 아무렴 이 교장이 제 딸 같은 어린 녀학생한테 그런짓을 하려고 들었겠소? 자식교양이나 잘하는게 좋겠소.》

이것은 학교에 찾아온 녀학생의 어머니앞에서 교장이 늘어놓은 말이였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교장의 비행을 신소하려고 군청에 찾아갔던 녀학생의 어머니는 성실한 교육자를 해치려고 한다는 억울한 죄명을 들쓰고 쫓겨났으며 그의 딸은 즉시 퇴학당하고

말았다.

그통에 왜놈교장은 더욱 의기양양해하였다. 그런 그가 밤중에 퇴근도 하지 않고 실험실에 나타났으니 일이 보통 심상치 않았다.

문틈사이로 교장의 음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면 힘들겠구만.》

걸상에서 일어난 순애는 교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하였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마다선생이 수업이랑 잘하오?》

《예, 잘 배워줍니다.》

《그럼 좋구. 참, 인차 졸업하겠는데 지망은 뭐요?》

짜장 관심이 있는척하며 교장은 슬금슬금 순애한테 접근하고있었다.

순애도 위협을 느꼈는지 뒤로 조금 물러났다.

《듣자니 도미에학생은 큐리부인 같은 녀성과학자가 되려고 한다는데 그러자면 대학에 가야겠구만.》

교장과 순애와의 사이는 팔을 뻗치면 닿을만큼 좁아들었다.

《그 포부는 찬양할만하지만 그걸 이룬다는게 쉽지 않아. 특히 녀자가 대학에 간다는건 하늘의 별따기와 같지. 그렇지만 학생이 정녕코 원한다면 이 교장이 도와줄수도 있소.》

《…》

《가령 일류급대학들에 소개신을 써줄수 있지. 일본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째서 저만 특별히 도와주시는겁니까?》

교장의 두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흐물거렸다.

《그건 도미에양이 아름답기때문이지. 녀자의 용모는 그자체가 재부란 말이요.》

순애는 책가방에 참고서와 문제풀이집 등을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왜, 벌써 가려구?》

《집에서 부모님들이 기다립니다.》

《그래두 이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게 도미에의 장래를 위해선 유익하겠는데.》

녀학생의 늘씬한 몸매를 음충맞게 노려보며 교장은 징글징글 웃

었다.

《내가 하라는대로만 하면 대학에 꼭 보내주겠소. 이리 오라니까.》

교장의 손은 벌써 순애의 허리쪽으로 뻗어가고있었다.

더 참지 못하고 한홍식은 문을 벌컥 열었다.

이쪽으로 고개를 홱 돌린 교장은 맛있는 먹이감을 놓쳐버린 맹수마냥 우락부락하였다.

《선생은 도덕두 없소? 학생과 담화중인데 문도 두드리지 않구 뛰여들면 어쩌자는거요?》

한홍식은 그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순애한테 일렀다.

《밤도 깊었는데 어서 돌아가오.》

《선생님!》

순애의 얼굴에는 때마침 나타난 스승에 대한 고마움이 어려있었다. 결국 제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교장은 잡아먹을것처럼 한홍식을 쏘아보다가 툴툴거리며 물러갔다.

그 일이 있은 후 교장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다시는 실험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교원모임에서도 다른 말이 없었다. 자기의 추행이 또다시 소문나면 시끄러워질가봐 겁을 먹은 모양이였다. 하지만 이제 보니 움츠러든것이 아니라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교장방에서 나온 한홍식은 급히 실험실로 갔다.

자기의 신상에 무슨 일이 닥쳐온줄도 모르고 순애는 복습문제를 푸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순애학생!》

순애는 문제풀이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찾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순애!》

고개를 들던 순애는 스승을 알아보자 웃으며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보자 이제 순애가 《위문단》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놀랄가 하는 걱정이 갈마들었다.

짐작한대로 순애는 깜짝 놀라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하였다.

《선생님, 그럼 전… 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들과 의논해보우. 어서!》

책가방에 학습장을 넣는것도 잊어버린 순애는 헤덤벼치며 실험실을 뛰쳐나갔다.

다음날 학교에 나간 한홍식은 순애가 나오지 않았다는것을 알자 궁금하였다.

순애네 부모들이 어떤 대책을 세웠을가?

첫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다가 마침 교장방앞에 서있는 순애어머니를 만났다.

《어이구, 선생님. 순애 아버지가 지금 교장을 만나고있습니다.》

그러고보니 순애의 부모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모양이였다. 먼곳에 있는 친척네 집에 보낼수도 있고 극단한 경우에는 가짜결혼이라도 할수 있었다.

자기가 어제 순애를 빨리 집에 보낸것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였다. 그런데 순애 아버지가 교장을 찾아왔다면 일이 안됐다는것을 말해준다. 왜놈교장은 절대로 순애를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두번째 수업이 진행되였지만 한홍식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순애일만 걱정하였다.

수업이 끝나자 급히 순애네 집으로 뛰여갔다. 순애가 독감을 앓고있던 자기를 간호해준 일을 두고 그의 아버지가 오해하고있었지만 언제 그것을 가릴 형편이 못되였다.

허둥지둥 도착하니 한발 늦었다. 풍을 친 화물차가 순애네 집앞에 서있었던것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때마침 순애가 왜놈경찰한테 떠밀려 뜨락을 나서고있었다.

《이놈들아, 내 딸은 안된다!》

주먹을 틀어쥐고 달려나오던 순애 아버지는 왜놈경찰의 총탁에 얻어맞고 꼬꾸라졌다. 순애 어머니도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으나 군화발에 앞가슴을 채우고 쓰러졌다. 그동안에 다른 왜놈경찰이 순애를 화물차에 올려싣고있었다.

씽 하고 달려간 한홍식은 화물차적재함우에 올라선 순애를 끌어내렸다.

왜놈들의 마수에서 벗어난 제자는 스승한테 와락 안기며 울음

을 터뜨렸다.

《선생님, 전… 안가겠습니다.》

《그래, 절대로 안보내겠소!》

옆으로 밀려났던 왜놈경찰이 두눈을 흡뜨고 접어들었다.

《넌 뭐야?》

《이 학생의 담임교원이요.》

《담임교원이면 어쨌다는거야?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구 물러가라!》

한홍식은 몸으로 순애를 막아나섰다.

《이 학생은 절대로 안되오!》

《이 자식이 어디라구 맞서는거야?》

어깨에서 보총을 벗겨든 왜놈경찰은 총탁으로 내리쳤다.

한홍식은 날아드는 총탁을 한손으로 잡았다가 밀쳐버렸다.

총을 그러안고 비칠거리던 경찰은 마치 창격동작을 하듯 훌쩍 뛰여올랐다가 앞으로 내찔렀다.

이번에도 한홍식은 총창을 스쳐보냈다가 총가목을 움켜잡고 자기쪽으로 끌어당겼다.

왜놈경찰은 절이라도 하듯 허리를 구부렸다가 꼬꾸라졌다. 땅바닥에서 딩굴고난 그놈은 안되겠다고 여겼던지 화물차운전칸쪽에 대고 도움을 청하였다.

《여, 나까무라! 나까무라!》

운전칸문이 벌컥 열리며 체구가 우람한 왜놈경찰이 뛰여내렸다.

《무슨 일인가?》

《이 자식이 보통 아니야.》

살집좋은 왜놈은 뻴건 이몸을 드러내며 픽 웃더니 옆구리에 차고 있던 긴칼을 뽑아들었다.

《이런 비국민이야 단칼에 베여버려야지.》

두손으로 칼을 모아쥔 놈은 《이얏!》 하고 소리지르며 달려들었다.

교단에 선 후 몸단련을 소홀히 했다고는 하지만 역시 한홍식은 한때 박천군을 들었다놓았던 젊은이였다.

머리우로 내려치는 칼을 피하는 동시에 왜놈의 옆구리를 발로 걷

어찼다.

억! 하고 외마디비명을 지른 그놈은 땅에 푹 엎어지고말았다.

한홍식은 바들바들 떨고있는 순애의 손을 덥석 잡아끌었다.

《가기요!》

다음순간 뒤통수에 강한 타격이 가해지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온 운전사놈이 총탁으로 후려친것이다.

정신을 차리자 꽁무니에 먼지를 뽀얗게 말아올리며 달려가는 화물차가 보였다. 그우에서 순애가 안타깝게 손을 흔들고있었다.

《선생님!… 선생니임!》

한홍식은 윽― 하고 몸을 일으켜세웠다. 죽어도 순애를 구원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힘을 북돋아준것이다.

《순애, 가면 안되오!》

두팔을 뻗치고 따라갔지만 왜놈화물차는 점점 멀어지다가 둔덕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길가에 떠도는 누런 먼지속을 망연히 보고있는데 손에 절컥 수갑이 채워졌다.

《야, 가자!》

《나쁜 자식, 어디 혼나봐라!》

왜놈경찰들은 아까 맞은 분풀이를 하느라고 한홍식을 주먹으로 들이치고 군화로 걷어찼다.

한홍식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였다. 오직 순애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허빌뿐이다.

순애는 자기가 품들여 키운 제자였다. 그런데 그는 왜놈들한테 끌려가고 자기마저 경찰에 붙잡혔으니 이제 와서 남은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있다면 심신을 녹이는 나른한 허무감뿐이였다.

문득 류기연의 목소리가 귀전을 울렸다.

《문제는 교육을 진흥시켜 민족의 힘을 키우는거요. 그래야 하루빨리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소.》

자기는 그의 말에 감동되여 교편을 잡았고 제자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쳤다. 그러나 엄혹한 현실은 그 희망이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경찰서에 끌려간 한홍식은 가혹한 고문에 시달렸다. 교원이라면

제자들이 제국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도록 가르쳐야겠는데 오히려 앞장에서 반대해나섰으니 용서받을수 없다는것이였다.

그날도 고문을 당하고 류치장에 돌아와 쓰러져있는데 왜놈사찰계장이 찾아왔다.

《알고보니 부친이 군수였구만. 그런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건데. 하여튼 매사에 주의하오. 그까짓 계집애가 뭐라구 나선단 말이요. 자, 이젠 돌아가오.》

결국 왜놈군수를 하는 아버지덕분에 류치장에서 풀려나온것이다.

하숙집에 돌아와 짐을 꾸린 한홍식은 학교가 아니라 역전으로 향하였다.

8

안해가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었을 때 류기연은 이부자리에 누워있었다.

구마모도의 설계도면발표가 있은 후 그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자동공기제동기는 너무도 큰 기대를 걸고있던 연구였다. 그래서 직장과 가까운 집에 갔다오는 시간도 아까와 안해가 날라주는 밥을 먹으며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렇게 고심한 끝에 도면이 완성되였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그 기쁨은 《아시아》호를 살려냈을 때와는 대비도 안되였다. 자동공기제동기는 제동기분야에서 큰걸음을 내디딘 하나의 혁신이라고 할수 있었다.

바로 그것을 창조한 주인공이 바로 조선사람인 자기, 류기연이였다. 이제는 왜놈기사들앞에서 큰소리를 칠수 있다고, 조선사람이 결코 렬등민족이 아니라고 당당히 소리칠수 있게 되였다고 굳게 믿었는데 구마모도가 먼저 꼭같은 도면을 제출하고 발표까지 하였던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마치도 악몽을 꾸는것같았다.

그날 기술부장의 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니 한홍식이 기다리고있었다.

《형님, 미안합니다!》

얼굴이 컴컴해진 그가 꺼낸 첫말이였다.

안해가 차린 음식은 하나도 들지 않고 술만 꿀꺽꿀꺽 들이키며 찾아온 사연을 터놓은 한홍식은 혀꼬부라진 소리로 울분을 쏟아놓았다.

《난 원래… 우는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왜놈세상에서 민족의 힘을 키운다는건…》

류기연은 기가 막혔다. 자기가 겪은 일만 해도 가슴아픈데 설상가상으로 그마저 억울한 일을 당한것이다. 아니, 자기 두사람뿐이 아니다. 한사람, 추진석도 있었다. 그도 시골에 내려갔다가 왜놈들한테 변을 당하지 않았던가.

아, 어쩌면 우리들의 운명은 신통히도 같단 말인가.

그 좌절감은 가슴속에 남아있던 의욕과 힘을 깡그리 앗아갔다. 그리하여 한홍식이 돌아가자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던것이다.

손님이 왔다기에 찌뿌드드한 몸을 일으키는데 키가 늘씬한 오노가 들어섰다.

안해가 급히 이부자리를 거두는 동안 류기연은 손님한테 방석을 권하고 자기는 누비돗자리우에 그냥 앉았다.

방석에 수를 놓은 진달래를 보고 아주머니의 솜씨가 여간이 아니라고 칭찬한 오노는 안해가 부엌으로 나가자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류기사, 장갑임자를 밝혀냈소.》

온 정신이 도면문제에 쏠려있던 류기연은 처음 그가 어째서 장갑소리를 꺼냈는지 리해하지 못하였다.

오노는 가방에서 낯익은 가죽장갑을 꺼내놓았다.

《이게 누구건줄 아오? 바로 구마모도의 장갑이란 말이요.》

류기연은 눈을 크게 뜨고 장갑을 내려다보았다.

《구마모도거라구요?》

《그렇소. 바로 그자가 이 장갑을 끼고 류기사의 도면을 촬영했소.》

《?!》

물론 그와 비슷한 짐작을 전혀 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렇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 의심만 하고있었던것이다.

《내 말을 들어보우. 어제 구마모도가 새 장갑을 끼고 출근하는

게 아니겠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원래건 어쨌는가고 물었더니 길가에서 잊어먹었다고 하더구만. 난 생각되는바가 있어서 장갑을 꺼내놓고 이건 당신이 몇해째 끼고 다니던 장갑인데 어떻게 류기사의 방에 떨어져있는가고 직방 들이댔소. 그랬더니 구마모도는 제 장갑이 아니라고 냅다 우기는게 아니겠소. 그래서 좋다, 그럼 이 장갑을 경찰에 보내서 감정하게 하겠다고 을러멨소. 하니까 사실을 토설하더란 말이요. 허 참.》

가죽장갑을 쓰겁게 보고있던 오노는 전후사연을 알려주었다.

…구마모도는 조선인기사가 처음 기술과에 나타났을 때부터 무서운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가 두각을 나타내면 같은 제동기전문가인 자기는 강기슭에 밀려난 썩은 나무토막신세가 될것이기때문이였다. 그 불안감은 한해가 지나자 현실로 나타났다. 류기연은 자기가 포기한 《아시아》호를 살려냈을뿐 아니라 제동기능을 한층더 보강하였던것이다.

시운전을 마친 기차가 정시운행에 들어가자 질투심은 극도의 증오심으로 바뀌였다.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수 있을가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나중에는 당대 거들떠보지도 않던 절에까지 찾아가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다.

어느날 작은 수첩에 뭔가 부지런히 적어넣고있던 류기연이 잠간 사무실을 떴다. 항상 그를 살피며 틈을 노리고있던 구마모도는 얼른 수첩을 훔쳤다.

다른 기사들은 히죽히죽 웃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마모도는 복도에서 귀익은 발자국소리가 들려오자 이노우에를 붙들고 무슨 문제를 토론하는 흉내를 냈다.

사무실에 돌아온 류기연은 수첩이 없어진것을 알고 찾기 시작하였다.

책상서랍을 뒤지고 가방까지 열어보는 그를 보자 얼마나 깨고소한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간 구마모도는 화로에 수첩을 통채로 집어던졌다. 결국 류기연의 심혈이 깃든 수첩은 불뭉치로 되였다가 한줌의 재로 변하고말았다.

그쯤하면 물러날줄 알았는데 류기연은 기억을 되살려 새 수첩에 기억하였던 내용을 적기 시작하였다.

마음이 불안해서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일은 점점 재미없게 번져졌다. 수첩분실사건이 일어나자 오노가 기술부장한테 제기하여 류기연을 독방으로 옮겨주었던것이다. 그 방에는 오노와 기술부장외에는 누구도 드나들수 없었다.

안달이 난 구마모도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 기회를 노렸다.

전번일로 교훈을 찾았는지 류기연은 잠간 자리를 떠도 도면 같은 것들을 서류함에 넣고 꼭꼭 자물쇠를 채우군 하였다.

속이 가랑잎처럼 바삭바삭 말라들었다.

부처님, 한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비나이다!

정말 부처님이 도와주었는지 어느날 오노가 류기연을 찾아오더니 함께 소풍하러 나갔다.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사무실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았다.

구마모도는 제꺽 류기연의 방에 스며들어가 그가 사용하는 물고뿌에 수면제를 넣었다. 좀 있다가 방문을 열어보니 류기연은 코를 베가도 모를 정도로 굳잠에 들어있었다.

미리 준비하였던 사진기로 자동공기제동기도면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샤타를 누르는 정신에 외투주머니에서 장갑이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

류기연은 억이 막혀서 말도 나가지 않았다. 구마모도가 자기를 시기한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너절한짓을 할줄은 짐작 못하였다.

《류기사, 나도 일본사람이지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소. 구마모도를 대신해서 사죄하오.》

무릎을 꿇고 앉은 오노는 정중히 절을 하였다.

그를 만류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는 왜놈이라면 다 같고같은 족속들처럼 여겨졌다.

민망스러운 기색을 짓고있던 오노가 안타까와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만철에 류기사를 따를 제동기전문가는 없소. 그런데 조선사람이라는 한가지 리유때문에 빈번히 억울한 일을 당하니 옆에서 보기도 딱하오. 난 류기사가 뜻이 있고 의지도 강한 사람이

라는걸 아오. 아마 당신은 조선사람이 일본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다는것을 증명하려고 우리 만철에 들어왔을거요.》

류기연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오노는 자기의 마음속을 환히 꿰뚫어보고있었던것이다.

그렇다. 오노의 말처럼 자기가 한사코 만철본부에 들어온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해 여름, 당시 오산학교 학생이였던 류기연이 동무들과 함께 《경의선》(서울—의주)기차를 타고 수학려행을 떠났을 때의 일이다.

기차가 서울역을 금방 떠났을 때 그들의 차칸에 왜놈중학생들이 와르르 밀려들었다.

학생모자를 옆으로 돌려쓴, 이마에 한뽐만한 상처자리가 있는 왜놈학생이 조선학생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야, 너희들은 다음역에서 내리라!》

조선학생들이 응답하지 않자 왜놈학생은 그들의 가방이며 짐을 마구 집어던지며 란동을 부렸다.

그때 한 조선학생이 제세상처럼 날치며 돌아치는 왜놈학생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그가 바로 류기연이였다.

《어째서 우리보구 내리라고 하는가?》

상대가 간단치 않다는것을 알아차린 왜놈학생은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고아대기만 하였다.

《이건 우리 대일본제국이 만든 기차다. 그러니 너희들은 탈 자격이 없단 말이다.》

순간 류기연은 손맥이 빠져나가는것을 느꼈다.

그 틈에 억센 손아귀에서 벗어난 왜놈학생은 동료들의 응원을 받자 소리질렀다.

《너희들도 재간이 있다면 기차를 만들란 말이다.》

류기연은 왜놈학생을 쏘아보기만 하였다.

《왜 자신이 없는가?… 하기야 나라도 없는 렬등민족이 기차를 만들수야 없지. 으하하하!》

두주먹이 우들우들 떨렸다. 그러지 않아도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이 쪽발이들한테 짓밟힌것이 원통한데 렬등민족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니 참을수 없었다.

《걷어치우라. 아래도리나 겨우 가리우고 다니던 너희들한테 천짜는 법을 가르쳐준게 누군가? 종이만드는 법은 또 누가 가르쳐주었는가? 그건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조선민족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렬등민족이란 말인가?》

말문이 막힌 왜놈학생은 주먹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류기연은 주저없이 그놈의 면상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드센 타격을 받은 저희 동료가 너부러지자 왜놈학생들은 굶주린 이리떼마냥 덤벼들었다.

분노로 치를 떨고있던 조선학생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렬차칸에서는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렬차에 승무하고있는 왜놈경찰들이 뛰여오더니 사연은 알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조선학생들을 때리고 걷어찼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조선학생들과 왜놈학생들은 다음역에서 동시에 내렸다.

그때 류기연에게 먼저 도발을 걸었던 왜놈학생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이죽거렸다.

《아무래도 너희들은 렬등민족이야. 죽을 때까지 기차를 만들지 못할테니까.》

류기연은 그놈의 상통을 무섭게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놈들, 어디 두고보자!

오산학교를 졸업하자 돈있는 집 자식들은 류행을 좇아 섬나라에 류학갔지만 그는 철도기술과 련관이 깊은 려순공과대학에 입학하였다. 뿐만아니라 피타게 공부하였고 대학을 졸업하자 만철본부에 들어갔던것이다.

《우린 다 같은 지성인들이니 리성적으로 사고해보기요. <아시아>호는 당신이 살려냈지만 내가 금시계를 탔고 자동공기제동기도 당신이 연구했지만 구마모도가 연구한것으로 공인되였소. 앞으로도 사정은 같을거요. 당신이 무슨 연구를 하든 만철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거요. 이런 형편에서 과연 초지를 이룰수 있다고 보오?》

마음속의 금선이 팽팽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라도 당신이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오. 가령 내지인으로 귀화할수도 있지

않겠소.》
《?!》
물론 자기를 위해주려는 오노의 심정은 리해되였지만 설사 백번 죽었다 태여난다고 해도 어떻게 나라를 빼앗은 철천지원쑤인 왜놈의 족속으로 둔갑할수 있단 말인가.
상대가 자기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가늠해보고있던 오노는 생각할 여지를 주려는듯 화제를 바꾸었다.
《참, 구마모도문제는 어떻게 하겠소?》
일이 제대로 되자면 기술부장을 만나야 하였다. 그렇지만 더는 마주서고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래, 총재를 만나야 한다!
《여보, 옷을 주오.》
걱정스럽게 지켜보고있던 안해가 옷장에서 양복을 꺼내주었다.
외출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오노가 물었다.
《어쩌자는거요?》
《총재를 만나겠습니다.》
《엉, 총재를?》
오노는 어찌나 놀랐는지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다시 생각해보우. 꼭 총재를 만나야겠소?》
류기연은 응답하지 않고 본부로 향하였다.
2층복도에 올라서자 부각장식을 한 출입문이 나타났다. 입직하던 날 접수원이 《2층에는 들리지 말고 3층으로!》 하고 주의를 주었던 총재의 방이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니 널직한 대기실이 나타났는데 만원이였다.
장부를 손에 들고있는 중년남자, 오락가락하는 왜놈군대장교, 초조해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녀자, 창가에 서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남녀…
문을 활짝 열어놓은 서기실로 들어간 류기연은 차례가 되자 타자를 치고있는 녀서기에게 증명서를 내밀었다.
빠른 눈길로 증명서사진과 본인의 얼굴을 대조해본 녀서기는 실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용무는 뭔가요?》
《설계도면과 관련해서 총재한테 할 말이 있소.》

《가만,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소. 난 조선사람이요.》

시들한 태도로 증명서를 돌려준 녀서기는 《다음사람!》 하고 타자건을 탁탁 두드렸다. 애당초 총재를 만나게 해줄 잡도리가 아니였다.

류기연은 서기실옆에 붙어있는 총재방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니, 서라요!》

다급히 소리치며 따라오던 녀서기가 도로 뛰여가더니 책상옆에 달려있는 신호단추를 눌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대기실을 가로질러온 두명의 건장한 사나이가 총재방문앞을 가로막았다.

녀서기가 그자들에게 뽀르르 달려가더니 이쪽을 손짓하며 종알종알 고해바쳤다.

총재의 호위원들인듯한 사나이들의 얼굴이 사납게 이그러졌다. 그러더니 돌진하듯 걸어와 량쪽에서 류기연의 어깨를 부여잡고 끌고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걸 놓소. 난 총재를…》

《총재님이 너 같은 놈이나 만나주는분인줄 아는가?》

그 말이 끝나는것과 동시에 그의 몸은 복도로 밀려나고 출입문도 쾅 닫겼다.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았다.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는데도 움쩍하지 않았다.

순간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와르르 무너지는것을 느꼈다.

내가 총재를 찾아온것은 구마모도의 죄행을 폭로하고 자동공기제동기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총재는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나지 않았는가.

아득한 공중에 흩어졌던 리성의 쪼각들이 하나둘 모아졌다. 마치도 두눈을 단단히 싸매고있던 천을 풀어던진것처럼 여태 보지 못하고있던 실체를, 썰물이 진 뒤에 바다기슭에 드러난 흉물스러운 바위를 보는것만 같았다.

그렇다. 왜놈들은 내 기술을 리용할지언정 조선사람의 존엄과 실력은 애당초 인정하려들지 않았다. 그놈들의 눈에 비친 나라는 존재

는 한갖 식민지백성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기술로 뭔가 증명하겠다고 뛰여다닌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아, 분하구나. 이제야 그걸 깨닫다니.

별안간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하였다.

9

본부청사를 나선지도 몇시간이 흘러간듯싶었다.

텅 빈 공원에 홀로 앉아 모대기고있던 류기연은 땅거미가 잦아들기 시작하자 나무걸상에서 일어났다.

멀리 바라보이는 종업원사택구역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웬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서라!》

류기연은 빨라지는 심장의 박동을 의식하며 그들을 보기만 하였다.

반원형으로 둘러싼 무리들중에서 키가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류기연이요?》

《?》

《어서 대답하오.》

무슨 일때문인지 시끄럽게 구는 이 사람들과 한시바삐 헤여지고 싶었다.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심장이 편안해질것같았다.

그때 사나이의 손에 들려있는 묵직한 나사틀개가 해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어째서인지 살기가 느껴지는 그 공구를 보자 자연 긴장해졌다.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들인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는가?

처음은 길가는 사람들한테 달려들어 금품이나 돈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뭇매를 안기고 달아난다는 강도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소매와 자락에 기름때가 묻은 곤색 철도복을 보자 만철에서 근무하는 로동자들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런데 낯도 코도 모르는 이들이 어째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알수 없었다.

키가 껑충한 남자가 다시금 확인하듯 따져물었다.

《당신이 <아시아>호를 살려낸 그 류기연이 맞는가 말이요?》

그 질문에서 섬찍한 예감을 느꼈지만 설마 아무 죄도 없는데 어쩌랴싶어 대답하고말았다.

《그렇소.》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사나이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러자 불그스름한 석양빛을 쪼각내며 시꺼먼것이 날아들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자 머리우를 스치고 지나간 물건이 뒤에 서있는 나무를 힘껏 들이치고 떨어졌다.

돌아보니 묵직한 나사틀개였다. 이런 정도라면 사람을 놀래우거나 위협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료정을 내자고 접어든것이였다.

그들이 어째서 란폭하게 나오는지 까닭을 알수 없었지만 언제 그것을 생각할 경황이 못되였다. 그 철도로동자가 이번에는 윽― 하고 짧은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던것이다.

얼결에 몸을 피하며 두팔로 머리를 가리웠다.

쇠막대기가 팔굽을 스치고 떨어졌다. 비록 면바로 맞지는 않았지만 자체중량에 운동에네르기를 더한 흉기의 타격은 강하였다.

팔굽이 벗겨졌는지 몹시 쓰려났지만 언제 아픔을 느낄 사이도 없었다. 타격에 실패한 사나이가 또다시 덤벼들었던것이다.

뒤로 몇발자국 물러나다가 상대가 쇠막대기를 머리우로 쳐들면서 배허벅이 드러나자 새우처럼 허리를 굽히며 주먹으로 내질렀다.

뜻밖의 반격을 받은 상대는 술취한 사람처럼 몸중심을 잃고 비칠거렸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한번 손을 썼다.

련속타격을 받은 습격자는 종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쇠막대기를 놓쳐버렸다.

류기연은 자기의 목숨을 노렸던 흉기를 집어들었다.

눈앞에 들이닥쳤던 위험이 가셔져서 그런지 빠르던 심장박동이 점점 떨어지고있었다.

형세는 대번에 바뀌였다. 사나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은채 돌이라도 집어들려는지 두릿두릿 살폈고 다른 사람들은 적수의 무기로 변한 쇠막대기를 보며 주저하는듯했다.

《어째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오?》

상대방의 충혈진 두눈에서 시퍼런 불찌가 튀여나왔다.

《당신은 죽어 마땅하오.》

《그건… 무슨 소리요?》

《시치미를 떼지 마오. 그야 본인이 더 잘 알텐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죽을죄를 지었단 말인가?

찰나 사나이가 고개를 얼핏 수그리는것과 동시에 돌이 날아들었다.

류기연은 왕년의 야구선수시절처럼 손에 쥐고있던 쇠막대기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야구공》을 쳐갈겼다.

뜻을 이루지 못한 사나이는 땅을 마구 두드리며 통곡하였다.

《영선이… 주남이… 자네들의 복수를 못했네. 용서하라구.》

그한테로 다가가 옷깃을 와락 움켜잡았다.

《똑바로 말하오. 복수라는건 뭔가 말이요?》

쇠물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남자의 눈에서 증오가 끓고 있었다.

《당신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죽었는데 용서를 받을것같은가?》

기절할만큼이나 놀라운 소리였다.

《여보, 혹시 사람을 삭갈리지 않았소?》

이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로동자의 시꺼먼 눈동자가 허둥거리더니 미심쩍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은 정말 모르오?》

《뭘 모른다는거요?》

《당신이 살려낸 <아시아>호가 우리 사람들을 깔아죽였단 말이요.》

이게 무슨 변인가? 《아시아》호가 사람을 깔아죽이다니.

도간도간 끊어지는 사나이의 목갈린 이야기를 듣고서야 류기연은 자초지종을 알수 있었다.

…만철관하 철길구간에서 레루가 파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시각 왜놈군수렬차가 그곳을 통과하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철길경비대가 렬차통과시간을 앞두고 끊어진 레루토막을 발견하였기때문에 렬차는 전복을 겨우 면하였다.

대소동이 일어났다.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련역의 종업원들이 대대적으로 체포되였다.

숱한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집들이 수색당하였다. 나중

에야 레루토막을 들어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왜놈들은 무슨 속심인지 체포한 사람들을 즉석에서 총살하지 않고 창고에 가두었다. 그러다가 《아시아》호가 시운전에 나서자 그들을 끌어냈다.

멀리에서 기적소리가 울려오자 왜놈들은 바줄로 련결하여 묶은 사람들을 철길로반우에 주런이 눕혀놓았다.

제동장치가 정확히 동작한 덕에 위험한 경사길을 안전하게 미끄러져내린 《아시아》호는 누워있는 사람들앞에서 정지하였다. 그러나 왜놈들은 시운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고아대며 기관차를 다시 내몰아 그들을 야수적으로 깔아죽였다. …

류기연은 문득 시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왜놈기관사가 지껄이던 말이 생각났다.

《철길을 넘으려던 개 몇놈을 들이쳤소.》

결국 왜놈들한테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조선사람들이 한갖 짐승으로밖에 보이지 않은것이다.

키큰 사나이가 주먹을 휘두르며 고함쳤다.

《그들은 왜놈들과 싸우자고 나섰던거요. 그런데 당신이 살려놓은 그 망할놈의 기관차가 그들을 죽였단 말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죽인건 내가 아니요. 난 일이 그렇게 번져진줄은 몰랐소.》

류기연은 억울해서 항변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어쨌든 넌 살인자야. 살인자!》

그 사나이가 목청을 높이자 다른 사람들도 너나없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어댔다.

류기연은 혼이 빠져나간것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내가 살인자라구? 아니, 아니다. 난 왜놈들한테 조선사람은 렬등민족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기관차의 제동기능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제동기를 제작하였고 밤을 패며 설치했다. 물론 그 표창은 오노한테 차례졌지만 온 만철이 구마모도가 포기한 기관차를 살려낸 사람이 다름아닌 이 류기연, 조선인기술자라는것을 알고있다. 난 그것이면 만족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우리 동포들을 죽인 살인자란 말인가? 아니다. 난 살인자가 아니야!

그야말로 억이 막힌 일이 아닐수 없었다. 방금전 총재를 찾아갔다가 수치감을 안고 돌아섰는데 이처럼 무서운 일과 또 부닥칠줄을 어찌 알았으랴.

갑자기 심장이 뚝 멎었다. 마치도 헝겊뭉치가 목구멍을 틀어막은것처럼 숨을 쉴수가 없었다. 이러다가 죽지 않을가 하는, 여태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덮쳐들었다.

눈앞이 아뜩해지는 찰나 몸이 통채로 무너져내렸다. 더는 부정할수 없는 명백한 현실앞에서 심장이 견디여내지 못하였던것이다.

가슴을 움켜쥔 그가 마지막으로 본것은 피빛으로 물든 하늘이였다. …

며칠후 오노가 출근하는 길에 찾아왔다.

《류기사, 심장발작을 일으켰다던데 어떻소?》

류기연은 대답하고싶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안해가 대신 대답하였다.

《제가 미타해서 마중나갔기망정이지 하마트면 큰일날번했어요. 의사의 말은 심장이 심한 정신적타격을 이겨내지 못했답니다.》

《심한 정신적타격이라…》

동정의 눈빛을 짓고있던 오노가 위로하듯 말을 건넸다.

《치료를 잘하오. 앓는 왕보다 건강한 거지가 더 행복하다고 하지 않소. 그리고 병이 다 나으면 천천히 출근하오.》

꾹 다물려있던 류기연의 터갈라진 입술이 움직이였다.

《난… 사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던 오노는 깜짝 놀라며 쳐다보았다.

《그건 무슨 소리요? 어째서 사직하겠다는거요?》

류기연은 그동안에 굳혔던 결심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설사 병이 낫는다고 해도 다신 나가지 않겠습니다.》

《음, 그렇단 말이지.》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는 오노의 눈에 차거운 빛이 스쳐지나갔다.

10

려주는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자주 소랭이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안에는 생신한 돼지염통이 무드기 들어있었다.

이걸 잡수면 그이가 정말 병이 나을가?

오노가 면회를 왔다간 후에도 남편의 건강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별안간 맥박이 빨라지고 숨쉬기도 힘들어하였다. 어떤 때는 깜빡깜빡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다.

그때마다 가슴이 한줌만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군 하였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활랑거린다.

…총재를 만나겠다고 집을 나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은 설계도면문제를 해명하느라고 지체되는가부다 하고 여겼는데 저녁무렵이 돼오도록 나타나지 않자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얼마전에 손자가 보고싶다고 집에 와있는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섰다.

만철본부청사를 향해 급히 걸어가는데 앞쪽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심상치 않은 말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멈춰섰다.

《<아시아>호를 살려냈다는 그 조선기사가 아니요?》

《옳소. 그런데 그 기차가 자기 동포들을 깔아죽였다지 않소.》

《그런즉 복수를 당했구만.》

무작정 사람들속을 헤치고 들어갔다.

눈앞에 가슴을 움켜잡고 누워있는 남편이 나타났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신없이 남편을 부여잡고 마구 흔들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예요. 예?》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남편은 숨을 가쁘게 톺기만 하였다.

주위에 둘러서있던 사람들이 동정하듯 한마디씩 던졌다.

《아주머니, 그러다 사람을 죽이겠수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시우.》

그제야 정신을 차린 려주는 남편을 둘쳐업었다. 남편은 원체 체격이 좋은데다 맥을 놓고 늘어지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다. 겨우 몇발자국 걸어갔는데 두다리가 금시 꺾어질것처럼 후들후들 떨렸다. 고맙게도 누군가 거들어주어서 조선사람이 경영한다는 개인병원에 겨우 도착하였다.

진찰을 하고난 늙수그레한 의사는 손바닥으로 남편의 눈을 가리우며 일렀다.

《이제 내가 소리치면 숨을 멈추고 배에 힘을 힘껏 주시오. 알겠소?》

남편은 고개를 맥없이 끄덕이였다.

《자, 그럼 해보기요. 시—작!》

의사가 말한대로 남편은 숨을 뚝 멈추더니 배에 힘을 주었다.

읍… 읍…

몇번 반복되자 남편이 막혔던 숨을 확 내쉬며 긴장을 풀었다.

《아니아니, 좀더 시간을 끌어야 하오. 다시!》

려주는 가슴우에 두손을 모아쥐고 생사기로를 헤매는 남편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렇게 하기를 그 몇번…

마침내 남편의 맥박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주머니, 주사를 놔야겠는데 옷소매를 걷어주시오.》

려주는 의사가 시키는대로 남편의 양복소매를 걷어올렸다.

주사를 맞은 남편은 몇번 몸을 움씰거리더니 이내 잠들어버렸다.

의사가 소독수에 손을 씻으며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심한 정신적타격을 받고 심장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려주는 의사의 진단이 믿어지지 않았다.

《애아버진 대학시절에 야구를 해서 심장이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설사 체육으로 단련된 심장이라고 해도 강한 정신심리적타격앞에서는 견디여내기 힘듭니다. 다시말하면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고 다시 내보내는 혈액순환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킨거요.

이런 경우 맥박은 너무 빨라서 잴수 없고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오. 문제는 그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에 피가 공급되지 못하고 생명이 위험하다는거요. 그러니 환자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정신육체적부담이 걸리지 않도록 관심해야겠소.》

깊은 잠에 들었던 남편이 눈을 뜬것은 두시간이 훨씬 지나서였다. 다소 안정이 되여서인지 창백하던 얼굴에 화기가 돌았다.

남편을 부축하여 집에 돌아온 려주는 조용히 물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예요?》

남편은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갔던 그 일을 회상하기 괴로운듯 이마살을 찌프렸다.

《됐어요. 그럼 쉬세요.》

부엌으로 나가려고 일어나는데 남편이 손을 슬며시 잡았다.

《난… 살인자요!》

너무도 어망처망한 말이여서 려주는 온몸이 다 졸아드는것같았다.

애아버지가 살인자라니?

한참후에 남편은 철도로동자들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결국 남편은 자기가 살려낸 《아시아》호가 죄없는 조선사람들을 깔아죽였다고 고민하다가 심장발작을 일으킨것이다.

려주는 또다시 차거워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무 괴로워마세요. 당신이 기차를 살려내지 않았다고 해도 왜놈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을거예요.》

남편은 잠자코 누워있었는데 눈가에는 여전히 죄의식의 빛이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여보, 그럼 제가 유가족들을 만나보겠어요.》

《유가족들을?》

《그래요. 그들한테 사죄하면 당신 마음이 좀 진정될거예요.》

남편은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자기가 유가족들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한것이다.

려주는 남편의 들썩거리는 어깨를 눌렀다.

《이 몸을 가지고 어데 간다고 그래요? 이런 일엔 제가 나서는게 나을거예요.》

그렇다. 슬픔에 잠겨있던 유가족들이 남편을 보면 어떻게 나올

지 모른다. 그러다가 겨우 안정된 심장이 말썽을 일으키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무조건 내가 가야 한다 하고 려주는 마음을 도사려먹었다.

다음날 아침, 려주는 한푼두푼 모아두었던 집안의 돈을 전부 꺼내고 쌀도 당장 먹을만큼 내놓고는 모두 자루에 담고 집을 나섰다.

그는 저녁무렵에야 돌아왔다.

헝클어졌던 머리를 바로잡고 찢어진 저고리자락을 감추려고 했는데 남편은 첫눈에 알아보았다.

《나대신 당신이 욕을 봤구만.》

그 말을 듣자 려주는 죽은 남편과 자식들을 살려내라고 악을 쓰며 달려들던 유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때같은 사람들을 잃었으니 왜 가만있겠나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들 왜놈들을 욕하더군요. 설사 당신이 아니더라고 해도 그놈들이 사람들을 죽였을거라고. 그러니 이젠 더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크게 내쉬였다.

그날 밤 남편은 방안이 떠나갈듯 헛소리쳤다.

《여보시오, 난 그들을 죽이지 않았소. 죽이지 않았단 말이요.》

다급히 흔들어 깨우자 남편은 가슴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쫠쫠 흘리였다.

그 정상을 기가 막혀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문득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듣자니 심장병엔 돼지염통이 그렇게도 좋다누나.》

려주는 귀가 확 열리는것같았다.

《어머니, 당장 육고집에 가겠어요.》

며느리가 자리를 차고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만류하였다.

《아서라. 밤도 깊었는데 어딜 간다는거냐?》

《인차 다녀오겠어요.》

남편도 그만두라고 하였지만 려주는 고집스레 집을 나섰다. 병원에 갔다온 후 심장병에 좋은 약을 꼭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였는데 이왕 돼지염통소리가 나왔으니 더 참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종주먹을 쥐고 달려가니 육고집은 문이 걸려있었다. 하긴 자정이

가까와오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고싶지 않았다. 좀 주저하다가 문을 두드렸다.

제발 문을 열어주었으면…

다행히도 인기척소리가 나더니 짜증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금이 몇시길래 찾아와서 야단이요?》

《미안해요. 사정이 급해서…》

《정말 시끄럽게 구누만.》

려주는 문이 정말 열리지 않을가봐 조마조마해서 사정하였다.

《주인님, 좀 도와주세요. 예?》

《이건 밤에두 잠을 제대루 못자겠다니까.》

고맙게도 덜컥 문이 열리더니 살집좋은 육고집주인이 잠에 취한 얼굴을 내밀었다.

《대체 뭘 사려우?》

《돼지염통을…》

《돼지염통 말이요? 오후에 다 팔렸소. 요즘 그걸 찾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려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와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약을 써야겠는데.》

《래일 아침에 일찍 와보우.》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었던 육고집문이 덜컥 닫겼다.

려주는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 한시간이 넘도록 서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앞에 나와있던 시어머니를 보자 속상한 나머지 눈물이 쿡 솟구쳤다.

《일없다. 래일 사면 되지 않냐. 힘들겠는데 어서 쉬렴.》

웃방에 들어가니 남편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있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대답대신 시무룩이 웃었다.

려주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고 그냥 돼지염통만 눈앞에 얼른거렸다.

돼지염통… 돼지염통…

그 말을 수십번도나마 외우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 시뻘건 돼지염통이 가득 들어찬 함지를 들고가는 자기를 보았다.

《어머니, 이걸 받아주세요!》

시어머니가 껄껄 웃으며 함지를 받아주려는데 뭔가 발에 걸려 앞으로 꼬꾸라지고말았다. 그바람에 함지가 박산나고 아까운 돼지염통들이 먼지구뎅이속에 뿌려졌다.

악! 하고 놀라며 잠에서 깨여났다. 비록 꿈이였지만 돼지염통을 쏟은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랐다. 제발 꿈이 반대였으면 하고 빌다가 창밖이 희붐해지자 또다시 집을 나섰다.

숨가삐 내달아 육고집에 도착하니 문이 걸려있었다. 안타까운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쪽에 장사군들이 웅기중기 모여있는것이 보였다.

혹시나하고 달려갔더니 다행히도 시골에서 올라온듯한 중년녀자가 돼지염통이 담긴 함지를 앞에 놓고있었다.

얼마나 기뻤던지 눈물이 다 핑― 돌았다.

《아주머니, 다섯개 주세요. 아니, 열개 주세요!》

시어머니는 한번에 네댓개정도면 될거라고 했지만 려주는 욕심사납게 열개씩이나 샀다. …

집에 들어선 려주는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어머니!》

동자질을 하고있던 시어머니가 뜨락으로 달려나왔다.

《에구, 끝내 샀구나. 샀어.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네 열성에 아이애비의 병이 뚝 떨어지겠구나!》

부엌에 틀고앉은 려주는 시어머니가 일러준대로 미끌미끌한 돼지염통을 깨끗이 손질한 다음 그속에 령사가루를 조금 넣고 부글부글 끓이기 시작하였다.

두시간쯤 지나자 어른주먹만한 돼지염통은 갓난아기도 먹을수 있을만큼 푹 익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뜨거운 곱돌장사귀를 들다가 그만 미끄러졌다.

얼결에 그것을 움켜잡는데 뚜껑이 열리며 펄펄 끓는 물이 쏟아졌다.

순간 손이 뜨끔하더니 몹시 쓰려났다. 내려다보니 손바닥에 콩알같은 물집이 생겨나고 빨갛게 부어올랐다. 그러나 언제 손을 들여다볼 사이가 없었다.

곱돌장사귀를 들고 일어나려는데 잠간 아래방에 내려갔던 시어머니가 들어서다가 놀라와하였다.

《에구, 그게 뭐냐? 손을 뎄구나.》

려주는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가며 웃방쪽을 눈짓하였다.

알겠다고 두눈을 끔뻑거린 시어머니는 얼른 소랭이에 찬물을 담아왔다.

《손을 데였을 땐 그저 찬물이 제일이란다.》

시어머니의 말처럼 찬물에 손을 잠그자 아프고 쓰려나던 상처가 시원해났지만 눈길은 곱돌장사귀에 쏠려있었다.

《어머니, 이걸 애아버지한테 가져다주세요.》

《에구, 넌 그저 온통 애아버지생각뿐이구나!》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한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결국 부엌에서 두 녀인은 자신들만이 통하는 헌신의 작은 세계를 창조하였던것이다.

한동안 시간이 흘러 아래방에 내려갔던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어머니, 어떻게 됐나요?》

《오냐, 애아버지가 맛있게 먹었다.》

그 말을 듣자 려주는 무등 기뻐났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음번에는 한개가 아니라 두개를 삶아야겠다고 마음먹고있었다.

11

《웬 사람이 이걸 주더구나.》

류기연은 의아해하며 어머니가 넘겨준 편지봉투를 개봉하였다.

속지를 펼치자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갈겨쓴 글자들이 나타났다.

《당신의 안해가 우리 손에 있으니 편지를 받은 즉시 지체말고 <야마또>호텔로 오라. 허튼 생각을 하면 인질의 생명은 끝장이다.》

안해가 지어준 약을 먹고 퍼그나 안정되였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하였다.

이게 무슨 변인가? 집사람이 랍치되다니.

그러지 않아도 잠간 저자를 보러간 안해가 돌아오지 않아 은근히 걱정하던 참이였다.

《어머니, 집사람한테 일이 생겼습니다.》

편지를 들여다보던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에구나, 애어미가 무슨 죄를 지었다구 그런짓을 한단 말이냐?》

안해를 꼭 찾아오겠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킨 류기연은 급히 집을 나섰다.

때마침 눈앞에서 마차가 흔들흔들 지나가고있었다.

《마차!》

마차가 멎어서자 허둥지둥 올랐다.

《<야마또>호텔로!》

손님의 재촉을 받으며 마차는 차길을 따라 쏜살같이 내달려 《야마또》호텔 주차장에 당도하였다.

마차에서 내린 류기연은 거스름돈을 받으라고 소리치는 마부의 고함소리도 듣지 못한채 현관문으로 달려들어갔다.

호텔안은 손님들이 씨글씨글하였다.

접수탁앞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안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편지를 꺼내보니 이곳으로 오라는 내용만 적혀있었다. 그리고보

면 랍치자들은 자기들의 범죄행동에 아주 유리한 장소를 택하였다. 사람들이 붐비는 혼잡속에서 인질가족측은 자기를 찾을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그자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기연씨 아닙니까?》

옆에서 끼끗한 양복차림을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

《내가 바로 당신한테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류기연은 파렴치한 그자의 얼굴을 보자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

《이 너절한…》

사나이는 여유작작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자중하는게 좋을거요. 부인의 안전을 바란다면 말이요. 날 따라오시오!》

2층계단을 오른 사나이는 혼잡스러운 아래층과 달리 조용한 복도를 걸어가다가 어느한 방문을 열었다.

《들어가서 기다리시오.》

《여보시오, 내 안해는…》

사나이는 이제 알게 된다는듯 뜻있는 눈길을 보내고 가버렸다.

방에 혼자 남은 류기연은 이제나저제나하고 문쪽을 주시하였다.

안해가 무슨 일로 랍치되였을가?… 지금 어디에 갇혀있을가?

복도에서 찰찰 게다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나갈줄 알았던 그 발자국소리는 문앞에서 멎었다.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

미닫이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기모노를 입은 녀자가 들어섰다.

《기연씨!》

류기연은 눈앞에 나타난 녀자를 보기만 하였다.

《아이참, 저예요. 유끼예요!》

요염한 얼굴에 생글생글 웃음을 머금고있는 그 녀자는 정말 유끼였다. 여느때는 몸에 꼭 맞는 양복을 입고있던 그가 오늘은 사꾸라무늬가 자름자름한 기모노를 입고 어깨우에 폭포처럼 드리웠던 머리도 우로 틀어올리고있었다.

이 녀자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는가?

류기연은 의문어린 눈길로 위태로운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듯 아장

아장 다가오는 유끼를 응시하였다.

가까이 다가선 유끼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두손을 이마에 대고 정중히 절을 하였다.

《용서하세요. 실은 제가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뭐라구?》

류기연은 옴짝않고 엎드린 유끼의 잔등을 쏘아보았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랍치되였다는건 어떻게 된거요?》

《그건 제가 지어낸 소리예요. 아마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거예요.》

억이 막혀서 턱이 다 떨렸다.

《어째서 이런 놀음을 벌려놨는가, 어째서?》

누비돗자리에 박혀있던 유끼의 머리가 천천히 들렸다. 그러자 자못 근심기가 어린 까만 눈동자가 나타났다.

《당신이 사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워 그랬어요.》

그러니 유끼도 그 일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그의 다음말이였다.

《한가지 알려줄게 있어요. 사실 총재님은 저의 외삼촌이랍니다.》

총재가 유끼의 외삼촌이라구? 그런즉 유끼가 대학시절 괜찮은 독집을 쓰고 풍족하게 지낸 리유를 알만하였다. 그와 함께 안개속에 잠긴것처럼 애매하던 문제들도 리해되였다.

다른 직장에 있다가 만철에 불쑥 나타난 유끼, 원래 살던 사람을 밀어내고 뒤집을 독차지한 녀기사, 총재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하고싶은 말을 탕탕 내뱉던 대담한 녀자…

믿어지지 않는가요라고 묻듯 말끄러미 쳐다보던 유끼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당신은 외삼촌을 만나보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그분은 죄다 알고계신답니다. <아시아>호를 살려낸건 오노씨가 아니라 바로 기연씨이고 구마모도가 당신의 도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말이예요.》

《…》

《조선속담에 <가재도 게편이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래요. 어쨌든 당신은 조선사람이고 그들은 일본사람이 아닌가요. 그래서 외삼

촌은 당신 같은 인재가 야마도민족이 아닌게 아쉽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셨답니다. 그럼 이젠 본론에 들어갈가요?》

유끼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야즐거렸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요?》

《그건 말이예요.》 하고 대답하려던 유끼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화제를 돌렸다.

《참, 점심시간이 돼오는데 우리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지 않겠어요? 겸해서 송별식사도 할겸.》

송별식사?

그 말뜻을 미처 음미하기도 전에 유끼는 몸을 빙그르르 돌리더니 손벽을 찰싹찰싹 쳤다.

기다리고있은듯 접대원이 들어와서 방구석에 세워져있던 식탁을 펼쳐놓았다. 그뒤로 다른 접대원이 음식그릇을 담은 네모난 다반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의 모습을 재미난듯 지켜보던 유끼는 식탁을 손짓하였다.

《본토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을 앓는데 제가 간호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냈어요. 아이, 서있지 말고 어서 앉으세요. 좀전에 무척 놀라셨겠는데 용서해주는셈치고 맛있게 들어주세요.》

유끼는 한손으로 너풀거리는 기모노자락을 잡고 잔에 술을 부었다.

《우리 작별기념으로 잔을 찧자요.》

이쪽에서 응하지 않자 유끼는 조금도 탓하지 않는다는듯 생글생글 웃으며 술잔을 입가에 가져갔다.

반쯤 비운 술잔을 내려놓은 그는 상냥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기연씨, 생각나세요? 이 호텔에서 열린 우리 외삼촌의 생일연회때 제가 한 이야기 말이예요.》

《생각나지 않소.》

유끼는 어쩌면 그럴수 있느냐고 책망하듯 곱게 다스린 눈섭을 약간 쫑긋거렸다.

《아이참, 제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생각났지만 류기연은 잠자코 듣기만 하였다.

《당신은 내 사랑을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복수하진 않겠어요. 임

금도 심장에는 명령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마음을 쓰는건 당신이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 억울한 대접을 받는거예요.》

유끼는 다음말에 무게를 두려는지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저한테 그 고통을 끝장낼 방도가 있는데 들어보겠어요?》

《…》

《그건 바로 당신이 야마도민족으로 귀화하는거예요.》

류기연은 저으기 놀랐다. 며칠전 오노한테서 그 비슷한 권고를 들었는데 유끼한테서 또다시 그 말이 나오고있는것이였다.

《당신이 결심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원한다면 우리 외삼촌의 양자로도 될수 있답니다. 어때요?》

이제는 유끼가 《랍치사건》을 꾸며낸 리유를 알만하였다.

《내가 정말 일본인으로 귀화했으면 하오?》

유끼의 눈동자에 간절한 희망의 빛이 반짝이였다.

《그래요. 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이건 진심이예요.》

류기연은 그의 달콤한 권고처럼 가볍게 찰랑거리는 술잔을 앞으로 밀어놓았다.

《난 그렇게 할수 없소.》

《아이, 속상해라!》

제편에서 더 안타까운듯 유끼는 울상을 지었다.

《무슨 사람이 그렇게두 우직해요? 그만큼 고생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렸는가요?》

류기연은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말하였다.

《똑똑히 알아두오. 난 살아도 죽어도 조선사람이요!》

가슴우에 모아쥐였던 두손을 맥없이 드리운채 잠잠해있던 유끼가 갑자기 옷깃을 열어제꼈다.

《아이, 무슨 방이 이렇게 더울가?》

외투생각이 저절로 나는 초겨울이지만 호텔의 난방시설이 만가동하여 방온도가 적당한데도 유끼는 덥다고 한다. 그러더니 더는 못참겠는지 허리에 둘렀던 오비를 주저없이 풀기 시작하였다.

어느새 기모노가 열어젖힌 창가림처럼 활짝 갈라지더니 두개의 《봉우리》가 드러났다.

한때 사람들속에서는 일본녀자들이 기모노안에 따로 속옷을 입지 않기때문에 오비를 풀면 그대로 알몸이 드러난다는 시시껄렁한 소리가 나돌았었다.

류기연은 그것이 죽어도 기생집울타리밑에서 죽는다는 활량들이 지어낸 랑설이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유끼는 식탁을 에돌아 발랑발랑 기여왔다.

《좋아요. 기연씨가 싫다니 그 문제는 그만두자요. 허지만 당신은 어쩌면 녀자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줘요? 비록 사랑에선 실패했지만 이 유끼의 가슴속엔 오직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몸을 서슴없이 바치겠단 말이예요.》

녀자의 살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부지불식간 대학시절의 유끼가 생각났다. 그때는 형식상이나마 학구적인 녀대학생의 모습을 갖추고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남자를 유혹하려는, 매혹적인 육체로 사나이를 녹여내려는 앙큼한 녀자만 있을뿐이였다.

류기연은 자기한테 안겨드는 녀자를 힘껏 밀어던졌다.

《아야!》

몸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비칠거리던 유끼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고말았다.

류기연은 절망에 빠져 허둥거리는 유끼를 경멸에 찬 눈으로 보았다.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아프게 깨물고있던 유끼는 두손을 뒤로 가져가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바로잡았다. 그다음 헤쳐진 기모노자락을 꼼꼼히 여미고 풀어졌던 오비를 둘렀다.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오면 결산해야겠군요.》

얼굴빛이 랭랭해진 유끼는 품속에서 약봉지를 꺼내더니 창문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원탁우에 놓여있는 동그란 어항에 대고 약봉지를 톡톡 털었다.

하얀 가루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거품이 일어났다. 그러자 활기에 넘쳐있던 금붕어들이 배를 우로 뒤집고 둥둥 떠올랐다.

독약이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치는 순간 유끼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약봉투가 입안으로 들어가고있었다.

앞으로 몸을 던지며 유끼를 덮쳤다.

《이게 무슨짓이요?》

그랬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독약봉지를 떨군 유끼가 머지않아 자신이 가닿게 될 천당에 넋을 올려놓은듯 애잔한 미소를 지어보였던것이다.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여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설마 유끼가 독약을 먹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벌써부터 독약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유끼는 손으로 목을 움켜잡았다. 요염하게 빛나던 두눈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파들거리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기연씨, 난… 당신을 증오해요. 당신을…》

그때 방에 들어오던 접대원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질렀다.

《사람 살려요!… 살인이예요!》

그 순간 류기연은 호텔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반사적으로 활짝 열려진 출입문쪽으로 몇발자국 내짚다가 무춤 멈춰섰다.

내가 왜 달아난단 말인가? 경찰이 오면 사실대로 증언하면 되겠는데.

잠시후 련락을 받았는지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섰다.

뒤따라 나타난 접대원이 류기연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유끼를 죽였다고 고발하였다.

두명의 경찰이 류기연의 팔을 량쪽에서 붙잡았다. 다른 경찰들은 이미 숨이 넘어간 유끼의 몸을 이리저리 검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방바닥에 떨어져있던 약봉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사복차림의 형사가 《청산카리로군!》라고 하더니 부하들에게 눈짓하였다.

눈깜빡할 사이에 류기연의 두손에 수갑이 절컥 채워졌다.

《여보시오, 난 저 녀자를 죽이지 않았소.》

중절모채양을 손가락으로 밀어올린 형사가 시물시물 웃었다.

《네가 죽이지 않았다는걸 누가 증명하지?》

류기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에 안겨오는것은 두눈을 부릅뜨고 죽은 유끼의 모습뿐이였다.

《정말이요. 난 죽이지 않았소.》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온 형사는 주먹으로 배허벅을 맵짜게 들이쳤다.

강한 타격을 받은 류기연은 숨이 꺽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증거가 확실한데두 뻗쳐? 넌 갈데 없는 살인자란 말이다!》

경찰들한테 떠밀리우며 복도를 걸어가느라니 마치도 천길나락에 굴러떨어진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말이지 일이 이렇게 번져질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었다. 차라리 인부들처럼 막일을 하다가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으면 지금보다 처지가 더 나을것같았다. 그러나 가혹한 운명은 조선인기술자의 존엄과 초지를 깡그리 짓밟고도 모자라 《살인자》라는 너절한 오명까지 덤으로 들씌워 헤여나올수 없는 아찔한 낭떠러지에 밀어던진것이다.

불현듯 만철에 입직하던 날 상공을 선회하던 비둘기가 생각났다.

폭우를 맞받아 날아가던 그 새!

그때 자기의 가슴속에서도 《비둘기》가 날고있었다. 그 《비둘기》는 지난 두해동안 시련을 맞받아 억세게 날개를 퍼덕이였다. 폭우가 쏟아져도 굴하지 않고 먹구름이 떠도는 하늘을 용감하게 날아옜다. 그러나…

폭우속을 기운차게 날고있던 《비둘기》가 돌연 날개를 접더니 아래로 곤두박히기 시작하였다.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며 파멸을 향해 떨어지는 가련하기 그지없는 《비둘기》!

그 끔찍한 광경을 보자 몸서리를 치며 두눈을 꽉 감아버렸다. …

다음날 신문팔이소년들이 새된 소리를 지르며 뛰여다녔다.

《중대사건입니다. 중대사건. <야마또>호텔에서 아릿다운 미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살인자는 반도인기사입니다. 반도인기사!》

신문들에는 순진한 일본처녀를 꾀여 호텔에 끌어들이고 강간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독약을 먹여죽인 조선인기사의 사건이 실려있었다.

일본법정은 류기연에게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12

려순감옥은 붉은 담장으로 둘러쌓인 서양식건물이였다.

짜리로씨야가 건설을 시작하였지만 로일전쟁발발로 중단되였고 그후 치렬한 공방전끝에 려순을 점령한 왜놈들이 증축하여 완공한 그 감옥은 한꺼번에 2천여명을 수감할수 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최대감옥이였다.

류기연이 갇힌 독감방은 고문실과 로역실, 사형장 등으로 련결된 어둑침침한 통로의 중간에 있었다. 여름에는 통풍이 안되여 변기악취가 살속까지 파고들고 겨울에는 벽체에 허연 성에가 끼는 감방은 삶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죽음이라는 암흑으로 바꾸어놓는 지옥이였다.

오늘도 그는 며칠전 고역에 끌려나갔다가 상한 허리를 붙안고 시루속처럼 후끈후끈한 감방바닥에 누워있었다.

이제는 억울한 생각도, 간수들의 매질도 꿈만해졌다. 한가닥 위안거리가 있다면 옆감방이 30여년전 할빈역에서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를 격살하고 체포된 안중근렬사가 갇혀있던 곳이라는것이였다. 간수들의 채찍소리와 수인들의 비명소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고통을 알리 없는 귀뚜라미가 신나서 울어대는 고요한 밤이 오면 렬사가 재판정에서 웨친 고성이 쟁쟁히 들려오는것같았다.

《내가 이또 히로부미를 죽인것은 조선독립전쟁의 일부분이다. 나는 개인자격으로 이 일을 한것이 아니라 조선의용군 참모총장자격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것이니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라!》

6차례의 공판에서 안중근렬사는 이또의 죄상을 명성황후시해와 《을사5조약》날조 등 15가지로 제시하면서 조선독립의 정당성과 왜놈들이 조선을 부당하게 강점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한다.

당시 재판을 지켜본 영국의 한 기자는 《세계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였다. 그는 영웅의 월계관을 쓰고 자랑스럽게 법정을 떠났으며 이또 히로부미는 그의 입을 통해 파렴치한 침략자로 전락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뿐만아니라 국내외에서는 렬사의 변호를 위한 모금운동이 일어났고 여러 외국인들이 무료변호를 자원하였다.

악착한 일제는 관선변호사의 변호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며 렬사가 자서전과 《동양평화론》집필을 끝낼 때까지 사형집행을 미루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끝끝내 그를 처형하고말았다.

일제와 당당히 맞서 조선사람의 기개를 만방에 떨친 안중근렬사의 기개를 되새겨볼수록 못난 자신이 부끄러웠다. 려순감옥에 갇힌 수많은 애국자들이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자기는 왜놈들의 통치기관인 만철에 복무하면서 본의든 본의아니든 민족앞에 죄를 지었으며 나중에는 더러운 루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운것이다.

이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죽고말자 하는 생각을 몇번이나 했다가도 거칠어진 감정을 다잡게 되는것은 옥바라지를 하느라 보름달같던 얼굴이 반쪽으로 되여버린 안해에 대한 미안한 생각과 아들에게 못다준 사랑때문이였다.

어느날 간수가 면회왔다고 알려주었다.

안해가 또 왔겠지 하고 면회실에 나가니 뜻밖에도 추진석이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무척 반가왔지만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다. 그의 충고를 듣지 않고있다가 이런 변을 당했으니 마주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미안하네. 엊그제야 소식을 알다나니 늦었네.》

못난 자기를 탓하지 않고 찾아온 그가 몹시 고마왔다.

《자네가 왔다간 다음 난 시골을 떠나 광산에 들어갔네. 그때부터 로동을 하면서 많은것을 배우고있지. 기술이야 아무때든 써먹을게 아닌가.》

뜻모를 말을 늘어놓던 추진석은 립회한 왜놈간수쪽을 살피고나서 자기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주었다.

《건강을 잘 돌보라구.》

감방으로 돌아온 류기연은 줌안에 쥐고있던 종이쪽지를 펼쳤다.

《지금 백두산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군대를 거느리시고 왜놈들을 족치고계시네. 나라가 해방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힘을 내라구. 추.》

그날 저녁, 간수가 추진석이 맡긴 차입품을 내주었다. 꾸레미를 펼쳐보니 찔광이가루였다. 자기가 심장병을 앓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친구가 광산일을 하는 속에서도 마련한것이다. 변함없는 그 진정앞에 눈굽이 화끈 젖어들었다.

그후에도 추진석은 자주 찾아왔는데 헤여질 때마다 돌돌 만 종이쪽지를 넘겨주군 하였다.

까딱 움직이지 않아도 등골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8월이 닥쳐왔다.

하루는 얼굴이 꺼매진 간수들이 바삐 뛰여다니더니 감옥이 조용해졌다. 그러다가 오후쯤 되자 요란한 웨침소리가 터져올랐다.

습기가 배여 미끌미끌한 콩크리트바닥에 누워있던 류기연은 창살밖을 내다보았다.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사변이 터진것같았다.

아닐세라 오늘따라 풀이 죽은 담당간수가 절컥거리며 감방열쇠를 열어주었다.

《어서 나가시오.》

말소리도 여느때와 달리 퍼그나 공손하다.

《대체 무슨 일이요?》

《일본은… 패망했소!》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왜놈들이 패망하다니? 내가 잘못 듣지 않았을가?

어리벙벙해있는데 또다시 목갈린 함성이 터져올랐다.

《왜놈들이 망했다아!―》

《해방 만세!―》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메말랐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격정이 분수처럼 솟구쳐올랐다.

아, 해방, 해방이구나!

감방에서 쏟아져나온 죄수들이 좁은 통로를 메우며 지나갔다. 그들중 누구도 허리를 다친 죄수가 안타깝게 끙끙거리는것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마음이 조급해서 무덤속처럼 고요한 복도를 따라 배밀이를 시작하였다. 한치한치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쑤셔났지만 앞으로 계속 기여갔다.

고요… 적막…

남들은 해방이 되였다고 제발로 뛰쳐나가는데 이 지긋지긋한 감옥

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자 겁이 덜컥 들었다. 이를 사려물고 죄수모자며 신발짝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통로에 나섰다.

얼마쯤 전진했을 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났다. 반가와서 목이 터져라 하고 소리질렀다.

《여보시오, 도와주시오!… 여보시오!》

저쪽에서 고문실과 감방안을 두릿두릿 살피고있던 두사람이 황황히 달려왔다.

이쪽으로 뛰여오는 사람들을 알아보자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안해와 추진석이였던것이다.

《여보!》

《기연이!》

눈물이 왈칵 솟구쳐오른 류기연은 자기한테 뻗쳐온 두사람의 손을 움켜잡았다. …

려순항은 갈게들을 담아놓은 거대한 그릇같았다.

굴뚝으로 시꺼먼 연기를 뭉클뭉클 내뿜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짐배들, 먼저 입항하겠다고 꽁무니를 달싹거리는 작은 배들, 그사이로 사환군처럼 잽싸게 오가는 수로안내선들, 부지런히 팔을 휘두르는 기중기…

발동선 한척이 퉁탕거리며 항구를 빠져나왔다.

발고랑같은 물결이 사품치는 선미에 한 남자가 서있었다. 려순감옥에서 다친 허리를 치료하느라고 뒤늦게야 귀국의 길에 오른 류기연이였다.

10월의 서늘한 바다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히며 스쳐지나갔다.

바다로 나온 발동선은 동쪽으로 항로를 잡았다.

래일 저녁쯤이면 그리운 고향에 당도할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마냥 설레였다. 고향을 그려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것은 봄이면 하얀 살구꽃바다에 둘러싸인 조촐한 기와집이 아니라 노끈을 허리에 질끈 동이고 고된 농사일을 억척같이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어머니, 기다려주십시오. 이 불효자식 인차 찾아뵙겠습니다!

가슴속에 들어찬 그리움을 토하듯 숨을 크게 내쉬던 류기연은 얼굴빛을 흐렸다. 10여년만에 고향을 찾아가지만 어머니앞에 떳떳하게 자랑할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것이다.

《기연이!》

선실에서 나온 추진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다른 사람들은 해방이 되자 서둘러 귀국하였지만 그는 려순공대출신들을 설복하여 류기연을 기다렸다가 함께 배에 오른것이다.

《그러다 감기에 들지 않겠나? 아주머니가 걱정하더군.》

류기연은 행복한 사나이답게 씩 웃었다.

《자넨 정말 안해복이 있네. 허허허!》

친구는 구김살없이 웃고있지만 가슴속에는 일찍 세상을 떠난 안해생각이 간절할것이다.

솨, 철썩!—

배전을 타고넘은 뿌연 비말이 두사람을 덮쳤으나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기연이!》

얼굴에 들씌워진 물기를 손바닥으로 훔치던 추진석이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난 말일세.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아깝게 썩였던 지식을 해방조선에 바칠 결심이네. 어떤가?》

류기연은 그런 친구가 한없이 돋보였다.

《찬성이네.》

《헌데 그새 <은둔생활>을 했더니 머리가 좀 굳어진것같네. 하긴 걱정할게 있나? 자네가 옆에 있는데야. 하하하!》

파도에 젖은 고수머리를 옆으로 쓸어넘기던 그는 고개를 뒤로 홱 돌렸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선원들이 정신없이 헤덤비고있었다.

《저걸 보게!》

그가 손짓하는쪽을 보니 청청하던 하늘은 재빛으로 변하고 멀리서 파도가 꿈틀꿈틀 밀려왔다.

《빨리 들어가자구!》

류기연은 그를 따라 선실쪽으로 갔다.

그러나 선실에 이르기도 전에 파도가 들이닥쳤다.

두사람은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갑판우에 쓰러졌다. 미처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배가 허공으로 우쩍 들리웠다. 파도마루우에 올라선것이다. 몸안의 내장이 밑으로 빠져나가는것같은 느낌에

어허허! 하는 흐느낌소리가 저절로 쏟아졌다.

쏴—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배가 파도속으로 곤두박히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또다시 이리저리 태질하였다.

어느 순간인가 류기연은 자기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선체밖으로 휘뿌려지는것을 느꼈다. 이어 두다리가 바다물에 철썩 잠기고 반사적으로 뻗친 두손에 선체의 란간이 걸렸다. 죽을힘을 다하였지만 허리가 못견디게 쑤셔나는 바람에 맥을 놓고말았다. 조금만 지나면 파도속으로 영영 빠져들것같았다. 감옥에서도 살아나왔는데 고향에 못가보고 물귀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억센 손아귀가 뻗쳐오더니 두손을 잡아끌었다.

《자, 힘을 내라구!》

역시 자기를 구원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추진석이였다.

친구는 죽어라고 잡아당기고 류기연은 있는 힘을 다해 배전에 오르는 사이에도 파도는 계속 덮쳐들었다.

간신히 배에 기여오른 그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걸 붙잡게.》

친구의 고함소리에 힘을 얻은 류기연은 날아온 바줄을 꽉 잡았다. 그거라도 잡고있으니 파도에 빠질 위험은 면하게 되였다.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파도는 숨을 돌리려는지 즘즘해졌다.

《기연이, 빨리!》

친구가 다급히 소리쳤으나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아 앉은뱅이처럼 우물거렸다.

와당탕 달려온 친구는 그를 둘쳐업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갑판우에서 몸의 중심을 가까스로 유지하며 선실로 천천히 향했다.

남편이 걱정스러워 선실문앞에 나와있던 안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보, 무사했군요!》

《아주머니두,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요.》

추진석은 설사 태풍을 만났다고 해도 뭐가 두려울게 있느냐는듯 태평스러운 태도였다.

파도가 사납게 휘몰아치는 바다우에서 옹근 하루가 지나갔다.

광란하던 바다가 수집은 처녀마냥 얌전해지자 구름속에 몸을 숨겼던 별들이 또릿또릿한 얼굴을 드러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열물까지 말짱 토하고 갑판우에 누워있던 류기연은 옆에서 느릿느릿 바줄을 사리고있는 선원한테 물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모르겠수다. 추진기에 그물이 감겨서 떠내려가는중이웨다.》

《아니, 그럼 우리가 표류하고있단 말입니까?》

《남쪽으로 한참이나 내려왔수다.》

남쪽이라면 일행의 목적지였던 의주가 아니라 그 아래쪽을 의미한다.

남포?… 아니면 옹진?…

선미쪽에서 누군가 소리질렀다.

《저기… 저기 불빛이 보인다!》

심한 배멀미에 시달리고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

《히야, 이젠 살았구나!》

《그러게나 말일세.》

별안간 발동기소리가 들려오는듯하더니 시꺼먼 어둠속에서 덩지큰 배가 불쑥 나타났다. 그쪽에서 확성기소리가 날아들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일행중에서 제일 팔팔한 추진석이 결패있게 대답하였다.

《우린 중국에서 나오는 조선사람들이요!》

《중국?》

《그렇소. 헌데 여긴 어디요?》

《인천이요.》

기술자들과 가족들은 모두 놀랐다. 인천이라면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이내 마음을 놓았다. 인천도 역시 해방된 조국땅이였던것이다.

저쪽 배에서 바줄이 핑글핑글 날아왔다.

표류당하던 배는 그 배에 끌리워 인천부두로 들어갔다.

발동선이 멎기 바쁘게 사람들은 마구 헤덤벼치며 잔교를 건너갔다.

먼저 부두에 오른 축들은 넙적넙적 엎드리더니 먼지투성이땅을

두손으로 쓸어만지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지난날 식민지백성의 설음조차 마음껏 터칠수 없었던 마음의 문들을 활짝활짝 열고 솟구치는 격정을 터쳤다.

류기연도 아들애를 안고 배에서 내렸다.

허공에서 둥둥 떠가는것처럼 움직이던 두다리로 부두에 올라서자 가슴이 뻐근해왔다.

아, 얼마나 찾고찾던 해방조선인가.

뒤따라 잔교를 건너온 안해가 어둠에 잠긴 부두를 둘러보다가 눈굽을 훔치였다.

《여보, 이젠 조국에 왔군요. 조국에…》

류기연도 울컥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한채 안해와 아들애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그렇소. 조국에 왔소. 하하하!》

해방과 더불어 오랜만에 터친 사나이의 웃음이였다. 마음놓고 터치는 그 기쁨속에 쌓이고쌓였던 지난날의 설음이 봄날의 눈석이마냥 녹아내리고있었다.

제 4 장

1

너들너들한 가마니짝, 입을 쩍 벌린 도람통, 악취풍기는 넝마…

류기연은 어슴푸레한 달빛이 비쳐드는 창고안을 둘러보며 밀려드는 의혹을 쫓고있었다.

어째서 우릴 이런 곳에 가두었는가? 그래,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자고 귀국했단 말인가?

저벅저벅… 저벅저벅…

밖에서 들려오는 위압적인 군화소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엄연한 현실임을 깨우쳐주고있었다.

저녁무렵, 인천부두에 오른 그들이 기쁨과 감격을 터치고있는데 왜놈경찰복과 비슷한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났다.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여서 반가운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이라는 그들의 태도는 뜻밖이였다. 귀국과정을 꼬치꼬치 따져묻더니 매 사람의 몸을 수색하고 짐까지 뒤졌다. 지어 줄을 바로서지 않는다고 험악한 욕설까지 퍼부었다.

추진석이 참지 못하고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우리가 무슨 죄인인가고 항의하였다.

들은척도 않고 제 할 일을 마친 경찰들은 무작정 부두창고안으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밖에 보초까지 세웠다. 이렇게 되여 류기연네는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창고안에서 밤을 보내게 되였던것이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모두 숨을 죽이였다.

빠드득… 빠드득…

보금자리를 잃을가봐 불안해난 쥐들이 맹렬한 공격을 개시한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무서워!》

《아부지, 이자 뭔지 내 다리를 타고넘었어.》

한동안이 지나서야 소동은 가라앉았다. 처음은 경찰들의 무례한 태도에 어리둥절해지고 다음은 쥐들의 래습으로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은 헐치 않았던 배길에 쌓인 피로를 견디여내지 못하고 잠의 나락에 빠져든것이다.

《여보, 우릴 왜 여기에 가두었을가요?》

새근새근 잠든 아들애를 품에 안고있던 안해가 근심스럽게 물었다.

류기연은 달빛에 드러난 그의 파리한 얼굴을 묵묵히 보다가 입을 열었다.

《모르겠소.》

《힘들겠는데 여기 와서 눈을 붙이세요.》

안해는 자리를 옮겨앉으며 나무판자모퉁이를 내주었다.

그때까지 서있던 류기연은 장작개비처럼 뻣뻣한 다리를 움직이였다.

《나한테 몸을 기대세요. 그럼 춥지 않아요.》

정말 안해한테 몸을 기대자 따뜻한 온기가 마쳐오면서 으쓸하던 몸이 한결 더워지는것같았다.

《걱정마세요. 날이 밝으면 밖으로 나갈수 있을거예요.》

퀴퀴한 냄새가 풍기고 설치류들이 날뛰는 이런 곳에 갇혀있으면서도 그런 희망을 품고있는 안해의 락관성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날이…》

말소리가 뚝 끊기더니 안해의 머리가 숙어졌다. 배가 풍랑을 만나자 자기도 멀미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느라고 극성이더니 무척 고단한 모양이였다.

안해의 머리를 가슴팍에 슬며시 끌어당기고 잠을 청하였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려순감옥에서 나와 집에서 허리를 치료하면서 그는 친지들을 통해 세상돌아가는 형편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르면 38°선이북에는 쏘련군이 진주하여 패망한 왜놈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인민의 건국을 도와주고있었다. 반면에 38°선이남에 상륙한 미군은 《포고》 제1호를 발포하였다. 일명 《맥아

더포고》라고 하는 그 포고에서는 38°선이남의 지역과 그곳 주민에게 군정을 수립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당, 단체들이 나오고 10월중순에는 미국에서 서양녀자를 데리고 살던 리승만이 귀국하였다.

고향이 북인 류기연은 남쪽정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둡고 추운 부두창고에 갇히우고보니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덧 창고문짬으로 희붐한 빛이 스며들고있었다. 의문많고 불안하던 밤은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추워서 몸을 옹크리다가 깨여난 안해는 눈을 크게 떴다.

《아니, 밤을 꼬박 밝혔어요?》

류기연은 제 엄마품을 파고드는 아들애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나서 시들하게 웃었다.

주위에서 술렁거리는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잠을 깬 모양이였다.

돌연 쌀쌀한 새벽대기를 찢으며 청높은 소리가 터졌다.

《장교님, 부두파출소는 당신을 영접하기 위해…》

알아들을수 없는 혀꼬부라진 발음이 도중에서 그 말을 삼켜버렸다. 이어 삽삽한 목소리가 그 말을 통역하였다.

《미군장교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가고 물으시오.》

《창고안에 있습니다.》

불만스러워하는 영어발음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미군장교님은 당신들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꾸중하시오. 당장 문을 여시오.》

《예!》

자물쇠여는 소리가 나더니 창고문이 삐걱― 열렸다.

추위와 긴장으로 몸을 움츠린 사람들은 푸릿한 안개가 맴도는 창고밖을 주시하였다.

키가 껑충한 경찰이 창고안으로 들어섰다.

《여러분,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서들 나오십시오.》

온밤 자기들을 가두고있던 창고문이 활짝 열렸지만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기만 하였다. 어제 밤에는 왜놈경찰도 울고갈 정도로 포악하게 굴던 경찰이 오늘 아침에는 살점이라도 떼줄것처럼 친절하게 나

오니 변화무쌍한 현실에 인츰 적응할수 없었던것이다.

난처한듯 두눈을 데룩데룩 굴리던 경찰은 뒤를 돌아보다가 얼른 옆으로 비켜섰다. 그의 뒤에서 나타난 사람은 군복입은 서양사람이였다.

류기연의 아들애가 그를 손짓하며 재잘거렸다.

《어머니, 저 사람은 머리가 왜 노랗나요? 코두 뾰쪽하구…》

다른 사람들도 해방조국에서 만난 서양인을 멍하니 보았다. 귀국할 때 38°선이남에 미군이 진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해방자》를 만나보기는 처음이였던것이다.

아이를 향해 히죽이 웃어보인 미군장교는 옆에 서있는 통역에게 영어로 말하였다.

《에, 미군장교님은 대단히 반갑다고 하셨소. 그리구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가고 물으시오.》

통역의 말이 끝나자 류기연은 류창한 영어로 대답하였다.

《우린 중국 동북지방에서 나온 조선인기술자들과 가족들이요. 원래는 북조선에 내리려고 했는데 태풍을 만나 여기까지 떠내려왔소.》

미군장교의 파란 눈에 놀란 빛이 떠올랐다.

《당신의 영어발음은 아주 훌륭합니다. 내 이름은 스미스입니다.》

《류기연이라고 합니다.》

미군장교의 눈은 이미전부터 알고있는 사람을 만난것처럼 번쩍 빛났다.

류기연은 상대가 내민 손을 마주잡았다.

오랜 벗처럼 친절하게 악수를 나눈 스미스는 미안해하였다.

《류선생, 무지한 경찰들이 당신들을 푸대접했다고 하더군요. 그에 대해 정식으로 사죄합니다.》

《당신이 사죄할건 없습니다.》

그다음에도 류기연과 스미스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통역은 말할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입을 하 벌리고 미국사람과 자유자재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를 부럽게 바라보았다.

만철본부에 있을 때 류기연은 대학에서 전공한 제동장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철도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들을

공부하였는데 그렇게 배워두었던 실력이 오늘 은을 낸것이다.

《잠간 실례하겠습니다.》

량해를 구한 스미스는 저쯤에 모여있는 자기 부하들을 손짓으로 불렀다.

그가 미군병사들에게 지시를 주고있을 때 옆에 서있던 추진석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체 무슨 말을 했나?》

《미군장교는 우리가 인천부두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자 식사도 못하고 달려나왔다고 하네.》

《그래서?》

《우리더러 서울에 가지 않겠는가고 하더군.》

《서울에?》

《그렇네. 집도 주고 일자리도 주겠다고 하네.》

추진석은 대번에 반대하였다.

《난 안가겠네. 이왕이면 북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여기엔 왜 떨어지겠나?》

그러는데 부하들을 돌려보낸 스미스가 곁으로 다가왔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습니까?》

류기연은 우린 고향이 북인데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고 알려주었다.

리해된다는듯 웃음을 지은 스미스는 추진석을 넘겨다보며 말을 꺼냈다.

《당신들은 북조선에 가겠다고 하는데 현재 그곳에는 대학도 없고 온전한 연구기지도, 공장도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의 기술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땅을 뚜질순 없지 않습니까?》

류기연은 스미스의 말을 친구에게 통역해주었다.

《당신들에게 리성적으로 사고할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에는 대학도 있고 연구조건도 좋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본국으로 쫓겨갔기때문에 부담을 가질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남아 건국사업에 매진하는것이야말로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

《2차세계대전시기 도이췰란드에는 적지 않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박해를 받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세계평화와 문명을 존중하는 미국은 강제수용소들에서 도이췰란드인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모두 구출하여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연구사업도 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조선의 인재들한테도 관심이 큽니다. 사실 당신들은 기술이 높지만 사무라이들한테서 멸시만 받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봉창을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추진석은 고수머리를 천천히 쓸어넘겼는데 손동작이 단호하지 못한것을 보면 결심을 내리기 힘든 모양이였다.

류기연도 생각을 더듬었다.

미국은 우리가 왜놈들한테서 받은 멸시를 봉창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스미스의 말처럼 북에는 아직 대학도, 연구기관도 없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단지 마음에 걸리는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이다. 한시라도 빨리 고향에 달려가 만나뵙고 못다한 효도를 하고싶었다. 그러나 스미스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마침내 결심을 내린 그는 친구를 설득하였다.

《진석이, 우리 여기 남아서 건국을 하는게 어떤가? 고향엔 그다음에 가도 늦지 않을거네. 이제야 해방도 됐는데 건국보다 더 중하고 바쁜 일이 어디 있는가 말일세.》

추진석의 손이 머리우에서 내려왔다.

《좋네. 그럼 자네 말대로 해보세.》

《고맙네. 진석이.》

친구한테서 확답을 들은 류기연은 다른 기술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그들도 동의하였다.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옳바른 선택을 한 당신들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한 스미스는 다른 기술자들과 가족들은 뻐스에 오르게 하고 류기연만은 자기가 타고온 승용차에 태웠다.

차행렬이 인천부두를 벗어나자 그가 말을 건넸다.

《내 차에 류선생을 태운건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사실 우리 미국은 이 나라의 재건문제때문에 애를 먹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무라이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철도형편은 눈이 감깁니다. 그런데

금싸래기같은 철도기술자가 저절로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려순공대 최우수졸업생, 일본인들만 들어가는 만철본부에서의 근무, 일본녀자를 독살한 <죄>로 무기형을 받고 려순감옥에 갇혀있다가 해방으로 출옥… 내 말이 옳습니까?》

류기연은 속으로 놀랐다. 스미스와는 오늘 처음으로 만났는데 자기의 경력을 어떻게 그처럼 자세히 알고있는지 모를 일이였다.

한참 지나 일행은 서울에 도착하였다.

가는 곳마다 미군병사들이 보였고 이전 조선총독부의 게양대에는 가증스러운 일장기대신 얼룩덜룩한 성조기가 펄럭거리고있었다.

기술자들과 가족들이 뻐스에서 내리자 스미스는 명단을 꺼내들고 매 가족들에게 《적산》가옥들을 배정해주었다. 뿐만아니라 기술자들의 전공에 따라 《경성대학》(당시) 교원들로 임명하였다. 그다음 류기연을 데리고 길옆에 있는 2층양옥으로 갔다. 그 집은 다른 《적산》가옥들보다 덩지가 크고 화려하였다.

집에 들어선 스미스는 류기연의 안해에게 널직한 부엌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쌀독이 있고 저기에는 그릇들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2층은 서재입니다. 연구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겁니다.》

응접실벽에 붙어있는 층계를 가리켜보인 그는 시간만 허락한다면 부인이 만들어주는 조선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싶다고 하더니 후에 오겠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스미스를 바래운 류기연은 미국사람들은 왜놈들과 달리 인재를 귀중히 여기는 문명한 신사들이라고 생각하였다.

한주일후 젖빛안개가 감도는 《경성대학》 청사앞에 코트차림을 한 남자가 서있었다. 대학 학부장으로 임명된 류기연이였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대학에는 왜놈교원들과 대학생들이 우글거렸다고 한다. 오늘은 조선인교원들이 가슴을 펴고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고있었다. 이제부터는 자기와 려순공대출신 동료들도 해방조선의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에 참여하게 된것이다.

불현듯 만철에 입직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왜놈기술자들속에 혼자 들어가야 하는데다 추진석의 반대도 이만저만 아니여서 마음이 무거웠었다.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대학에는 전부 조선사람들뿐이고 추진석 역시 대학교원으로 임명되였

던것이다.

아침안개가 걷히자 동쪽하늘에 태양이 둥근 얼굴을 내밀었다.

혹시나하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하늘을 선회하던 하얀 비둘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섭섭하지 않았다.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곤두박혔던 《비둘기》가 가슴속에서 다시금 솟구쳐올라 기운차게 날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은 다시 찾은 희망, 삶의 목적이였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해방전에 내가 세웠던 인생의 함수는 지식으로 조선사람이 렬등하지 않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였다. 하다면 나라가 해방된 오늘에는 그 함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지금 급선무는 해방조선을 일떠세우는것이다. 그러니 지식으로 건국을 하는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새로 정해야 할 인생의 함수가 아니겠는가. 건국이라…

심호흡을 크게 한 류기연은 대학청사를 향해 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2

자정이 지나자 소란스럽던 기차칸은 조용해졌다.

온종일 객차안이 좁다하게 뛰여다니던 개구쟁이들은 꿈나라로 가버렸고 지루한 려행에 녹초가 된 어른들도 끄덕끄덕 졸았다.

덜커덩, 덜커덩!

레루이음짬을 넘어가는 단조로운 차바퀴소리가 안식을 재촉하는 고즈넉한 기차안에서 잠들지 않고있는 사람은 한홍식뿐이였다.

차창문틈사이로 마가을의 찬바람이 솔솔 흘러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한채 상념에 잠겨있었다.

…교원을 그만두고 박천으로 돌아온 한홍식은 집안에 꾹 박혀있다가 8.15해방을 맞았다.

해방은 가난하던 사람들한테는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었지만 부유하던 사람들에게는 죄의식과 불안을 가져다주었다. 남들은 거리에 떨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만 이전 군수인 한홍식의 아버지는 방

안에서 담배만 뻑뻑 피웠다.

어느날 참다못해 들이댔다.

《아버지, 이거야 숨이 막혀서 살겠습니까? 여길 당장 뜹시다.》

희뿌연 담배연기를 한숨에 섞어서 연방 내뿜고있던 아버지는 순순히 응하였다.

《그렇게 하자꾸나!》

그날로 군자치위원회에 찾아간 아버지는 군수임명장과 인장을 바치고 돌아왔다. 그리고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고스란히 내놓고 아는 사람이 없는 흥남으로 왔다. 허줄한 초가에 간단한 이사짐을 풀어놓은 후에야 온 가족은 마음을 놓았다.

집안이 안정되자 한홍식은 이전에 교편을 잡았던 학교에 갔다오겠다고 하였다.

이즈음 퍼그나 소심해진 아버지는 다른 말이 없었다. 대신 어머니가 로자를 쥐여주며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혹시 원산에 봐둔 처녀라도 있는게 아니냐?》

허구프게 웃으며 한홍식은 아버지가 들으라고 큰소리쳤다.

《나 같은 <악질친일파>의 자식을 어느 처녀가 좋다고 하겠어요?》

아버지는 못들은척하고 담배만 뻑뻑 빨았다.

집을 나선 그는 달리던 기차가 뭉청 끊어진 철교앞에서 멎어서자 지체하지 않고 뛰여내려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헐레벌떡이며 걸음을 재촉하였다.

원산에 이르러 교원시절 가깝게 지내던 친구를 만나자 제일 궁금하던 순애소식부터 알아보았다.

《순애는 이 세상에 없네.》

해방전 《위문단》을 싣고가던 왜놈군대차가 고개에서 굴렀는데 타고있던 녀학생들이 죽거나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생존자와 시체들속에 순애만은 없었다는것이다.

《깊은 벼랑밑에 떨어졌는지 시체도 찾지 못했다더군.》

눈앞이 아뜩해졌다.

아, 그럼 순애가 죽었단 말인가?

한창 피여날 꽃나이에 세상을 떠난 제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도 터져와서 친구가 성의껏 차린 음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다음날 한홍식은 며칠간이라도 묵어가라고 하는 친구의 청을 뿌리치고 흥남으로 떠났다.

해방을 맞은 흥남은 건국의 열기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공장들에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여 설비와 건물들을 장악하였고 로동자들은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집에서 가까운 흥남비료공장옆을 지나가다가 설계도면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던 로동자들이 손맥을 놓고 주저앉는것을 띄여보았다.

그들을 찾아가 도와주고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저들한테 도면을 설명해주면 그만큼 공장복구가 빨라질게 아닌가.

자성이 강한 자석에 끌리우듯 그들쪽으로 다가가는데 자위대완장을 두른 청년이 멈춰세웠다.

《동문 어느 직장이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건국에 이바지하고싶은 순수한 혈기가 가슴속에 끓어넘쳤으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대답을 못하는걸 보니 혹시 반동이 아니요?》

경각성높은 자위대원은 어깨에 걸치고있던 보총을 벗겨들었다.

《이 동… 동무가?》

처음 입에 오른 《동무》라는 말을 어색하게 내뿜은 한홍식은 제김에 열을 올렸다.

《누굴 보구 반동이라는거요?》

어깨가 레스링선수처럼 떡 버그러지고 두눈이 어글어글한데다 불맞은 범처럼 펄펄 뛰니 자위대원은 자기가 지나쳤다고 생각되는지 보총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신분을 확인할수 없으니 들어가지 못한다고 잘라맸다.

원래는 설계도면을 볼줄 몰라서 안타까와하는 로동자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은근히 결이 났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도 먹지 않고 누워버렸다.

장차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한숨과 권태로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있는데 원산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보가 날아들었다. 죽었다고 하던 순애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이였다.

그 소식은 어둡던 가슴속에 비쳐든 한줄기의 밝은 빛이였다.

당장 떠나자. 당장!

이렇게 되여 한홍식은 잊을수 없는 제자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다시금 원산행기차에 올랐던것이다. …

《원, 홍길동이가 울고가겠군.》

이른아침, 원산역에 내려 땀을 철철 흘리며 찾아온 그를 보자 친구는 놀라와하였다. 그러다가 미심쩍은 기색을 지었다.

《빨리 온건 좋은데 너무 극성을 부리는게 아닌가?》

한홍식은 싱글싱글 웃으며 친구의 말을 받아넘겼다.

《난 순애가 <위문단>에 끌려갈 때 구원해주지 못했네. 그런데 그가 살아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니 참을수가 있어야지.》

《그 심정은 알만하네. 헌데 그것뿐인가?》

《그것뿐이라는건 무슨 소린가?》

뭔가 알아내려는듯 유심히 바라보던 친구는 웬 일인지 느물느물 웃었다.

한홍식은 그의 손을 잡고 부탁하였다.

《순애한테 련락해주게. 내가 찾는다구.》

《제가 직접 갈노릇이지 남은 왜 시켜먹나?》

《자네도 알지 않나. 순애 아버지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걸.》

《에라, 이건 전보를 쳐주고 또 찾아까지 줘야 하니 죽을 맛이군.》

짐짓 투덜거리며 집을 나섰던 친구는 인차 돌아왔다.

《순애한테 말해줬네. 점심시간에 명사십리로 나오라구.》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난 한홍식은 그동안 순애가 어떻게 변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와 헤여진지도 두해가 지나갔으니 스무살이 넘었다. 처녀들은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퍼그나 고와졌을것이다. 그건 그렇구 이젠 순애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교원노릇을 그만두었으니 그전처럼 순애학생 하고 부를수는 없다. 그럼 그저 순애라고 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더듬는데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되였다.

친구가 점심을 먹고 가라고 권하였지만 물 한사발만 쭉 들이켰다.

《갔다와서 먹겠네.》

또다시 느물거리는 친구를 남겨두고 명사십리로 나갔다.

교원시절에 한홍식은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와 모래불이 사이좋게 지내는 이곳으로 자주 나오군 하였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아름다운 명사십리도 왜놈들한테 짓밟힌 강토의 한 부분으로밖에 안겨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감정이 그때와 달랐다. 해빛을 타고 열정적으로 달려와 모래불에 부딪쳐 처절썩하고 울리는 파도소리는 명곡의 전주처럼 들려왔고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정답게만 어려왔다.

문득 뒤에서 가벼운 달음박질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선생님!》

오랜만에 귀익은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후두둑 떨리는것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자 제자가, 아니 아름다운 처녀가 그린듯이 서있었다.

《순애!》

《선생님!》

짐작한대로 순애는 몰라보게 변하였다. 류달리 맑던 두눈에는 성숙한 처녀의 리지가 어려있고 야들야들하던 볼도 세월의 풍파를 헤쳐오며 단단해졌다. 자기의 겨드랑이에 겨우 미치던 키도 어깨까지 올라왔다.

순애는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한홍식은 그전에는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어색한감을 느꼈지만 딴전을 부렸다.

《보다싶이 이 <폭군>은 건강하오.》

《아이참, 선생님두.》

순애도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거요?》

웃음을 거둔 순애는 정색한 기색을 지었다.

《왜놈군대차가 고개에서 굴러내릴 때 전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산전막에 누워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집주인들은 화전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무던한분들이였는데 약초를 캐다가 벼랑밑에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업어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허리

를 심하게 다쳐서 한해가 넘도록 옴짝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 아버님이 침을 잘 놓아서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금을 구하려고 산을 내려갔던 어머님이 돌아오더니 왜놈들이 망했다고 알려주는게 아니겠습니까. 난 너무 기뻐서 산을 내리려고 했지만 아버님이 그러다 재발한다고 걱정해서 침을 더 맞다가 며칠전에야 돌아왔습니다.》

애젊은 나이에 헐치 않은 인생길을 걸어온 순애였다.

《그런걸 정말 잘못된줄 알았구만.》

《저도 선생님을 다신 못보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지 않았소. 하하하!》

쾌활하게 웃음을 터친 한홍식은 눈뿌리가 모자라게 펼쳐진 하얀 모래불을 손짓하였다.

《순애, 우리 좀 걷기요.》

두사람은 파도가 철썩거리는 모래불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그야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흠, 대학공부를 하고 과학자가 되겠단 말이지?!》

그렇다고 수긍한 순애는 이렇게 토설하였다.

《헌데 그 소원이 꿈으로 남을가봐 걱정입니다.》

《왜 말이요?》

《우리 나라엔 아직 녀자들이 공부하는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순애의 말은 사실이였다. 해방전도 그렇고 해방후에도 나라에는 《경성대학》밖에 없었는데 녀자들을 받지 않았던것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순애한테 힘을 안겨주고싶었다. 그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싶었다.

《녀자들도 공부하는 대학이 꼭 나올거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될가요?》

그때 뒤에서 《선생님!》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하고 돌아보던 한홍식은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몇발자국앞에 명숙이를 비롯한 처녀들이 활짝활짝 웃으며 서있었던것이다.

《아, 잘들 있었소?》

《선생님!》

제일먼저 다가온 명숙은 마치 헤여졌던 오빠를 만난것처럼 스스럼없이 매달렸다.

해방전 한홍식은 용한 의원을 청해다가 그의 얼굴에 난 여드름을 치료받게 해주었다. 그후 명숙의 얼굴은 맑아졌고 더는 가방에 분곽을 넣고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명숙은 스승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었던것이다.

다른 처녀들도 떠들썩하며 한홍식을 붙들고 돌아갔다.

《선생님, 학교를 그만두신 다음 어디 가셨댔습니까?》

《지금은 무슨 일을 보십니까?》

해방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말로 자기들을 배워준 스승의 운명이 처녀들한테는 대단한 관심사였던 모양이였다.

한홍식이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하는데 말괄랭이 명숙이가 그 딱한 순간을 밀어버렸다.

《선생님, 이러시면 됩니까?》

《?》

《원산에 오셨으면 우릴 모두 찾아야지 어째서 순애만 따로 만나시는가 말입니다.》

한홍식은 말이 나가지 않아 입을 벙싯거리기만 하였다.

《호호호, 이건 롱입니다!》

명숙이가 허리를 붙안고 깔깔거리자 한홍식은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누구는 《정신대》모집을 피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음에도 없는 시집을 가고 또 누구는 해방이 되자마자 원래부터 좋아하던 남자와 결혼했다는 등 쉴새없이 재잘거리던 명숙은 나중에 이런 질문을 꺼냈다.

《선생님, 결혼하셨습니까?》

한홍식은 싱글싱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대상자가 없습니까?》

《왜, 중매라도 서주겠소?》

《중매설거나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한홍식은 제자가 또 롱을 하는줄 알고 그의 말을 무랍없이 받아주었다.

《그게 누군데?》

명숙은 대답대신 자기뒤에 얌전히 서있는 순애를 앞으로 끌어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뜰 놀라서 굳어졌다. 지금까지 제자로 여겼던 순애가 명숙이의 도섭으로 별안간 《신부감》으로 나타난것이다.

《아이참, 넌…》

명숙의 잔등을 주먹으로 콩콩 두드린 순애는 옆에 서있는 동무의 잔등뒤에 숨었다.

《선생님, 순애가 우릴 만나자 제일먼저 소식을 물어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얘들아, 내 말이 틀리니?》

처녀들은 다들 그렇다고, 순애가 선생님소식을 몰라 속상해했다고 증언하였다.

바빠맞은 순애는 그건 자기때문에 왜놈들한테 끌려갔던 선생님이 걱정스러워서였다고 말하였지만 처녀들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제자들과 헤여져 친구의 집으로 돌아온 한홍식은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원산으로 내려올 때 어머니가 봐둔 처녀라도 있는가고 묻자 먼저 떠오른것은 다름아닌 순애의 얼굴이였다. 하지만 그때는 왜놈들한테 끌려간 제자의 운명에 대한 걱정뿐이였다.

그런데 모래불에 나타난 순애를 보는 순간 어쩐지 그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었다. 그것이 혹시 명숙이가 순애를 대상자라고 내세웠던 일과 어떤 련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면서도 순애를 자기앞에 내세웠던 명숙이가 밉지 않은것은 무슨 리유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허, 자네의 얼굴에 보름달이 비꼈는걸.》

점심도 굶고 나가더니 배가 고프지 않는가고 하며 저녁상을 차린 친구가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보름달?》

《그렇네. 분명 자네가 달라졌단 말일세.》

《객적은 소린 걷어치우게.》

《좋네. 그래, 순애는 만났나?》
《만났네.》
《처녀가 어떻던가?》
한홍식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친구의 눈을 슬며시 피하면서 대꾸하였다.
《뭐가 말인가?》
《그동안에 꽃처럼 활짝 피지 않았는가 말이네.》
《그야 물론이지.》
《그럼 인차 마련을 봐야지.》
《마련이라는건?》
《자네 정말 모르나 아니면 모른척하나?》
한홍식은 친구의 말뜻을 알아차렸지만 그냥 뻗쳐댔다.
《순앤 내 제자야, 제자!》
친구는 흥 하고 코방귀를 뀌였다.
《그거야 해방전이지 아직도 자네가 배워주는 제자인줄 아나?》
《됐네. 그만하구 밥이나 먹자구. 배가 출출한데.》
두 친구는 더는 순애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날 밤, 한홍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싯거렸다.
눈앞에는 급해맞아 제 동무의 잔등뒤에 숨어버리던 순애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렸다.

3

《한가지 토론할게 있네.》
어느날 아침, 친구가 불쑥 꺼낸 말이였다.
《뭘 토론한다는건가?》
《순애한테 신랑감을 소개하자는거네.》
배심이 든든하기로 소문난 한홍식이였지만 그 말에는 엉치에 불이 달린것처럼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친구가 이상야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놀라나?》

한홍식은 공연히 얼굴이 뻘개서 말을 얼버무렸다.

《놀라기야 뭐.》

《그렇다면 좋구. 자, 보게.》

친구는 품속에서 사진을 꺼내주었다. 손바닥만한 사진속에 고급양복에 넥타이를 받쳐맨 멋쟁이남자가 자신만만한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공장에서 기사로 일하는데 사람이 괜찮다누만.》

《그렇겠지.》

《인물체격도 그만하면 그쯘하구.》

《그렇겠지.》

아무런 의미없이 꼭같은 말을 외우는 한홍식은 자기가 손에 힘을 꽉 주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니, 사진이 찢어지겠네.》

내려다보니 벌써 사진가운데가 움푹 우그러들었다.

사진을 앗아든 친구가 툴툴거렸다.

《처녀한테 선을 보일건데 이렇게 만들면 어쩌라는건가?》

한홍식은 속으로 그까짓거 하고 코웃음을 쳤다.

정성들여 사진을 바로 편 친구는 흡족해하며 물어왔다.

《이 사람을 신랑감으로 붙여주는데 반대없겠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자네 승인을 받지 않고 방자노릇을 하다가 그 무쇠주먹에 머리가 깨져나갈가봐 그러네.》

《제발 그런 걱정일랑 말게. 나와 순애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한홍식은 대범한체하고 둘러쳤지만 예리한 쇠붙이가 심장을 쿡 찌르는것같은 아픔을 느꼈다.

사실 그전날의 순애는 애어린 꽃망울과도 같았다.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무서워할가봐 집에까지 데려다주었고 다음날이면 그가 힘들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할가봐 은근히 걱정하기도 하였었다. 세월은 연약하던 그 꽃망울을 활짝 피워주었다. 오늘에 와서 순애는 총각이라면 누구나 욕심을 낼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그 꽃을 다른 사람이 꺾으려고 하고있는것이다.

가슴속에 시기심이 치밀어오르는것을 느끼며 좀 언짢은 어조로 물었다.

《그런데 순애가 그 사람을 좋다고 하겠나?》

《이렇게 훌륭한 남자를 마다할 처녀가 어디 있겠나.》

친구가 그처럼 자신만만해하자 가슴만 훌떡거릴뿐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 반대가 없다는거지?》

한홍식은 속이 불끈해서 어성을 높였다.

《왜 자꾸만 나한테 물어보나?》

《자네야 순애의 스승이 아닌가.》

《스승은 무슨. 그야 지난날의 일이지.》

친구는 그 말이 진심인지 가늠해보려는듯 자세히 살펴본다.

《좋네. 그렇게 하세. 참, 잊지 말고 부조나 착실히 준비하게.》

그가 방을 나서자 한홍식은 안절부절 못하였다. 마음을 진정할 수 없어 방안을 오락가락하다가 뭔가 밟았는데 축축해서 보니 푹 젖은 방걸레였다.

제길!

순애한테 신랑감을 소개해주겠다고 나선 친구가 미워났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극성인가?

부지불식간 자기가 독감을 앓고있을 때 찾아왔던 순애가 생각났다.

온밤 뜬눈으로 간호하던 처녀, 고열이 내리자 기뻐하며 잉어탕을 끓여서 대접하던 순애…

자기를 그처럼 헌신적으로 돌봐준 순애가, 자기를 그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처녀가 생판 남한테 훌쩍 시집간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막터지는것같았다.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힘껏 내리쳤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친구가 인차 건너왔다.

《무슨 일인가?》

《집에 술이 있나?》

《아침술이 건강에 나쁘다는걸 모르나?》

《술이 있나 묻지 않나?》

남은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친구는 뜬뜬해하였다.

《왜, 가슴속에 불이라도 난게지?》

《그렇네.》

느물거리고있던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고백하게. 자넨 순애가 다른 남자한테 출가하는걸 바라지 않겠지?》

《…》

《그럴줄 알았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던 친구가 뜻밖의 말을 던졌다.

《오늘 저녁에 순애를 만나라구.》

한홍식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사진을 꺼내놓으면서 순애한테 신랑감을 소개하겠다고 극성이던 친구가 어쩌자는건지 알수 없었다.

《순애한테 련락하겠으니 늦지 말라구.》

《그럼 그 사진은…》

품속에서 사진을 꺼낸 친구는 껄껄 소리내여 웃었다.

《이건 우리 매부인데 두 자식을 가진 아버지일세.》

《엉?》

비로소 속았다는것을 깨달은 한홍식은 자기의 애간장을 태워준 친구가 괘씸해나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툭 쳤다.

뒤로 벌렁 넘어진 친구는 자고로 중매군을 이렇게 박대한 사람은 일찌기 없었다고 죽는 시늉을 하였다.

그날 저녁, 두사람은 모래불에서 만났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으나 한홍식은 발이 푹푹 잠기는 모래불을 거닐기만 하였다.

순애가 어떤 태도로 나오겠는지 자신없었다. 물론 일전에 명숙이가 그를 대상자라고 내세웠고 또 친구가 암시를 했다니 오늘 만나자고 한 리유를 짐작하고는 있겠지만 처녀의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단말인가. 제일 두려운 일은 자기를 단지 공부를 배워준 스승으로만 여기고있는 순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소리가 따라오고있었다. 순애는 자기의 이야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이런 땐 무슨 말부터 꺼내야 좋단 말인가?

무춤 멈춰선 한홍식은 달빛에 훤히 드러난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천만개의 작은 거울이 뿌려진듯 령롱하게 반짝이는 바다!

중간에서 늠실늠실 물결이 일어나더니 머리를 높이 쳐든 파도가 달려오다가 솨, 철썩— 하고 모래불과 부딪쳤다. 마치도 그 광경은 열정적인 총각이 얌전한 처녀한테 불같은 사랑을 고백하는듯한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그 평범한 자연현상이 호미난방의 처지에 빠진 가련한 총각한테 얼마나 큰 힘을 안겨주었는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순애, 저기 좀 앉지 않겠소?》

한홍식은 가까운 곳에 있는 펑퍼짐한 너럭바위를 가리켰다.

그가 먼저 걸음을 내짚자 처녀는 약간 망설이더니 말없이 따라왔다.

바위에 걸터앉은 한홍식은 용기를 짜내여 입을 열었다.

《난 말이요. 리해되지 않는게 있소.》

사실 그것은 미리부터 준비하고있은 이야기가 아니였다. 그저 순애와의 관계에서 인상에 남았던 일을 입에 올렸을뿐이였다.

《선생님, 뭡니까?》

의외로 순애가 말을 받아주자 마음이 차츰 편안해졌다.

《내가 독감에 걸렸을 때 말이요. 순애가 왜 간호해주었을가?》

《아이참, 선생님이 앓고계시는데 돌봐드리는거야 응당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옆에 사람도 없었는데.》

점점 확신이 생긴 한홍식은 자기가 원하는 곬으로 화제를 이끌고갔다.

《헌데 다른 학생들은 독감에 옮을가봐 움쩍하지 않았거던.》

《어쨌든 전 선생님이 빨리 완쾌돼서 교단에 섰으면 했습니다.》

《나도 그게 진심이라는걸 아오.》

타오르는 용기가 식지 않도록 기침을 크게 깇은 그는 드디여 본론으로 들어갔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날더러 결혼하라고 독촉이 불같소.》

순애는 고개를 소곳한채 나직이 응답하였다.

《선생님이 결혼하는거야… 응당하지 않습니까.》

《응당하단 말이지?!》
점점 대담해진 한홍식은 옷주머니에서 동그란 손거울을 꺼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둔 처녀를 한번 봐주겠소?》
순애는 처음으로 머리를 들었는데 달빛속에서 한쌍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고있었다.
《제가… 꼭 봐야 합니까?》
《그렇소. 봐야 하오.》
주저주저하며 내민 처녀의 손도 알릴듯말듯 떨리고있었다.
《잘 보우.》
밝은 달빛을 불빛삼아 거울을 들여다본 순애가 의아해하였다.
《선생님, 이건 빈 거울이 아닙니까?》
순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높뛰기 시작한 심장이 이제는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것같았다.
《왜 빈 거울이라고 그러오? 그안에 처녀가 있는데.》
《아이참, 이건 제가 아닙니까?》
《옳소. 순애요.》
그때에야 이상한 감촉을 느꼈는지 처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봐둔 처녀는 바로 순애란 말이요.》
《어마나!》
순애는 채찍에 얻어맞은것처럼 깜짝 놀라며 뛰쳐일어났다. 그러다가 급기야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순애, 난 순애를 사랑하오. 이건 진정이요.》
이 순간의 한홍식은 그전날의 스승이 아니였다. 사랑에 빠진 열정적인 구혼자였다.
《선생님, 전…》
순애는 숨이 가빠서 말도 제대로 못한채 할딱거렸다.
《…이 일을 어쩌나? 이 일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정녕 믿어지지 않는듯 두손을 내리우던 순애는 이글이글 불타고있는 두눈을 보자 기겁해서 고개를 떨구었다.
세차게 오르내리던 처녀의 동실한 어깨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선생님!》
한홍식은 저도 모르게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 대답하는 처

녀의 말에 자기의 사랑이, 아니 운명적인 문제가 좌우되는것이다.

《전 아직… 그 문제를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역시 순애는 자기를 스승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있었던것이다.

《그럼 이제라도 생각해보면 될게 아니요?》

《…》

《좋소. 삼일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요.》

응답도 하지 못한 순애는 부끄러운 모양 허둥지둥 뛰여갔다.

삼일후 한홍식은 그 너럭바위에서 처녀를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이 퍽 지났지만 순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나하고 다음날에도 나갔지만 처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에야 한홍식은 엄연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 순애는 자기를 스승으로 존경할망정 일생을 함께 할 반려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은것이다.

《혹시 순애한테 일이 생긴건 아닐가?》

두사람사이에 열심히 줄을 놓아주었던 친구가 걱정하였다.

한홍식은 싱글싱글 웃었다. 하지만 오늘만은 사람좋게 느껴지던 그 웃음마저 서글프게 떨고있었다.

《난 래일 떠나겠네.》

다음날 오후 역으로 나가려고 짐을 정리하고있는데 친구가 쪽지편지를 가져왔다. 그것은 순애가 보낸것이였다.

서둘러 편지를 읽어본 한홍식의 얼굴은 컴컴하게 질렸다.

4

흥남지구인민공장 조사계획부 차장(당시) 강영창은 손님을 만나고있었다.

해방전 중국 동북의 어느 화학공장에서 기사로 일하다가 귀국했다는 그 사람은 턱에 밤알만한 화상자리가 있는 남자였다.

강영창은 곡진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난 라기사가 여기에 남았으면 합니다.》

허물자리를 지워버리려는듯 손으로 턱을 슬슬 비비던 기사는 난색을 지었다.

《나두 웬간하면 눌러앉고싶지만 어디 형편이 그렇습니까.》

강영창은 손맥이 풀렸다.

이 량반을 어떻게 설복한다?

…안해의 부축을 받으며 부모형제가 있는 대구로 돌아와 안정치료를 받고있던 그가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을 듣고 용약 북으로 들어온것은 지난 10월말이였다. 그후 흥남지구인민공장 조사계획부 차장으로 배치되여 이곳 흥남비료공장에 도착하니 실태가 말이 아니였다.

흥남비료공장은 일제가 제1차 세계대전후 심각하게 제기된 자국내 식량문제를 주로 조선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는것으로써 해결하기위해 세운 소위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1927년에 건설되였다. 하지만 매우 기형적이고 기술장비수준도 한심했으며 생산량마저 보잘것없었다. 그나마 패망한 왜놈들이 달아나면서 공장을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장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술자가 손을 꼽을 정도라는 사실이였다.

왜놈들이 아무리 악착하다 해도 이렇게까지 악착할줄은 몰랐었다. 그렇다고 맥을 놓고 앉아있을수 없었다. 38°선을 함께 넘어온 려순공대 동창생들인 김두삼과 두순정, 중학교 후배인 리재엽과 머리를 맞대고 설비복구에 착수하였다.

한달후 강영창은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처음으로 류안비료를 생산

하기 시작하였다. 했으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모든 생산공정을 원상대로 복구하자면 뭐니뭐니해도 기술자가 필요하였다. 왜놈들이 감춰둔 설계문건을 찾아냈지만 까막눈인 로동자들은 도리머리를 저었고 설비들을 제작하자고 해도 유능한 기술자가 있어야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기술자들을 가지고 공장을 복구한다는것은 어림도 없었다. 그래서 원산이든 황해도이든 기술자가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군 하였는데 끼니를 건늬고 구두가 너덜너덜해진데 비하면 소득이 적었다. 그런 판에 중국 동북에서 기술자가 제발로 찾아왔으니 그야말로 호박을 잡은셈이였다. …

이 량반을 붙잡아둬야겠다고 작정한 그는 귀한 손님들한테만 권하던 가치담배를 꺼내놓았다.

《한대 피우십시오.》

《난 끊었습니다.》

담배곽을 집어넣고 우물거리다가 손을 쑥 내밀었다.

《그러지 말구 우리 손잡구 해봅시다!》

라기사는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앞으로 뻗쳐온 손을 보기만 하였다.

강영창은 제발 그가 돌아가겠다는 말만 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랬다. 그런데 라기사는 신통히도 그 말을 끄집어냈다.

《안됐지만 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동북으로 가겠다는겁니까?》

《아니, 쏘련에 가겠습니다.》

《쏘련에 말입니까?》

《예.》

《그 나라도 금방 전쟁이 끝나고 복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본시 토대가 든든해서 인차 일떠설겁니다.》

이 량반 조선사람이 맞긴 맞는가? 까마귀도 내 땅 까마귀라면 반갑다는데 갓 해방된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니, 허 참.

라기사는 할 말을 다했다는듯 의자에서 움쭉 일어났다.

이번에는 그쪽에서 손을 내밀었다. 두사람이 손을 맞잡고 흔들면 라기사는 이 공장에서, 아니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는것이다.

금싸래기같은 기술자가 강영창의 눈앞에서 사라지려는 그 순간 사무실문이 활짝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섰다. 두눈이 큼직큼직하고 가

슴팍은 함마에 얻어맞아도 끄떡없을만큼 든든해보였다.

《차장동지, 제가 왔습니다.》

라기사문제로 어두워졌던 강영창의 얼굴은 불시에 환해졌다.

《아, 한홍식동무!》

너무도 기쁜김에 그는 무슨 일에나 침착하고 진중하던 자신을 잊어버리고 청년의 손을 열정적으로 잡아흔들었다.

얼마전 강영창은 희한한 소식을 들었다. 글쎄, 공장주변에 물리와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다는것이 아닌가.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더니 그런 인재가 가까이에 있을줄이야.

다른 일을 모두 걷어치우고 그 집에 찾아가니 마침 한홍식이라는 청년은 코구멍만한 뜨락에서 하나둘, 하나둘 하고 아령운동을 하고있었다. 근육이 울근불근한 두팔로 아령을 좌우로 휘두르는것을 보자 저 친구가 혹시 력기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의문은 그가 꺼내준 도꾜물리과대학 졸업증을 보자 사라졌다.

기분이 좋아진 강영창은 직방 물었다.

《래일부터 비료공장에 나올수 있겠소?》

나오겠다고 할줄 알았던 한홍식은 아래방문을 곁눈질하며 주밋거렸다.

《무슨 사정이 있소?》

《차장동진 모르고 오신것같은데 저의 부친은 해방전에 군수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얼굴이 컴컴해진 한홍식은 해방전 부친이 왜놈들의 군수노릇을 하다가 나라가 해방되자 쓰고살던 집과 재산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토설하였다.

아령운동을 할 때와 달리 기가 죽은 그를 보자 가슴이 답답해났다. 군수를 지냈다고 하니 한홍식의 부친은 갈데 없는 《악질친일파》였던것이다.

축 처진 한홍식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너무 마음쓸건 없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개선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조국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소.》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럼 뭘 주저하오? 설사 부친이 군수였다고 해도 그게 동무의 죄로 될수야 없지 않소.》

한홍식은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동무, 지금 새 조선은 동무 같은 인재들을 기다리고있소. 동무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공장복구에 떨쳐나서야 할게 아니요.》

평시에는 도수높은 안경을 추스르며 책이나 도면속에 파묻혀있지만 일단 흥분하면 열정적인 웅변가로 변하는 강영창이였다.

헤여질 때 한홍식은 생각해보겠노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더니 족쇄마냥 발목을 붙잡고있던 부친의 과거를 풀어던지고 찾아온것이다.

난로우에 올려놓은 알루미니움주전자가 끓어넘치고있었다.

《이 정신 봤나.》

해방전 복막염을 수술하면서 뭉청 잘라낸 창자때문에 편치않은 아래배를 내리쓸던 강영창은 작업복주머니에서 벙어리장갑을 꺼냈다. 그런데 장갑을 끼고 돌아서니 한홍식이 맨손으로 고리가 떨어진 주전자를 잡고 바닥에 내려놓고있는게 아닌가.

《엉? 데지 않았소?》

한홍식은 그쯤한건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구들장처럼 두터운, 덴자리가 하나도 없는 손바닥을 펴보였다.

놀란 눈으로 그를 지켜보던 강영창은 이렇게 물었다.

《한동무, 이제라도 일에 착수할수 있소?》

강영창의 머리속에는 벌써 한홍식을 류안비료직장 복구책임자로 내세울 계획이 서있었다.

《예, 할수 있습니다.》

《좋소, 괜찮아!》

한홍식의 넙적한 잔등을 두드려주던 강영창은 라기사가 슬그머니 방을 나서는것을 발견하였다.

《라기사!》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치던 강영창은 방안으로 들어오는 다부진 사람과 부딪쳤다. 이곳 흥남비료공장 공장장이였다.

《차장동무, 그만두시우. 싫다는걸 붙들어선 뭘 합니까?》

손을 휘휘 내젓던 공장장은 옆에 있는 한홍식을 바라보았다.

《동문 누구요?》

《한홍식이라고 합니다.》

껌벅거리던 공장장의 시꺼먼 눈에 섬광이 번뜩이였다.

《한홍식? 가만, 부친이 군수를 하지 않았소?》

한홍식의 얼굴은 출강을 앞둔 쇠물처럼 뻘겋게 달아올랐다.

소문이란 날개가 없어도 어찌나 빠른지 공장장은 벌써 아버지일을 알고있었다.

《예.》

《여긴 왜 왔소?》

《공장에 입직하려고 왔습니다.》

《여보, 여기가 뭐 아무나 받아주는 려관인줄 아는가. 계급적으로 투철한 프로레타리아들만이 들어올수 있는 전초선이란 말이요.》

첫눈에 《악질친일파》의 자식을 적발한 공장장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공장을 복구하지 못할줄 아는가? 원, 나중엔 별의별 어중이떠중이들이 다 모여드는군.》

한홍식의 입에서 불같은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난 건국을 하자고 왔단 말입니다, 건국을!》

강영창은 후들후들 떨고있는 그의 큼직한 손을 붙잡았다.

《한동무, 입직문제는 다시 토론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오.》

한홍식이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뛰쳐나가자 공장장은 펄펄 뛰였다.

《저녀석이 기술자라는게 맞긴 맞습니까?》

강영창은 코등에 흘러내려온 도수안경을 손으로 밀어올렸다.

《공장장동무, 그래 어떻게 하잡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저 동물 공장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장동문 <악질친일파>의 자식을 받자는겁니까?》

《새 조선을 위해 기술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귀중히 여깁시다.》

공장장은 계속 고집을 세웠다.

《난 반대입니다. 그리고 말이 난김에 한가지 충고하겠습니다.》

《말하시오.》

《차장동무 쩍하면 기술자가 없으면 공장을 복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믿지 못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사람을 맞대놓고 어마어마한 감투를 뒤집어씌우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어째서 가정주위환경이 나쁜 인간들을 싸고도는가 말입니다. 난…》

그때 책상우에 놓여있는 전화종이 귀따갑게 울렸다.

강영창은 송수화기를 들어 귀에 가져갔다.

《여긴 시보안서입니다. 강영창동지 있습니까?》

《내가 강영창입니다.》

《확인할게 있으니 즉시 오십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수화구에서 붕, 붕— 하는 단절음소리가 울려나왔다.

저쪽에서 송수화기를 내려놓은것이다.

5

《강영창동무입니까? 내 시보안서 서장입니다.》

너렁청한 방의 주인은 40대의 남자였다.

《손님한테 걸상을 가져다주오.》

체구가 도람통같은 보안서원이 나무걸상을 가져다주었다.

걸상에 앉은 강영창은 보안서장이 왜 날 찾았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확인할게 있어 불렀습니다.》

눈짓으로 부하를 내보낸 보안서장은 책상우에 올려놓은 두손을 틀스럽게 깍지꼈다.

《우리가 료해한데 의하면 동문 해방전에 미쯔비시전기주식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했다는데 옳습니까?》

《예.》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조수로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한 강영창은 보안서장의 손에 자연 눈길이 갔다. 깍지를 낀 두손이 미묘하게 움직이고있었던것이다.

《조수로 있으면서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첫 순간 강영창의 머리속에 먼저 떠오른것은 이마무라의 비죽 나온 입술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봐도 연구사업은 고사하고 조수일도 온전히 해본적 없는 그곳에서 보안서의 관심을 끌만한 일을 한것은 없었다.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유감이요. 난 동무 솔직한 사람으로 알고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왜놈항공기술협회에 드나든 사실은 왜 말하지 않소?》

강영창은 연구소에 있을 때 가끔 이마무라의 지시로 항공기술협회에 심부름을 가군 하였었다.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은것은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두번인가 갔다온 심부름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보안서장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숨기려는

것처럼 말하고있었다.

《그런것까지 말해야 합니까?》

《바로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다는거요.》

중요한 단서를 쥐였다는듯 보안서장은 두손을 바싹 마주 꼈다.

《당신의 솔직성은 어디까지로 봐야 하오?》

동무로부터 당신이라고 부름말을 바꾼 그를 보자 강영창은 문득 자기가 《꿩사냥군》과 마주앉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시절에 그는 꿩을 사냥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닌적 있었다. 그들은 꿩들이 잘 내리는 밭이나 산기슭에 좁은 구뎅이를 파고 사람의 손냄새가 나지 않도록 흙으로 매닥질한 콩을 뿌려주었다. 굶주린 꿩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구뎅이안에 몸뚱이를 밀어넣었는데 다시 나오려고 날개를 펴면 구뎅이가 좁아서 펼수 없다. 결국 꿩은 멀리서 지켜보던 사냥군이 다가올 때까지 옴짝 못하게 된다. 지금 앞에 마주앉아있는 보안서장이 바로 그 《꿩사냥군》을 방불케 하였다.

《콩》을 뿌려놓고 《꿩》이 구뎅이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사냥군…

《그 문제는 그쯤하기요.》

두손의 깍지를 풀고 담배를 꺼낸 보안서장은 성냥불을 붙였다. 허공에 담배연기를 동글동글 내뿜는 그의 얼굴에 득의만면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서장동무, 확인할 문제가 또 있습니까?》

보안서장은 묘한 웃음을 지었는데 강파른 얼굴은 당신이 이제야 바빠났지 하고 비웃고있는듯싶었다.

태연자약해서 담배를 다 태운 그는 또다시 두손을 깍지꼈다.

《무던히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데 안됐지만 또 묻겠소. 지난 10월 17일 당신은 김두삼, 두순정, 리재엽과 함께 원산에 도착해서 시내를 돌아본 다음 인차 흥남으로 왔다고 했다는데 옳소?》

《옳습니다.》

《이번엔 어디 솔직히 말해보우. 그래, 당신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38°선을 넘어왔소?》

마침내 본론이 나온것이다. 지금까지 자기의 경력을 조목조목 따지고든것은 풀덤불을 뒤져서 숨어있던 꿩이 함정으로 들어가도록 내

모는 몰이에 지나지 않았다.

강영창은 사실그대로 설명하였다.

《난 대구에서 병치료를 받다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기술이나마 새 조선에 바치자고 38°선을 넘어왔습니다. 목적이라면 이게 답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사람의 입이란 믿을게 못되지. 두뇌의 지시에 따라 열렸다닫겼다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강영창은 야금야금 파고드는 심문에 그만 참을성을 잃고말았다.

《대체 뭘 알자는겁니까?》

《이미전에 그 질문을 했더라면 우리 담화는 인차 끝났을거요. 자, 이젠 말해보오. 당신은 미<군정청>과 어떤 관계에 있소?》

강영창은 놀란 나머지 걸상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였다.

내가 미《군정청》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구?

결국 보안서장이 요리조리 비틀면서 파고든것은 바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였다. 먼저 그 문제를 물어보지 않은건 흥남지구인민공장 조사부 차장의 체면을 존중해서인가? 아니면 로련한 《꿩사냥군》이기때문인가?

안경알에 물기가 어린것을 발견하였다. 추운 밖에 있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니 그렇게 된것이다. 양복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들고 안경알을 닦기 시작하였다. 안경알을 깨끗이 닦고나자 격한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선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력사적인 8월 15일은 무더웠다.

왜왕의 항복방송이 끝난 뒤 15시쯤 돼오자 마치 해방조선을 축하하듯 구름은 활짝 걷히고 하늘도 맑게 개이였다.

흥분한 조선사람들은 거리로 떨쳐나와 《조선해방 만세!》를 목터지게 웨쳤고 곳곳에서 춤바다가 펼쳐졌다. 굳게 닫겼던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의 철문이 련이어 열리고 수감자들이 막혔던 동이 터진듯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8.15해방은 결코 민족해방이라는 축복만을 가져오지 않았다. 한지맥을 잇고 화목하게 살아온 삼천리강토의 한복판에 난데없는

《38° 선》 표말이 생겨난것이다.

괴이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어째서 패망한 왜놈땅이 아니라 우리 땅에 이런 표말이 생겨났는가?

조선사람들은 왜놈들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진주한 미군이 인차 제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의논하여 새 조선을 일떠세우게 될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었다.

쾌청하던 하늘에서 별안간 마른벼락이 쳤다.

8월 24일 련합군총사령관 맥아더는 미24군사령관 하지에게 남조선을 효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전 조선총독부 관리들을 최대한 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선사람들의 복수가 두려워 숨도 제대로 못쉬던 왜놈들은 망해버린 저희들의 세상이 되돌아온듯 거들먹거리며 거리에 나와 돌아쳤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이게 해방이 맞는가? 어째서 미국은 왜놈들한테 치안을 맡기는가?

9월 2일 38° 선을 경계로 남에서는 미군이 왜놈군대의 무장해제를 담당한다는 《일반명령》 제1호가 발표되였다. 9월 6일에는 미24군소속 선발대가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선발대장 해리스는 이전 조선총독부 총독과 총감을 그대로 두는 통치방법을 제시하여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있던 일본인관리들이 너무도 황송하여 눈물을 머금게 하였다.

9월 7일 미국비행기가 날린 삐라에는 《사회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자 등은 사형을 포함한 엄벌에 처한다.》고 적혀있었다.

《조선해방 만세!》의 함성이 사라져버린 거리에 괴괴한 정적이 깃들었다.

9월 8일 인천에 기여든 미군은 《맥아더포고》에 선포한대로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성일보》는 《일장기는 내렸지만 일본정권은 보존되였다. 그 반대가 낫지 않을가?》라고 불길한 미래를 걱정하였다.

9월 11일 미국은 《군정청》을 수립하였으며 초대《군정장관》으로 미제7보병사단장 아놀드를 임명하였다.

이렇게 되여 반만년의 력사를 이어온 한민족의 절반이 또다시 식

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써야 하였다.

집에서 안정치료를 하고있던 강영창은 해방정국의 흐름을 예리하게 주시하였다. 그도 처음에는 해방의 감격에 가슴이 부풀어올라 해방만세를 불렀었다. 그렇지만 인민들의 총의로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미군을 보자 생각이 깊어졌다.

그무렵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할수 없는 행운이 찾아들었다. 려순공대시절부터 흠모하고 따르던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개선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던것이다.

강영창은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38°선을 넘었다. …

《그럴듯하구만, 아주 그럴듯해. 당신은 연극대본을 써도 되겠소. 한가지 더 묻기요. 어째서 부인이랑 자식들은 남쪽에 남겨두고 들어왔소?》

《맏이가 심하게 앓아서 먼저 왔습니다. 가족은 후에 데려오기로…》

대답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암비둘기울음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깍지를 낀 두손을 폈다접었다 하면서 보안서장은 속삭이듯 뇌까렸다.

《차라리 탈출에 편리하도록 떨궈두고 왔다고 말하는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가?》

강영창은 억이 막히고말았다.

이젠 사건을 결속할수 있다고 여겼는지 《꿩사냥군》은 깍지꼈던 두손을 풀고 책상모서리에 붙어있는 단추를 눌렀다.

의자를 가져다준 보안서원이 들어섰다.

《여기 류치장은 조건이 좋지 못하오. 하지만 당신처럼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한텐 적절한 곳이요. 백동무, 데려가오.》

류치장에 들어간 강영창은 벼짚속에 파묻혀있는 사람을 알아보았다. 그는 쏘련으로 간다고 떠났던 라기사였다.

《역전에서 단속당했습니다. 헌데 차장선생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입이 쓰거워난 강영창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6

해방후 처음으로 맞이한 정월이였다.

식어가는 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은 류기연은 얼어드는 두손을 비비고 교원들이 제출한 강의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미흡한 점들은 보충하고있는데 추진석이 찾아왔다.

《뭘 하나?》

검토가 끝난 강의안을 옆으로 넘긴 류기연은 앞으로 다가오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강의안을 검토하는중일세.》

《문교부 담당관이 나온다는데 가야 하지 않겠나?》

그제서야 그는 전체 교원들은 17시까지 회의실에 모이라고 포치한 지시가 생각났다.

《가봐야지.》

방을 나와 회의실쪽으로 가는데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말을 꺼냈다.

《오늘두 좌익하구 우익하구 또 붙었네.》

그의 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하여 새해를 넘기고 1월이 다 지나가는 오늘까지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친탁》과 《반탁》지지세력간의 격렬한 충돌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지난해 12월말 모스크바에서는 쏘련과 미국, 영국간의 외무상회의가 열렸다. 전후처리과정에 미진된 문제들을 토의한 그 회의에서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이 발표되였는데 《동아일보》는 그것이 미국의 교활한 음모인줄도 모르고 입빠르게 쏘련이 《신탁통치안》을 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후에 밝혀진바에 의하면 《신탁통치안》을 주장한것은 쏘련이 아니라 미국이였다. 1945년 2월에 열린 얄따회담에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조선인은 자치능력이 없다. 아마 40년 내지 50년정도는 신탁통치를 해야 할것같다.》라고 하였다. 그해 10월말 미국무성 극동

국장 빈센트 역시 미국외교정책협의회에서 《극동에서의 전후시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조선은 오래동안 일본의 통치아래에 있었기때문에 자치를 할수 있는 준비가 되여있지 않으므로 당분간 미국과 쏘련, 영국, 중국이 공동관리하는 《신탁통치》를 받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신탁통치》를 주장한 나라는 미국인데 그 불똥을 뒤집어쓴 나라는 쏘련이라는 사실이였다.

미《군정청》은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이 나오자 음으로양으로 반쏘여론을 조성하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신식민지통치실현을 위해 《반탁운동》을 교묘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추동하였다. 한편 리승만은 채머리를 떨면서 졸개들을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반대하는 《반탁운동》에로 내몰았다.

이에 대처하여 좌익세력은 조선에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3상회의결정을 지지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하여 좌익과 우익이 무섭게 충돌하였다.

그 류혈의 와중속에 1946년이 비운의 검은 그림자를 꼬리에 달고 서서히 밝아왔던것이다. …

두사람이 회의실에 들어선지 얼마 안되여 금발머리의 미군장교가 주석단에 나타났다.

좌중을 향해 정중히 거수경례를 한 그는 영어로 몇마디 하였다.

옆에 서있던 통역이 마치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라도 하듯 공경한 자세로 통역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신성한 교정에 군복을 입고 나타난데 대해 심심히 사과하는 바입니다.》

대학에 나온 《군정청》 문교부 담당관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있던 교원들이 웅성거렸다.

《거 첫인상이 좋구만.》

《음, 군인이지만 지성이 느껴지누만.》

문교부 담당관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듯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내 이름은 스미스입니다. 하바드대학 문학부를 나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바드대학은 오랜 력사를 가진 사립종합대학입니다. 이처럼 유서깊은 대학에서 공부한 내가 <무기여, 잘 있거라>를

쓴 헤밍웨이와 같은 작가가 되지 않고 군복을 입은것은 저주로운 전쟁때문입니다. 만일 사무라이들이 진주만을 기습하지 않았다면 태평양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것이고 나도 지금쯤 원고지를 넘기면서 소설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랑만적인 색채가 짙은 그 이야기를 듣자 교원들은 스미스가 몇달전까지만 해도 총탄이 날아들고 육박전이 벌어지는 전투에서 피흘리며 싸운 군인이 아니라 점잖은 신사로 생각하였다.

류기연도 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천부두에서 승용차를 함께 타고오면서 담화를 나눌 때도 그랬지만 서울에 도착하자 자기와 동료들에게 《적산》가옥과 직업을 마련해주는것을 보면서 느낀바에 의하면 스미스는 여느 군인들한테서는 찾아보기 힘든 넓은 리해력과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였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것은 대학운영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서로 경계하고 질시할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난 당신들이 호상 리해하고 타협하면서 해방조선의 후대들을 육성하는 사업에 매진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새로 임명된 교무주임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옆으로 돌아서자 키가 늘씬한 남자가 주석단으로 걸어나왔다. 좌중을 향해 인사를 한 그는 침착하게 자기소개를 하였다.

《안녕들 하십니까? 전 사은룡이라고 합니다.》

류기연은 놀라서 두눈을 크게 떴다. 새 교무주임의 모색은 신통히도 오노와 비슷하였던것이다. 다른것이 있다면 오노는 긴 머리칼을 옆으로 단정하게 넘겼지만 교무주임은 머리를 짧게 깎은것이였다.

세상에 꼭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저 사람은 오노가 아니야. 이름도 사은룡이라고 하지 않는가.

옆에 앉은 추진석도 웃몸을 앞으로 숙이고 주석단을 주시하다말고 중얼거렸다.

《이럴수 있나? 왜놈이 조선사람으로 둔갑하다니.》

분명 그도 자기처럼 사람을 섞갈린것같았다. 랭철하다는 미국사람들이 일반교원도 아니고 해방조선에서 유일한 대학의 교무주임을 임명

하면서 경력을 료해하지 않는다는건 말도 안되기때문이였다.

스미스가 좌중을 둘러보며 알려주었다.

《다들 알고있지만 현재 학장은 결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새 교무주임선생이 학장사업을 맡아보기로 토의가 있었습니다.》

새 교무주임도 겸손한 자세로 그의 말을 받아넘겼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이처럼 과분한 신임을 받으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중임을 꽤 감당해낼수 있겠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서 모르는것은 배우고 부족한것은 보충하면서 교육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겸손하고 가식없이 느껴지는 그 말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인물도 잘났지만 사람됨도 괜찮을것같소.》

《언변도 청산류수요.》

교원들의 평판과 달리 속이 좋지 않아서 끙끙거리는 사람은 유독 추진석뿐이였다.

《모를 일이야. 어떻게 왜놈이…》

류기연은 슬며시 그의 팔을 잡았다.

《조용하게. 저 사람은 오노가 아닐세.》

《아니, 틀림없네.》

그가 고집할 때는 황소 열마리가 끌어도 소용없었다.

친구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류기연은 더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다. 하늘땅이 바뀌면 바뀌였지 오노가 하루아침에 조선사람으로, 더구나 교무주임으로 둔갑할수는 없는것이다.

교무주임의 곡진한 말소리가 봄바람처럼 좌중속으로 흘러들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일은 여러분들이…》

그의 이야기가 도중에 끊어졌다. 추진석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던 것이다.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교무주임을 노려보던 그는 몸을 홱 돌리더니 출입문쪽으로 씨엉씨엉 걸어갔다. 그 태도에서는 새 교무주임에 대한 불신과 도전이 강하게 드러나고있었다.

추진석의 돌발적인 행동에 교원들은 어리벙벙해졌다.

《추선생이 왜 저러우?》

《그러게 말이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한것같구만.》

한시간후 류기연은 교무주임이 찾는다는 련락을 받았다.

복도를 따라걷느라니 이제 오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별스러웠다.

《아, 류선생!》

교무주임의 방에 들어서자 방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목구비가 번듯한 얼굴과 의젓한 몸가짐을 보자 추진석이 고집을 부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다가온 교무주임은 구면지기라도 만난것처럼 반가와하였다.

《날 못알아보겠소?… 나요, 오노 사부로!》

눈앞에서 하늘과 땅이 바뀐것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있었다.

오노 사부로라구? 이 사람이 정말 그 오노란 말인가?

《그럼 이렇게 말하면 믿겠소? 대리과장, <아시아>호제동기수리, 자동공기제동기도면…》

이제 와서 그가 오노라는것을 의심할수 없었다. 새 교무주임은 틀림없는 오노 사부로였다. 친근하게 웃고있는 그의 얼굴우에 다른 얼굴이 겹치고있었다.

오노 사부로, 아니 이제는 사은룡이라고 불러야 할 이 사람은 려순감옥에 한번도 오지 않았다. 처음은 섭섭하였고 다음은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직장을 그만두었는가 하고 안해한테 물어보니 출근길에서 만나군 하는데 오노의 태도가 그전과 다르다고, 인사를 해도 마지못해 받는다고 하였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유끼를 죽였다고 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만철시절 오노는 유끼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였다.

어느날 류기연은 본부청사앞에 있는 공원에서 다투고있는 한쌍의 남녀를 발견하였는데 오노와 유끼였다. 거리가 멀어서 말소리가 똑똑치 않았지만 녀자쪽에서 남자를 나무라는 형국이였다.

그들이 따분하지 않도록 지나가려는 찰나 공교롭게도 오노와 눈

이 마주쳤다. 순간 그의 얼굴에 바빠하는 기색이 어리는것이였다.

저들이 련애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만도 하였다.

오노는 집에 들어가도 반갑게 맞아줄 안해가 없는 독신이였고 유끼 역시 숱한 남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는 해도 일생을 의지할 반려자를 만나지 못한 미혼녀였다. 그러니 두 남녀가 련애한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그들의 련애는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하여튼 결과는 어찌되였든지 오노는 유끼가 잘못되였으니 《살인범》한테 증오를 품을수도 있었다. 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청백함을 증명해보이고싶었고 그래서 더욱 오노가 찾아왔으면 했는데 종시 감옥에 오지 않았었다.

왜놈들이 패망한 후 추진석의 등에 업혀 려순감옥에서 나와보니 오노는 이미 집에 없었다. 그런 사람을 해방된 조국에서, 그것도 대학에서 만날줄이야.

《자, 손이라도 잡아보기요.》

그가 내민 손을 마주잡은 류기연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물었다.

《그건 차차 말하기요. 참, 우리 저녁에 마주앉아 회포를 나누지 않겠소?》

마주잡은 손을 놓지 않고있는 사은룡의 얼굴에 특유의 침착하고 선량한 웃음이 어려있었다.

저녁무렵 류기연은 추진석과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추진석의 집은 그의 집에서 퍼그나 떨어져있었다. 두사람은 먼저 맞다들리는 류기연의 집앞에서 짤막한 인사말을 나누고 헤여지군 하였다.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두 친구사이에 심각한 이야기가 오갔던것이다.

《진석이, 내 한마디 하겠네.》

《말하지 않아두 알만하네. 회의실에서 왜 그랬는가 하는거겠지?》

《자넨 감정을 다잡지 못하는게 결함이야.》

《그래서 자네가 대학시절에 고맙게두 <화약>이라구 별명을 달아

주지 않았나.》

《급한 성미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패는 아니네.》

《나두 한마디 하세. 자넨 해방전에 그 사람의 덕을 톡톡히 봤으니 리해하겠지만 난 다르네. 지금도 안해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네. 헌데 왜놈행세를 실컷 하다가 나라가 해방되니까 조선사람으로 둔갑한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라는건가?》

《아마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거네.》

《피치 못할 사연이라구? 자넨 사람을 너무 좋게만 보는게 탈이야.》

류기연은 진정을 담아 말하였다.

《난 서로 도우면서 건국을 하자는거네.》

《건국과 용서는 별개의 문제일세. 내가 알수 없는건 미국인들이 어째서 그런 인간을 교무주임으로 내세웠는가 하는거네.》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맞다들린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은 추진석은 반겨맞아줄 사람도 없는 자기 집을 향해 무겁게 걸어갔다.

7

《어마나, 그게 정말이예요?》

사은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안해는 기절할것처럼 놀랐다. 하긴 안해뿐만 아니라 사은룡을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악할 일이였다.

《그 사람이 왜놈으로 귀화한 조선사람이라니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예요?》 하고 뜨락에 나섰던 안해는 범이라도 만난듯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여보, 그 사람이…》

이 밤중에 누가 찾아왔을가 하고 궁금해있던 류기연은 찬 공기를 앞세우고 들어선 사은룡을 알아보았다.

《아주머니, 그간 잘 있었습니까? 헌데 내가 범은 아니겠는데 왜

그렇게 놀랍니까? 허허허.》

사은룡은 약간 뻔뻔스럽다고 할만큼 태연한 얼굴로 안해한테 인사말을 건넸다. 그리고는 응접실에 떠도는 훈훈한 공기에 언몸이 녹아내리는지 활달한 어조로 말을 건네는것이였다.

《방에 갔더니 문이 걸려있더군.》

회포를 나누자고 하던 사은룡쪽에서 아무 말도 없기에 추진석과 같이 퇴근했는데 이런 시각에 찾아올줄은 몰랐었다.

《식사는 했소?》

류기연은 방금 도착했다고 대답하였다.

《마침이구만. 아주머니, 오래간만에 학부장선생과 회포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는데 설마하니 내쫓지는 않겠지요?》

응접실문가에 서서 사은룡을 새삼스럽게 보고있던 안해는 황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세심하고 사리밝은 사은룡이였건만 안해의 행동에서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는지 시종 침착한 태도를 허물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학부장사업은 어떤가 하는 등의 화제를 펼쳤다.

얼마후 두사람은 식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사은룡은 안해가 가져온 술을 밀어놓고 자기 가방에서 위스키병을 꺼냈다.

《감옥에 면회도 못갔댔는데 사죄하는 의미에서 한잔 붓겠소.》

불현듯 류기연은 그의 태도가 그전과 다르다고, 인사를 해도 마지못해 받는다고 하던 안해의 말이 생각났지만 지금에 와서 지나간 일을 들추고싶지 않았다.

류기연의 잔에 술을 부은 사은룡은 자기의 잔에도 부은 다음 우리 해방의 기념으로 찧자고 하였다.

첫잔을 비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도면을 훔친 구마모도를 대신하여 사죄하던 때보다 더 곡진한 태도였다.

《날 용서해주오!》

《…》

《정말 미안하오. 사정이 부득이해서 조선사람이라는걸 숨겼댔소.》

이렇게 되여 류기연은 한 인간이 걸어온 기구한 인생사를 알게

되였다.

《나의 아버지는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큰 과수원을 가지고있었소. 아버진 우리 가문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다면서 나만은 꼭 대학공부를 시키려고 했소. 그 덕에 난 돈이 그리운줄 모르고 도에 올라가 중학교를 다녔소.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드는게 아니겠소. 아버지가 왜놈<동척>에 과수원을 통채로 빼앗기고 너무도 분통이 터져서 과수원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타죽었던거요. 불쌍한 어머닌 서슬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오.》

그날의 가슴아픈 광경을 그려보듯 눈굽을 훔친 사은룡은 축축한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들의 무덤옆에서 밤을 새우던 나는 깜빡 잠들었는데 꿈에서 늙은 중을 만났소. 그 중은 나더러 여우가죽을 뒤집어써야 한다는게 아니겠소. 그 여우가죽이란 바로 왜놈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뜻이였지. 난 몸서리를 쳤소. 내가 어떻게 부모를 죽인 왜놈과 한족속이 될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중에는 왜놈의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자면, 짓밟히우지 않으려면 피눈물을 삼키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소. 그후 고향을 떠나 만주로 들어가 자식이 없는 왜놈기사의 양아들 오노 사부로가 되였소. 그리고 양아버지의 요구대로 려순공대에 입학했소.

난 워낙 머리가 좋은데다 열성까지 높아서 실력이 뛰여났소. 내 주위에는 공부를 배워달라고 왜놈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꼴을 볼 때면 속이 얼마나 통쾌한지.

대학을 졸업한 난 만철본부에 입직하였고 전공인 교량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소. 일본인기사들은 나를 부러워하였고 총재도 그저 오노, 오노 하였소. 그럴수록 난 자신이 왜놈으로 귀화한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하고 자부하군 하였지. 그런데 몇해 지나 당신이 만철에 들어왔소. 난 왜놈들한테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당신을 보자 마음속으로 동정하기 시작하였소.

동병상련, 그렇소. 내 비록 왜놈으로 귀화한 몸이지만 몸속에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었단 말이요. 그다음 내가 류선생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하는건 더 말하지 않아도 알거요.》

제손으로 술을 부어 쭉 들이킨 그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왜놈으로 귀화한건 민족앞에 지은 큰죄요. 그 수치는 일생 날 괴롭힐거요. 하지만 내 심정도 리해해주오. 우리한테 제 나라가 있었다면 내가 뭣때문에 오노 사부로가 되였겠소?》

속에 맺혔던 설음이 터져나오는지 사은룡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가슴을 두드렸다.

몹시 괴로와하는 그를 보자 류기연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옆에서 보기 무참할 정도로 자신을 질책하던 사은룡은 이젠 그만하라고 만류해서야 가까스로 진정하였다.

《그래두 날 용서해주는구려. 정말 고맙소, 후유-》

그는 눈앞에서 얼른거리는 불행한 과거를 지워버리듯 손을 내저었다.

《이젠 나라가 해방됐으니 지긋지긋하던 생활도 끝장났소. 그래서 저주로운 지난날과 결별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소.》

머리를 짧게 깎은 그 모습에는 늦게나마 인생의 새 출발을 하려는 한 인간의 모지름이 엿보였다.

몇순배 술이 돌아가자 사은룡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학부장선생, 앞으로 많이 도와주오.》

벽시계가 22시를 알리자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아들애한테 주라고 쵸콜레트 한곽을 내놓았다.

《그땐 값눅은 과자밖에 사주지 못했는데 지금이야 다르지. 허허허!》

손님을 대문밖에까지 바래주고 돌아서는데 낯빛이 좋지 않은 안해가 이런 말을 꺼냈다.

《여보, 그 사람의 말이 정말일가요?》

《뭘 말이요?》

《제 나라가 없어서 왜놈행세를 했다는 이야기말예요.》

류기연은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왜놈행세는 하지 않았을것이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군요.》

류기연도 사은룡을 대하는 자기의 감정이 지난날과 같지 않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하지만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혀있을수 없었다. 그는 대학운영을 책임진 교무주임이고 자기는 그를 받들어주어야 할

학부장이였다. 그런즉 스미스의 말처럼 과거를 따지지 말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것이다.

《날씨도 찬데 들어가기요.》

그래도 안해의 미타해하는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8

뿌직, 뿌지직… 쾅, 쾅!

복구건설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한쪽에서는 용접불꽃이 축포처럼 쏟아져내리고 다른쪽에서는 함마를 휘두르며 제관작업을 하고있었다.

한홍식은 한창 제작중에 있는 류안포화기를 들여다보고있었다.

류안포화기는 암모니아로 류산을 중화할 때 쓰는 장치로서 류안비료생산에 쓰이는 기본설비였다. 고약한 왜놈들은 쫓겨가면서 원래 있던 22대의 류안포화기중 거의 대부분을 파괴해버렸다. 하지만 걱정할것은 없었다. 자기의 기술과 로동자들의 노력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부족한 설비들을 만들고 시운전도 보장할수 있었다.

측정기구로 부분품들을 하나하나 재여보는데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주고있던 조수가 말을 걸어왔다.

《기사동무, 쉬염쉬염 하십시오. 그러다 쓰러지겠습니다.》

한홍식은 코잔등에 깨알만한 기미가 박혀있는 그 청년을 보며 싱글거렸다.

《왜, 내가 약골같아 보이오?》

《아닙니다. 한기사동문 다른 기사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난 기사들이라고 하면 도수안경을 끼고 도면만 보는 샌님인줄로 알았는데 기사동문 우리보다 함마질을 더 오래하구 힘도 세더군요. 그래서 아하, 기사들이라고 다 그런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기계야 아니지 않습니까.》

조수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한달째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부족한 설비들을 제작하느라니 고단하기 그지없었다. 휴계실에 아령을 가져다놓았지만 일감이 가득 쌓여서 언제 만져볼 사이도 없었다. 그래

도 힘들지 않았다. 열백밤을 밝힌다고 해도 쉬고싶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과거때문에 떳떳치 못한 자기를 공장에 받아주고 기사로 임명해준 나라의 은덕이 고마왔다.

…공장장한테서 모욕을 받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반겨맞아주었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됐냐?》

기분이 좋지 않아 그냥 웃방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아버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기술이 좀 있다구 우쭐렁거리다가 쫓겨났겠지.》

그러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참이라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말았다.

《그런게 아닙니다. 내가 <악질친일파>의 자식이기때문에 공장에서 받지 않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낯빛이 어두워지는것을 보자 내친김에 죄다 쏟아놓았다.

《결혼문제도 같습니다. 아버진 자꾸만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집에서 딸을 주겠습니까?》

아버지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였다.

《난 사람들한테 못된짓은 하지 않았다.》

《그것두 말이라구 하십니까? 아버지가 선량한 백성이라면 왜놈들이 어째서 군수를 시켰겠는가 말입니다.》

굴속처럼 컴컴하던 아버지의 두눈에 불이 켜졌다.

《네놈은 이 애빌 그렇게 보느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구? 이, 이 덜돼먹은 놈!》

흥남으로 이사온 후 소심해지고 웬간한 일에 나서지 않던 아버지였지만 더는 참을수 없었는지 토방에 기대있던 마당비를 집어들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말리기도 전에 마당비는 한홍식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물론 그한테는 마당비에 얻어맞는것쯤은 성냥가치에 맞는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공장에서 쫓겨난 일이 내려가지 않는지라 또다시 머리를 향해 꽂히는 마당비를 홱 나꿔채여 울바자밖으로 집어던졌다.

대문이 열리며 안경을 낀 사람이 들어선것은 그때였다.

《아버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고정하십시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만류하는 그는 공장장앞에서 자기를 막아주지 못한 강영창이였다.

이래저래 속이 뒤집힌 한홍식은 웃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이놈, 차장어른이 오셨는데 썩 나오지 못할가?》

반쯤 열려진 방문틈으로 강영창의 푸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속이 내려가지 않아서 좀 우뚤거리는건데 놔두십시오. 그리구 아버님의 심정도 리해됩니다. 사실 아버님이야 왜놈들의 강요에 못이겨 군수노릇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원한을 살 일을 한적이 없지 않습니까. 숱한 처녀들을 <정신대>에서 뽑아주었구 남정네들도 징용에서 빼주셨구요.》

그 말은 사실이였다. 아버지는 왜놈들이 내려먹이는 《공출》도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대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그때문에 도청은 물론이고 조선총독부에 불려다니며 욕을 보았었다.

《아버님, 한대 태우십시오.》

드응― 하는 성냥소리가 나더니 뻑뻑 담배를 빠는 소리가 났다.

《아버님, 제가 온건 한동무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랍니다.》

《그게 정말이시우?》

《예.》

방복판에 버티고있던 한홍식은 저으기 놀랐다.

그러니 날 다시 데리러 왔단 말인가?

《자, 이젠 한동무도 나오우.》

《…》

《허, 이제 보니 한동문 속이 좁구만.》

속이 좁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방문을 활짝 열었다.

강영창은 싱긋 웃으며 알려주었다.

《공장에선 한동무를 류안비료직장 기사로 임명했소.》

《고맙지만 난 안가겠습니다.》

《아직 성이 가라앉지 않았소?》

《그건 아닙니다. 공장에 다시 나갔다가 또 어중이떠중이라는 소리를 들을가봐 그럽니다.》

강영창은 성근한 태도로 나왔다.

《그땐 우리가 한동무의 문제를 잘못 처리했소. 내 공장을 대표해서 사죄하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믿어주는 그가 사죄를 하겠다고 하니 한홍식은 급해맞았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한결 느긋한 태도로 나무랐다.

《홍식아, 차장어른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서 나오거라.》

그제야 한홍식은 아무렇게나 집어던졌던 운동화를 찾아신고 뜨락으로 나섰다.

강영창은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다.

《한동무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으신 일을 알겠지?》

《압니다.》

지난 4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두번째로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수천여명의 로동자들앞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토지개혁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더 많은 화학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간곡히 호소하시였다.

장거리에 나갔던 어머니한테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한홍식은 얼마나 후회하였는지 모른다. 그때 꾹 참고 공장에 남았더라면 장군님을 만나뵈올수도 있었겠는데 참을성이 부족한 성미가 일을 그르친것이였다. 마음 같아서는 공장에 나가 일하고싶었다.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비료를 꽝꽝 생산하고싶었다. 하지만 공장에서 받아주지 않아 어쩌지 못하고있는데 마침 강영창이 찾아왔던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우. 나나 동무나 해방전에 왜놈들보다 기술이 약해서 사람값에 못들었소? 아니요. 우리 지식인들의 존엄과 기술을 아껴주고 빛내여줄 나라가 없었기때문이 아니겠소. **김일성**장군님께서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날이 있겠는가 말이요.》

그의 말은 가슴을 쾅쾅 뒤흔들어놓았다.

옳다.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난 왜놈군수노릇을 하는 아버지의 그늘밑에서 기술을 썩이고있었을것이다. 그런데도

밸통을 부리면서 이게 뭐란 말인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당장 공장에 나가겠습니다.》

강영창은 기뻐서 뜨락이 환해지도록 웃었다.

《이제야 한홍식동무답구만.》

그때 아버지가 몸을 우들우들 떨며 강영창의 손을 움켜잡았다.

《차장어른,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뭐라구 이렇게… 제발 저녀석이 이 애비가 지은 죄를 씻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여 한홍식은 강영창과 함께 공장에 다시 나왔다. …

《전동무, 이걸 다시 물려야겠소.》

그는 치수가 맞지 않은 부분품들을 조수한테 내주었다.

《알겠습니다.》

조수가 떠나가자 류안포화기를 살펴보던 한홍식은 기둥뒤에 서있는 곱살한 처녀를 발견하였다.

못본척하고 합격된 부분품들을 조립하고있는데 가공직장에 갔던 조수가 뛰여왔다.

《두시간후에 다시 오랍니다.》

《알겠소.》라고 대답한 한홍식은 기둥쪽을 눈짓하였다.

그쪽을 바라본 조수의 볼이 잔뜩 붉어났다.

《맹꽁이같은거. 창피해 죽겠는데 또 찾아왔어?》

《약혼녀가 자주 찾아오면 좋지 뭘 그러우, 가보우.》

《싫습니다.》

《어서 가보라니까.》

《그럼… 갔다오겠습니다.》

창피하다고 두덜거리더니 정작 가보라고 하자 조수는 약혼녀가 달아나기라도 할것처럼 바삐 걸어갔다.

저 친군 좋겠는데.

조수와 약혼녀가 웃으며 속삭이는것을 부럽게 보느라니 불현듯 작업복웃주머니에 들어있는, 너무 읽어서 뜬금으로 외울수 있는 편지가 떠올랐다.

《선생님, 전 서울로 나갑니다. 일이 이렇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명사십리에서 선생님과 헤여진 다음부터 저의 생활은 온

통 뒤죽박죽이 되였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어쨌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과 약속한 날자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너무 속상해서 어머니한테 선생님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어머니는 두루 알아보니 한홍식 선생님은 왜놈들도 인정한 수재이고 성미도 시원시원하니 그만한 신랑감도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나자 마음이 좀 진정되였습니다.

참, 그날 선생님은 왜 저더러 자기를 간호해주었는가고 물으셨지요? 전 스승을 돌보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사실 그것만은 아니였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꾸중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한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때문이였습니다. 선생님은 밤늦게까지 저를 배워주시면서 녀성학자가 되는것도 좋지만 실력을 높여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전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식을 주고 마음의 기둥을 세워주신 선생님이 앓으시는데 어떻게 외면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어쩔지 몰라도 전 그럴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뒤에서 뭐라고 해도 선생님을 도와드리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학교에서 밤늦게 공부를 한다고 거짓말하고 선생님을 찾아갔던것입니다. 고열에 헛소리치고 숨이 가빠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선생님이 잘못되시면 어쩌나 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다행히도 열이 떨어지자 전 너무 기뻐서 또 울었습니다.

선생님, 부끄럽지만 묻고싶습니다. 도대체 이런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혹시 제가 선생님을 사모하는건 아닌지. 아니, 그건 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옆에 설수 있겠습니까. 허지만 자꾸만 선생님한테로 마음이 달려가는것을 걷잡을수 없었습니다.

드디여 선생님과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전 그때까지 무슨 대답을 드려야 할지 마음의 준비가 되여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절 기다리다가 찬바람을 맞으시면 전번처럼 독감에 걸릴가봐 두려워 바다가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문가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명숙이를 만난다고 했지만 아버진 스무

살이나 먹은 처녀가 밤중에 제 동무를 만나러 간다는걸 누가 믿겠는가고 하시면서 대문을 닫아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똑바로 말하라고, 대체 누굴 만나러 가는가고 계속 따져물었습니다. 제가 끝내 대답을 안하자 보다못해 어머니가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진 해방전에도 그 선생을 간호한다면서 동네망신을 시키더니 또 그러는가고 펄펄 뛰면서 저를 웃방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전 아버지가 성이 풀리면 늦게라도 선생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진 포목가게를 팔아치우고 당장 서울에 나가자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가겠다고 뻗치자 아버지는 그곳에 가면 대학공부도 할수 있고 좋은 신랑감을 만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 전 아버지를 따라가기 싫습니다. 선생님과 헤여지기 싫습니다. 허지만 부모님들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빨리 나오라고 독촉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이 순애가 삼가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꼭 훌륭한 반려자를 만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생님의 영원한 제자 순애 올림.》

편지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보는 한홍식은 눈굽이 벌거우리해졌다.

순애, 삼일후에 만나자고 했는데 어째서 약속을 어겼소? 왜 날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가 말이요?

편지와 함께 넣어둔 동그란 손거울을 꺼냈다. 사랑하는 처녀의 모습이 어려있는 사연깊은 거울이였다. 그 거울속에서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있었다.

《선생님, 꼭 훌륭한 반려자를 만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니, 나한텐 순애밖에 없어. 이제 비료가 꽝꽝 쏟아지면, 장군님 말씀대로 농촌에 비료를 많이 보내주게 되면 그때 꼭 찾아가겠소. 순애를 무조건 데려오겠단 말이요!

한홍식은 마치도 순애를 껴안듯 손거울을 품에 꽉 가져다댔다.

땡땡— 저쪽에서 천정기중기가 물동량을 내리우겠다고 찾고있었다.

손거울을 집어넣은 한홍식은 《알겠소!》 하고 소리치며 달려갔다.

9

려주는 2층 서재문을 조용히 열었다.

남편은 자정이 넘도록 원고를 집필하고있었다. 대학에서 돌아오면 《제동장치기술》이라는 도서를 집필하느라고 여념없다. 저러다 또 쓰러질가봐 걱정이였다.

남편은 원체 입이 무거운 사람이여서 대학일을 말한적 없지만 가만 보니 학부장이라는 직무가 간단치 않은것같다. 한밤중에도 교원들이 찾아와 남편과 강의안을 두고 토론하는가 하면 휴식날인데도 제자들이 보충강의를 받으러 밀려들군 하였다. 그래도 남편은 언제 한번 다른 기색을 보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군 하였다.

하루는 서재에 박혀있던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애를 데리고 부엌으로 나왔다. 안해의 동자질에 간참하는 법을 모르던 사람이 부엌에 나타난것만도 놀라운데 이런 이야기를 펼치는것이였다.

《어느한 고을에 안해한테 쥐여사는 불쌍한 네사람이 살고있었소. 오랜만에 모여앉자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하였소.

<난 녀편네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빠져나왔네.>

두번째 남자도 의기양양해서 말을 보탰소.

<난 마누라가 친정집으로 떠나자마자 얼씨구 좋구나 하구 달려왔지.>

세번째 남자는 혀를 끌끌 차며 그들을 놀려주었소.

<한심한 량반들이군. 사내대장부라는게 밤낮 녀편네한테 쥐여살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마지막남자는 대범한 태도로 친구들을 눌러놓았소.

<여보게들, 사실말이지 녀자란게 어디 다칠나위나 있나? 그래서 우리가 가엾게 여기고 양보하는거지, 안그런가?>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몸이 뚱뚱한 녀자가 들어섰소.

<뭐, 어디 다칠나위가 있는가구? 그 말을 한게 누구요?>

네사람은 깜짝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졌소. 첫번째 사람은 뒤문을 걷어차고 달아빼고 두번째 사람은 숨을 곳을 찾아 방안을 벌벌 기여

다니고 세번째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 그런데 마지막사람은 끄떡않고 뻗치고있는게 아니겠소.

이 남잔 담이 크구나 하고 그를 바라보던 녀자가 어이없어하였소.

<아니, 이 량반은 아예 까무라쳤구나!> 어떻소?》

《아이, 우스워라. 허리가 막 끊어지겠네. 호호호!》

려주는 시집온 후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온종일 집에 같이 있어도 묻는 말에 겨우 대꾸나 하던 남편한테 이런 말재간이 있었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다.

해방이 되니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지는가싶었다.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는것은 아니였다.

얼마전 남편은 추진석의 등에 업혀 돌아왔다. 해방전부터 앓고있던 심장이 말썽을 일으켜 강의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것이다. 아침일찍 대학에 나갔다가 저녁늦게 돌아와서는 식사를 대충하고 새벽까지 줄창 글을 쓰니 무쇠라도 견딜수 없는것이다.

그때에야 려주는 자기가 긍지로 여겨온 학부장이라는 직무가 남편의 건강을 해치고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도 사람이 뒤에 서있는줄도 모르고 원고지우에 만년필을 달리는 남편을 보자 마음이 불안해났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만류할수 없으니 안타까왔다. 남편은 일에 열중했을 때 방해하는것을 제일 질색하였던것이다.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던 려주는 문득 남편의 손이 목덜미에 맥없이 올라가는것을 보았다. 심장이 말썽을 일으키기 전에는 꼭 목덜미에 식은땀이 돋아나는데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난것이다.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벌써 일은 일어났다.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가쁘게 내쉬더니 몸이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것이 아닌가.

쓰러지는 남편을 간신히 붙잡고 바로눕힌 다음 맥박을 쟀다. 어찌나 빠른지 셈을 셀수 없다. 이런 때 적용하는 수기치료법을 언제인가 남편을 치료해준 늙은 의원한테서 배워두었었다.

마음을 다잡고 두손으로 남편의 눈을 지그시 눌렀다.

《숨을 멈추세요!》

남편은 숨을 크게 내쉬였다가 뚝 멈추며 음— 하고 배에 힘을 주

었다. 밀랍처럼 하얗던 얼굴이 용을 쓰느라고 진흙빛으로 변하였다.
제발 가라앉아야겠는데… 제발 가라앉아야겠는데…
불룩 솟아올랐던 남편의 배가 꺼져내리며 막혔던 숨을 터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미친듯이 뛰고있던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기능을 상실한 심장이 또다시 흉벽을 들이치기 시작하였다. 그 박동이 어찌나 셌던지 남편의 가슴은 훌떡훌떡 튀여올랐다.
《다시해보자요!》
공처럼 불어난 배, 네굽을 안고 뛰는듯한 심장…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였다. 그렇게 몇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어느결엔가 들썩거리던 남편의 가슴이 가라앉고 맥박도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140… 100… 80…
마침내 심장이 고르롭게 뛰기 시작하자 온몸의 힘이 발밑으로 쑥 빠져나가는것같다. 남편의 심장박동이 빨라질 때는 당장 변이 날것만 같아 겁에 질려 어쩔줄 몰랐지만 일단 위험이 가셔지니 허탈감이 밀려든다. 그저 옴짝않고 누워있었으면 좋겠다.
《여보, 어때요?》
남편은 맥이 없는지 고개만 끄덕이였다.
《그렇게 무리하니 몸이 견디겠어요. 이젠 좀 쉬세요.》
려주는 베개를 찾다가 여기가 서재라는것을 깨닫자 남편의 무거운 머리를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혹시나하고 속옷을 만져보았다.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물에서 건져낸것처럼 축축하다.
《있다가 속옷을 갈아입자요, 예?》
두눈을 꾹 감은 남편은 응답이 없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 어쩌면 이처럼 훌륭한 사람한테 그런 몹쓸 병을 안겨준단 말인가. 여보, 제발 앓지 마세요, 제발…
끝끝내 눈굽을 타고넘은 눈물이 남편의 얼굴우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남편의 두눈이 서서히 떠졌다.

《울…보!》

남편의 손이 우로 올라오더니 눈물이 흘러내린 두볼을 훔쳐준다.

《여보!》

려주는 그만에야 참고있던 설음을 왈칵 쏟으며 남편의 손을 감싸쥐였다.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도 얼음장처럼 차겁다. 할수만 있다면 자기의 온기로 남편의 온몸을 따뜻하게 덥혀주고싶다.

《당신이 쓰러지면 난 어떻게 살아요, 예?》

《난 쓰러지지 않아. 당신만 곁에 있으면 아픔이 낫는단 말이요.》

이렇게 위로하는 남편의 얼굴에 웃음발이 피여올랐다. 그것은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는 녀자, 남편을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 불같은 안해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였다.

남편의 손이 움직이였다. 병이 좀 나은것같으니 또 집필을 하려는것이다.

려주는 두손으로 차고 큼직한 손을 꽉 움켜잡았다.

《안돼요. 조금만 더 있자요.》

정말 자기의 온기로 남편의 손을 덥힐수만 있다면, 그 몹쓸 병을 쫓아낼수만 있다면 천날백날이라도 이렇게 앉아있고싶었다.

여보, 그동안 힘들었는데 푹 쉬세요!

입속말로 속삭인 려주는 남편의 머리칼을 쓸어만졌다. 아직 서른살도 안되였는데 흰머리칼이 보였다. 마치도 남편이 걸어온 곡절많은 인생의 흔적같은 그 머리칼마저 소중히 지켜주고싶었다.

《뭘 생각하오?》

내려다보니 유순하게 생긴 눈이 정겹게 올려다보고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흠흠해하던 남편이 손을 쳐들었다.

《일으켜주오.》

려주는 움씰거리는 남편의 어깨를 두손으로 눌렀다.

《지금 제정신이예요?》

남편은 황소같은 체통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아이처럼 간청하였다.

《날 놔주오, 응?》

《안된다지 않아요.》

《일없다니까, 어서!》

잡도리를 보니 남편은 물러날 기색이 아니였다. 이젠 마지막수를 쓸수밖에 없었다.

《좋아요. 당신이 일어나면 전 집을 아예 나가겠어요.》

아닐세라 남편의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그게… 정말이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시치미를 뚝 뗐다.

《제가 거짓말하는걸 봤어요? 어디 아이를 데리고 실컷 살아보세요.》

어쩌나 보려고 몸을 움직이자 남편은 바빠맞아 손목을 잡았다.

《당신… 당신 말대로 하겠소.》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그냥 성난척하였다.

조금 지나자 남편이 엉뚱한 말을 꺼냈다.

《당신은 좋은 녀자요!》

《아이참, 사람을 앞에 놓고 또 그네를 태우는군요.》

《정말이요.》

《그래두 그런 말은 듣기 싫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즐거워난 려주는 다시금 생각을 더듬었다.

정말 태삼이 아버지를 도울수 없을가?

10

《쓸림식제동방식은 회전하는 바퀴의 디딜면이나 차축에 끼운 원판의 표면을 제동구두로 압착할 때 생기는 쓸림힘을 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동방식에는 그것이 가지는 구조원리에 따라 바퀴디딜면쓸림식제동방식과 원판쓸림식제동방식이…》

강의를 하고있던 류기연은 말을 끊었다. 강의실문이 활짝 열리며 사은룡이 들어서고있었다.

《학부장선생, 좀 보기요.》

그는 빨리 나오라고 연방 손짓하였다. 강의집행정형을 통제해야 할 그가 독촉하는것을 보면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였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사은룡은 초조해하며 용무를 꺼내놓았다.

《미군군수렬차가 전복될번했는데 빨리 가봐야겠소.》

어이가 없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미군군수렬차소리가 아닌가.

《지금 강의중입니다.》

《어쩌겠소? 미국어른들이 요구하는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교무주임선생이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찔린 모양 사은룡은 중언부언하였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소? 생각해보우. 미국어른들이 어떤분들이요? 그 악독한 왜놈들한테 빼앗겼던 나라를 해방시켜준 은인들이 아닌가 말이요.》

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해방전에 왜놈행세를 한 사람이 왜놈들을 욕하고있으니 말이다.

《참, 선생도 미국어른들의 신세를 톡톡히 졌는데 이런 때 나서는게 마땅한 도리라고 보오.》

말끝마다 미국어른들, 미국어른들 하는것을 보면 사은룡은 자기한테 교무주임자리를 맡긴 미국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극성을 부리는것같았다.

이 사람한테 이런 측면이 있었던가.

만철에 있을 때의 사은룡은 존엄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였다. 구마모도와 같은 왜놈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돌봐줄만큼 속대가 있는 인간이였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있었다.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강의뿐만 아니라 그 무슨 일도 가리지 않을것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고때문에 왜놈으로 귀화하는것도 서슴지 않은게 아닐가.

《학부장선생, 미진된 강의는 후에 조직하겠으니 내 말대로 하오.》

어느덧 사은룡은 권고에서부터 강요로 넘어가고있었다. …

역전에 도착하니 방수포를 씌운 군수렬차가 서있었다.

부지불식간에 《아시아》호를 수리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는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려고 밤을 패며 수리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해방자》의 기차를 수리하게 되였는데도 어쩋게 된 일인지 별로 성수가 나지 않았다.

고장난 기차를 살려낸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은 다르다는 사실앞에서 류기연은 은근히 놀라고있었다.

사은룡을 따라 기관차가까이로 걸어가는데 두다리를 쩍 벌리고 서있던 미군보초가 막아섰다.

《섯!》

사은룡은 껌을 질겅질겅 씹고있는 미군보초에게 서툰 영어와 조선말을 섞어가며 진지하게 설명하였다.

미군보초는 《헤이, 헤이!》 하고 카빈총을 휘둘렀다.

그때 휘익!― 하고 휘파람소리가 날아왔다.

뒤를 돌아본 미군보초는 벌렸던 다리를 모으며 카빈총을 내리웠다.

류기연은 위풍있게 걸어오는 미군장교가 얼마전 대학에 왔던 스미스라는것을 알아보았다.

《류선생, 그간 잘 있었습니까?》

친절하게 악수를 청하며 건강과 가족들의 안부를 문의한 스미스는 숨을 죽이고있는 기관차를 가리켰다.

《군수렬차가 출발했을 때 우린 제동장치들이 비정상이라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중지하고 제동기전문가인 류선생한테 방

조를 청했던것입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그가 성근한 태도로 나오자 대학을 떠날 때 좋지 않던 기분이 어느 정도 풀렸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기차의 제동장치상태를 검사하기 시작하였다. 기관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차량까지 다 돌아보고나니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것이 명백해졌다.

묘하게 잘리워나간 제동관들, 드문드문 풀려있는 제동통의 나트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해독행위라는것을 말해준다. 미군보초들이 항시적으로 감시하고있는 상태에서 그런 조작을 할수 있는 사람은 몇사람밖에 안된다. 우선 기관사와 기관조사이다. 하지만 그들은 기차와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므로 자살적인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다.

다음은 검차원이다. 제동장치를 비롯하여 모든 부분을 검사하는 그의 승인이 없이는 기차가 정상운행에 들어갈수 없다. 스미스의 말처럼 군수렬차가 출발하였을 때 제동장치가 비정상이라는것을 발견하였다면 검차원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헤이, 헤이!》

가까운 곳에서 혀꼬부라진 고함소리가 터졌다.

대차밑에서 빠져나온 류기연은 갈기갈기 찢어진 철도복을 걸친 키큰 사내가 포승에 묶이워있는것을 보았다.

《흠, 또 당신이구려.》

입귀로 흘러내리는 선지피를 어깨에 문댄 그 사나이가 던진 말이였다.

말투를 보면 그는 자기를 아는것같았지만 누군지 생각나지 않았다.

《왜, 당신이 살려낸 왜놈기차가 우리 친구들을 깔아죽였을 때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소?》

아, 그때 쇠막대기를 들고 달려들었던 사람!

사나이의 충혈진 눈에 적의가 번뜩이였다.

《아주머니가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사죄를 하기에 그때는 좋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뒤에 서있던 미군보초가 카빈총으로 사내의 어깨를 들이쳤다.

그는 비칠거리면서도 내뱉았다.

《…당신은 눈뜬 소경이요!》

뭐, 눈뜬 소경이라구?

아연해서 멀어져가는 그를 지켜보는데 옆으로 사은룡이 다가왔다.

《저자가 제동장치들을 못쓰게 만든 검차원이요. 의식적인 해독분자지. …자, 일에 착수하오.》

로동자들을 데리고 제동장치에 달라붙었지만 뇌리속에서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째서 날더러 눈뜬 소경이라고 했는가?

그러나 언제 그 생각에 빠져있을 사이가 없었다. 기차를 수리하고 대학에 돌아가 미진된 강의를 해야 하였던것이다.

그때부터 철야로 진행된 수리작업은 다음날 새벽에야 끝났다.

동녘하늘이 희붐히 밝아올무렵 미군군수렬차는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역시 당신은 인재입니다.》

허연 증기를 토하는 기관차를 만족해서 보고있던 스미스는 엄지손가락을 흔들더니 옆에 서있는 사복쟁이한테 눈짓하였다.

사복쟁이가 가방에서 종이로 두툼하게 싼것을 내주었다.

《이건 스미스각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겁니다.》

류기연은 묻는 눈길로 스미스를 응시하였다.

《어서 뜯어보십시오.》

스미스는 손으로 포장을 뜯는 시늉을 하며 웃었다.

종이포장을 뜯자 그안에서 큼직큼직한 딸라뭉치가 나타났다.

어깨너머로 그것을 넘겨다보던 사은룡이 《학부장선생, 축하하오!》 하고 탄성을 질렀다.

종이포장을 다시한 류기연은 스미스에게 내밀었다.

《스미스선생, 성의는 고맙지만 나한텐 필요없습니다.》

《오, 류선생, 이건 보수입니다. 사양하지 말고 받아두십시오.》

류기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정 그러면 이 돈으로 교육실습에 필요한 설비들을 마련했으면합니다.》

스미스의 눈동자에 감탄의 빛이 떠올랐다.

《당신은 기술도 높지만 인격 또한 고상합니다. 정말 탄복합니

다. 이제 보니 당신을 멸시했다는 사무라이들은 무지한 족속입니다.》

《…》

《과학을 중시하지 않는 민족이나 인재를 박대하는 국가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우리 미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재를 존중합니다. 당신처럼 뛰여난 기술과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참, 학부장사업은 잘됩니까?》

《잘됩니다.》

문득 역전으로 나오면서 사은룡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원래 대학측에서는 기계공학부 학부장자리에 다른 사람을 내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랬는데 미국측에서, 구체적으로는 문교부 담당관인 스미스가 자기를 적극 추천하였다는것이다.

《한번 잘해보십시오. 우린 당신을 크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교무주임선생은 좀 남으시오.》

스미스와 헤여진 류기연은 강의시간이 늦을가봐 성큼성큼 역구내를 벗어났다. …

대학으로 들어서던 그는 1층복도에서 추진석과 마주쳤다.

《지금 오는 길인가?》

《그렇네.》

류기연은 낡은 손목시계(그 시계는 만철에 있을 때 안해가 왜놈들한테 짝지면 안된다고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사준것이였다.)를 들여다보았다. 첫 강의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고작해야 하루밖에 강의를 못했는데 속이 허전해났다.

처음에는 제동기연구나 하던 내가 대학생들을 꽤 배워줄수 있을가 하고 걱정했는데 정작 진심을 바쳐 지식을 배워주니 제자들은 몹시 따른다. 교육자의 긍지란 바로 이런것이 아닌가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층계에 한발을 올려놓는데 추진석이 비양조로 말하는것이였다.

《뭐 밤을 꼬박 새우며 일했다면서? 그래, <쌤아저씨>들이 표창을 주진 않던가?》

친구는 마치 자기가 스미스에게서 많은 돈을 받은것을 아는것같았다.

《난 할바를 다했을뿐이네.》

《아하, 이제 보니 자넨 의리심이 대단하구만, 대단해!》

친구의 얼굴에 떠돌던 비웃음이 보이지 않은 손수건으로 훔친것처럼 사라졌다.

《한가지 묻자구. 자네가 강의까지 중단하고 도와준 미국인들 말일세. 그들이 정말 <해방자>라고 생각되나?》

《그건 무슨 뜻인가?》

《솔직히 말해보게. 자넨 이 땅의 현실이 마음에 드나?》

류기연은 친구의 말뜻을 알수 없어 침묵을 지켰다.

《하기야 양키들한테서 칭찬을 받았으니 다른 대답이 나올수 없지. 하지만 난 여기가 점점 싫어지네. 그때 북으로 갔어야 하는건데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신세가 되였거던. 물론 자네의 설복도 일정하게 작용했지.》

이즈음 교원들속에서 추진석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있었다. 강의시간에 강의는 하지 않고 미국의 정책을 사사건건 시비한다고 한다. 지금 보면 그 소문이 틀리지 않은것같았다.

《참, 북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된 소식을 들었나?》

류기연은 교원들한테서 그 소식을 들었었다.

지난 3월 북에서는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되였다.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것은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변이였다.

《지금 민심은 북으로 쏠리고있네. 그렇지만 이 땅은 어떤가? 지주들은 왜정때처럼 배를 내밀고있고 친일파들도 머리를 쳐들고 떵떵거리지 않나.》

친구의 말을 부정할수 없었다. 지금의 정국을 보면 자기가 그려보던것과 확연히 달랐던것이다.

《미국이 하는짓을 보면 꼭 남의 집에 쳐들어온 강도라니까.》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는게 아닌가?》

추진석은 코날개가 찢어져라 하고 코방귀를 뀌였다.

《일찍 결론을 내린다구? 아니, 난 양키들을 믿지 않네.》

이야기에 열중한 그들은 몸을 숨기고 자기들의 대화를 엿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제 5 장

1

추진석은 줄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흥심없이 내다보고있었다.

계절이 립하에 들어섰으니 비가 내리는것은 당연하지만 움쩍 못하고 들쓰고있는 서울거리가 을씨년스럽게 안겨왔다.

우산도 없이 나왔다가 봉변을 당하고도 늘쩡늘쩡 걸어가는 행인들과 안개속을 헤매이듯 굼뜨게 움직이는 구식궤도전차, 비를 맞아 거멓게 젖은 생기없는 건물들은 멀지 않은 앞날에 닥쳐올 재난을 예고하는듯싶었다.

그의 뒤에서는 회의에 참가한 학부장을 기다리느라고 지쳐버린 교원들이 지루감을 덜려고 이야기를 주고받고있었다.

《문교부에서 담당관이 내려왔다더군.》

《그 량반 요즘 발길이 잦은걸.》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는데.》

출입문옆에 앉아있던 강씨성을 가진 젊은 교원이 넉살좋게 끼여들었다.

《아마 쏘미공동위원회가 결렬된것때문에 나왔을겁니다.》

…덕수궁에서 제1차 쏘미공동위원회가 열린것은 지난 3월말이였다.

회담을 지켜보며 조선사람들은 쏘미공동위원회가 자신들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 통일적림시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를 해결할것을 기대하고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회담 첫날부터 고의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공동위원회사업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미국측은 림시정부수립을 위한 협의대상문제를 토의할 때 인민들의 총의에 의해 조직된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은 제쳐놓고 리승만을 우두머리로 하는 《민주의원》을 토대로 하여 림시정부수립문제를 토의할 《협의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북의 대표 몇명을 참가시키자고 터무니없는

제의를 하였다. 뿐만아니라 《협의위원회》에 림시정부각료명단을 작성하고 림시헌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자고 고집하였다.

쏘련측은 미국측의 황당한 제안을 즉석에서 거부하였다. 결국 세인의 관심속에 열렸던 제1차 쏘미공동위원회는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채 무기한 휴회로 들어갔다. …

교원들은 자기들의 인내성이 밑창나려던 참에 심심치 않은 화제를 꺼낸 그를 붙들고 질문의 소나기를 퍼부었다.

《뭘 좀 들은게 없소? 강선생이야 소식통이 아니요?》

《회담이 언제 다시 열린다오?》

딱한 모양새로 뒤머리를 슬슬 긁던 강선생은 말을 이었다.

《회담이 언제 열리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림시정부구성문제를 두고 미국측대표와 쏘련측대표사이에 치렬한 론쟁이 있은것만은 사실입니다. 나이지숙한 아놀드는 주먹으로 탁자를 짚고 <에, 내가 겪은 30여년의 군대경험에 따르면…> 하는 식으로 상대의 기를 꺾으려고 하였고 그보다 젊은 쏘련측대표는 당당한 자세로 맞섰다고 합니다. 참, 추선생님!》

창밖에서 눈길을 돌린 추진석은 뒤를 돌아보았다. 갱핏하게 생긴 젊은 얼굴이 마주보고있었다.

《<동아일보>에 선생님의 담화가 실렸더군요. 그걸 보고 선생님더러 좌익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진석의 작을사한 두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의 주장대로 내가 좌익분자라 합시다. 그럼 말해보기요. 강선생도 알겠지만 미국이 발표한 <군정위반에 관한 법령>만 놓고봐도 그건 맥아더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 제1호>와 <포고 제2호>를 보충, 확대하고 구체화한거요. 헌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미국의 정책이 날날이 드러나있소. 한마디로 미국은 점령자로서 저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온갖 정치투쟁, 경제투쟁을 다 말살하겠다는거요. 세상에 이처럼 후안무치한 행위가 어디 있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강의는 하지 않고 미국의 정책을 사사건건 비방한다고 시비질한다는데 부인하지 않소. 아마 그래서 좌익분자라는 딱지를 붙였겠지. 하지만 그들은 북에 있는 고향에도 가지 않고 해방조선을 위해 지식을 깡그리 바치겠다고 다짐하였던 이 추진석이 어째서 이 땅에 침을 뱉았는지 생각

해봐야 할거요. 나쁜 정치는 범보다 더 무섭단 말이요.》

울분에 차서 코소리가 더 강해진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리고 있는데 류기연이 방으로 들어섰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량해를 구하며 강의안과 참고서들이 가득 쌓여있는 책상쪽으로 걸어간 그는 지쳐버린 교원들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모이라고 한건 <군정청> 문교부의 긴급지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기대를 걸고있던 쏘미공동위원회는 량측의 의견불일치로 하여 결렬되였습니다.》

교원들의 눈길은 학부장보다 먼저 소식을 알려준 강선생한테 쏠렸다.

《문제는 이를 기화로 각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추진석은 한쪽입귀를 치켜올렸다. 그러자 얼굴에 비웃음이 그려졌다.

《물론 나도 미국의 정책이 다 마음에 드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40여년동안이나 왜놈들의 식민지로 있었던 우리 조선에서 오늘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건국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는겁니다. 이 사업에 힘을 넣지 못하면 우린 또다시 망국노로 전락될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사람들의 행위가 눈에 거슬려도 좀 참고 건국의 기둥감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정청>에서는 우리가 본도에 충실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류기연은 무려 두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소식을 몇마디로 압축하여 전달한 다음 모임을 끝냈다.

추진석은 다른 교원들이 방에서 나갈 때까지 앉아있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류기연은 사람이 없는줄로 알았는지 원고지를 꺼내놓고 완성단계에 있는 도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쏘미공동위원회소식으로 실망하고 불안해하는데 셈평좋게 펜을 달리고있는 친구를 보자 추진석은 공기가 희박한 곳에 앉아있는것처럼 속이 답답해났다.

미국이 주인행세를 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건국의 기둥감소리를 하고있으니 대체 어떻게 해야 저

친구의 머리를 바로잡을수 있단 말인가.

다 쓴 원고지를 넘기던 류기연이 언뜻 고개를 들었다.

《왜 아직 돌아가지 않았나?》

추진석은 쓰겁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의 친절한 권고를 내가 어찌 마다하겠나. 제꺽 집에 돌아가서 술이나 퍼마셔야지.》

류기연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듯 의아쩍어하였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러네.》

이렇게 내뱉은 추진석은 고수머리를 쓸어넘기며 방을 나섰다.

2

《문제 17. 공기압축기가 시동되지 않을 때의 고장원인과 검사 및 처리방법.

답— 공기압축기가 일단 멎었다가 시동하지 않는 원인은 주로 증기부에 있으며 특히는 급유상태가 나쁜데 있다.

첫째: 급유기에 기름이 없든가 급유기가 나빠서 기름이 흐르지 못하거나 급유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응결수때문에…》

여기까지 적은 려주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뻐근해나는 손목을 놀렸다.

남편이 집필하는 도서원고인 《제동장치기술》을 필사하는중이였다. 머리속에서 줄달음치는 사색을 따라잡느라고 그랬는지 글씨가 비뚤비뚤하고 어떤 부분은 만년필로 쭉쭉 째기도 하였다. 그래서 새 원고지에 초고내용을 곱게 옮겨베끼고있었던것이다.

손놀림을 멈추고 필사한 원고지를 들여다보았다.

《가만, 압축기라는게 뭘가?… 어디 보자.》

책꽂이에서 《철도기술용어사전》을 뽑아들고 차례를 펼치자 《압축기》라는 단어가 인츰 띄웠다.

눈에 익지 않은 용어를 익히려고 두번세번 외우다가 벽시계에 눈길을 주었다. 남편이 퇴근해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다.

조금만 더 쓰자!

만년필을 들고 다음문장을 또박또박 옮겨썼다.

《…기름이 씻기여나감으로써 각 습동부의 마찰저항이 커진것.》

문득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는것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대학에 있을줄 알았던 남편이 놀란 눈으로 보고있었다.

《어마나!》

얼결에 원고를 두손으로 덮었다. 나쁜짓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은 자기가 보던 도서나 도면들이 그대로 있는것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서재를 청소할 때면 책상이나 서가만은 절대로 다치지 않군 하였다. 그런 판에 다른것도 아니고 힘들게 집필하고있는 원고를 함부로 다쳤으니 왜 성을 내지 않으랴.

《용서하세요. 제가 승인도 받지 않고…》

《…》

웬일인가 하고 머리를 들자 씩 웃고있는 남편의 얼굴이 안겨왔다.

조여들었던 가슴이 확 풀어졌다.

아이참, 그런줄도 모르고…

새로 정서한 원고지를 들여다보던 남편이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거요?》

자기가 필사를 잘못하지 않았는가 하고 걱정스러웠다. 아무리 글씨를 곱게 쓴다고 해도 원고내용이 틀리면 혼란을 가져오기마련이다. 했으나 그 근심은 남편의 다음말을 듣자 사라졌다.

《그저 알고싶어 그러우.》

려주는 점직해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남편이 원고를 집필하다가 쓰러진것을 본 다음부터 그의 머리속에는 늘 한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그이를 도울수 있을가?

초고를 필사해주면 어떨가 하는 궁리가 떠오른것은 며칠후였다. 초고집필이 끝나면 아무래도 정서를 해야겠는데 그러자면 남편은 또 밤을 패야 했다. 그러다가 심장이 말썽을 일으키면 큰일이였다. 정말이지 다시는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았다.

내가 초고를 필사해주면 부담이 적을게 아닌가.

그렇게 되여 목침같은 기술사전을 준비해놓고 짬짬이 원고를 필사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

별안간 남편의 가슴이 눈앞으로 다가오더니 아무리 맡아도 싫지 않는 고유한 체취가 확 풍겨왔다.

《어마나!》

어쩔수없이 남편의 품에 안긴 려주는 빠져나가려고 몸을 비틀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녀자요, 좋은 녀자. 허허허!》

남편이 큰소리로 웃는것은 정말 오래간만이였다. 언제인가 아낙네를 두려워하는 네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웃었으나 지금의 웃음은 그때와 달랐다. 그 차이를 딱히 뭐라고 표현할수 없었지만 어쨌든 진심어린 웃음이라는것만은 확실하였다.

눈굽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자기는 고작해야 필사를 한것뿐인데 남편이 그처럼 기뻐하고 칭찬하니 마치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것 같았다.

《엄마!》

행복의 파도에서 서둘러 헤엽쳐나온 려주는 뒤를 돌아보았다. 문가에 두눈이 휘둥그래진 아들애가 서있었다.

《아버지하구 쌈했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아들애는 눈굽을 훔치는 엄마를 보자 제또래 아이들처럼 싸움을 한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머리우에서 남편의 활달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 엄마와 아버진 사랑싸움을 했단다. 사랑싸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앞이지만 얼굴이 빨개진 려주는 남편을 향해 무슨 허튼소리를 하는가고 눈을 흘겼다.

의심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이가 또 물어보았다.

《사랑싸움이란건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거나?》

《아무렴.》

《야, 좋다!》

제풀에 기뻐서 짜락짜락 손벽치던 아이는 쪼르르 달려왔다.

아이를 덥석 안은 남편은 그 틈을 타서 달아나려는 려주마저 꼭 끌어안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사랑싸움》을 하는것을 보자 아들애는 무턱대고 좋아서 깔깔 웃었다.

그바람에 남편과 려주도 가슴후련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호호호!》

그날부터 려주는 남편이 한장한장 넘겨주는 초고를 필사하였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안해가 할수 있는 가장 즐겁고 보람찬 로동이였다.

3

류기연은 하마트면 교무주임방에서 나오는 사람과 부딪칠번하였다.

임신부처럼 불룩한 배를 내밀고 씩씩거리는 그는 제지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였는데 건국의 기둥감들을 키우는데 써달라고 자주 종이를 대학에 기부하군 하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느때 같으면 그쪽에서도 반가와하겠지만 눈빛이 곱지 않았다.

《내 참, 더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공장주는 아무래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사연을 털어놓았다.

《어제 미국사람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 무작정 <적산>이라고 선포하고는 글쎄, 친일파한테 통채로 넘겨주지 않았겠소.》

리해할수 없었다. 그 공장이 어떻게 《적산》이란 말인가. 지난해 12월초에 발표된 《군정법령》을 따르면 조선사람이 운영하는 제지공장은 《적산》대상이 될수 없었다.

《우리 공장이 어떻게 <적산>대상이 되는가구 항의했더니 미군장교의 말이 우리가 만든 종이가 좌익계렬의 신문을 찍는데 리용됐다는게 아니겠소? 아, 나야 종이를 생산하는 사람이지 어디 신문을 찍는 사람이요?》

공장주는 속이 타는지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두드렸다.

《그래서 이 대학과 인연두 있구 해서 도와달라고 교무주임선생을 찾아왔는데 자긴 상관없다고 딱 잡아떼지 않겠소. 사람이 그러면 못씁니다. 종이를 받을 땐 애국자라고 추어올리다가 이제 와선 모른

다고 나자빠지니 정말 섭섭하우다.》

불만을 쏟아놓은 그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며 가버렸다.

류기연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장장과 가까왔던 사은룡이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의문을 품은채 교무주임방에 들어서니 사은룡은 방금 복도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달가와하지 않는 기색이였다.

《그 사람 꽤 복잡하게 구누만. 종이나 좀 갖다준게 뭐라구.》

《그가 대학을 도와준거야 사실이 아닙니까. 내가 보건대 <군정청>에서 하는 일이 잘된것같지 않습니다. 사실 제지공장 주인한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구 어째서 몰수한 그 공장을 친일파에게 넘겨주는가 말입니다. 난 이 문제를 강건너 불보듯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은룡의 눈가에 써늘한 바람이 스쳐지나갔다.

《하니까 날더러 미국어른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의 처사가 잘못됐으니 바로잡으시오 하고 말하라는거요? 천만에.》

《좋습니다. 교무주임선생이 그런 립장이라면 나라도 스미스선생을 만나겠습니다.》

뻣뻣하게 나오던 사은룡의 몸이 흠칫 떨렸다.

《스미스각하를 만나겠단 말이요?》

《예.》

잠시 생각을 굴리던 그는 답답하다는듯 말하였다.

《그만두오. 지금 선생에 대한 미국어른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하오?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류선생을 학부장으로 임명했겠소. 헌데 시시껄렁한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면 미국어른들이 어떻게 보겠소?》

강의도중에 미군군수렬차를 수리해주라고 강요하던 사은룡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도 속이 좋지 않았지만 리해하고 넘겼는데 오늘 보니 그는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였다.

《달리 생각마오. 난 학부장선생을 생각해서 그러는거요. 허허허!》

사은룡의 잘 생긴 얼굴에 헌헌한 웃음발이 피여올랐다. 만철본부에 입직하던 날 구마모도를 눌러놓고 악수를 청하던 때의 그 얼굴

표정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바랜 천처럼 진실하게 안겨오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자 류기연은 결심한대로 《군정청》으로 갔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뒤를 따라 접수구앞에 이르자 증명서를 들이밀었다.

《용무는 뭡니까?》

하얀 구식전화기가 뎅그러니 놓여있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젊은 남자가 꼿꼿해서 올려다보았다.

《스미스선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증명서를 까근까근 뜯어본 접수원은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교환, 문교부를 찾소.》

상대방과 몇마디 말을 주고받은 접수원은 증명서를 돌려주었다.

《이제 나오겠답니다.》

증명서를 집어넣은 류기연은 혼잡한 접수실을 벗어나 청사밖으로 나갔다.

초조감을 가까스로 달래이고있는데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류선생!》

《군정청》정문을 나선 스미스가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있었다.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가 내민 손을 마주잡고 직방 용무를 꺼냈다.

《스미스선생, 내가 찾아온건…》

히죽이 웃음을 지은 스미스가 길건너편에 있는 카페를 가리켰다.

《모처럼 만났는데 커피라도 들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거절하기 난감한 초청이였다.

카페에 들어간 두사람은 구석진 식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스미스의 직위를 이미 알고있는듯 카페의 녀주인이 직접 접대를 하였다. 이제는 젊음과 인연이 먼 나이였으나 식탁우에 음식그릇을 차리며 아양을 떠는 모습은 옆에서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어르신님이 이렇게 찾아주시니 우리 카페가 오늘따라 더 환해지는것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주십시오. 호호호!》

점잖은 손짓으로 녀주인을 쫓아보낸 스미스는 술잔을 허공에 들

어보였다가 독한 위스키를 단번에 쭉 비웠다.

《난 말입니다. 대학시절엔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지장을 줄가봐 말입니다. 그후 사무라이들과 싸우면서 배웠는데 이젠 끊지 못할것같습니다.》

자기의 주량에 스스로 감탄하듯 흠흠해하는 스미스에게 찾아온 용무를 이야기했다.

진지한 태도로 듣고있던 스미스는 선뜻 응답하였다.

《약자를 돕는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습니다. 류선생의 얼굴을 봐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류기연은 자기가 공연한 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제동장치기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 도서를 집필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안해밖에 없었다. 아니, 한사람 더 있었다. 며칠전 자기 방에 들렸던 사은룡이였다. 그날 그는 좋은 도서를 집필한다면서 칭찬했었는데 아마 스미스한테 알려준 모양이였다.

얼굴이 불그레해진 스미스의 입에서 성량이 풍부한 저음이 흘러나왔다.

《그 도서가 나오면 이 나라의 철도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것입니다. 집필이 끝나면 나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출판사에 통지해서 좋은 종이로 찍도록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구 일전에도 말했지만 류선생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난 선생이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바랍니다.》

은근한 암시가 느껴지는 이야기였다.

4

강영창은 창고바닥에 헌종이를 깔고앉아 미역을 씻고있었다.

물고기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그 해산물은 창고에 홀아비살림을 꾸린 그를 위해 로동자들이 구해준것이였다.

…5.1절을 맞으며 흥남지구 인민공장 기사장으로 임명된 그는 림시로 흥남비료공장 공장장사무실에 거처를 정하고 복구사업을 주관하고있었다.

흥남비료공장에서는 그한테 괜찮은 《적산》가옥을 배정했었다.

《그만두시오, 안가겠습니다.》

그가 뻗치자 공장장은 난처해하였다.

《왜 안가겠다는겁니까?》

《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강영창은 밥탄 냄새가 연하게 떠도는 사무실을 흡족해서 둘러보았다.

공장장은 혀를 차며 항의하였다.

《여기가 뭐 합숙인가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사무실에 들어서면 밥탄내, 된장냄새부터 난답니다. 거 혹시 전번 일때문에 그러는건 아닙니까?》

《무슨 소립니까?》

《한기사가 처음 찾아왔을 때 내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가정주위환경이 나쁜 인간들을 싸고도는가구.》

강영창은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었다.

《원, 공장장동무두. 아닙니다.》

《그럼 됐습니다. 소뿔은 단김에 뽑으랬다구 당장 옮깁시다.》

《난 한번 말하면 그만입니다.》

강영창은 일단 아니라고 하면 벽도 문이라고 내미는 고집불통이였다.

공장장 역시 황소힘줄같은 질군이였다.

《어쨌든 오늘부턴 여기에 있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바빠난 사람은 강영창이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이곳에 틀고앉았는데 안되겠군.

안경테를 밀어올리고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흘렸다.

《창고를 돌아보았는데 쓰지 않는게 몇개 있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듣고있던 공장장이 펄쩍 뛰였다.

《그러니 창고에서 숙식하겠다는겁니까?》

강영창은 두팔을 쩍 벌려보였다.

《별수 있습니까? 당장 쫓겨날 판에.》

《가만, 개인집은 어떻습니까? 공장주변에 깨끗한 집들이 있습니다.》

《싫습니다.》

《그럼 려관은?》

강영창은 아예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공장장은 아무래도 코집이 글렀다고 생각했던지 한발 물러났다.

《후날 인정머리없다구 욕하지 마십시오.》

《욕은 왜 하겠습니까.》

그날 오후 강영창은 공장장과 함께 자기가 앞으로 거처할 《집》으로 찾아갔다.

오래동안 비여있은 창고는 사방에 또글또글한 쥐똥이 너저분하고 몹시 습하였다.

《음, 좋구만.》

해방전 하숙집과 함바생활에 치여난지라 조용한 창고가 마음에 들었다. 좀 손질하면 지낼만하였다.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물을 뿌린 다음 비자루로 빡빡 쓸어냈다.

《그런 일이야 로동자들한테 시키면 되겠는데.》

공장장이 만류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내가 살 집인데 로동자들을 시키면 됩니까.》

그는 제손으로 쓸고 닦고 하던 끝에 온전한 방을 꾸려놓았다. 그런 다음 저녁중으로 새로 꾸린 《집》에 보잘것없는 이사짐을 들여놓았는데 그중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새로 낸 창문턱에 주런이 올려놓은 화분들이였다.

꽃아욱, 장미, 백일홍…

공장장이 돌아가자 강영창은 《집》안을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

었다.

《적산》가옥에 들지 않길 잘한것같았다. 간부랍시구 거기에 간다면 앞으로 로동자들을 대할 면목이 없을수도 있었다.

이렇게 그는 공장창고에 살림을 풀어놓았다. …

에라, 미역국이나 실컷 먹자.

진득진득한 미역오리에 달라붙은 모래를 훑어내리던 그는 아차하고 일어났다. 래일 아침에 조직해놓은 기술협의회가 생각난것이다.

물젖은 손을 작업복자락에 대충 문지르고 외국기술도서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함흥에 주둔한 쏘련군위수사령부의 한 소좌(그는 쏘도전쟁전 우랄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기사로 있다가 군대에 입대하였다.)한테서 빼앗다싶이 한 도서였다.

그는 올해초부터 로어공부에 달라붙었는데 석달도 못되여 기술원서도 힘들지 않게 번역하게 되였다. 로동자들은 이 흥남일판에서 제일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 기사장이 언제 외국어까지 공부했는가고 놀라와하였다.

한페지 또 한페지 넘기는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에는 전날 밤 먹다 남은 통강냉이를 한줌 집어먹고 점심은 어느한 공장의 생산정형을 료해하느라고 건너뛰였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하는 창자가 참다못해 요동을 치고있었다.

다시금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우에 기술도서를 올려놓고 번역하면서 두손은 미역오리를 슬슬 씻었다.

뗑뗑!—

벽시계가 23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더는 배고픔을 참을수 없어 기술도서를 치우고 화로에 나무쪼각들을 집어넣었다.

조금후에 빨간 불길이 솟구쳤다. 밥과 국은 물론이고 지지개까지 끓이군 하는 착실한 다용도남비에 물을 쏟고 미역오리를 손칼로 썩둑썩둑 잘라넣었다. 기름과 고추가루, 마늘 같은것은 당초에 없다. 그래서 소금만 조금 넣었다.

남비가 벌렁벌렁 끓더니 구수한 미역국냄새가 방안에 들어찼다. 우에 둥둥 떠도는 허연 거품을 숟가락으로 걷어내고 미역오리를 건졌다. 입안에서 모래가 자글자글 씹혔지만 미역오리들은 몇번 씹히지도

못한채 식도안으로 사르르 넘어갔다.

미역국을 정신없이 목구멍으로 넘기던 그는 웬 일인지 수저를 내려놓았다. 남달리 미역국을 좋아하던 안해가 생각난것이다.

지금도 먼길 떠나는 남편을 위해 밤을 새우며 배띠를 만들던 안해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강영창은 수술후과로 창자가 아래로 처지면서 느끼는 진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안해가 만들어준 배띠를 차고다니군 하였다.

《여보, 이걸 차세요.》

《지금것두 일없소.》

《내 말대로 하세요. 어서요.》

새 배띠를 허리에 두르는데 안해가 걱정하였다.

《북에선 왜놈한테 복무한 기술자들을 청산한다는데 일없을가요?》

《그런 걱정은 마오. 북에 가서 자리잡으면 데리러 오겠소.》

강영창은 그때 안해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북에 들어와 흥남지구 인민공장 조사부 차장, 기사장의 중임을 맡고보니 자리를 뜰수 없었다. 안해가 생각날 때마다 비료가 쏟아져나오면 가봐야지 하고 위안할뿐이였다.

눈깜빡할 사이에 반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동안 집을 떠날 때 안해가 만들어준 배띠는 퍼그나 낡았다. 군데군데 천이 찢어져 솜이 기여나오고 실밥이 떨어져나가기도 하였다. 그래서 문을 안으로 닫아걸고 서툴기 그지없는 바느질을 하느라면 밤을 꼬박 새우며 배띠를 만들던 안해의 정겨운 얼굴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군 하였다.

창자를 괴롭히던 배고픔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제나저제나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안해의 애처로운 모습만 생각났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주오!

5

똑똑똑— 똑똑똑—

강영창은 처음 문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식어버린 미역국을 밀어놓고 기술도서를 마저 번역하려고 펼치다가 삐걱— 하는 소리를 들었다. 언제부터 기계기름을 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에 쫓겨 잊어버린 녹쓴 돌쩌귀가 집주인한테 손님의 래왕을 알려주는 초인종역할을 수행하고있었던것이다.

찾아온 사람은 라기사였다.

《기사장동무, 바쁘지 않습니까?》

《손님을 만나는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영창은 그의 말을 후덕하게 받아주며 안경을 벗었다. 그러자 아이들처럼 순박해보이는 얼굴이 나타났다.

방주인이 권하는 나무침대(방안의 유일한 가구였다.)에 엉치를 붙인 라기사는 턱에 난 화상자리를 쓸어만졌다.

《오늘 첫 비료를 뽑고보니 생각이 많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동안을 두었던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고개를 주억거린 강영창은 자기의 인생에 드리웠던 검은구름이 홀연 사라지고 밝은 해빛이 비쳐들던 잊지 못할 그날에로 회억의 노를 저어갔다.

…보안서류치장은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벽에는 누군가 휘갈겨쓴 어지러운 락서가 남아있고 바닥에 무져놓은 묵은 벼짚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벼짚속에 몸을 파묻은 라기사는 한손으로 뒤머리를 고인채 흘끔흘끔 넘겨다보고있었다. 자기 같은 사람은 할수 없지만 당신이야 간부인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소 하는 표정이였다.

강영창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쏘련으로 떠나겠다는 라기사를 공장에 붙잡아두겠다고 윽윽 벼르던 자기가 그와 꼭같은 처지에 빠졌

으니 말이다.

이쪽에서 말이 없자 라기사는 알만하다는듯 먼지가 풀풀 이는 벼짚을 헤집고 돌아눕더니 비관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차라리 귀국하지 않았을걸 그랬습니다.》

가슴이 답답해난 강영창은 뻘건 살창이 박혀있는 뙤창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다.

가닥가닥 비쳐드는 뿌연 해빛을 보느라니 억울한 생각이 치받쳐올랐다.

난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에 감동되여 스스로 북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량심과 기술을 건국에 깡그리 바치고있다. 그뿐인가. 기술자들을 모으려 노상 굶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고 완고한 공장장을 설복해서 이전 군수의 아들인 한홍식을 데려왔다. 그런데 어째서 날 의심하는가? 어째서 사람의 진심을 알려고 하지 않는가?

다음날 오후 밤새 벼룩과 모기한테 물리운 허벅다리를 벅벅 긁고있는데 류치장문이 열렸다.

《강영창동지, 나오십시오.》

어제와는 퍽 다른 보안서원의 누긋한 말소리에 다소 의아해났지만 스적스적 류치장을 나섰다.

그러는데 뒤에서 또다시 탄식소리가 들려왔다.

《귀국하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보안서원을 따라 웃층으로 올라가 낮익은 방안으로 들어서자 보안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군복차림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영창동무!》

처음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불신으로 가득찬 이 방에 설마 자기를 반겨맞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내 김책이요.》

아닌게아니라 이마가 보기 좋게 벗어진 그는 분명 항일혁명투사 김책이였다.

《안됐소. 빨리 온다는게 늦었구만. 자, 앉소.》

김책이 내주는 의자에 앉으니 억울하던 감정이 한결 풀리였다.

《이게 얼마만이요? 벌써 반년이 지났구만. 그때가 생각나오?》

그 말을 듣자 강영창은 시뭇이 웃음을 지었다.

…콩국바께쯔를 둘러싼 로동자들이 저저마다 소리쳤다.

《차장동지, 빨리 오십시오.》

《늦게 오면 없습니다.》

《그러지 말구 어서 내려오십시오. 아, 차장동지가 내려와야 우리도 먹을게 아닙니까?》

새로 제작하는 합성압축기용접에 정신팔린 강영창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오전중으로 끝내야겠는데 하고 철판이음짬에 용접물을 먹이는데 누군가 《차장동무!》 하고 어깨를 툭 쳤다.

《난 상관말고 동무들끼리 하오.》

그 사람은 방해될가봐 그러는지 뒤로 물러났다.

용접봉꽁다리를 뽑아던지고 새 용접봉을 갈아끼웠다. 그때 좀전에 어깨를 건드렸던 사람이 또 말을 걸어왔다.

《좀 쉬구 하는게 어떻습니까?》

바빠죽겠다는데 하며 용접면을 내린 강영창은 자기앞에 군복차림의 중년남자가 서있는것을 보았다. 자기가 알고있는 사람들속에서는 본적 없는 초면의 얼굴이였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군모를 벗은 중년남자는 겸손한 어조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김책이라고 합니다.》

《김책?… 어쨌든 반갑습니다. 전 강영창입니다.》

《압니다. 로동자동무들이 차장동무의 칭찬을 많이 하더군요.》

《뭘요.》

《그동안 공장을 복구하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순간 머리속에 섬광 같은것이 일어났다.

가만, 이자 김책이라고 했지? 아니, 그럼?

《혹시 파견원으로 나오셨던 김책동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허허!》

강영창은 소탈하게 웃고있는 김책을 어리둥절해서 보았다. 백두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며 싸창으로 왜놈들을 무리로 쏘아눕혔다는 백전로장은 자기가 상상했던것처럼 틀을 차리고 위엄이 뚝뚝 돋는 용장이 아니라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였던것이다.

여느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크지 않은 눈속에서 뿜어나오는 은근한 정기였다.

이분이 정말 항일빨찌산이 옳긴 옳은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자머리》들은 마르크스동지가 어떻소, 레닌동무가 어떻소 하고 저희들이 무슨 큰 공적이라도 쌓은것처럼 우쭐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였다. 그들가운데는 오기섭이도 있었는데 그는 해방당시 쏘련제땅크를 타고 고향인 홍원까지 나와 붉은군대 녀성군인과 어깨겯고 《정의의 싸움》을 불렀다. 그리고는 숨돌릴새도 없이 《오기섭테제》라는것을 발표하고 함흥에 틀고앉아 함경남도 공산당부를 만든 인물이였다. 하지만 그처럼 기세등등했던 오기섭도 조선인민혁명군 파견원으로 함흥에 나와있던 김책앞에서는 함부로 놀아대지 못했다고 한다.

용접면을 바닥에 내려놓은 강영창은 정중히 인사하였다.

《김책동지, 나라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많으셨습니까?》

그것은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였다. 항일투사들이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풍찬로숙하며 왜놈들을 때려부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나라찾는 싸움인데 고생이랄게 있습니까.》

이번에도 겸손하게 응답하는 김책이였다.

좋은 사람들은 한번의 상봉에도 정이 통하는것같았다. 강영창은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 항일투사의 인품에 반하였고 김책은 또 그대로 진실하고 열정적인 기술자가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일은 잘돼갑니까?》

《예, 왜놈들이 파괴한 합성압축기와 변류기, 류안포화기를 적지 않게 살려냈습니다.》

기억력이 비상한 강영창은 공장의 파괴정형과 복구상태를 대비하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날 두사람은 공장복구를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

《잠간 기다리오.》

강영창에게 량해를 구한 김책은 보안서장을 향해 엄하게 일렀다.

《장군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기술자들을 굳게 믿고 계시는데 동문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었소? 동무처럼 편협한 사람들

때문에 건국사업에 떨쳐나선 기술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는지 알기나 하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장군님의 의도를 잘 알고 일해야겠소.》

《알겠습니다.》

김책은 책상우에 올려놓았던 군모를 집어들었다.

강영창은 무심결에 보안서장을 돌아보았다. 그는 잘못을 뉘우치고있는지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김책과 함께 보안서를 나섰으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김책이 보안서에 찾아왔으니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갇혀있을번하지 않았는가.

《노여움이 풀리지 않은게로구만.》

김책의 그 말에 참고있던 울분을 터쳤다.

《김책동지, 억울합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자구 38°선을 넘어온줄 아십니까?》

김책의 얼굴에 그려졌던 웃음발이 저녁노을마냥 스러지고있었다.

《그러니 후회한다는거요?》

《후회하는건 아니지만 손맥이 풀립니다.》

뒤짐을 지고 걸어가던 김책은 우뚝 멎어섰다.

《이제 보니 안되겠구만. 그런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새 조국건설에 뛰여들었소?》

자기의 심정을 알아줄것이라고 믿었던 그가 엄하게 질책하자 강영창은 얼떨떨해났다.

《그건 무슨…》

《강동문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댔지?! 정규군의 지원도 없고 공고한 후방도 없는 항일빨찌산이 무슨 힘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왜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해방시켰는가구. 내가 그때 뭐라고 했소? 우리 빨찌산들은 **김일성**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조국을 찾을수 있다는 신념을 안고 왜놈들과 억천만번 싸워 이겼다구 하지 않았소. 헌데 이게 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장군님을 믿고 38°선을 넘어올 때의 초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게 아닌가.》

《?!》

《그리구 똑똑히 듣소. 동문 혹시 이 김책이 자기를 보안서에서 데려내왔다고 생각하는것같은데 그건 잘못 생각한거요. 동물 보안서에서 데려내온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란 말이요.》

김책의 말에 강영창은 너무 놀라서 어리벙벙해졌다.

《장군님께서 절 알고계십니까?》

《그렇소. 난 지난해 동무를 만나고 평양에 올라가서 장군님께 흥남에 장군님의 개선연설에 감동되여 38°선을 넘어온 애국적인 기술자가 있다고 말씀올렸소.》

도수안경뒤에서 강영창의 눈섭이 푸들푸들 떨었다.

《장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우릴 믿고 북에 들어와 새 조국건설을 위해 애쓰는 강영창동무를 잘 돌봐주자고 하시였소. 이번에도 장군님께서는 나를 보내주시면서 그처럼 훌륭한 동무가 편협한 사람들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는데 앞으로 일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자고, 홀몸으로 때식을 끓여먹으며 뛰여다닌다는데 인차 가족들도 데려오자고 말씀하시였소.》

강영창은 뿌옇게 흐려진 안경을 벗었다. 걷잡을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눈물젖은 안경알을 닦기 시작하였다. 다음순간 가슴속에서 격정의 파도가 분수처럼 솟구쳐올랐다. 지금껏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심신을 안정시켜주던 그 습관이 오늘은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었다.

안경을 도로 낀 그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김책동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뭐요?》

강영창은 보안서에 갇혀있는 라기사이야기를 꺼냈다.

《동무두 참, 그 말을 왜 이제야 하오?》

김책에게 또 부담을 끼치는것같아 그랬다고, 다른건 몰라도 라기사의 기술이 아깝다고 그는 중언부언하였다.

김책의 얼굴에 웃음이 어렸지만 목소리는 자못 진중하였다.

《그러니 동문 기술이 아까와서 라기사를 데려와야 한다는거구만. 아니, 그건 우리 장군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요. 장군님께서 지식인들을 아끼시는건 결코 그들의 기술때문만이 아니요. 한번 생각

해보오. 해방전에 그들은 기술이 높았지만 언제 한번 인간대접을 받은 적 있소? 동무도 왜놈땅에서 목숨까지 잃을번하지 않았소.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쳐부시고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동무가 과연 있을수 있었겠소? 그런데도 장군님께서는 건국을 위해 기술을 마음껏 바치고싶어하는 그들의 소원까지도 다 헤아려주고계신단 말이요.》

강영창은 또다시 안경이 눈물에 젖어드는것을 알았다. 하지만 눈앞은 태양을 마주한것처럼 환하였다. 그 해빛은 좁고 어둡던 가슴속을 밝고 뜨겁게 비쳐주고있었다.

지금껏 난 어떻게 생각해왔던가. 기술을 모르는 로동자들만 가지고는 복잡한 비료생산공정들을 복구할수 없으니 흩어진 기술자들을 데려와야 한다고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지식인들의 기술에 앞서 참된 삶과 존엄을 빛내여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고계시지 않는가. 아, 난 언제면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다 헤아릴수 있을가?

멀리 해빛밝은 평양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흥남비료공장에 찾아오시였을 때 만나뵈왔던 **김일성**장군님의 존안이 우주를 밝게 비치는 태양처럼 숭엄하게 안겨왔다.

《김책동지, 전 오늘 세상에 다시 태여난것같습니다.》

《강동무, 나나 동무나 우린 모두 장군님품에서 다시 태여난 행운아들이요. 우리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기요.》

김책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강영창도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두손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와 함께 맹세의 박동으로 높뛰는 두 심장도 하나로 합쳐졌다.

한시간후 흥남비료공장정문으로 활기에 넘친 세사람이 들어섰다. 김책과 강영창, 보안서에서 풀려나온 라기사였다. …

《정말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였다면 난 오늘같은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겁니다.》

라기사가 진심으로 감동되여 하는 이야기였다.

강영창도 같은 심정이여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라기사동무, 우리 장군님의 믿음을 언제나 잊지 말구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합시다.》

《알겠습니다.》

방을 나서려던 라기사가 돌아섰다.

《참, 처남소식은 아직 없습니까?》

《예.》

언제인가 강영창은 그한테 류기연이라는 사람을 모르는가고 물었었다.

그때 라기사는 안다고, 자기는 해방전 만철종업원사택구역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는데 출근길에서 같은 조선인기술자인 류기연을 자주 만났고 그 과정에 벗으로 사귀게 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국으로 나올 때 찾아가니 그는 이미 려순공대 동창생들과 함께 귀국하였었다고 알려주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만나게 될겁니다.》

라기사가 돌아간 후 기술도서를 다시 펼쳤지만 정신이 집중되지 않았다.

나라가 해방된지 한해가 되여오는데 류기연의 소식은 묘연하였다.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것을 보면 혹시 남쪽으로 내려갔을수 있었다.

형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6

교무주임의 방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당신은 어째서 미국어른들의 정책을 비난하는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는지 그 속심을 빠개놓으란 말이요.》

사은룡은 교원들앞에서 큰소리를 친적이 없었다. 얼굴에 침착한 표정을 짓고 매사를 용의주도하게 처리해나가는 그는 인격자로 공인되여있었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체면을 잃고 부쩍 열을 올리고있었다.

그 고성을 삼켜버린것은 코소리가 진한 추진석의 목소리였다.

《학생들에게 필요한건 학문만이 아니요.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것도 교원의 임무란 말이요.》

《그건 무슨 가을뻐꾸기같은 소리요?》

《몰라서 묻소?》

언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간 그들은 사람이 방에 들어선줄도 모르고있었다.

《이제 보니 당신은 량심이 조금도 없는 인간이구려.》

자기보다 키가 한뽐이나 작은 추진석을 거만하게 내려다보는 사은룡의 얼굴에 랭소가 맴돌았다.

《량심?》

《그렇소. 광산에서 막로동이나 해먹던 당신한테 누가 궁궐같은 집을 주었소? 대학교원으로 내세워준건 어느분들이요?》

추진석의 한쪽입귀가 우로 올라가면서 비웃음이 생겨났다.

사은룡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이라면 귀인들한테 아마 열번도 절을 했을거요. 그런데 오히려 배은망덕한짓을…》

《걷어치우오.》

상대의 말허리를 칼로 베듯 잘라버린 추진석은 도두룩한 이마를 가리운 고수머리를 성칼지게 쓸어넘겼다.

《그러지 않아도 그 <은혜>가 부담스러워서 털어버리자던 참이요.》

《이 사람이?… 여보, 미국어른들을 비난하는건 큰죄란 말이요, 큰죄!》

《큰죄》라는 말뜻을 엄엄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허공을 흔드는 주먹으로까지 생동하게 표현하는 사은룡이였다.

류기연은 그가 확실히 변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해방전 사은룡은 리해력있고 지성도 있는 사람이였다.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

《그렇다면 묻기요. 내가 <큰죄>를 지었다면 나라가 해방되자 조선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난 당신은 어떻게 봐야 하오? 그건 <큰죄>의 n제곱이 아닌가 말이요.》

송곳으로 찌르는것같은 추진석의 신랄한 반격이였다.

《뭐, 뭐요?》

얼굴이 수수떡처럼 뻘개진 사은룡은 더 참을수 없다는듯 앞으로 한발자국 내짚었다.

추진석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러자 두사람의 거리는 어른주먹이

겨우 드나들만큼 좁혀졌다. 그러고보면 추진석과 사은룡의 관계는 악연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었다. 해방전 《아시아》호열에서 언쟁을 벌렸던 두사람은 해방후 대학에서 또 적수로 마주선것이다.

《으험!》

류기연은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깇었다.

《아, 학부장선생이요?》

먼저 자신을 수습하고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사은룡이였다. 대학운영을 틀어쥐고있는 자신이 평교원과 말다툼을 벌리는 모습을 남에게 보인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이였다.

추진석의 태도는 그와 반대였다. 마치도 땅에 깊숙이 묻혀있던 괴상한 물건을 뚜지다가 곡괭이를 빼앗긴 사람처럼 아쉬운 표정이였다.

《추선생은 내 방에 가있소.》

추진석의 두눈에 왜 나보고만 해보나 하는 억울한 빛이 번뜩이였다.

《교무주임선생하구 토의할 문제가 있소.》

못마땅해서 쳐다보던 그는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가버렸다.

《허 참, 무슨 사람이 저 모양인지.》

깎이운 체면을 보상하려는듯 사은룡이 던진 비난이였다.

류기연은 그 말투가 귀에 거슬렸으나 내색하지 않고 서류를 내주었다.

《다음주 강의시간표입니다.》

《어디 보기요.》

서류를 들여다보는 사은룡의 얼굴은 어느덧 깐깐한 교무주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좋소, 이대로 하기요.》

서류를 책상우에 올려놓은 그는 번듯한 이마에 주름살을 모으고 또다시 추진석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정말 추선생때문에 골치가 아프구만. 교원이라는 사람이 강의는 하지 않구 미국어른들을 헐뜯으니 이게 야단 아니요. 미<군정청>에서도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소. 계속 그렇게 나오면 대학에 붙어있지 못할거요.》

류기연은 찬바람을 맞은것처럼 가슴이 섬뜩해났다.

일단 불이 달리면 화약처럼 폭발하는 친구와 점점 안개속에 잠긴 것처럼 뿌연 사은룡과의 마찰이 꼭 화를 불러올것같았다.

따르릉하고 전화종이 울렸다.

사은룡은 정중한 자세로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스미스각하, 접니다. 예예, 사은룡입니다. …그 일은 걱정마십시오. 문제없습니다. 헌데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워지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예.》

그 모습을 묵묵히 응시하던 류기연은 가슴속에 생겨난 불신의 그림자를 뚜렷하게 의식하며 방을 나섰다.

학부장방으로 돌아오니 추진석은 창문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거기 좀 앉게.》

추진석은 할 말이 있으면 실컷 해보라는듯 퍼더버리고 앉았다.

《자네 그게 뭔가?》

친구는 두눈에 초불을 달고 마주보았다.

《내가 어쨌다는건가?》

《웬간하면 좀 참아야지.》

《왜 참으라는건가?》

류기연은 진심으로 친구의 앞날이 우려되였다.

《미국사람들을 비난하다가 대학에서 쫓겨나면 어쩔려구 그러나?》

추진석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듯 당당한 태도였다.

《쫓겨나기 전에 내 발로 나가겠네. 전번에도 말했지만 난 여기에 남은걸 두고두고 후회하네. 그런데 그 량반은 어째서 제 할애비 턱수염이라도 뽑히운것처럼 야단하는지 모르겠구만.》

불만을 털어놓던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자, 가세.》

《어디 간다는건가?》

《가보면 알게 되네. 아, 일어나라니까.》

그가 잔등을 떠밀며 복닥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류기연은 영문도 모르면서 따라나섰다.

그들이 당도한 곳은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룡산기관구였다.

시뻘겋게 녹쓴 기관차와 화차들이 전투의 잔해처럼 여기저기 서

있고 어른키만한 차바퀴들이 나딩굴고있는 기관구마당에 철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까맣게 모여있었다.

《아, 추선생님이 오셨구만요.》

《여기 오십시오.》

로동자들이 반겨맞는것을 보니 추진석은 이곳에 한두번 온것같지 않았다.

그때 철도모자를 손에 움켜쥔 로동자가 궤짝들을 쌓아서 만든 《연단》우에 뛰여올랐다.

《여러분, 조선화물자동차회사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해방직후 그 회사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였고 그들에 의해 여러달동안이나 운영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나왔는가? 회사를 통채로 몰수하여 자기들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매판재벌들한테 양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사들과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나라의 재부가 매판자본가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일으켰던것입니다.》

마당은 불을 지핀 죽가마처럼 설설 끓어번졌다.

《그런데 <군정청>은 무장경찰대와 기마경찰대를 내몰아 맨주먹밖에 없는 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전 두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경찰놈들이 파업자들을 체포하고 수십여명이나 쏘아죽이는 끔찍한 광경을 말입니다. 이 류혈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은 우리의 <해방자>가 아니라는겁니다.》

《연단》에 다른 로동자가 올라섰다.

《옳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의 가족들, 다른 운수부문의 로동자들도 합세하고있는데 우린 뭘 하고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걸 멍청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사방에서 뻘건 주먹들이 허공을 내지르고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한테 가자!》

서로서로 어깨를 겯고 영싸, 영싸 기세를 올리던 철도로동자들은 시내로 달려나가기 시작하였다.

파도처럼 밀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던 추진석은 자기도 그 대오에

끼여들고싶은지 어깨를 들썩들썩하였다.

《저들이 왜 시위에 나섰는지 아나? 그건 미국이 왜놈을 대신해서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고있기때문이네. 그래, 이 살풍경이 우리가 바라는 해방조선이란 말인가? 그리구 난 스미스를 좋게 보지 않네. 위선자같단 말일세.》

친구의 입에서 스미스의 이름이 튀여나오자 류기연은 은근히 긴장되였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제지공장문제를 놓고 생각이 복잡한 그였다.

스미스는 약자를 돕는건 하느님의 뜻이라고, 류선생의 얼굴을 봐서 힘껏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학에 올적마다 어떻게 됐는가고 물으면 워낙 복잡한 일이여서 시간이 걸린다고 듣기 좋게 대답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며칠전에 류기연은 어깨가 축 처져서 지나가는 이전 제지공장 주인을 만났었다.

《학부장선생, 미국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수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란 대체 뭐요? 죄없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재산을 략탈하는것밖에 뭐가 더 있는가 말이요. 그런데도 그들을 <해방자>로 여기고있었으니 나야말로 정신이 쑥 나간 놈이우다.》

주먹으로 가슴을 들이치며 내뿜던 그의 원성을 되새겨보자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거워났다.

과연 미국인들의 진짜속심은 무엇인가. 이 친구의 말처럼 스미스가 정말 위선자란 말인가?

7

스미스는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미인과 단 둘이 있을 때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고운 녀자를 보내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싶을가? 아니면 녀자가 자기를 훌륭한 신사로 여기도록 점잔을 뽑고싶을가? 아니다. 그건 못난이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사나이라면 모처럼 차례진 기회에 미인과 한껏 즐기고싶은 충동,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강한 정복욕을 느낄것이다. 고운 꽃을 보면 무작정 꺾고싶은것처럼.

맞은켠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녀자는 눈동자가 흑진주같다느니, 입술이 무르익은 앵두알같다느니 하는 작가들의 표현을 비웃을만큼 아름다왔다. 한번 보면 마술에 걸린것처럼 보고 또 보고싶은 녀자였다.

스미스는 자기 체내에서 일어나는 짜릿한 생리적변화를 의식하며 명화를 감상하듯 녀자를 관찰하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출장차로 프랑스에 갔었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인상깊은 곳은 루브르미술박물관이였다. 그곳에 소장되여있는 수많은 명화들가운데서 단연 뛰여난 명화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몬나리자》였다.

이름난 왕족이나 뛰여난 미인도 아닌 녀성이 수백년을 두고 내려오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라고 하는 신비한 미소때문이였다. 이렇게 보면 애수에 잠긴듯하고 또 저렇게 보면 즐거워하는것같기도 한 녀인앞에서 넋을 잃고 서있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자기앞에 공손히 앉아있는 녀자한테서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될줄이야.

어찌 보면 애원하는것같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유혹하는듯한 야릇한 미소!

매출한 두다리를 모아붙이고 몸을 옹송그린 그 모습은 흡사 맹수앞에서 바들바들 떨고있는 암사슴을 방불케 하였다. 당장이라도 그 《암사슴》을 침대에 쓸어눕히고싶은 충동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스미

스는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겨우 씹어삼키고말았다.

다음순간 그의 눈에 거만한 빛이 스물거렸다.

설사 미인이라고 해도 저 녀잔 패전국의 계집이다!

한다리를 반대켠 다리우에 올려놓은 스미스는 고양이가 쥐를 대하듯 위엄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아가씬 어떻게 돼서 여기로 왔는지 알고있소?》

녀자는 그만하면 꽤 알아들을수 있는 영어로 응답하였다.

《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저 각하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을뿐입니다.》

《좋소. 이제부터 아가씨를 미화라고 부르기요.》

이렇게 말한 스미스는 자기가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였다.

미화라… 확실히 그 이름은 녀자의 용모와 잘 어울렸다.

《본론에 들어가기요.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건 이 땅의 인재들이 북조선으로 쏠리고있는 사실이요. 벌써 적지 않은자들이 38°선을 넘어갔소. 이 사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오. 문제는 우리한테 그들과 상대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거요. 야마도민족은 우리와 다르지. 그래서 난 도꾜사령부에 이전 만철조사부소속 성원이였던 미화양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던거요.》

《감사합니다. 각하가 아니였다면 전 아직…》

가늘게 떨리는 미화의 목소리는 금시 눈물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두눈에는 진저리나는 지난날에 대한 경멸의 빛이 번뜩이였다. 이상하게도 그 차거운 표정마저 녀자의 매력을 돋구어주고있었다.

《만철조사부는 정치와 경제, 군사부문을 정탐하기 위해 조직된 강력한 연구조사기관이였소. 동시에 일본군부와 밀접한 련계를 가진 현지첩보기구이기도 하고. 내 말이 옳소?》

《예, 옳습니다.》

《미화양은 그 기관에 근무했으니 우리 일에도 인차 적응할거요.》

《그렇게 믿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흠, 아가씨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대학교원들이 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거요. 그러자면 그들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월북기도가 나타나면 즉시 저지시켜야 하오.》

미화는 진지한 자세로 훈시를 듣고있었다.

《난 이미 한사람을 점찍어놓았는데 실력이 뛰여나고 동료들속에서 신망도 높소. 중요한건 그가 미국을 진짜 해방자로 여기고있다는 사실이요.》

《각하, 그가 누굽니까?》

《학부장 류기연이요.》

미화의 반듯한 이마에 한줄기 주름살이 생겨났다.

《아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의 주름살은 보이지 않는 다리미로 지진것처럼 없어졌다.

《지금 그는 <제동장치기술>이라는 도서를 집필하고있는데 그게 완성되면 철도부문에서 꽤 인기가 있을거요. 그리고 다른 지식인들한테 주는 영향도 크고. 따라서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장악해야 하오.》

스미스는 책상서랍에서 검은 안경을 꺼냈다.

《이 안경이 당신을 보호해줄거요. 한번 껴보시오.》

안경을 받아든 미화는 약간 주저하다가 얼굴에 걸었다. 그러자 사내들의 넋을 흐리고도 남을 요염한 두눈이 가리워졌다.

《고맙습니다, 각하!》

그가 안경을 벗어 손가방에 넣자 스미스는 볼편에 주름살을 모으며 히죽 웃었다.

《이젠 사업상용무도 끝났으니 상봉의 기념으로 한잔하는게 어떻소?》

그에 대한 미화의 대답은 살풋한 웃음, 그래서 더욱더 남자의 관능을 자극하는 매혹적인 미소였다.

안락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스미스는 방구석에 있는 장식장으로 다가갔다.

《이건 내 친구가 준건데 10년 묵은 꼬냐크요.》 하고 꼬냐크병을 들어보인 그는 차탁앞으로 돌아와 술을 잔에 부었다.

《우리의 합작이 성공하기를 바래서 들기요.》

《예.》

두개의 유리잔이 공중에서 부딪치며 맑은 음향을 일으켰다.

그 잔향을 기분좋게 들으며 스미스는 술잔에 입술을 가져갔지만 눈은 유리잔너머에 있는 녀자를 겨누고있었다. 대리석을 정교하게 다듬은것같은 우아한 목을 뒤로 젖히고 꼬냐크를 들이키는 그 모습은 참으로 유혹적이였다.

또다시 몸에서 일어나는 짜릿한 변화를 가까스로 눌러버린 스미스는 미화가 빈잔을 탁우에 내려놓자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참,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어떻게 돼가고있소?》

《예? 그, 그건…》

매력을 뿜고있던 미화의 두눈에 공포가 파들거렸다.

스미스는 속으로 흐뭇하게 웃었다. 사실 맥아더사령부에서는 《군정청》에 극동국제군사재판소식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주고있었다.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 못지 않게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쏘련과 중국,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들로 구성되였는데 일본의 주요전쟁범죄자에 대한 사건심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척하고 그 질문을 던진것은 녀자의 기를 꺾어놓기 위해서였다. 문제로 삼자면 이전 만철조사부에 근무한 경력도 안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말을 흘렸는데 바라던 효과가 나타난것이다.

그쯤하면 《암사슴》을 단단히 비끄러매놓았다고 단정한 스미스는 다음단계로 넘어갔다.

《춤을 좋아하오?》

《각하가 요구하신다면…》

스미스의 파란 눈에서 연약한 암사슴의 목덜미를 물고 만족해하는 사자의 기상이 뿜어나왔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속에 없는 말을 흘리고있었다.

《춤이란 인류가 창조한 고급한 문화거던. 미화양은 대체로 어떤 음악을 좋아하오?》

상전의 기분을 파악하려는듯 곁눈질로 살펴본 미화는 조심스럽게 대꾸하였다.

《저, 왈쯔를…》

《흠, 왈쯔를 좋아한단 말이지.》

스미스가 손을 움직이자 축음기에서 서정적인 왈쯔곡이 흘러나왔다.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신사답게 고개를 숙여보인 스미스는 녀자가 다가서자 달린옷속에 숨어있는 날씬한 허리를 슬며시 그러안았다.

전주곡을 흘러보낸 두사람은 방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였다.

미화는 인물도 아름다왔지만 춤도 잘 추었다. 곡상에 맞게 웃몸을 유연하게 흔들기도 하고 남자의 손밑에서 맵시있게 원을 그리는 동작은 우아하기 그지없었다.

《이 왈쯔곡은 <윈의 숲이야기>라고 하는데 <왈쯔의 황제>로 알려진 슈트라우스2세가 지은 10대곡가운데 하나요.》

명문대학을 졸업한 스미스에게 있어서 녀자를 즐겁게 해줄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 솜씨에 홀딱 반해서 그를 점잖은 신사로 착각하였다가 침대에 끌려가 봉변을 당한 녀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곡은 묘사음악이라고 할수 있소. 한번 들어보오. 지금 플류트가 새의 지저귐소리를 형상하고있지 않소?… 슈트라우스2세는 분명 음악천재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단한 겁쟁이였소. 고독한 생활에 겁을 먹었고 늙을가봐 걱정이 많았지. 게다가 태양마저 불안하게 생각되여 비오는 날을 좋아했소. 그때문에 이처럼 아름다운 선률을 낳게 한 윈의 숲이지만 그자신은 그곳에 가본 일이 없단 말이요. 허허허.》

세계적인 작곡가가 마치 자기의 친구이기라도 하듯 거리낌없이 비난한 스미스는 눈앞에서 한들거리는 빨간 입술을 보자 자기의 입술을 꽉 눌러대고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동시에 온몸이 커다란 구이로에 들어앉은것처럼 화끈 달아올랐다. 그 순간 《전승국》장교의 자부심과 명문대학 졸업생의 체면으로 누르고있던 인내의 안전고리가 툭 빠져나갔다.

스미스는 의기당당하게 날씬한 허리를 바싹 끌어당겼다.

짐작한대로 미화는 순순히 끌려왔다. 이제는 녀자를 침실로 끌고 가는데 방해될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있다면 오직 유쾌하기 그지없는 향유뿐이였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 어떤 요구에도 군말없이 응할줄로 알았던 미화가 침실앞에 이르자 오뚝 멈춰선것이다.

스미스의 얼굴은 근엄해졌다. 물론 그는 눅거리매춘부들보다 제

몸값을 가늠할줄 아는 녀자가 좋았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녀성편력기에 의하면 이와 같은 녀자들은 첫걸음을 떼기가 힘들지 일단 걷기 시작하면 이끄는대로 따라온다. 그래서인지 미화를 기어이 정복하고싶은 욕망이 더욱 솟구쳐올랐다.

이제 와서 스미스는 녀자를 춤에 초청하고 음악의 세계를 진지하게 론하던 점잖은 미국신사가 아니였다. 한시바삐 성적쾌락을 맛보고싶어 안달이 난 발정한 동물에 불과하였다.

스미스는 자신감과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눈길로 녀자를 노려보았다.

약육강식의 법칙은 짐승들의 세계에서만 통하지 않는다. 만물의 령장이라고 일컫는 인간의 생활에서도 그 법칙은 변함이 없다. 보라, 이 녀자의 눈에 순종의 빛이 떠오르지 않는가.

스미스는 노긋노긋해진 《암사슴》을 화려한 침실로 잡아끌었다.

8

교원실은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소란스러웠다.

《엄선생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우?》

《난 믿지 않소.》

《나도 같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학부장선생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오늘 오후 대학에서는 물리학부 학부장이 대학자금을 《횡령》하고 해고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로 말하면 해방전 려순공대에서 교원으로 있다가 나라가 해방되자 즉시 귀국하여 대학의 물리학부를 일떠세운 능력있고 성실한 교육자였다. 하기에 교원들은 마치도 자신들이 더러운 오명을 들쓴것처럼 격분해하고있었던것이다.

그 사건으로 하여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류기연이였다.

그가 려순공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선생은 대학적으로 유일한 조선인교원이였다. 그는 철도공학부에 자주 강의를 들어오군 하였는데 같은 조선사람인 류기연을 남달리 대해주었다. 어느날인가는 집에 데리고 가서 구하기 힘든 기술도서를 넘겨주기까지 하였다.

《기연군, 일언이폐지하고 우리가 왜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긴건 국력이 약했기때문이요. 우린 이제라도 국력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오. 그런 의미에서 난 실력으로 왜놈들을 누르겠다는 군의 결심에 절대찬성이요.》

이렇게 맺어진 사제간의 우정은 류기연이 만철에 들어갔을 때도, 려순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끊기지 않고 련련히 이어져왔다.

왜놈들이 패망하자 그 선생은 감옥에서 나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류기연을 찾아와 자긴 한발 먼저 조국에 나가 후대교육에 종사하겠다고, 다시는 후대들이 망국노의 설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고 하였다.

몇달후 서울에 도착한 류기연은 이사짐을 풀어놓기 바쁘게 그를 찾아갔다.

어제날의 제자를 만난 스승은 무척 반가와하였다.

《왔구만. 어디 손이라도 잡아보기요.》

스승과 인사를 나눈 류기연은 귀국도중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인천부두에 오르게 된 사정과 스미스가 《적산》가옥을 배정해주고 학부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렇게 됐구만. 이왕 여기 남았으니 우리 손잡고 건국의 기둥감들을 키워보기요.》

그처럼 진실하고 열정적이던 스승이 대학자금을 《횡령》하였다니 믿을수 없었다. 손맥이 풀려서 강의를 하고싶은 생각도 없었다.

마음이 뒤숭숭해서 학생들한테 복습과제를 내주고 교무주임의 방으로 갔다.

《어떻게 된거요? 강의도중에 외출하겠다니.》

사은룡은 두눈이 휘둥그래서 쳐다보았다. 그가 놀라는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지금껏 류기연은 강의에 늦거나 빠진적이 한번도 없었던것이다.

《몸이 말째서 그러오?》

《아닙니다.》

《그럼 뭣때문에 그러오?》

까근까근 물어보던 사은룡의 눈에 경계의 빛이 어렸다.

《혹시 해임된 그 사람한테 가려는게 아니요?》

류기연은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꾸하였다.

《음, 사제간이였으니 그 심정은 리해되오. 하지만 강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더니 청렴결백한척하던 사람이 그런 너절한 인간일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글 한자를 배워도 일생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말을 빌면 려순공대시절 그 선생한테서 강의를 받은적 있는 사은룡도 갈데없는 제자였다. 그런데도 제자의 도리를 어기고 스승을 마구 헐뜯고있었다.

사람이 어쩌면 이럴수 있단 말인가?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를 사정없이 누르는 그의 뻔뻔스러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르겠구만. 강의를 중단하면서까지 그를 만나선 뭘 하겠다는거요?》

류기연도 자신이 이렇게 행동할수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여태 강의시간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던가. 간혹 끄덕끄덕 졸거나 강의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참지 못하군 하였다. 교원들속에서 강의에 늦게 들어가거나 심도있게 진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도 그가 누구든지 체면을 봐주지 않고 엄하게 추궁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난 학부장선생이 분별있게 처신했으면 하오.》

사은룡의 말투는 점잖았지만 눈에 차거운 빛이 맴돌고있었다.

《어쨌든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후에 보충하겠습니다.》

잔등에 날아와 꽂히는 날카로운 눈길을 의식하며 류기연은 방을 나섰다.

스승의 집은 대학주변의 교원사택구역에 있었다.

집에 들어서니 언제 왔는지 추진석이 스승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러다가 친구를 보자 자못 놀라와하였다. 어쩌면 그 표정에는 반가움도 섞여있는것같았다.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군. 그처럼 분망하신 학부장선생이 강의를 제쳐놓고 왕림하시다니. 황공무지로소이다.》

두손을 모아잡고 엉너리치는 친구의 노죽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스승의 입가에 쓴웃음이 매달렸다.

《난 처음 미국을 <해방자>로 여겼댔소. 그런데 그들이 김성수와 같은 친일파들을 비호두둔하고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것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소. 지금도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마구 체포하고 지어 학살까지 하고있지. 그래서 제자들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비난했더니 날 매장하려고 이런 놀음을 꾸며낸거요. 허 참.》

옆에서 듣고있던 추진석도 합세하였다.

《이번 일은 단순히 선생님 한분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과 엇서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갈이란 말입니다.》

류기연은 스승의 해고가 그처럼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을줄은 몰랐었다. 단지 억울한 루명을 뒤집어썼을 스승을 위로하기 위해 사은룡과 엇서면서까지 찾아왔던것이다.

창가에 다가간 스승이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칠월칠석이라
견우직녀 만나는 날인데
어이하여 내 눈에는
오작교 안보이느뇨

그 시를 음미하느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해방열기로 끓어번지던 자기의 가슴속에 이상한 변화가 처음으로 일어난것은 미국이 제지공장을 《적산》으로 몰수한 때였다. 두번째로 변화를 일으킨것은 룡산기관구 로동자들의 파업이였다.

그날 억대우같은 로동자의 절규가 지금도 귀전을 울리고있었다.

《전 두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경찰놈들이 파업자들을 체포하고 수십여명이나 쏘아죽이는 끔찍한 광경을 말입니다. 이 류혈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은 우리의 <해방자>가 아니라는겁니다.》

거리를 행진하는 로동자들을 보면서 류기연은 정말 미국이 경찰

을 내몰아 파업을 진압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혹시 경찰이 미국의 지시를 과잉집행하지 않았을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군정청》의 승인없이 무기고에서 보총 한자루 마음대로 꺼낼수 없는 경찰이 사람잡이를 하며 날뛰였을 때는 필경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의문을 애써 부정하고싶었다. 미국을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로 인정한다면 이 땅은 또다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된다. 그것은… 그것은 해방과 함께 품었던 희망이 또다시 빛을 잃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 리유로 하여 스승과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것이 영원한것이 아닌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현상,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였으면 하는 이률배반의 심리에 빠져들고있는것이였다.

《선생님,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가에서 물러난 스승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난 북으로 가겠소.》

《예?》

그처럼 엄청난 선택을 한 스승이 리해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 미국이 그를 복직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남아있었던것이다.

추진석이 나서며 스승의 결심을 극력 지지해주었다.

《선생님, 결심을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다간 무슨 화를 입으실지 모릅니다.》

류기연은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정말 대학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통보한다면 일이 무사치 못할수도 있었다.

《기연이, 자넨 어떻게 하겠나?》

불의에 날아든 친구의 질문이여서 일순 당황해났다.

《선생님이랑 함께 북으로 가지 않겠나?》

그것은 즉흥적으로 내릴수 없는 선택이여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 스승은 운명의 절벽우에 서있다. 이 땅에서 자기의 리상과 꿈을 실현할수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으니 그와 같은 선택은 당연할수밖에 없다.

하지만 난 스승과 처지가 다르다. 아직은 실질적으로 가해오는 물리적타격이 없다. 여전히 안정적인 생활이 지속되고있다. 꼭 북으로

가야 할 리유가 있다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해방된지 한해가 돼오니 어머니는 눈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릴것이다. 그동안 안해는 몇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수풀속에 던져진 돌처럼 한번도 회답이 없다.

인천부두에서 스미스를 따라 서울로 들어올 때는 건국을 위해 심신을 바치느라면 어머니를 만날 날이 다가올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길은 점점 멀어지고있다. 더구나 지금처럼 시국이 어수선하면 이러다 어머니를 영 만나지 못하는게 아닐가 하는 걱정까지 든다. 그렇다고 스승처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앞에는 새로 설정한 인생의 함수를 풀어야 할 운명의 숙제가 놓여있지 않는가.

추진석의 입귀가 씰룩거렸다.

《자넨 아직두 이 땅에 미련을 품고있나?》

《…》

《제발 정신차리라구. 이놈의 세상에선 자네의 꿈을 실현할수 없네.》

그는 이와 비슷한 충고를 해방전에도 했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왜놈세상과 같단 말인가? 아니, 그럴수 없다.

《진석이, 속단하지 말게. 여기도 해방된 내 나라, 내 땅이 아닌가?》

마침내 참을성을 잃은 추진석이 성을 벌컥 냈다.

《에익, 자넨 눈뜬 소경이야, 눈뜬 소경!》

문득 미군에게 붙잡혀간 키큰 검차원이 생각났다. 그도 미군군수렬차를 수리하려고 나섰던 자기더러 눈뜬 소경이라고 비난했었다. 그때는 억울하였지만 억지로 넘겼는데 친구한테서 꼭같은 말을 듣고보니 더 참을수 없었다.

《아무리 친구지간이라고 해도 인격모욕은 삼가하게.》

추진석은 불쾌한듯 고수머리를 옆으로 쓸어넘겼다.

《그걸 인격모욕으로 생각하나?》

《그럼 뭐란 말인가?》

《이제 보니 자넨 안되겠구만.》

보다못해 스승이 끼여들며 만류하였다.

《제발 그만들 하오.》

그래도 두 친구는 씩씩거리며 서로 마주보고있었다.

9

《이것두 위스키야?》

사은룡은 구정물이라도 마신것처럼 오만상을 찡그렸다. 그처럼 비싼 술을 마시면서 화를 내는것은 그만큼 심기가 불편하기때문이였다.

《당신은 대체 뭘 하는가? 교원들을 장악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주었으면 그 물리학부장이란자가 38°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저지시키든가 없애치웠어야 할게 아닌가. 그런데도 말끝마다 일이 잘되여간다고 앵무새처럼 외우고있으니 당신이 아메바보다 나은게 뭔가 말이요?》

좀전에 그는 스미스한테 불리워가 추궁벼락을 맞았다.

상전앞에서는 간이 콩알만해서 죄송하다고, 다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처하겠다고 사죄하였지만 집에 돌아오니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스미스가 자기를 교무주임으로 임명하는 날 보내주었던 위스키에 대고 화풀이를 하고있었던것이다.

흥, 내가 아니면 일이 지금처럼 진척되였을것같은가? 류기연만 놓고봐도 그렇지. 인천부두에서 그자의 경력을 알려준게 내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어디 그뿐인가. 류기연만 틀어쥐면 다른 기술자들도 넌출에 매달린 감자알처럼 걷어쥘수 있다고 귀띔한것도 바로 이 사은룡이다. 스미스는 그 말을 듣고 그자한테 2층양옥집을 주었고 대학 학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자가 강의를 중지하고 미군군수렬차를 수리한것도 내 공로이다. 그땐 잔등까지 두드려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더니 이제 와선 뭐 아메바라구? 어쨌든 나야 조선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대학의 교무주임이 아닌가.

묵은 음식그릇들이 잔뜩 널려있는 밥상우에 내려놓았던 술병을 집어들고 또다시 꿀꺽꿀꺽 들이켰다. 속이 탈 땐 그저 위스키이상 없는것이다.

이윽고 위스키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외출복도 벗지 않고 침대우에 누워있는 몸이 훈훈히 달아오르고 꿋꿋하던 사지도 느슨해졌다. 방금전만 해도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치솟아올라 무슨 일을 칠것만 같더니 이제는 구름우에 올라앉은것처럼 기분이 붕 떴다. 네

활개를 펴고 불빛이 환한 천정을 올려다보느라니 아슬아슬하게 줄달음쳐온 인생이 환등필림처럼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항복소식이 전해지자 만철본부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한쪽에서는 문건들을 소각하느라 분주탕을 피우고 또 다른쪽에서는 저마다 할복자살을 한다고 야단이였다.

안장코가 떨어지도록 잡아당기던 구마모도 역시 무릎을 꿇고 앉더니 단도를 배에 박고 갈지자로 마구 휘저었다. 쩍 벌어진 배속에서 창자가 흐늘흐늘 쏟아져나왔다. 일본말로 《셋뿌꾸》라고 하는 사무라이특유의 할복자살이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치던 구마모도는 한가한 자세로 서있는 사은룡을 보자 악에 받쳐 씨벌이였다.

《선배님은 왜… 가만있습니까?》

사은룡은 그를 내려다보며 랭담한 웃음을 지었다.

구마모도, 잘 가라구. 난 자네처럼 왜놈이 아닌데 왜 죽겠나.

만철본부에서 빠져나온 사은룡은 태를 묻은 경상도가 아니라 서울로 갔다. 고향에는 자기를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서울에 있어야 세상돌아가는 형편을 자세히 알수 있기때문이였다.

얼마동안 세집에 숨어있는데 밖에서 요란한 발동기소리가 들려왔다. 화닥닥 놀라서 창문을 내다보니 동체에 흰 별을 그려붙인 미국제땅크가 으릉으릉 지나가고있었다.

공포가 차거운 뱀처럼 잔등으로 줄달음쳤다.

미국사람들이 날 용서할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자기처럼 숨도 제대로 못쉬고있던 친일파들이 버젓이 거리에 나타났던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들을 재판정에 세우지 않고 오히려 비호두둔해주는 《해방자》들의 태도였다. 미국어른들은 좀스러운 왜놈들과는 확실히 다른것같았다.

재빨리 자기가 할바를 궁리하였다.

이젠 세상이 바뀌였으니 《쌤아저씨》들한테 붙어야 한다. 그러자면 이미전에 쓰고있던것보다 더 그럴듯한 여우가죽을 써야 하는것이다. 그 여우가죽만 잘 쓰고있으면 해방전처럼 편안히 살아갈수 있다. 그러고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수단은 처세술이다. 그 생존방식이야말로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온갖 조화를 다 부리는

《여의주》라고 할수 있다!

미군병사들이 어슬렁거리는 종로거리에 나선 사은룡은 새 양복을 사입고 미끈하게 생긴 얼굴을 쳐든채 《군정청》을 찾아갔다.

그를 맞아준 사람은 스미스라는 미군장교였다.

사은룡은 침착한 어조로 미리 준비해두었던 《경력》을 엮어대기 시작하였다.

파란 눈을 까딱하지 않고 통역의 말을 듣고있던 미군장교가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거짓말은 사무라이들한테나 가서 하시오.》

배심이 든든해서 서있던 사은룡은 난데없이 개한테 엉치를 물린 것처럼 당황해났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사실을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노려보던 스미스는 가죽뚜껑을 씌운 두툼한 문건을 쳐들었다.

《여기엔 당신에 대해 죄다 적혀있소. 계속 속이면 총살하겠소.》

인생의 가시덤불을 용의주도하게 헤쳐왔으며 따라서 림기응변에 능한 사은룡이였지만 그 순간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앞뒤를 가릴 사이없이 스미스의 군화밑에 몸을 내던지며 납작 엎드렸다.

《각하,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죄다 말하겠습니다.》

하여 사은룡은 무덤속에 가지고가야 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것을 수치로 여겼다. 남들이 기차를 타고 달릴 때 못생긴 하늘소에 올라 느릿느릿 움직이는 미개한 사람들, 서양사람들이 화려한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게딱지같은 초가에 모여앉아 시큼털털한 탁배기를 마시는 인간들이 가련하고 증오스러웠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몽매한 무리속에서 벗어나겠는가 하는 일념뿐이였다.

기회는 새처럼 소리없이 날아들었다.

어느날 밤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죽는소리를 하였다. 큰 장사를 하는 왜놈의 재산을 옭아내려고 이틀동안이나 투전을 했는데 깜찍한 상대한테 패하고 과수원을 저당잡혔던것이였다.

아이고, 이젠 쫄딱 망했구나 하고 나자빠진 아버지를 측은하게

보고있던 사은룡은 그 왜놈장사군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물었다.

시끄러워하며 들려준 아버지의 이야기중에서 관심을 끈것은 왜놈이 고자이며 그때문에 후사를 두고 무척 걱정한다는 사실이였다.

온밤 자지 않고 골똘히 생각하던 사은룡은 다음날 아버지앞에 나섰다.

《저한테 과수원을 도로 찾을 방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서 말해라. 아, 어서 말하라니까.》

《제가 왜놈의 양자가 되겠습니다.》

귀가 솔깃해서 듣고있던 아버지는 불에 덴것처럼 펄쩍 뛰였다.

《뭐, 왜놈의 양자가 되겠다구? 안된다, 안돼!》

사은룡은 부친의 손탁에서 벗어나 자립하기를 바라는, 한가정의 운명을 어깨우에 걸머진 사나이답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망합니다.》

집이 망한다는 소리에 아버지는 김빠진 공마냥 쭈그러들었다.

《헌데… 헌데 말이다. 그 사람이 널 양자로 받아주겠냐?》

사은룡은 이목구비가 그쯘한 얼굴을 보란듯이 쳐들었다.

《걱정마십시오.》

몇달후 그는 자기가 장담한대로 왜놈장사군의 아들 오노 사부로가 되여서 고향에 나타났다.

아버지는 네가 망할번한 우리 집을 구원했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만 사은룡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다름아닌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였던것이다.

한편 집안에 란리가 일어났다. 남편이 왜놈으로 귀화하였다는 사실을 안 사은룡의 안해가 동네사람들앞에 무슨 낯을 들고다니겠는가고 하며 우물에 뛰여들어 목숨을 끊은것이였다.

사은룡은 짐짓 슬퍼하는척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시끄러운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시원해하였다. 그후 총명하고 인물잘난 아들을 두었다고 흡족해하는 양아버지의 요구대로 려순공대에 입학하였다. 바야흐로 눈앞에 꿈속에서 그려보던 새 생활이 펼쳐진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사은룡은 중국 동북지방을 거머쥐고있는 만철본부에 들어갔으며 대리과장으로 승급하였다. 기술부장은 인차 정식 과장으로 임명될것이라고 암시하였다.

어깨가 으쓱해진 사은룡은 고양이가 쥐를 희롱하듯 구마모도를 비롯한 왜놈기사들을 주무르면서 자기보다 영특하지 못한 쪽발이들을 비웃었다.

하루는 만철조사부에서 호출하더니 조선인기사 류기연을 일본인으로 귀화시키라는 과업을 주었다. 한번 해볼만한 일이였다. 세상에 자기와 꼭같은 인간을 만들어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사은룡은 《선량한 일본사람》으로 위장하고 류기연을 돌봐주었다. 하지만 돌아앉아서는 기술부장한테 제기해서 금시계를 자기가 타도록 꾸몄고 돈때문에 녀편네와 쩍하면 싸우는 구마모도를 매수하여 《자동공기제동기》도면을 훔치게 하였다. 그리고 류기연을 찾아가 구마모도의 《범죄》를 알려주었다. 우연히 벌어진것같은 그 사건들은 그로 하여금 초지를 포기하고 왜놈으로 귀화하도록 몰아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였다.

류기연한테는 오직 한가지 선택만이 남아있었다.

이젠 옴짝 못했지 하고 흐뭇해있는데 만철조사부에서 그 일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 량반들이 왜 그럴가?

후날 그는 유끼가 류기연을 유혹하여 일본인으로 귀화시키려다가 실패하자 독약을 먹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였다. 물론 그 녀자가 대학시절부터 조선사람인 류기연을 사모해왔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그렇게 요절할줄은 몰랐었다. 그렇다고 자기가 려순감옥에 류기연을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을것같았다. 왜냐하면 해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독감방에서 미이라처럼 말라가는 그를 만나서 리득볼건 하나도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로부터 두해가 지난 8월중순 푸르청청하던 하늘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구세주처럼 믿고있던 일본이 패망하였던것이다.

사은룡의 두뇌는 재빨리 회전하였다.

이젠 도로 조선사람이 돼야 한다. 아무렴, 나야 원래 조선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그는 조선사람인 사은룡으로 《환생》하였던것이다.

고백을 다 듣고난 스미스는 펼쳐놓았던 문건철을 덮으며 음침하게 웃었다.

사은룡이 그 문건에 자기의 자료가 단 한글자도 없다는것을 안것은 퍽 후였다. 하지만 그때로서는 자기의 생사를 한손에 거머쥐고있는 미국사람한테 달라붙어야 살아날수 있다는 생각뿐이였다.

《미스터 사, 난 당신의 과거를 백지화하겠소. 우리 미국에 충성다하겠다는 조건부로 말이요.》

사은룡은 자기의 목에 걸려있던 올가미가 벗겨졌다는것을 깨달았다.

《각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줄줄 쏟으며 고개를 쪼아리는데 《구세주》의 훈시가 울렸다.

《우린 당신을 대학 교무주임으로 임명하려고 하오. 학장은 결원이니 대학이 우리 미국의 의도대로 운영되는가 마는가 하는건 전적으로 당신한테 달려있소. 교원들의 동향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북조선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야겠소.》

《예예, 미국어른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군정청》을 나선 사은룡은 가슴이 후련하게 껄껄 웃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오묘한가. 한시간도 못되여 죽음의 단두대에서 출세의 령마루로 솟구쳐올랐으니 말이다. 흠, 이제부턴 내가 대학 교무주임이란 말이지.

령리한 새는 나무가지를 가려앉는 법이다. 일본이라는 썩은 나무가지에서 훌쩍 날아오른 사은룡이라는 《철새》는 미국이라는 나무가지에 제꺽 옮겨앉았던것이다. …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사은룡은 입에서 위스키냄새를 풀풀 풍기며 출입문을 열었다.

다음순간 술에 취하여 거슴츠레하던 두눈이 커졌다. 문가에 서있는 사람은 검은 안경을 낀 녀자였다.

《사은룡씨가 옳은가요?》

《그렇소. 아가씬 뉘신지?》

주위를 둘러본 녀자는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되겠는가고 하였다.

녀자치고는 비위살좋은 그 태도가 수상쩍었지만 아무도 없는 홀아

비네 집에 고운 녀자를 들여놓는것도 과히 나쁠것같지 않았다.

《들어오십시오.》

응접실에 들어선 녀자는 오뚝 서서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검은 안경뒤에서 생글생글 웃고있는 한쌍의 눈동자!

담이 어지간한 사은룡이였지만 기절할것처럼 놀랐다.

아니, 이 녀자가?!

그때 녀자가 손가락에 끼고있던 반지를 뽑아 내밀었다.

《이걸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겠는데요.》

독사가 보석을 물고있는것을 형상한 금반지를 보자 취기가 말끔히 사라졌다.

《독사가 보석을 물고있는 금반지를 가진 사람이 찾아가면 그한테 절대복종하시오.》

스미스의 지령을 따르면 일시나마 클클하던 홀아비생활에 환락을 가져다줄것으로 알고 얼싸 좋아서 들여놓은 이 녀자가 바로 자기의 상급이였다.

상급답게 거만한 몸가짐을 한 녀자는 명령조로 지시하였다.

《류기연의 최근동향에 대해 말해보세요.》

속이 벌컥 뒤집혔다.

내가 이 녀자한테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결국 사은룡은 상급한테 복종하기로 하였다. 그것이 어제와 오늘을 살아왔으며 또한 래일도 살아가야 할 자기의 운명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때문이였다.

《지금 그자는…》 하고 말을 뗀 그는 류기연의 도서집필이 마감단계에 들어섰으며 물리학부장이 북으로 넘어가는데 관여한것으로 추측되는 추진석이라는 교원이 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있다는 사실들을 보고하였다.

검은 안경밑에서 빨간 입술이 날름거렸다.

《우선 그가 집필을 빨리 끝내도록 재촉해야겠어요. 당신은 그와 련계가 깊은것만큼 십분 가능할거예요. 다음은 적당한 구실을 대고 추진석을 대학에서 내보내세요.》

《그를 해고하라는거요?》

《그래요. 만약 그래도 류기연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자를 제거하겠어요.》

상급이라고는 해도 녀자야 녀자겠지 하고 엉큼한 생각을 품고있던 사은룡은 속이 다 섬찍하였다. 외모는 연약하고 유연해보였지만 속에는 독사가 들어앉아있었던것이다.

《그럼 안녕히!》

사은룡은 다 잡았던 잉어를 놓친 낚시군처럼 녀자의 뒤모습을 아쉽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속으로 때늦은 욕설을 냅다 퍼부었다.

건방진 년, 안경이라도 벗을게지.

제 6 장

1

말복이 지났는데도 날씨는 여전히 물쿠었다.

《소나기라도 콱 퍼부었으면 좋겠구만.》

《그럼 여북 시원하겠나.》

《흥, 소나기는 고사하고 바람이라도 좀 불었으면…》

다들 정신없이 부채질을 해대며 이놈의 더위가 언제 물러가랴 하고있는데 뜻밖에 날벼락이 쏟아졌다. 미국이 《군정법령》 제102호(《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법령》)를 일방적으로 공포한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경성대학》의 각 학부와 서울시안의 여러 전문학교들을 통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를 세운다는것이였다.

당시 서울에 있는 의학전문학교, 공업전문학교, 법학전문학교 등은 각기 대학으로 승격하여 각자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나갈것을 바라고있었다. 그것은 결코 무리한 희망이 아니였다. 패망한 일본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미국은 모든 전문학교들을 대학으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던 왜놈들도 그런 《행운》을 누리는데 해방된 조선의 전문학교들을 대학으로 승격시키지 못할 하등의 리유도 없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학계와 인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대안》을 공포한것이다. 사람들을 더욱 격분케 한것은 미군정장관이 임명한 《리사회》성원들과 대학총장이 전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였다.

어째서 《리사회》에 조선사람이 한명도 없는가? 우린 어째서 미국의 통제를 받으며 대학을 운영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 그렇게는 못한다!

정의감이 강한 청년학생들이 먼저 《국대안》반대투쟁에 떨쳐나섰

다. 그들은 투쟁위원회와 학생공동투쟁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국대안》을 반대배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집회를 열고 미군정당국에 항의를 들이댔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반대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제자들의 장한 모습을 지켜보고있던 량심적인 교원들도 투쟁의 대오속에 들어섰다.

그무렵 류기연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채 서성거리고있었다. 《군정청》으로 간 사은룡을 기다리는중이였다.

…《국대안》이 공포되자 그는 즉시 교무주임방으로 찾아갔다.

물을 마시고있던 사은룡은 마침 속을 터놓을 상대가 나타났다는듯 불만을 쏟아놓았다.

《강의들은 하지 않고 소동만 피우고있으니 대체 어쩌자는거요? <국대안>이 강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로 어이가 없는 사람은 류기연이였다. 《국대안》때문에 온 대학이, 아니 온 서울이 법석 끓고있는데 대학운영을 책임진 교무주임이라는 사람은 마치도 다른 우주에서 사는 사람같았다.

《미국은 어째서 <국대안>을 공포했습니까? 어째서 미국인이 서울대학교 총장인가 말입니다.》

류기연의 얼굴은 오랜만에 불을 지핀 무쇠난로처럼 후끈 달아올랐다.

그런 반발을 예견하지 못하였던지 멍하니 쳐다보던 사은룡은 애매한 기색을 지었다.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때 복도에서 와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학원에 대한 로골적인 간섭이란 말이요.》

《옳습니다. 이거야 조선사람을 업신여기는게 아니구 뭐란 말입니까!》

복도가 조용해지자 사은룡은 혀를 쯧쯧 찼다.

《불난 집갈군.》

그 말은 류기연의 가슴속에 쌓이기 시작한 불신의 앙금을 더욱 두텁게 해주었다. 자기의 고유한 전통을 고수하려는 대학과 전문학교

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강제로 통합시켜놓고 미국인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대학을 어떻게 민주학원이라고 할수 있는가. 그런데도 사은룡은 《국대안》을 강건너 불보듯 대하고있었다.

물고뿌를 내려놓고 생각을 굴리고있던 사은룡은 갑자기 큰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떠들었다.

《내 생각엔 말이요. 미국어른들이 우릴 도와주려고 <국대안>을 내놨을것같소.》

왕청같은 해석앞에서 류기연은 아연해졌다.

《국대안》공포로 대학의 운명이 칼도마우에 올랐는데 아직도 미국인들을 믿고있는 교무주임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털어놓고말해서 우리야 40여년동안이나 식민지로 있었고 또 교육도 왜놈들이 운영하지 않았소. 그래서 미국어른들은 우리가 교육을 자체로 운영할수 있을 때까지 대신해주려고 그랬을거요.》

잡꼬대같은 그 주장을 더는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조선사람들의 지식은 왜놈들한테 절대로 짝지지 않았습니다. 리승기선생을 놓고봐도 오래전에 비날론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해고당한 물리학부장선생의 실력은 왜놈들도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그런 취지로 <국대안>을 공포했다면 어째서 우리와 한마디 토론도 없었습니까?》

《그건…》

그처럼 청산류수같던 사은룡은 단순한 질문앞에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미국인들한테 <국대안>을 철회하라고 들이대야 합니다.》

《누가?… 내가 말이요?》

학장을 대신하고있는 그가 이런 일에 나서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그런데 당사자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것처럼 처신하고있었다.

《교무주임선생이 못가겠다면 나라도 가겠습니다.》

류기연은 정말 《군정청》으로 찾아가려고 돌아섰다.

그러자 엉치에 갖풀이라도 바른것처럼 뜬뜬해있던 사은룡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벌떡 일어났다.

《아아, 학부장선생은 여기 있소. 그런 일이야 응당 내가 가

야지.》

얼마후 그가 《군정청》으로 떠나는것을 확인한 류기연은 학부의 교원들을 모이게 하였다.

《지금 사태가 점점 복잡하게 번지고있는데 우리 교원들부터 자중하고 학생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소식통》으로 알려진 젊은 교원이 튕기듯 일어났다.

《어째서 우리보구만 자중하라고 합니까? 다른 학부들에서는 교수단명의로 <국대안>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교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옳습니다. 리공학부에서도 성명서를 작성하고 모두 수표했습니다.》

《다른 학부들도 같습니다.》

류기연은 침착하게 그들을 설복하였다.

《선생들의 심정은 리해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분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식통》이 참지 못하고 또 항변하였다.

《우리가 무슨 분별을 잃었다는겁니까?》

옆에 앉아있던 나이지숙한 교원이 만류하였다.

《강선생, 가만있소.》

그가 자리에 앉자 류기연은 진지한 눈길로 교원들을 둘러보았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선생들은 날 믿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건국에 이바지하려고 애쓰는 교육자가 옳은가 말입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나이많은 교원이 옳다고 수긍하였다.

《그럼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교무주임선생이 <군정청>에 갔는데 일이 바로잡힐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학생들을 진정시켜야겠습니다.》

나이가 든 교원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린 학부장선생님을 믿겠습니다.》

다른 교원들도 그의 뒤를 따라 줄레줄레 방에서 나가버렸다.

그리하여 다른 학부들에서는 교원들이 교수단명의로 《국대안》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들은 미《군정청》에 밀려가 항의시위를 벌렸으나 유독 류기연네 학부만은 잠잠하였다. …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사은룡은 저녁늦게야 돌아왔다.

뿌연 외등이 켜진 대학정문에 서있는 류기연을 보자 그는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소?》

류기연은 늦게라도 그가 돌아온것이 반가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학부장선생을 볼낯이 없소. 오후내껏 기다렸지만 문교부 부장을 만나지 못했소. 중요한 회의에 참가했다는데 어디 끝나야 말이지.》

사은룡을 크게 믿고있었던지라 류기연은 손맥이 탁 풀렸다.

《정말 볼낯이 없소.》

그가 볼낯이 없다고 하는데 더 나무랄수도 없었다. 가슴에 커다란 바위돌을 올려놓은것처럼 마음이 무겁기만 하였다.

《걱정마오. 래일은 아침일찍 가서 꼭 만나겠소.》

그가 찰떡같이 다짐하니 한번 더 믿어보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대학으로 나가면서 류기연은 지금쯤 사은룡이 《군정청》에 도착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했으나 그 기대는 땅에 떨어진 사발처럼 산산이 깨여졌다. 그가 독감에 걸려 누워있다는 련락이 왔던것이다.

집에 가보니 사은룡은 정말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앓고있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끝내 《화산》이 분출하고말았다. 사은룡을 만나고 대학에 돌아오자 교원들이 떼를 지어 밀려들었던것이다.

《교무주임선생이 <군정청>에 가지도 않았다는게 사실입니까?》

《대체 어쩌자는겁니까?》

어제부터 의견이 분분하던 《소식통》은 펄펄 뛰였다.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분별을 잃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가 분별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진정시켰는데 그 대가로 차례진게 뭡니까? 뭔가 말입니다.》

나이많은 교원도 더는 그를 만류할 마음이 없는지 침묵을 지켰다.

《자, 모두 교원실로 갑시다!》

《소식통》을 따라 썰물지듯 밀려나간 교원들은 교수단명의로

《국대안》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다른 학부의 동료들한테서 비겁쟁이들이라느니, 피줄에 맹물이 흐른다느니 하고 몰리우던 학생들도 막혔던 물목이 터진것처럼 운동장으로 뛰여나갔다.

《<국대안>을 철회하라!》

《미국인총장은 물러가라!》

《학원의 민주화를 보장하라!》

창문가에 서서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교정을 응시하던 류기연은 저도 모르게 귀를 강구었다.

《강선생, 같이 가기요!》

《빨리 오십시오. 시위대렬이 떠나겠는데.》

《엄선생, 뭘 좀 먹을게 없소?》

《하긴 구호랑 웨치려면 기운이 있어야 할거요. 자, 받소.》

류기연은 복도를 지나가는 교원들중에서 누구든지 《학부장선생님, 우리하구 같이 갑시다!》 하고 찾아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기다렸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

2

대학정문안으로 한대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자 흰 샤쯔에 금빛넥타이를 받쳐맨 풍채좋은 미국인이 내렸다. 《군정청》 문교부 담당관 스미스였다. 금발머리를 쓸어넘긴 그는 곧추 현관으로 향하였다.

《학부장》이라는 명찰이 붙은 방앞에 이르자 스미스는 문을 잡아당겼다.

《류선생!》

창밖을 내다보고있던 류기연은 뒤로 돌아섰다.

《자주 나와본다는게 일이 바빠서 이제야 나왔습니다.》

손님의 친근한 인사에 그는 답례삼아 자리를 권하였다.

《어서 앉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스미스선생을 찾아가려던 참입니다.》

《그렇습니까? 나 역시 류선생을 만나려던…》

스미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웬 남자가 뛰여들었다.

류기연은 저으기 놀랐다. 스미스를 향해 정중히 인사하는 그 사람은 아프다고 드러누웠던 사은룡이였던것이다.

《각하께서 나오신줄은 모르구, 죄송합니다.》

걸상등받이에 몸을 기댄 스미스는 거만한 어조로 물었다.

《앓는다더니 어떻소?》

《많이 나았습니다.》

머리를 끄덕인 스미스는 창밖에서 와와 터져오르는 함성을 듣고있다가 이야기를 꺼냈다.

《류선생, 무슨 일로 날 만나자고 했습니까?》

류기연은 에두르지 않고 직방 들이댔다.

《미국은 어째서 <국대안>을 공포했습니까?》

스미스는 그런 질문이 나올줄 알았다는듯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 문제라면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이번에 미국은 남조선의 취약한 교육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대안>을 공포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린 남조선의 고등교육기관들을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시기상조로 봅니다. 따라서 이 대학의 각 학부와 서울시안의 전문학교들을 통합해서 <국립서울대학교>를 세우자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일본에 있는 전문학교들을 대학으로 승격시킨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당신도 알지만 사무라이들은 <명치유신>을 기화로 산업화를 달성하고 부유한 문명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패망하였지만 전문학교들을 대학으로 승격시킨다고 해도 자체로 교육을 운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어떻습니까? 오래동안 식민지로 있었고 정상적인 자본주의발전과정도 거치지 못한 락후한 농업사회가 아닙니까. 이런 형편에서 설사 전문학교들을 대학으로 승격시킨다고 해도 당신들이 대학을 제대로 운영할수 있겠습니까?》

스미스는 《국대안》과 관련한 문제는 뭐든 다 설명할수 있다는 자신심에 넘쳐있었다.

《당신들은 미국인이 서울대학 총장으로 임명된것을 놓고 <식민지

노예교육〉이라고 한다는데 그에 대해 말해봅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식민지조선의 교육형편은 몹시 취약하였습니다. 모든 학교들의 운영과 관리를 전적으로 사무라이들이 맡아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패망하자 대학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조선사람들이 대학을 관리운영한다는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비유한다면 이발도 나오지 않은 갓난아이가 뼈다귀를 갉아먹겠다는 격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조선의 교육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로서는 부득불 능력있는 미국인을 대학총장으로 임명할수밖에. 내 말이 리해됩니까?》

몇해동안 전쟁터를 뛰여다녔다는 스미스였지만 그의 말은 역시 명문대학의 졸업생답게 나름대로 론리정연하고 설득력도 있어보였다.

듬직하게 다물려있던 류기연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당신의 말을 따른다면 우린 영원히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손으로 할수 없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그런 나라를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승리자연하던 스미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알고있는 류기연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상아탑속의 공학자였다. 그런데 이제 보니 아무때나 씹어도 소화시킬수 있는 만문한 송아지고기가 아니였던것이다.

《각하, 시원하게 물을 드십시오.》

일이 상전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린 사은룡이 물고뿌를 받쳐주며 수선을 떨었다.

방안이 더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번열이 나는지 고뿌를 단숨에 비운 스미스는 슬그머니 다른 화제를 끄집어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한창 개학준비를 해야 할 학생들이 시위만 벌리고있으니 이게 어디 됐습니까. 그래, 당신들은 우리 미국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나라를 해방시켰는지 알기나 하고 그럽니까?》

그는 몸에 걸치고있던 와이샤쯔를 와락와락 헤쳤다. 누런 털이 빼곡한 가슴팍에 작은 웅뎅이처럼 움푹 패인 총상자리가 나타났다.

《이건 총탄이 박혔던 자리입니다. 그때 탄착점이 몇센치만 이동

했어도 난 살아있지 못했을겁니다. 어찌 나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미국 병사들이 식민지나라들의 해방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진주만, 미드웨이, 과덜커낼, 오끼나와… 그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아직도 사무라이들의 게다짝에 짓눌려있을겁니다.》

열변을 토하던 스미스는 자기가 지나쳤다는것을 알았는지 헤쳐놓았던 와이샤쯔를 바로 입었다.

《량해하십시오. 난 무슨 대가를 받자는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 미국의 은혜를 너무도 모르고있기에 그러는겁니다.》

류기연은 스미스의 돌발적인 태도가 놀라왔지만 침착성을 잃지 않았다.

《그 문제와 <국대안>은 병립할수 없는 두개의 방정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싶은것은 우리 조선사람들은 절대로 렬등한 민족이 아니라는겁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와 철갑선을 만든 문명한 민족입니다. 측우기도 우리 선조들은 유럽사람들보다 근 200년이나 먼저 만들었습니다. 비록 국권이 쇠퇴하여 나라를 빼앗겼지만 반만년의 력사를 내려오면서 창조한 슬기와 문명은 의연 남아있습니다.》

어느덧 그는 스미스가 밀어놓았던 기본화제에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당신 말처럼 우리한테 대학을 관리운영해본 경험이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린 경험을 쌓으면서 얼마든지 운영할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도 태여나자마자 뛰여다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미스는 딱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듯 히죽 웃었다.

《그 문제는 후에 론의합시다. 참, <제동장치기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끼리이니 하는 말이지만…》

스미스가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일부러 던진 그 말속에는 뭔가 끈끈한것이 내포되여있는듯했다.

《…그 도서는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또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언제면 도서가 나오는가 하고 기다리고있답니다.》

인차 집필을 끝내겠다고 확답한 류기연은 만족해하는 스미스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스미스선생, 한가지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어서 말하십시오.》

《다른게아니라 난 미국이 즉시 <국대안>을 철회할것을 요구합니다.》

뜻밖의 제기였던지 약간 굳어졌던 스미스의 얼굴이 점차 풀어졌다.

《그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우리 미국도 조선사람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국대안>을 강행하고싶은 생각은 없답니다. 허허허!》

소탈하게 웃고있는 스미스를 보자 류기연은 제지공장문제가 생각났다. 이번에도 그 일처럼 흐지부지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들었지만 다른 출로는 없었다. 《군정청》 문교부 담당관인 그를 믿는 길밖에.

스미스는 앞으로 계속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하고는 방을 나섰다.

사은룡은 그를 바래주려고 황황히 따라나섰다.

방안이 조용해지자 류기연은 다시금 창가로 다가갔다. 답답하던 가슴이 한결 열리는것같았다. 만일 미국이 《국대안》을 철회한다면 시위에 나섰던 교원들과 학생들은 대학으로 돌아오고 중단되였던 강의도 계속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자 《국대안》공포로 하여 생겨났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나마 녹아버리는듯싶었다.

그 시각 교무주임방에서는 심상치 않은 대화가 벌어지고있었다.

《류기연의 최근동향은 어떻소?》

《특별한게 없습니다.》

《특별한게 없다구? 방금 그의 태도를 보구두 그런 대답이 나오는가?》

《각하, 죄송합니다. 그자는 <국대안>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있습니다. 어제두 각하를 찾아가겠다고 나서는걸 제가…》

《산불은 한고뿌의 물로 끌수 없소. 이제부터 시위에 참가한 교원들은 가차없이 해고하오. 누가 물어보면 <군정청>의 지시라고 하란말이요.》

《예예. 알겠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대학에서 빠져나온 스미스는 앞창을 주시하다가 일렀다.

《일어나오.》

아무도 없는줄 알았던 뒤좌석에서 검은 안경을 낀 녀자가 솟구쳐올랐다.

《이제부터 다른 일은 중지하고 류기연한테 집중해야겠소.》

《각하, 알겠습니다.》

《잠자던 사자가 눈을 뜨기 시작했단 말이요.》

얼마쯤 달리다가 차를 세운 스미스는 뒤로 손을 뻗쳤다.

희고 매끈매끈한 손이 끈적끈적한 손아귀에 쥐여졌다. 그다음은 불룩한 젖가슴이 만져졌다.

녀자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듣자 스미스의 얼굴에 만족한 미소가 그려졌다. 일단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제 손아귀에 거머쥐고야마는 자신에 대한 긍지가 가슴속에 뿌듯이 차올랐던것이다.

류기연, 넌 내 손에서 절대로 못빠진다!

거리를 달리던 승용차는 호텔앞에서 스르르 멎어섰다.

3

조용하던 아래층이 떠들썩해졌다.

이어 누가 왔다고 알려주는 안해의 목소리가 층계를 타고 들려왔다. 자기가 서재에 있으면 방해하지 않던 안해가 그러는것을 보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것같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문제 39. 주행하는 렬차에 제동을 걸었을 때 차량들 호상간의 충격력을 설명하시오.

답ー 주행하는 렬차에 제동을 걸면 마지막차량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제동이 걸린다. 이때 제동작용이 전파되며 이에 따라 차량들사이에 첫째 모습에서는 압착작용이 생겨서 서로 눌리우며 둘째 모습에서는 그 눌린 상태대로 있으며…》

서재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버지!》 하는 챙챙한 웨침소리가 터졌다.

돌아보지 않고 머리속에 섬광처럼 떠오른 대답을 급히 적었다.

《…때문에 편성이 긴 렬차에서는 차량사이에 작용하는 압착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ㄷ)항의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제동운전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개바람이 일도록 달리던 만년필을 내려놓은 류기연은 만시름을 놓은듯 숨을 크게 내쉬였다. 줄기차게 집필해온 도서집필이 마침내 끝난것이다.

원고묶음을 흐뭇해서 바라보던 그는 몸을 뒤로 돌렸다.

《오, 우리 태삼이구나!》

쪼르르 달려온 아들애는 무작정 손목을 쥐고 잡아당겼다.

《빨리 가자요. 추선생님이 오셨다구 어머니가 알려드리랬어요.》

해고당한 스승을 위로하려고 갔다가 추진석과 다투고 헤여진 후 그들은 만난적 없었다. 류기연은 원고를 집필하느라 바빴고 추진석도 《국대안》반대시위에 참가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그랬었는데 친구가 제편에서 먼저 찾아온것이다.

류기연은 아들애의 손목을 잡고 서재를 나섰다.

응접실에서는 안해와 친구가 차탁을 사이두고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안해가 손님과 담소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이였다. 안해는 열번 재고 한마디 하는 심중한 녀자였다. 그러나 일단 결심하면 주저없이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군 하였다. 그 독특한 성미때문인지 안해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교제하지 않았다. 간혹 이웃집에서 김치라도 가져다주면 며칠후에는 꼭 제손으로 담근 김치에 별식까지 보태서 가져다주었지만 우정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보따리를 펴놓는적은 없었다.

한번은 왜 마을녀자들과 섭쓸리지 않는가고 물었었다.

《녀자 셋이 모이면 나무접시가 춤춘다지 않아요. 전 당신과 아들애면 그만이예요.》

그런 안해였지만 추진석이 찾아오면 자기가 그어놓은 《생활반경》을 주저없이 벗어나군 하였다. 뿐만아니라 홀아비의 궤진 옷도 손질해주고 색다른 음식을 만들면 아들애를 시켜 꼭꼭 보내주었다.

큰소리로 웃고있던 추진석은 얼핏 이쪽을 보더니 그새 벌어졌던 간격을 메우려는듯 활기있게 인사말을 던졌다.

《생일을 축하하네!》

그러니 그는 자기의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일부러 찾아온것이다.

《그럼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안해는 손님과 남편을 향해 눈인사를 보내고 돌아섰다.

부엌에서 가락맞은 칼도마소리가 들려오자 류기연은 안락의자에 몸을 실었다.

《그새 이 <화약>이 성화를 먹이지 않으니 편안했겠구만. 그건 그렇구, 자넨 한심한 친구야. 이 불쌍한 홀아비를 내버려두고 저 혼자 고운 안해와 아들애를 데리고 깨가 쏟아지게 지내니 말일세.》

류기연은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말투도 말투이지만 성미급한 친구의 가슴속 어느 구석에 그런 노죽이 붙어있었는지 모를 일이였다.

《요즘도 도서를 집필하나?》

《방금 끝났네.》

《어이구, 장하구만. 하여튼 수고했네.》

추진석은 일부러 《하여튼》이라는 부사를 붙였는데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 태도였다. 하긴 모든것이 불만스러운 그에게 있어서 자기의 도서가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그래도 친구의 생일을 잊지 않고 찾아오군 하는 그 우정만은 변함없었다.

목을 뽑아들고 응접실을 둘러보던 추진석은 짐짓 놀란 시늉을 하였다.

《명망높으신 학부장님 생신날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번에는 류기연쪽에서 시까슬렀다.

《그야 자네 공적이 아닌가.》

추진석은 두눈을 깜빡거리며 모르쇠를 하였다.

《그건 무슨 소린가?》

《교원들과 학생들이야 모두 자네를 따라 시위에 나가지 않았나?》

그 말은 사실이였다. 《국대안》반대투쟁이 고조되자 추진석은 대학의 교원들과 제자들을 휘동하여 밤낮으로 시위를 벌리고있었다.

《그야 잘한 일이지.》

추진석은 웃주머니를 뒤적거려 담배를 꺼내물었다.

《자네 화순탄광소식을 들었나?》

친구의 느닷없는 질문에 류기연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긴 알수 없지. 미국놈들이 보도관제를 실시했으니까. 여기 서

울에서는 이번 8.15해방을 미미하게 보냈지만 다른 지방들에서는 기세가 대단했네. 특히 화순탄광 탄부들이 굉장했지.》

추진석은 이마에 내려오지도 않은 고수머리를 옆으로 쓸어넘겼다.

…전라남도 화순탄광 로동자들은 8.15해방 1돐기념 군중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8월 15일 새벽 70여리 떨어진 광주시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그들의 참가로 8.15해방 기념행사가 더욱 커질것을 두려워한 미국은 군용기를 저공으로 비행시키고 땅크들을 앞세운 미군병사들까지 출동시켰다.

탄부들은 자기들을 깔아뭉개려고 달려드는 땅크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돌진하였다.

《우린 해방을 경축하려고 간다.》

《조선사람들의 행사에 미군이 무슨 상관이냐?》

저희들의 땅크가 나타나면 탄부들이 산지사방으로 도망칠것이라고 여겼던 미군은 뜻대로 되지 않자 마구 총을 쏘아댔다.

탄부들과 미군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총칼을 휘두르는 미군과 경찰들과 돌멩이로 맞서며 그들은 마침내 광주시에 도착하였다. 그다음 각지에서 모여온 수만여명의 군중과 함께 8.15기념집회에 참가하여 단결된 위력을 시위하였다.

피의 바다는 그후에 펼쳐졌다. 점심도 건늬면서 집회에 참가하였던 탄부들이 맥을 놓고 돌아가는데 길옆에 매복하고있던 미군과 경찰이 조준사격을 들이댔다. 눈깜빡할 사이에 백여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였다. 사람들의 피가 시내물처럼 흐르는데 류혈참극을 빚어낸 미군병사들은 휘파람을 휘휘 불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

류기연은 놀란 나머지 뛰쳐일어났다.

《그게 정말인가?》

《아무렴 내가 거짓말을 하겠나?》

친구의 비통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섬뜩해났다.

생각해보면 비극의 종은 이미전에 울렸었다. 그렇다면 난 종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인가. 아니, 들었다. 다급하게 울리는 그 종소리를 들었지만 이 땅에서, 해방조선에서 더는 울리지 않기를 빌었었다. 《해방자》인 미국이 아직 실정을 몰라서 더러 정책을 잘못 실시

하지만 점차 바로잡힐것이다. 아무렴 악독한 왜놈들한테 비기겠는가.

이처럼 미국의 《호의》와 그로 인하여 생겨난 환상과 기대는 기관차의 고장요소를 대번에 발견하던 공학자의 밝은 눈을 흐려놓았으나 류기연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그가 미국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리유가 있었다. 류기연은 나라가 해방되자 새로 설정한 인생의 함수를 풀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미국을 강점자로 인정한다면 그 함수는 풀수 없다. 그것이 무엇보다 두려웠다. 생각하기도 가슴아픈 지난날이 다시 닥쳐올가봐 불안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미국이 내려먹인 《국대안》에 불만을 품고있으면서도 항쟁의 거리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호젓한 학부장방에서 맴돌고있었던것이다.

《자넨 그 도서를 출판한다구 이 세상이 달라질것이라고 믿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네. 우린 기술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를 바쳐 어지러워진 이 땅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네.》

팔짱을 끼고있던 류기연은 고집스레 내뱉았다.

《미국은 <국대안>을 철회할걸세.》

《자넨 아직도 스미스의 말을 곧이 믿나?》

《그렇네.》

《자넨 정말…》

어이없어하던 추진석은 종시 참지 못한채 주먹으로 차탁을 쾅― 내리쳤다.

《어마나, 왜 이러세요?》

부엌에서 뛰여나온 안해가 추진석을 만류하였다.

《아주머니, 이 땅이 통채로 미국놈들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 있는데 이 친군 아직두 정신을 못차리고있으니 분해서 그러우다.》

《추선생님, 그래도 오늘이야 애아버지 생일인데.》

《미안하오. 성미가 원체 못돼먹다보니… 후에 또 오겠수다.》

겁에 질려 엄마의 손을 꼭 잡고있는 아들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추진석은 탄식조로 뇌이였다.

《너희들만은 행복한 땅에서 살아야겠는데…》

성큼 걸음을 내짚던 친구는 뒤를 돌아보다가 손을 홱 내젓고 나가버렸다.

그를 바래주고 돌아온 안해는 두손을 마주잡고 비틀었다. 표정을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이였다.

《무슨 일이요?》

《언제부터 말씀드리고싶었는데… 전 여태 당신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왔어요. 훌륭한 남편을 만났으니 저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러워요.》

속이 벌컥 뒤집히는것같았다. 친구와 다툰 일은 그런대로 리해할 수 있었지만 남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아도 기꺼이 막아줄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던 안해가 이렇게 나올줄은 몰랐다.

《이젠 당신까지?!》

숨을 가쁘게 내쉬던 류기연은 응접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올라가는 층계로 다가갔다.

《여보!… 태삼이 아버지!》

뒤에서 안해가 찾았으나 와락와락 층계를 톺아올랐다.

서재에 들어서자 방문을 힘껏 후려닫았다. 쾅― 하는 문소리와 함께 안타깝게 찾는 안해의 목소리가 뚝 끊어졌다.

책상우에 올려놓은 원고지묶음이 눈에 띄웠다. 지난 한해동안 온 심혈을 쏟아부은 도서였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오락가락하면서도 집필을 중단하지 않은 원고였다. 《국대안》반대시위에 떨쳐나선 교원들과 제자들한테서 실망한 눈길을 받으면서도 나약해지는 마음을 붙안고 다그쳐온 창조물이였다.

그렇다. 그 원고는 단순히 기차의 전복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도서가 아니라 해방조선을 떠받들려는 자기의 희망이고 의지였다. 그런데 집필을 끝낸 지금 안해와 친구는 어떻게 나오고있는가. 누구보다도 제일 가깝고 굳게 믿었던 그들은 자기를 원망하고있었다. 그렇다면 이 도서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에익!》 하고 원고지묶음을 힘껏 밀어던졌다.

주인의 버림을 받은 원고지들은 놀란 새떼마냥 허공으로 날아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방으로 흩어진 종이장들을 우두커니 내려다보던 류기연은 미친 말처럼 사납게 뛰기 시작한 심장을 꽉 눌렀다. …

며칠후 류기연의 집에 검은 안경을 낀 녀자가 찾아왔다.

《얘들아, 이 집 애가 누구냐?》

뜨락에서 아이들과 군사놀이를 하고있던 류기연의 아들애가 《나예요!》 하고 대답하였다.

《오, 너 태삼이구나!》

《내 이름을 어떻게 아나요?》

얼굴을 절반나마 가리운 검은 안경뒤에서 매혹적인 두눈이 실눈을 짓고있었다.

《왜 모르겠니. 난 네 아버지와 같이 있단다.》

《아지미두 대학선생이나요?》

《그래. 어머닌 계시니?》

《없어요. 아버지약을 구하러 갔어요.》

《그럼 혼자 집을 보고있겠구나. 정말 용쿠나!》

아이를 한바탕 추어주고난 녀자는 팔에 걸치고있는 손가방에서 쵸콜레트를 꺼내주었다.

《받아라.》

웬간한 애들은 먹을 엄두도 못내는 고급간식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이는 침을 꿀깍 삼키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애두 참. 난 네 어머니와 친하단다. 이름이 려주가 맞지? 그것보렴. 자, 어서!》

어머니의 훈계와 맛있는 쵸콜레트사이에서 왔다갔다하던 아이는 종시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받아들었다.

《그런데 아지민 무슨 일로 왔나요?》

《너희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왔단다.》

《대학이 가까운데 아버진 왜 오지 않았나요?》

《아버진 바빠서 자리를 뜰수 없단다.》

늘쌍 바빠하는 아버지를 보아온 아이는 그 말이 리해되는지 가만있었다.

《들어가서 아버지가 부탁한 책을 가지고 나와도 일없겠니?》

아이는 미타해하는 기색이였지만 앞을 막지 않았다.

《걱정말거라. 인차 나오마.》

아이를 안심시키고 집안에 들어간 녀자는 몇분도 안되여 나왔다.

4

《이젠 됐소, 됐단 말이요!》

류기연의 방에 들어선 사은룡은 경사라도 난것처럼 떠들었다.

《<군정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국대안》이 철회된게 아닐가 하고 류기연은 다음말을 기다렸다.

《…9월초하루부터 개교하라누만.》

지금껏 애써 붙잡고있던 기대의 바줄이 툭 끊어져나갔다.

어쩌면 이럴수 있는가? 교원들과 학생들은 《국대안》을 반대하는데 개교를 하다니.

느물거리는 사은룡의 얼굴이 스미스의 얼굴로 바뀌였다.

그는 사은룡을 내세우고 뒤에서 무슨짓을 하고있는가. 정말 그한테 기대를 품고있던 내가 어리석었단 말인가?

그런줄도 모르고 사은룡은 신명이 나서 주절거렸다.

《역시 미국어른들이 미국어른들이요. 개교를 선포하면 교원들과 학생들은 소요를 중지하고 대학으로 돌아올게 아니겠소. 그뿐이요? 시내치안도 바로잡힐거란 말이요. 하하하!》

어깨까지 흔들며 웃고있는 그를 보느라니 안해에게 하던 추진석의 말이 귀전을 아프게 때렸다.

《이 땅이 통채로 미국놈들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있는데 이 친군 아직두 정신을 못차리고있으니 분해서 그러우다.》

가슴속으로 후회의 파도가 사품치며 밀려들었다.

이 땅은 주인만 바뀌였을뿐 바뀐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은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에 불과할뿐이다. 그런데도 난 미군군수렬차를 수리해주었고 도서를 집필하느라 극성을 부렸으니 그 친구의 말처럼 눈뜬 소경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불현듯 눈앞에 하얀 비둘기가 떠올랐다.

사나운 폭풍이 밀려오는줄도 모르고 셈평좋게 선회하고있는 비둘기!

별안간 폭우가 쏟아진다. 급해맞은 비둘기는 날개를 힘겹게 퍼덕

인다. 하지만 세찬 비바람에 휘말려 점차 기운이 진하고 몸뚱이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시꺼먼 땅이 무섭게 육박해온다. 공포에 질린 비둘기는 파멸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으나 끝끝내 불모지에 곤두박히며 비명을 지른다.

끔찍한 광경을 그려보던 류기연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제 흥에 겨워있던 사은룡이 우뜰 놀랐다.

《왜 그러오?》

대답은 하지 않고 출입문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상한 기미를 차린 사은룡이 급히 앞을 막았다.

《어쩌자는거요? 당장 개교해야겠는데…》

《난 사직하겠소.》

예견치 못하였던 반응에 사은룡은 어리둥절해하였다.

《사직이라는건?》

《대학에서 나가겠단 말이요.》

《뭐라구?》

사은룡의 두눈이 가늘어지더니 싸늘한 적의가 뿜어나왔다. 언제나 인격자연하던 그가 마침내 자기의 본태를 드러낸것이다.

《하니까 미국어른들의 조치에 반항한다는거요?》

《그렇소.》

《여보, 자중하는게 좋을거요.》

문득 집에 있는 야구방망이가 생각났다. 만일 그것이 손에 들려있다면 사은룡의 역스러운 얼굴을 후려갈기고싶었다. 어리석은 자신도 함께.

금시 물어뜯으려는 맹수처럼 앞으로 접근해온 사은룡은 위협조로 나왔다.

《허튼 생각은 걷어치우는게 좋겠소. 미국어른들의 비위를 거슬려서 좋을건 하나도 없으니까.》

류기연은 끓어오르는 격분을 담아 내쏘았다.

《당신이나 그들한테 잘 보이구려.》

…대학정문을 벗어나자 노도처럼 파도치는 시위대렬과 마주쳤다.

우렁차게 구호를 웨치며 돌진하는 학생들을 보니 가슴을 짓누르고있던 무거운 돌이 밑으로 뚤렁 떨어지는것같았다.

《학부장선생, 여기요. 여기!》

이쪽을 향해 성급하게 손을 흔드는 사람은 추진석이였다.

다른 교원들과 학생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학부장선생님까지 오시니 더 힘이 납니다!》

마치 먼길을 떠났던 혈육이 돌아오기라도 한것처럼 기뻐하는 그들을 보자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아, 내가 여태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단 말인가?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고 뛰여온 친구가 손을 움켜잡았다.

《자네가 이렇게 올줄 믿었네. 믿었다니까.》

류기연은 고마운 친구의 손을 굳게 잡으며 씩 웃었다.

시위대렬이 움씰움씰 갈라지자 《오솔길》이 생겨났다.

그는 보폭을 크게 내짚으며 대렬복판으로 걸어갔다. 용용하게 흘러가는 강복판에 들어섰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해났다.

술렁거리던 대렬이 정돈되자 추진석은 주먹을 쳐들며 선창을 뗐다.

《<국대안>을 반대한다!》

시위대렬은 일제히 합창하였다.

《<국대안>을 반대한다!》

《미국인총장은 물러가라!》

《미국인총장은 물러가라!》

동대문거리를 지나 덕수궁앞으로 노도치며 밀려가던 시위대렬이 무춤무춤 멈춰섰다. 까만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삼엄한 저지선을 폈던것이다.

《저놈의 <까마귀>들은 왜 또 나타났어?》

《그야 뻔하지. 양키들한테서 지령을 받았으니까.》

류기연의 옆에 서있던 추진석이 앞으로 뛰여나가더니 주춤거리는 군중을 불러일으켰다.

《선생들, 학생들! 여기서 물러서면 우린 영원히 노예가 됩니다. 해방된 내 땅에서 언제까지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격노한 시위군중은 우뢰처럼 화답하였다.

《더는 수치를 당할수 없다!》

《미국의 간섭없는 학원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

용기를 가다듬은 시위대렬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네거리에서 시위대렬과 경찰은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허공으로 솟았다가 내려꽂히는 경찰곤봉,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지는 교원들과 학생들, 도로에 흐르는 피바다…

어디선가 확성기로 고아대는 소리가 울렸다.

《<국대안>을 반대하는 놈은 모두 역적이다. 사정보지 말고 죽여라!》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지고 피보라가 일었다.

앞쪽에서 땅딸보경찰이 어린 녀학생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질질 끌고왔다.

《쌍년, 시위에 나설 땐 신났지? 그런데 뭐 이제 와선 놔달라구? 홀랑 벗겨서 알몸으로 류치장에 집어넣을테다.》

류기연은 그 정상을 봐줄수가 없어 경찰앞을 막아섰다.

《여보, 이게 무슨짓이요?》

경찰은 이건 어디서 굴러온 말뼈다귀야 하듯 두눈을 부릅뜨더니 입에 게거품을 물고 고아댔다.

《야, 너두 역적이 아니야?》

류기연은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경찰을 쏘아보았다.

그 기상에 움츠러들었는지 아니면 바빴던지 경찰은 녀학생을 끌고 씽 가버렸다. …

그날 밤 수배령이 내린 추진석이 류기연의 집에 뛰여들었다.

《강선생이랑 북으로 가네. 자넨 어쩌겠나?》

《…》

《뭘 더 생각할게 있나?… 이렇게 하세. 래일 밤 오겠으니 떠날 차비를 하구 기다리게.》

그 시각 그들은 검은 안경을 낀 녀자가 자기들의 대화를 도청하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오후 제자의 집에 은신하고있던 추진석은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추선생님, 전 의학전문학교 녀교원인데 안전상필요로 이름은 직

접 만나서 밝히겠습니다. 듣자니 선생님이 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안내해주신다는데 저도 방조를 받았으면 합니다. 밖에 나다닐수 없어 숨어있는데 수고스러운대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부름을 온 학생은 안타깝게 사정하였다.

《경찰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

녀교원의 편지와 제자의 눈물겨운 호소는 정의감이 강하고 남을 도와주기 잘하는 추진석의 가슴에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감정으로 하여 그는 머리속에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생각, 이 학생이 자기가 숨어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을가 하는 의문을 이내 지워버렸다.

《가기요!》

학생이 안내한 곳은 길가에서 퍼그나 떨어진 외딴집이였다.

《남들이 보기 전에 빨리 들어가십시오.》

추진석은 급히 방안으로 들어갔다.

《추선생님, 끝내 오셨군요!》

어둑시근한 방안이여서 창가에 서있는 녀자의 목소리만 들릴뿐 모습은 정확히 가려볼수 없었다.

《아, 선생이요?》

《그래요. 제가 편지를 썼답니다.》

《어서 떠나기요!》

그런데 녀자는 편지에 쓴것과 달리 별로 급해하지 않았다. 따라설념은 않고 빤히 보더니 얼굴에 끼고있던 검은 안경을 벗는것이였다.

《이봐요, 날 그렇게도 몰라보겠어요?》

그때에야 상대방을 알아본 추진석은 풀숲에서 뱀을 만난것처럼 크게 놀랐다.

《아니?》

찰나 허공에서 뭔가 번쩍이더니 차거운 쇠붙이가 그의 심장에 쿡 박혔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것은 안경을 벗은 녀자의 눈가에 떠도는 잔인한 웃음이였다.

5

시교외의 산릉선에 봉분이 생겨났다.

그앞에 쭈그리고 앉은 류기연은 질짝질짝한 흙을 퍼올리고있었다. 점점 세지는 비줄기에 피처럼 붉은 흙은 자꾸만 무너져내렸다.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모질게 내린단 말인가.

무정한 하늘을 저주하는데 비발이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아마 너무도 많은 상처와 원한이 깃든 이 땅을 씻어낼 기운이 모자라는 모양인듯했다.

그는 치밀어오르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곡성을 터뜨리고말았다.

《진석이, 누가 자넬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그래, 북으로 찾아가려고 한게 무슨 죄란 말인가. 응?》

차거운 무덤속에 홀로 누워있는 친구는 아무 대답도 없다. 이제 더는 코소리가 진한 목소리를 들을수 없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고수머리를 성칼지게 쓸어넘기던 모습도 볼수 없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내린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성하던 사람이 하루밤사이에 이렇게 되다니.

《북으로 가려는자는 이렇게 된다!》

그것은 피가 랑자한 친구의 가슴우에 놓여있던 경고장이였다. 원쑤들은 참다운 생활을 갈망하는 그를 악착하게 살해하였다. 정의감에 불타는 심장이 더는 고동치지 못하게 매장해버렸다.

시체를 부검한 의사는 심장을 단번에 찌른 솜씨로 보아 전문살인업자라고 결론하였다.

그게 과연 어떤 놈일가?

저벅저벅…

고인과 영결하기 위해 모여든 조객들속에서 한 남자가 조심성없이 걸어나왔다. 얼마전 《국립서울대학교》 교무부총장으로 임명받은 사은룡이였다.

랭담한 눈길을 봉분에 던진 그는 마치도 고인이 자기앞에 서있는듯이 훈시조로 뇌까렸다.

《추선생, 내 말을 듣지 않더니 끝내 무주고혼이 되였구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죽음으로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었소. 만일 우리가 미국의 뜻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을…》

《닥쳐!》

류기연은 큰소리로 넉두리를 늘어놓고있는 사은룡을 증오에 찬 눈길로 쏘아보았다.

해방전에는 나를 왜놈으로 귀화시키려고 권모술수를 꾸민 인간, 오늘은 조선사람들을 미국놈의 노예로 만들려고 발악하는 인간쓰레기!

뒤에 서있던 교원들과 학생들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미국놈의 개야!》

《사등뼈를 꺾어놓기 전에 사라져라!》

자기를 향해 조여드는 사람들을 보자 겁을 집어먹은 사은룡은 봉분을 에돌아 저쪽으로 비실비실 물러났다. 그러면서도 악의에 차서 짖어댔다.

《너희들도 추진석이처럼 되고싶지 않거든 정신을 차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격분을 참지 못하고 돌을 집어던지자 그는 잽싸게 나무뒤로 몸을 숨겼다가 산밑으로 사라졌다.

얼마후 장례식이 끝나자 봉분옆에 류기연과 려주만 남았다. 자기들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있던 고인을 남겨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것이다.

문득 어디선가 자동차의 기관소리가 아슴푸레 들려왔다.

류기연네 부부는 때늦은 조객이 아닌가싶어 산밑을 내려다보았다.

산굽이를 돌아나온 승용차가 멎어서더니 검은 안경을 낀 녀자가 내렸다.

산릉선을 올라와 봉분앞에 이른 그는 조문할념은 않고 이쪽으로 돌아섰다.

《기연씨, 오래간만이군요!》

이 녀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류기연은 기억을 더듬어보았으나 누군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날 모르겠어요?》

《…》

《섭섭하군요. 한때 자기를 그처럼 련모하던 녀자를 벌써 잊다니요.》

그 녀자는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깔깔 웃더니 두눈을 가리우고있던 검은 안경을 벗었다.

류기연은 흠칫 놀랐다. 놀랍게도 그는 해방전 독약을 먹고 죽은 유끼였던것이다.

이 녀자가 어떻게 살아있단 말인가?

《내가 살아있는게 반갑지 않은 모양이군요. 섭섭하군요. 참, 부인도 오랜만이예요. 그새 잘 있었는가요?》

류기연과 려주는 한들거리는 유끼를 증오에 차서 노려보았다.

《세상엔 별의별 일이 다 있답니다. 때로는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니까요.》

…유끼는 원래 만철조사부소속 성원이였다.

류기연을 쟁취하지 못한채 울고불고하며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갔던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한 연구소에서 일하고있을 때 만철조사부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유끼더러 류기연이 만철본부 기사로 있는데 일본인으로 귀화시키라고, 그것이 복수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제국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류기연, 내 비록 사랑에선 실패했지만 널 우리 야마도민족으로 만들고야말테다!

그리하여 그는 상전의 지시대로 만철본부에 나타났고 류기연의 인생길에 또다시 뛰여들었던것이다.

어느날 상급은 류기연을 일본인으로 귀화시키려던 오노의 계획이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최후수단으로써 미인계를 쓰라는 지시를 주었다.

《랍치사건》을 꾸며 류기연을 호텔로 끌어들인 유끼는 최종적으로 그의 의사를 타진해보았다.

류기연은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조선사람이라고 하며 완강히 거절하였다.

드디여 유끼는 아직은 그 어느 남자도 거절하지 못한 주패장—매혹적인 육체로 그를 꺾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역시 그마저도 실패하

고말았다.

속으로 이를 빠득빠득 갈았다.

류기연, 내가 널 곱게 돌려보낼줄 알아? 천만에, 대일본제국에 순종하지 않는 반도인은 절대로 살려둘수 없어. 그럼 널 어떻게 매장시켜줄가? 그래, 지성인들이 두려워하는건 육체적고통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감과 같은 정신적타격이지. 그러니 네가 호텔에서 녀자를 강간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독약을 먹여 죽인것으로 꾸미자.

결국 유끼는 고육계 즉 《자살극》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자한테 버림받고 억울하게 죽는 녀자의 역을 솜씨있게 수행하였다.

만철조사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실려간 그는 이미 먹었던 해독제로 독약기운을 제거하였고 류기연이 살인죄로 체포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자는 사형 아니면 극상해야 무기형을 언도받을것이다. 그러면 치욕속에 몸부림치다가 이 유끼를 원망하며 생을 마칠것이다!

상급에서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자기를 엄하게 추궁했지만 그래도 감옥에 갇혀있는 류기연을 생각하니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랐다.

그런데 하늘처럼 믿고있던 제국이 쫄딱 망하고말았다.

눈물을 좔좔 쏟으며 본국으로 건너가니 폭격에 절반나마 허물어진 집과 부모의 유골함이 기다리고있었다. 졸지에 고아가 되여버린 유끼는 당시 패전국국민들 누구나 그러했듯 미군병사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한데 모아 끓여주는 《꿀꿀이죽》에 매달렸다. 가끔 그의 미모를 탐낸 신사들이 돈뭉치를 흔들며 지분거렸다.

이를 사려물고 참기 어려운 유혹을 거절한 유끼는 눈물을 똑똑 떨구면서 만사람의 시선을 독차지하였던 화려한 지난날을 추억하군 하였다.

고맙게도 세상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재생의 손길이 고독한 녀자를 끌어안았던것이다.

집에 나타난 미군장교, 그를 따라 맥아더사령부에 들어선 이전 만철조사부 성원, 서울로 건너와 스미스의 지시를 받고 활약한 《미화》,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추진석을 단칼에 죽인 전문살인업자.

이것은 《군정청》 문교부 담당관의 허울을 쓴 미군첩보장교 스미스만이 알고있는 유끼의 비밀이였다. …

유끼의 눈가에 쌀쌀한 바람이 일었다.

《내가 오늘 <지옥>에서 찾아온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옛정을 봐서 충고하는데 북으로 넘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게 좋아요. 만일 다른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말한 그는 봉분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렇게 된답니다. 참, 한가지 알려줘야겠군요. 추진석을 없애치운건 바로 이 유끼랍니다. 호호호!》

류기연은 치솟는 격분을 억제할수 없어 부르짖었다.

《이 독사같은 년!》

유끼의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하였다.

《그래, 난 독사다. 미국어른들과 엇서는자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물어죽이는 독사란 말이다. 다시말하지만 북으로 넘어갈 생각은 걷어치워!》

뾰족한 혀바닥을 날름거린 유끼는 아래쪽을 향해 손짓하였다.

그러자 산밑에서 대기하고있던 승용차의 창문이 내리워지더니 금발머리남자가 상반신을 내밀었다. 이쪽을 향해 히죽히죽 웃고있는 그는 다름아닌 스미스였다.

산을 내린 유끼가 뒤좌석에 오르자 승용차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 땅을 강점한 침략자의 만용인양 희뿌연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바라보던 류기연은 주먹을 틀어쥐였다.

스미스, 넌 사람을 잘못 보았다!

6

서울거리에 력기선수처럼 앞가슴이 떡 벌어진 청년이 나타났다.

활개를 저으며 서대문쪽으로 걸어가던 그의 얼굴이 긴장해졌다. 차단봉을 드리운 검문소에서 메돼지처럼 우악스럽게 생긴 경찰이 통행자들을 단속하고있었던것이다.

가슴을 앞으로 쑥 내민 그는 맨 뒤줄에 섰다.

《야, 검인 언제 받았어?》

경찰이 로동복을 입은 남자한테 따지고있었다. 그가 뭐라고 웅얼거리자 경찰은 불이 번쩍나게 따귀를 후려갈겼다.

《어이쿠!》

《자식, 뉘앞이라구 거짓말이야?》

그때 군데군데 색칠이 벗겨진 낡은 택시가 차단봉앞으로 굴러왔다.

단속자를 밀어놓은 경찰은 기세등등해서 곤봉을 쳐들었다.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운전사가 우는소리를 하였다.

《이제 세우면 다시 발동걸기 힘듭니다.》

《세우라면 세울게지 무슨 말이 많아?》

택시는 천식환자처럼 쿨럭쿨럭하다가 멎어섰다.

증명서를 검열한 경찰은 곤봉을 흔들며 소리를 내질렀다.

《통과!》

그런데 정말 택시는 발동이 걸리지 않았다. 운전사가 무진 애를 썼지만 차는 움쩍하지 않았다. 뒤에 늘어선 차들이 길을 비키라고 연방 경적을 울렸다.

차를 뽑으라고 야단치던 경찰은 안되겠던지 호각을 호르륵 불었다. 검문소에서 가까운 2층건물에서 다른 경찰이 달려나왔다.

두명의 경찰과 운전사까지 달라붙어 죽어라 하고 택시를 밀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식, 이따위도 차라고 몰구 다녀?》

《그러게 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발동걸기가 힘들다구.》

종시 택시를 뽑지 못하고 헐떡거리는데 키가 전주대갈은 미군장교가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급해맞은 경찰들은 허리를 굽석굽석하였다.

《장교님, 미안합니다.》

《걱정마십시오. 인차 뽑겠습니다. 인차…》

맨 뒤줄에 서있던 청년이 다가왔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를 보자 경찰들은 도와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좀 봅시다.》

청년은 뚝뚝 손가락관절을 놀리고 눅신눅신 허리운동을 하더니 운전사더러 바줄을 차에 걸라고 일렀다.

운전사는 제꺽 바줄을 택시에 걸었다.

바줄을 허리에 감은 청년은 숨을 멈추었다가 읍!— 하고 용을 썼다. 울근불근한 팔근육이 불끈불끈 불어나는것과 동시에 차가 움씰하였다.

경찰들은 물론이고 검문소앞에 늘어서있던 사람들까지 감탄을 터뜨렸다.

《야, 대단하구만!》

《림꺽정이가 울고가겠소.》

한번 선을 보인 청년은 거치장스러웠던지 외투를 벗어 경찰한테 던져주었다.

그가 읍, 읍 하고 힘을 쓸 때마다 택시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차를 검문소너머 길옆에 끌어다놓은 청년은 별로 힘들어하는 기색도 없이 경찰에게 손을 내밀었다.

힘장사의 위력에 감탄한 경찰은 증명서를 검열할 생각은 까맣게 잊고 외투를 제꺽 내주었다.

《어, 오늘 신세졌네. 어서 가라구.》

청년은 휘파람을 휘휘— 불며 떠나갔다. 발동꺼진 택시를 뽑아주고 검문소를 유유히 통과한 그는 다름아닌 한홍식이였다.

…얼마전 그는 공장에 내려온 항일혁명투사 김책을 만났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건국사업에 참가하고싶어하는 남조선지식인

들의 소망을 헤아려 그들을 북으로 데려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소. 그에 따라 련락원들이 파견되는데 한홍식동무는 류기연선생을 비롯한 대학교원들을 데려와야겠소.》

그의 말에 한홍식은 자기는 그처럼 중요한 과업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서울이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으려고 미쳐 날뛰는 미국놈들과 악질반동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소굴이다. 그런데 자기는 《악질친일파》의 자식이 아닌가.

《왜, 동무가 이전 군수의 아들이라는거요?》

김책도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

《물론 동무의 아버지는 지난날 민족앞에 죄를 지었소. 그러나 우린 그보다도 기술로 새 조선을 떠받들겠다는 동무의 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요. 그래서 기사로 임명하였고 이번에도 중요한 과업을 맡긴거요.》

《김책동지, 제가 그 과업을 수행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김책의 신임이 아니요. 바로 장군님의 뜻이란 말이요.》

헤여질 때 김책은 서울에 애인이 있다는데 그가 희망한다면 북으로 데려오라고,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날 한홍식은 **김일성**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지식인들을 진심으로 믿고 내세워주는 참다운 세상이라는것을 다시금 느꼈다. …

서울은 그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과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고종황제의 구슬픈 생애가 깃들어있는 쓸쓸한 덕수궁도, 그 주변에 늘어선 가옥들과 음식점들도 그대로였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왜놈들이 군가를 부르며 오가던 거리로 미군이 흰 별을 새긴 찝차와 군용화물차를 미친듯이 몰아대거나 지나가는 늙은이를 향해 질겅질겅 씹고있던 껌을 내뱉고 너털거리는 광경이였다.

남의 땅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는 양키들을 쏘아보던 그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초겨울의 횡포앞에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헐벗은 앙상한 수림속에 들어앉은 건물을 보았던것이다. 순애가 공부하고 있는 리화녀자전문학교였다.

한달전 한홍식은 인편을 통해 보내온 순애의 편지를 받았었다.

《선생님, 그간 옥체건강하십니까?

선생님과 헤여진지도 벌써 한해가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기간이 10년세월보다 더 긴것처럼 생각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실 제가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내려간것은 아버지의 의사를 거역할수도 없었지만 한편 대학공부를 하고싶은 꿈을 이루고싶었기때문이였습니다. 지금 전 리화녀전에 다니고있는데 여기서는 <국대안>반대투쟁이 계속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미군과 경찰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떨쳐나선 학생들을 짐승잡듯하고있습니다. 저도 잡혀갔다가 겨우 놓여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나가면 장사판을 크게 펼치겠다고 장담하던 아버지도 미국놈찦차에 치워 다리를 상하고 누워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철부지소녀의 짧은 소견으로 내짚은 남행길이 몹시 후회됩니다.

선생님, 전 자주 선생님과 함께 보낸 나날들을 돌이켜보군 합니다. 선생님한테서 밤늦게까지 배우던 일이랑, 제가 선생님을 간호하던 일이랑 막 그립습니다. 명사십리의 모래불도 다시 밟고싶습니다. 헌데 그 소중한것을 모두 남겨두고 떠나왔으니 저야말로 천하의 맹꽁이입니다. 하기야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선생님이라도 인민의 참세상으로 전변된 북에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할뿐입니다. 순애 올림.》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홍식은 순애가 북에 와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아쉬워하였었다.

리화녀전의 창문들은 이 땅의 처참상을 차마 봐주지 못하겠다는듯 꽁꽁 닫겨있었다. 금시라도 창가에 순애의 애처로운 얼굴이 나타날것만 같았다.

순애, 내가 왔소. 한홍식이가 왔단 말이요!

혹시나하고 서성거리는데 때마침 학교정문에서 녀학생들이 나왔다.

《어제 오후시위땐 정말 아짜아짜했어. 글쎄 경찰놈이 내 가슴을 막 움켜쥐지 않겠니.》

《나도 봤어. 넌 그놈의 상판을 죽어라고 할퀴더구나.》

《아무렴, 내가 가만있겠니.》

《아이고, 난 허리가 끊어지는것같애. 웬 남학생을 붙들고 붕대를 감아주는데 경찰놈이 달려들더니 군화발로 옆구리를 냅다 걷어차더구나. 이젠 옴짝 못하고 끌려가겠구나 하고 울고있는데 순애가 불쑥 나타나더니 날 둘쳐업구 뛰지 않겠니.》

《순애》라는 이름이 나오자 한홍식은 정신이 펄쩍 들었다.

두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글쎄 녀학생들속에 낯익은 얼굴이, 순애가 있는게 아닌가.

기쁜 나머지 한발 내짚으며 《순애!》 하고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된건지 말소리가 입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랭정한 리성이 분별잃은 감정을 눌러버린것이다.

난 류기연선생님한테 장군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있는가?

그동안 순애는 동무들과 함께 앞을 지나가고있었다.

한홍식은 옆에 서있는 가로수를 꽉 틀어잡았다. 꿈속에서도 찾고 찾던 처녀의 이름이 튀여나갈가봐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 차츰 멀어져가는 순애를 보며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순애, 우리 함께 북으로 가기요. 순애의 희망을 꽃펴줄수 있는 참된 세상을 찾아가잔 말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오!

강잉히 돌아선 한홍식은 기운차게 걸어갔다.

7

경찰서에서 한채의 담가가 빠져나왔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에워싼 그 담가에는 병보석으로 풀려나온 류기연이 누워있었다. 어찌나 매를 맞았는지 얼굴은 누군지 알아볼수 없게 퉁퉁 붓고 멀쩡하던 양복도 누데기가 되여버렸다.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안해와 함께 뒤뜨락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온종일 내린 비물이 스며들지 않게 유지로 겹겹이 싼 원고를 땅속에 묻었다.

스미스와 사은룡이 노리고있는 원고였다. 원쑤들은 자기의 심혈이 깃든 그 기술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써먹으려고 꾀하고있었다.

이틀이 지나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다. 《불온서적》을 감추고있다는 신고가 제기되였다는것이였다. 참빗으로 훑듯 집안을 살살이 수색하고 나중에는 쌀독까지 뒤졌다.

경찰의 손이 쌀독을 파고들자 류기연은 가슴이 서늘하였다. 원래 그는 쌀독에 원고를 감추려고 하였었다. 그런데 안해가 집안에 숨겨두는건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뒤뜨락에 감추자고 하였다. 푹 젖은 땅에 원고를 파묻었다고 누가 상상하랴.

헛물을 켠 경찰이 메사해서 돌아가자 류기연은 안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큰일날번했소.》

그 다음날 사은룡이 기신기신 나타났다.

《그러니 정말 사직하겠다는거요?》

류기연은 입이 쓰거워 대꾸도 하지 않았다.

《본인의 의사가 정 그렇다면야… 하지만 원고는 우리한테 넘겨줘야겠소. 지금쯤 집필이 끝났겠는데.》

옆에 서있던 안해가 야멸차게 내쏘았다.

《그건 애아버지가 쓴건데 왜 넘겨줘야 하는가요?》

《아주머니, 남편이 뭐 제가 잘나서 학부장이 된줄 아오? 미국어른들의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하는거야 응당하지 않소.》

《안됐지만 그 원고는 내가 불살라버렸어요.》

사은룡의 눈에 독기가 올랐다.

《나한테 그런 말은 통하지 않소. 어서 내놓으란 말이요.》

사은룡은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는데 제잡담 응접실에 틀고앉았다. 원고를 내놓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부엌에 나갔던 안해가 만일을 생각해서 불태웠던 초고를 가져왔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재무지를 뒤지던 사은룡은 타다 남은 원고쪼박이 나타나자 입을 쩝쩝 다셨다. 그랬으나 순순히 물러가지 않았다.

《당신은 북으로 가려는것같은데 애초에 포기하는게 좋을거요. 설사 찾아간다고 해도 공산주의자들은 당신 같은 살인범은 용서하지 않을테니까.》

류기연은 원체 인간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였었다. 하지만 《살인범》이라는 말에는 가만있을수 없었다.

《내가 살인범이라는건 무슨 소리요?》

사은룡은 입가에 묘한 웃음을 지으며 이죽거렸다.

《하기야 이런 땐 건망증이 필요하지. 좋소. 그럼 내가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켜주지. 그래, 만철에 있을 때 당신이 살려낸 <아시아>호가 시운전하면서 자기 동포들을 깔아죽인 사실이 생각 안나오?》

《?!》

《그런데도 북으로 가겠다? 그래, 공산주의자들이 당신 같은 친일분자를 용서할것같은가 말이요.》

한바탕 기염을 토한 사은룡은 잘 생각해보라고 엄포를 놓고나서 돌아갔다.

류기연은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것을 느꼈다. 몇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참상을 잊지 않고있었다. 사은룡의 말처럼 왜놈들과 맞서싸운 철도로동자들이 《아시아》호에 깔려죽은것은 사실이였다. 오죽했으면 그의 동료들이 복수하겠다고 달려들었겠는가.

이상한 기미를 차린 안해가 얼른 약을 입에 넣어주었다.

《여보, 마음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야 왜놈들한테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때문에 당신은 괴로워하다가 심장병까지 생겼구요.》

《어쨌든 내가 기관차를 수리한거야 사실이 아니요.》

얼굴이 창백해진 류기연은 목덜미에 돋아나는 식은땀을 훔쳤다.

스미스가 찾아온것은 그로부터 한주일쯤 지나서였다.

《한가지 알려주려고 들렸습니다. 인차 미국에 기술대표단이 가는데 난 류선생을 단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미국은 철도가 발전한 나라이니 그곳에 가면 많이 배울겁니다. 어떻습니까?》

류기연은 단마디로 거절하였다.

《난 가지 않겠소.》

《류선생, 사실말이지 이런 기회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지 못해 안달아하는거요? 그동안 받은것만도 부담스럽소.》

점잔을 부리던 스미스의 눈에서 야수의 섬광이 번뜩이였다.

《정 그렇게 나오면 재미없을거요.》

그날 저녁 류기연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체포리유는 《국대안》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는것이였다.

려순감옥에서 인간에게 가해지는 물리적고통이 어떤것인가를 이미 맛본 그였지만 왜놈들도 혀를 내두를 악착한 고문에 녹초가 되고말았다.

《이제라도 미국어른들의 요구에 응하면 살려주겠다.》

한차례의 고문이 끝날 때마다 어김없이 날아드는 회유였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여나니 서리가 허옇게 낀 류치장이였다. 갈기갈기 찢긴 몸을 벽에 기대자 세상을 떠난 추진석이 그리워났다.

아, 그때 그 친구의 말대로 북에 들어갔다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걸. 나야말로 눈뜬 소경이였구나!

류치장에서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

병보석으로 간신히 풀려나온 류기연은 고열속에서 헛소리쳤다.

《오냐, 내 다신 이 더러운 땅에 오지 않으련다!》

《진석이, 용서해주게. 내가… 내가 자넬 죽였네.》

꼬박 이틀동안 정신을 잃고있던 그는 동녘하늘이 밝아올무렵에야 의식을 차렸다.

눈을 겨우 뜨자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안해가 보였다. 복스럽던 얼굴은 반달처럼 되여버리고 두눈에도 피곤이 가득 실려있었다.

《아이, 정신을 차렸군요. 이젠… 이젠 됐어요!》

너무 기뻐서 눈굽을 훔치는 안해를 보자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찌르고 쑤시던 아픔은 점차 사라지고 피고름이 줄줄 나오던 상처도 아물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또 다른 고통이, 류치장에 갇혀있을 때부터 생겨난 마음의 상처가 가슴을 괴롭혔다.

내가 북으로 간다면 공산주의자들이 받아줄가? 아니, 받아주지 않을것이다. 난 해방전에는 왜놈들한테 복무했고 해방후에는 미국놈들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실시에 앞장섰다. 그러니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오후에 류기연은 뜨락으로 나왔다.

오전에 피뜩 얼굴을 내밀었던 해는 사라지고 하늘은 찌뿌둥했다. 잠간동안 좁쌀알같은 눈을 린색하게 떨구더니 험악한 세상에 대한 징벌이기라도 하듯 찬바람을 몰아왔다.

추운줄도 모르고 번민의 공간으로 변한 뜨락을 서성거리는데 추진석의 희열넘친 목소리가 귀전을 울렸다.

《자네 들었나? 북에서 토지개혁을 했다네. 아, 지주놈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땅없는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었다니까. 그뿐인줄 아나. 왜놈과 친일파들이 차지하고있던 공장이랑 기업소랑 모두 로동자들한테 주었다지 않나.》

귀를 기울이자 첫 곡식을 마당이 꺼지도록 쌓아놓은 농사군들의 흥타령소리가 들려오는것같았다. 왜놈들이 마사놓고 달아난 용광로를 복구하는 로동자들의 힘찬 마치소리도 울려오는것같았다. 뿐만아니라 광명을 찾아 너나없이 북으로 향하는 뜻있는 지식인들의 모습도 안겨왔다.

그렇다. 북은 참된 삶을 갈망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하고 가고싶어하는 인민의 세상이다. 하지만 그 세상은 내가 가고싶어도 갈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은 땅이 아닌가.

《여보!》

대문이 활짝 열리며 손에 보자기를 든 안해가 들어섰다.

《추운데 왜 밖에 나와있어요? 어서 들어가자요. 아이, 어서요!》

여느때없이 덤벼치며 서재에 올라간 안해는 서둘러 보자기를 풀었다.

《라지오가 아니요?》

류기연은 놀란 눈으로 라지오와 안해를 번갈아 보았다.

이마에 송골송골 돋은 땀을 손등으로 훔친 안해는 방긋 웃었다.

《당신이 듣고싶어하는것같애서 사왔어요.》

아닌게아니라 상처자리가 아물고 몸도 추서자 갑갑해났다. 없는 재간에 안해를 도와 찬장을 수리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것이 좋아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아들애의 청도 들어주었지만 답답한 마음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뭔가 가슴후련한 소식을 듣고싶었다. 설사 찾아갈수는 없다고 해도 북의 소식을 알고싶었다. 그러자면 라지오가 있어야하는데 차마 안해한테 말이 나가지 않았다.

자기가 대학을 그만두자 유일한 재정원천을 잃어버린 가정살림은 극도로 어려워졌다. 엊저녁에는 안해가 바가지로 쌀독바닥을 가만가만 긁는 소리를 들었다. 헌데 무슨 돈이 있어 라지오를 사왔단 말인가?

《옥가락지랑 두루 팔았어요.》

그러니 안해는 친정어머니가 남긴 유물을 팔아서 부족한 쌀이 아니라 라지오를 사온것이다.

고마운 눈길로 안해를 바라보던 류기연은 서둘러 라지오스위치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었다.

이 시각 우주는 각이한 사변들을 담은 무수한 전파들로 가득차 있었다.

갑자기 녀방송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평양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개교식이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개교식에서는 대학창립준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민주주의적국가건설에 헌신할 인재가 되라>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

이어 교직원, 학생들이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선서문이 채택되였습니다. 그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해방된 조선의 첫 종합대학에서 인민에게 복무할 과학을 자유롭게 탐구하게 된 끝없는 기쁨과 영예를 안고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어김없이 실천함으로써 인민의 높은 기대에 보답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변이였다. 중학교나 몇개 있었다는 북에서 해방된지 한해 남짓한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종합대학을 창립한것은 그야

말로 기적이였다. 그것은 전 조선에 걸쳐 유일무이한 대학이라고 자처하는 자기네 대학과 비교해봐도 알수 있었다.

원래 《경성대학》은 왜놈들이 조선에 이주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세운 대학으로서 초기의 이름은 《경성제국대학》이였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왜놈들을 위한 대학이였고 조선사람들에게는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배타적인 교정이였다. 해방후 왜놈들이 본국으로 달아나자 대학에 남아있던 조선인교원들은 대학이름에서 《제국》이라는 글자를 삭제하였다. 하지만 간판이 달라졌다고 식민지적성격까지 사라진것은 아니였다. 그나마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이 저들의 식민지노예교육의 원종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대안》을 내려먹이면서 해방조선의 대학으로서의 본분을 깡그리 상실하고말았다.

그렇지만 **김일성**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대학, 참다운 조선의 대학이였다. 그 교정에서 단 하루라도 교편을 잡을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것같았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지오에서 흘러나오는 북의 각 부문 소식을 듣고있던 안해가 묻는 말이였다.

《혹시 북에서 당신을 어떻게 대해줄가 하고 생각하는게 안예요?》

안해가 총명하고 사리밝은 녀자라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자기의 속마음까지 환히 들여다보고있을줄은 몰랐다. 이런 안해한테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뭐가 있단 말인가.

류기연은 혼자서 안고있던 마음속고충을 죄다 털어놓았다.

안해의 두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 빛났다.

《어머닌 잘난 자식, 못난 자식 가리지 않고 품어줄거예요. 여보, 우리도 북으로 가자요. 예?》

그 절절한 호소에 류기연은 대답을 할수가 없었다.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안해가 이상하게 생긴 작은 물건을 보여주었다.

《응접실을 청소하다가 안락의자밑에 붙어있는걸 발견했어요.》

《나사틀개를 가져오우.》

그 물건을 분해한 류기연은 깜짝 놀랐다. 사람의 말을 도청하는 기계장치였던것이다.

문득 검은 안경을 낀 아지미가 집에 왔었다고 한 아들의 말이 생각났다.

여직껏 풀수 없었던, 유끼가 어떻게 되여 추진석이 북으로 가려는 사실을 알고 살해했을가 하는 의문이 풀렸다.

손에 들고있던 마치로 그것을 힘껏 내리쳤다. 사람의 간을 뽑아먹는 요사스러운 물건은 산산쪼각이 났다. 하지만 가슴속에 진득진득하게 붙어있는 죄의식과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8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자정무렵 웬 사람이 집담장을 뛰여넘었다.

그는 불꺼진 집안동정을 살피다가 조심조심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 시각 류기연은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오늘 아침 그는 면회왔던 동료들의 의향을 들어보았다.

그들은 저저마다 이 땅에 더 있고싶지 않다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북으로 가자고 웅웅하였다. 그러나 한때 좌익서적들에 달통했노라고 자부하는 한 수학자의 랭정한 목소리가 울리자 엉치를 들썩거리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말았다.

《북에서 우리한테 어서 와주십사 하고 초청이라도 했다고 그러오? 떡줄 사람은 생각지두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더니 공산주의자들이 미국놈들한테 복무한 우릴 받아줄것같은가 말이요.》

《그래도 찾아가면 설마 내쫓기야 하겠소?》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수학자는 즉시에 면박을 주었다.

《북에서 정말 내쫓는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땐 달나라에 올라가겠소?》

키가 멋없이 큰 물리학자가 뜨직뜨직 끼여들었다.

《차라리 쏘련이나 중국으로 가는게 어떻소?》

그의 이야기는 사그라져가는 모닥불속에 뿌려진 휘발유와 같았다.

《그게 좋을것같구만.》

《아무렴, 죽는것보다 까무라치는게 낫지.》

《아아, 중국은 아니요. 지금 내란이 한창인데 언제 우릴 받아줄 여유가 있겠소?》

《쏘련도 미타하오. 볼쉐비크들은 짜리정부에 복무한 지식인들을 숙청했다고 하던데.》

떠들썩하는 그들의 머리우에 저력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만들 하오. 지금껏 남의 땅에서 고생하고도 모자라서 또 이국살이를 하자는거요?》

좌왕우왕하는 화제의 허리를 꺾어버린 사람은 류기연이였다. 평시에 과묵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던 그였지만 가만있을수 없었던 것이다.

허리를 구붓한 물리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류선생,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체 어쩌자는거요?》

두툼한 입술을 벙싯 열었던 류기연은 자기한테도 그 해답이 없다는것을 깨닫자 고개를 숙여버렸다. …

함박눈은 계속 쏟아지고있었다. 지구가 수십억년을 돌고돌아도 하얗고 정갈한 눈만은 변함이 없는듯했다. 눈은 어느때 내려도 역시 눈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류기연의 심중도 천갈래만갈래로 얽혀들고있었다.

북에 갈수 없다면 우린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보, 저기 웬 사람이…》

안해가 조용히 알려주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눈을 뒤집어쓴 사람이 소리없이 접근해오고 있었다.

도적일가? 아니면 밀정일가?

《자요!》

안해의 속삭임과 함께 딴딴한것이 손에 와닿았다. 대학시절부터 가지고있던 야구방망이였다. 그것을 움켜쥐자 온몸에 팽팽한 긴장감이 어렸다.

드디여 《눈사람》이 토방우에 올라섰다. 문만 열리면 야구방망이가 날아들 찰나에 그가 나직이 찾았다.

《류기연선생님 계십니까?》

《?》

《류기연선생님, 전 북에서 왔습니다.》

어둠속에서 두쌍의 눈길이 마주쳤다. 이 밤중에 북에서 왔다는게 무슨 소린가?

《누가 옵니다. 빨리 문을 여십시오!》

안해가 문을 열자 찬 기운을 앞세운 《눈사람》이 쑥 들어섰다.

재빨리 창문을 모포로 가리운 안해가 전등불을 켰다.

《눈사람》의 머리와 어깨우에서 하얀 눈가루가 푸실푸실 떨어지더니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나타났다.

《형님, 제 한홍식입니다.》

자세히 보니 싱글싱글 웃고있는 청년은 정말 한홍식이였다.

《자네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중요한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순간 류기연은 자기앞에 중대한 사변이 닥쳐왔다는것을 직감하였다.

한홍식은 꽁꽁 얼어든 손을 썩썩 비비다가 품속에서 뭔가 조심히 꺼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류기연선생님에게 보내주신 위촉장입니다.》

심장이 뚝 멎는것같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위촉장을 보내주시다니?

《어서 받으십시오.》

손을 내밀었지만 자꾸만 후들후들 떨리면서 제대로 받을수 없었다. 옆에 있던 안해가 손을 꼭 붙잡아주어서야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위촉장을 받아들었다.

위촉장에는 뜻밖에도 자기를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으로 불러주신 내용이 적혀있었다.

두눈을 의심하며 몇번이나 읽고 또 읽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떻게 날 알고 친히 불러주신단 말인가?

그의 속생각을 넘겨짚기라도 한듯 한홍식이 알려주었다.

《장군님께서는 류기연선생님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귀국의 길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중 인천부두에 들어갔고 그후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사실을 다 알고계십니다.》

《그게 정말인가?》

《예, 저희들을 만나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금 남조선에 있는 지식인들은 진보적민주주의길로 나아가는 북을 동경하고있으며 진정으로 새 조선을 위해 기술을 바치고싶어한다고, 그들의 희망대로 북에 데려다가 새 생활의 길을 열어주자고 하시였습니다.》

《?!》

어둠속을 헤매이다가 환한 불빛을 만난것같았다.

그렇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북으로 가고싶어하면서도 죄스러운 과거때문에 주저하고있는 자기의 속마음을 헤아려주신것이다. 그런줄은 모르고 얼마나 속을 태웠던가.

장군님, 이젠 살았습니다. 제가 갈길을 찾았습니다!

세차게 높뛰는 가슴우에 은정어린 위촉장을 가져갔다. 그것은 희망을 잃고 방황하던 자기의 머리우에 펼쳐진 맑고 따뜻한 하늘이였다.

날이 밝을무렵 한홍식은 한통의 편지를 넘겨주고 떠나갔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강영창 올립니다.

그동안 건강하십니까? 형님과 서신거래가 끊어진 후 난 대구로 돌아와 병치료를 하다가 지난해 10월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을 듣고 북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왜놈들한테 복무한 저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흥남지구 인민공장 기사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었습니다. …

나나 형님이나 왜놈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해방된 지금 누구보다도 새 조선을 위해 기술을 바쳐야 할 형님이 인생의 불모지에 있으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북으로 오십시오. 장군님 계시는 평양으로 달려오십시오. 상봉의 날을 고대합니다.

참, 출장차로 박천에 갔다가 장모님을 뵈웠습니다. 장모님은 마당에 곡식가마니를 산처럼 쌓아놓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왜 오지 못하노 하고 속상해하십니다. 강영창 올림.》

편지를 몇번이나 읽은 류기연과 안해는 멀리 북쪽하늘가를 점도록 바라보았다. …

며칠후 밖에 나갔던 안해가 사색이 되여 들어왔다.

《여보, 아이가 없어졌어요.》

동료들과 토론한 북행로정을 따져보고있던 류기연은 첫 순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그건 무슨 소리요?》

《아무리 찾아봐도… 애가 보이지 않아요.》

안해는 온몸의 기운이 깡그리 빠져나갔는지 풀썩 주저앉았다.

한참후에야 안해는 울먹울먹하며 동네아이들의 말을 들려주었다.

…류기연네 집앞에 있는 커다란 공지는 동네아이들의 놀이터였다. 날이 밝자마자 달려나온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찾아나올 때까지 연을 띄우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였다. 때로는 눈싸움을 하였다.

오늘도 아이들은 편을 갈라 군사놀이를 하고있었다.

그들이 한창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까만 승용차가 굴러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새파랗게 젊은 남자였다.

《태삼이가 누구냐?》

상대편 《진지》를 공격하느라 여념이 없던 아들애는 자기를 찾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돌아보았다.

《나예요. 아저씬 누구나요?》

《난 대학에서 왔다.》

《우리 아버진 대학에 안나가요.》

사나이는 짐짓 가슴이 아프다는듯 얼굴빛을 흐리였다.

《그래, 너희 아버진 경찰놈들한테 매를 맞고 집에 누워있지.》

그 말을 듣자 아이의 눈에 어렸던 경계의 빛이 풀어졌다.

사나이는 손에 들고있는 약꾸레미를 흔들었다.

《이건 아버지병에 좋은 약이다. 얼른 가져다드려라.》

아이가 약꾸레미를 넘겨받으려는 순간이였다. 별안간 사나이가 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더니 승용차안으로 밀어던졌다.

얼이 나간 아이들은 뻥해서 보기만 하였다. 그사이에 승용차는 발버둥치는 아이를 싣고 살같이 사라져버렸다. …

류기연은 안해와 함께 승용차가 사라졌다는 골목으로 뛰여갔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어보고 차길에 서서 오가는 차들을 살펴보았지만 아들애의 종적은 묘연하였다.

《안되겠소. 난 이쪽으로 가겠으니 당신은 저쪽에서 찾아보오.》

안해와 갈라져서 자정이 넘도록 찾았지만 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안해가 아이를 찾지 않았을가 하고 집으로 허둥지둥 돌아왔다. 그러나 방안에 들어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리맥이 풀려 뜨락으로 나오는데 안해가 뛰여들었다.

《여보, 찾았어요?》

《못찾았소.》

《대체 그애가 어디에 있을가요?》

울먹이는 안해를 보느라니 이것이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한테 아버지약을 가져다주라고 하면서 꾀였다는 것을 보면 우리 집사정을 잘 알고있는자이다. 결국 놈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랍치한것이다.

《여보, 이 일을… 어쩜 좋아요?》

속이 까맣게 타버린 안해가 더 견디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류기연은 부들부들 떠는 안해의 몸을 끌어안았다.

《진정하오. 날이 밝으면 또 찾아보기요.》

그들은 동쪽하늘이 훤히 밝아올 때까지 찬바람이 몰아치는 뜨락에 계속 서있었다.

별안간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집을 나서려던 두사람은 때아닌 새벽에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놀랐다.

《무슨 전화일가요? 혹시 애소식이 아닐가요?》

안해의 말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린 류기연은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수화기에서 거드름스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류선생, 아들애를 찾았소?》

《당신은 누구요?》

《당신네 아들을 데려간 사람이요.》

《우리 애가 지금 어디 있소?》

아들애를 랍치한자는 제법 여유가 작작하였다.

《몹시 궁금할테지. 내 질문에 대답하면 알려주겠소.》

《비렬한 놈!》

《허, 아직도 날 모르겠소? 류선생!》

그제서야 류기연은 상대가 사은룡이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인간쓰레기!》

사은룡은 승리자연해서 떠벌이였다.

《발언을 주의하는게 좋을거요. 내가 수화기를 놓으면 아들애의 생사가 결판난다는것쯤은 알겠는데.》

조급해난 안해가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여보세요,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류기연은 어쩔바를 몰라하는 안해를 진정시키고 수화기를 귀에 가져갔다.

《요구하는게 뭐요?》

《벌써 그렇게 나왔어야지. 흐흐흐!》

흡족해서 웃고난 사은룡은 위협적으로 내뱉았다.

《듣자니 당신이 동료들과 같이 월북하려고 한다는데 싹 걷어치우오.》

놈들의 방해책동이 있을것이라는것을 예견하지 못한바는 아니지만 사은룡이 이렇게까지 악착할줄은 몰랐다.

그때 수화기에서 녀자의 말소리가 울려나왔다.

《기연씨, 우리의 요구대로 하는게 좋을거예요.》

《?!》

그 목소리의 임자는 유끼였다. 그런즉 아들애를 랍치한것은 이 년놈들이였다.

《계속 고집하면 다신 아들애를 보지 못할거예요. 내 말뜻을 알겠어요?》

저쪽에서 끊었는지 수화기에서 더는 말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류기연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날밝기 전이 제일 어두운 법이다. 내가 가려는 길은 인생의 광명을 찾아가는 참다운 려정이다. 그래서 원쑤들은 한사코 막아서는것이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예?》

낯색이 하얗게 질린 안해가 겨우 물었다. 그러다가 아무런 대답도 없자 그만 기절하고말았다.

《여보, 정신차리오!》

류기연은 인사불성이 되여버린 안해를 잡아흔들었다. 인중을 문지르고 얼음장처럼 차거운 손을 비볐다.

안해는 한참동안 신고해서야 피여났다.

《여보, 우리 애가…》

《너무 괴로와마오. 일이 다 잘될거요.》

안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류기연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19시이다. 원래는 오늘 22시 서울역에 집합한 다음 인천부두로 가서 밀선을 타야 하였다. 가족들은 안해가 책임지고 륙로로 38°선을 넘어가게 되여있었다.

수십여명의 운명이 걸려있는 월북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시계는 착착 돌아가고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원쑤들이 그 시계를 멈춰세우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인두로 지진것처럼 가슴이 부직부직 타들었다.

9

대문앞에 보총을 둘러멘 경찰이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밤에만 찾아와 《요시찰인물》이 있는가 확인하군 했는데 이제는 아예 고정보초를 배치한것이다. 엎친데 덮친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같았다.

류기연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동료들과 약속한 시간은 불과 한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맥을 놓고 누워있던 안해가 소스라치듯 몸을 일으켰다.

《여보, 시간이 되여오는데 뭘 하고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속에서도 남편의 등을 떠밀어주는 안해였다.

《아이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소.》

온종일 울어서 퉁퉁 부은 안해의 눈굽에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올랐다.

《그애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것같애요. 허지만…》

눈굽을 훔친 안해는 강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이는 제가 찾아가지고 따라서겠어요. 그러니 먼저 빠져나가

세요.》
《안되오.》
《어서 떠나라니까요.》
《안된다지 않소.》
안해의 눈가에 실망의 빛이 그려졌다.
《전 당신이 이러실줄은 몰랐어요. 위촉장을 받은 날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설사 죽는한이 있어도 장군님 계시는 북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말예요. 헌데 이렇게 주저앉으면 난 어쩌라는거예요. 예?》
《여보!》
《아이걱정은 말구 떠나세요. 어서요!》
류기연은 뜨거운 눈길로 안해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못난 남편을 떠밀어주는구려.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이기지 못한채 사랑하는 안해, 인생의 새 출발점에 들어선 남편을 온넋으로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람을 와락 품에 안았다.
《걱정마세요. 당신 말처럼 일이 다 잘될거예요.》
《려주!》
잠시후 안해는 대문을 열고 나섰다. 그쪽에서 걸쭉한 욕질소리가 터지고 댕강댕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원고가 든 배낭을 둘러멘 류기연은 조용히 뒤문으로 나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었다.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집쪽에서는 아직도 소동이 가라앉지 않고있었다.
려주, 꼭 뒤따라와야 하오. 기다리겠소!
남대문을 에돌아 둔덕을 내려서자 외등이 껌뻑껌뻑 졸고있는 서울역이 보였다.
거의다 온것같아 마음이 다소 놓이였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있을 동료들을 그려보며 걸음을 다그치는데 갑자기 앞에서 강한 불빛이 날아들었다.
손으로 눈을 가리우고보니 한대의 승용차가 서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내처 걸음을 내짚었다.
그 승용차옆을 지나가는데 차문이 열리며 가죽잠바를 걸친 녀자

가 내렸다.

《기연씨!》

때마침 구름속에서 빠져나온 달이 녀자의 얼굴을 비쳤다.

가슴이 섬찍하였다. 인적드문 밤중에 자기를 멈춰세운 사람은 다름아닌 유끼였던것이다.

《이 밤중에 어딜 급히 가시는가요?》

《…》

《무정한 그 성미는 여전하군요. 안해와 아이를 떨궈두고 혼자 북으로 가려는가요? 호호호!》

호들갑스러운 녀자의 웃음소리가 고즈넉한 밤공기를 찢어버렸다. 어느새 유끼의 손에서 비수가 번뜩이였다.

《안돼. 오늘은 진짜 결판을 내자. 나하구 같이 스미스각하한테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말이야.》

류기연은 추상같이 웨쳤다.

《비켜라. 네가 그런다고 내가 갈길을 못갈줄 아느냐?》

《좋다. 그럼 내 손에 너의 피를 묻히는수밖에.》

비수를 추켜든 유끼가 바득바득 접근해왔다. 억대우같은 사나이도 단번에 죽이는 살인업자의 솜씨를 시위하려는듯 눈에서 살기가 번뜩인다.

류기연은 저도 모르게 왼쪽가슴에 손을 가져갔다. 그곳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위촉장이 간수되여있었다.

아, 그 품에 꼭 안기고싶었는데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분하구나!

서슬푸른 비수가 심장을 향해 육박해왔다.

순간 《악!》 하는 비명소리가 터지더니 유끼가 꼬꾸라졌다.

이어 눈앞에 낯익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학부장선생님이 도착하지 않아서 이렇게 마중나왔습니다.》

류기연은 자기를 구원해준 제자들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소!》

《학부장선생님, 어서 가십시오!》

《선생님들이 기다립니다.》

제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류기연은 동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죽

어서도 안기고싶은 북쪽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갔다. …

유끼는 한참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가 죽이려던 류기연은 보이지 않았다.

분해서 몸을 달달 떨며 모지름을 썼다. 했으나 어떻게 얻어맞았는지 머리가 어지러워서 종시 일어날수 없었다. 간특한 지혜와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찬 몸뚱이를 유지해주던 피가 말끔히 빠져나갔던것이다.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아니, 난 죽고싶지 않아. 죽고싶지…

헉― 하고 숨을 들이킨 왜년의 눈동자가 꿋꿋해졌다. 죄많은 인생의 마지막시각이 닥쳐온것이다. 그속에서도 복수를 부르짖는듯 손만은 비수를 꽉 움켜잡고있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길가에서 꽁꽁 언 녀자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신원을 확인하려고 조회를 띄웠으나 어디서도 회답이 없었다.

온밤 추위속에서 근무를 서느라고 동태가 되여버린 경찰들은 미상의 시체를 거적때기에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의 한구석에 던져버렸다. 오만한 양키들이 써먹던 악녀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

며칠후 눈정기가 풀린 한 남자가 대학정문을 나섰다. 교무부총장직에서 해임된 사은룡이였다.

소경도 피해갈 큰돌도 알아보지 못하고 발을 걸채여 넘어졌다가 겨우 일어나자 눈앞이 아뜩해졌다.

《부디 건강을 돌보십시오. 각하께서 앓아눕기라도 하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가 스미스를 만날 때마다 늘 외우던 말이다. 옆에서 듣는 사람은 얼굴이 뜨끈뜨끈하지만 본인은 아첨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래, 미국어른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덩실한 집에서 살수 있고 출세할수 있었는가? 미국어른들이 군화바닥을 핥으라면 핥을 판이다. 수치니 존엄이니 하는건 인생의 묘리를 터득하지 못한 작자들의 넉두리이다!

일찍부터 인생은 처세술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리치》를 터득한 그였다. 이를테면 사은룡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임의의 순간에 변신하는 카멜레온의 재간을 온몸으로 체득한 《현자》였다. 그

렇지만 갖은 조화를 부리며 흘러온 인생은 《당신은 래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겠소.》라고 한 스미스의 한마디 말에 끝나고말았다. 무당이 제 굿 못하고 소경이 제 죽을 날을 모른다는 말은 아마도 사은룡과 같은 인간을 두고 생겨난 말일것이다.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를 섬기다가 단물이 빠진 껌처럼 버림받은 인간추물은 육중한 화물차가 마주 달려오는줄도 모르고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10

이듬해 3월 류기연은 **김일성**종합대학청사앞을 거닐고있었다.

자기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떠선 인민의 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철도공학부 학부장으로 임명받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웅건한 자태를 드러낸 대학건물을 감회깊이 보느라니 불현듯 만철본부청사앞에 처음 서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자기는 왜놈들에게 조선사람은 결코 렬등한 민족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려고 하였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인생의 함수—《비둘기》에 담았으나 려순감옥에서 날개를 꺾이우고말았다. 《비둘기》가 또다시 하늘로 날아오른것은 해방직후 서울의 대학앞에서였다.

그러나 건국의 하늘을 훨훨 날고있는줄로 알았던 《비둘기》는 다시금 곤두박혔다.

어째서 나의 《비둘기》는 매번 곡절을 겪어야 했던가. 어째서 인생의 함수는 끝내 풀수 없었던가. 그것은 운명의 하늘을 잘못 만났기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민족의 구세주를 만나지 못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오늘에야 비로소 그처럼 찾고있던 하늘을 만났으니 그것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품이다!

《학부장선생님!》

뒤를 돌아보니 함께 북으로 들어온 교원들이였다.

《축하합니다!》

《우린 또 함께 있게 되였군요.》

반가와하는 그들에게 류기연은 진심을 털어놓았다.

《정작 학부장으로 임명받고보니 어깨가 무거워지오.》

철도기계공학과 교원으로 된 《소식통》인 강선생이 공감하였다.

《저도 같습니다. 참, 들었습니까? 우리 학부에 새로 꾸린 실습실을 넘겨준답니다.》

류기연은 방금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벌써 알고있었다.

《그걸 어떻게 아오?》

《학부장선생님, 나야 <소식통>이 아닙니까. 하하하!》

궤도전차를 탄 후에도 강의와 관련한 화제를 이어가던 그들은 교원사택구역에 이르렀다. 그곳은 해방전 왜놈고관들이 살던 곳이였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서 남조선에서 들어온 지식인들에게 친히 배정해주시였던것이다.

동료들과 헤여져 집앞에 이른 류기연은 놀랐다. 새 강의안을 작성하느라고 며칠동안 들어오지 못했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솟구치고있었던것이다. 아마 옆집에 사는 같은 학부 교원의 안해가 학부장선생이 가족도 없이 찬방에서 고생한다고 걱정하더니 방에 불을 때는 모양이였다.

대문을 열려는데 뜨락에서 챙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버지 언제 오나?》

순간 가슴이 후드득 뛰였다.

저건 분명 우리 태삼이의 목소리이다. 그럼?!

부드러운 녀인의 말소리가 잇달아 울렸다.

《태삼이가 보고싶어서 인차 들어오실게다. 우리 방을 따뜻하게 덥혀놓구 아버지를 맞이하자요.》

《응, 해해해!》

더 참지 못하고 대문을 활짝 열었다. 깡충깡충 뜀뛰기를 하는 아들애와 그옆에 서있는 안해가 보였다.

너무 놀라와 할 말을 잊고 서있는데 안해가 아들애의 등을 떠밀었다.

《태삼아, 아버지 오셨다.》

이쪽을 할끔 돌아본 아이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아버지!》

《태삼아!》

잃어버렸던 아들애를 되찾은 류기연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살붙이를 꼭 품에 안았다.

《나 꿈에서 아버지 봤다.》

《용쿠나!》

《아버지, 나 목마!》

《오냐!》

어깨우에 아이를 넝큼 올려놓고 넓은 뜨락을 빙빙 돌기 시작하였다.

《야, 좋다. 아버지, 더 빨리!》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도록 돌고나서 아들애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기뻐서 웃고있는 안해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된 일이요?》

빨갛게 짓물린 눈굽을 손등으로 훔친 안해는 목멘 소리로 대답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북으로 들어간 교원들의 가족모두가 38°선을 무사히 넘어왔어요. 나쁜 놈들한테 붙잡혀갔던 태삼이도 빼냈구요.》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격정을 누르지 못한채 류기연은 안해와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북으로 들어온 후 한시도 잊은적 없는 가족이였다. 요즘은 이러다가 영영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안해와 아들애를 무사히 데려오도록 해주신것이다.

장군님, 죄많은 저를 불러주신것만도 고마우신데 이렇게 가족까지 구원해주시니 하늘같은 은혜를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뜨거워오르는 눈굽을 훔친 그는 안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장군님의 은혜에 꼭 보답하기요!》

안해도 눈물속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내외간의 상봉이 감동적이군요.》

느닷없이 들려온 말소리에 두사람은 뒤를 돌아보았다. 대문가에 서있는 사람들은 강영창과 그의 가족이였다.

《어서 오게.》

류기연은 38° 선을 넘어온 후 흥남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강영창을 만났었다. 그날 그는 형님이 오길 잘했다고,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새 조국건설에 힘껏 헌신하자고 했었다.

《평양에 출장왔다가 김책동지한테서 형님네 가족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오는 길입니다.》

시뭇이 웃으며 안경테를 추스르던 강영창은 안해의 등을 떠밀었다.

류기연은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누이동생의 손을 움켜잡았다.

《기철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고생이야 뭐…》

《대구에서 언제 들어왔니?》

《한달쯤 됐어요. 헌데…》

누이동생은 말끄리를 흐리며 고개를 외로 틀었다.

강영창이 어색하게 웃으며 안해를 나무랐다.

《그만큼 말했는데 또 그러누만. 형님, 실은 앓고있는 맏이를 부모님들한테 맡겨두고 떠나왔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러지 않습니까.》

물기어린 눈으로 바라보고있던 려주가 오레미를 달랬다.

《누이, 너무 마음쓰지 말아요. 이제 꼭 만나게 될거예요.》

《정말 그럴가요?》

《그렇지 않구요. 일이 다 잘될거예요.》

그제야 마음을 진정한 누이동생은 아이들을 차례차례 인사시켰다.

《음, 넌 신성이구 넌 신웅이구나. 엄마등에 업힌건 경숙이겠구.》

아이들은 제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난생처음 보는 외삼촌한테 꾸벅꾸벅 절을 하였다.

그때 체격이 좋은 청년이 대문안으로 불쑥 들어섰다.

《학부장선생님!》

《이게 누군가?》

그는 함박눈이 내리던 날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위촉장을 가지고 찾아왔던 한홍식이였다.

두사람이 반갑게 손을 잡는데 강영창이 귀띔해주었다.

《제 집사람하구 아이들도 한홍식동무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수고많았네.》

《전 그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었을뿐입니다.》

싱글싱글 웃고있던 그는 함께 온 처녀를 소개하였다.

《이 동문 제 약혼녀입니다.》

얼굴이 무르익은 감처럼 빨개진 처녀는 모두에게 허리굽혀 인사하였다.

성미가 호방한 한홍식은 뭐 숨길것도 없다는듯 툭 터놓았다.

《순애는 원래 리화녀전에 다녔는데 미국놈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남녘땅에 침을 뱉고 저를 따라 북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데 장차 새 조선의 녀성과학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다들 인생의 참된 보금자리를 찾아온 처녀를 반겨맞았다.

《이젠 안으로 들어들 가자요.》

안주인이 귀한 손님들을 방안으로 청하고있었다.

그들을 따라서던 류기연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뒤로 젖혔다.

거울처럼 맑은 봄하늘가에 목화송이같은 구름들이 두둥실 흘러가고있었다.

불현듯 눈앞에 《비둘기》가 나타났다. 그 새는 아름다운 구름들의 애무를 받으며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있었다. 아무도 《비둘기》를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부신 태양은 춥지 않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빛을 비쳐주고있었다.

류기연은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누구에게나 크든작든 인생의 함수가 있기마련이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 각자의 운명이 달려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애쓴다고 하여 그것을 풀수 있는것은 아니다. 인생의 함수를 풀자면 인간의 삶과 존엄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참다운 세상을 만나야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운명의 숙제앞에서 서슴어지게 되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갈데 없는 행운아다. 바로 우리 운명의 하늘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겼기때문이다.

《뭘 보세요?》

옆으로 다가온 안해가 이상해하며 물었다.

《이리 오우!》

류기연은 영문을 몰라하는 안해에게 하늘가를 손짓하였다.

《보이오?》

이마에 손을 채양처럼 얹고있던 안해는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당신의 <비둘기>가 날고있군요.》

《아니, 우리모두의 <비둘기>요.》

의미심장하게 뇌인 류기연은 강영창과 한홍식을 둘러보았다. 그들도 눈부신 태양이 빛나는 새 조선의 하늘을 쳐다보고있었다.

그렇다. 《비둘기》들은 태양의 축복을 받으며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을 날고있었다. 힘차게, 영원히…

장편소설

인생의 함수

저 자 류원규

편 집 정성남 편 성 김일미

장 정 채대성 교 정 주설미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11월 27일

발 행 주체112(2023)년 11월 30일

ㄱ－1641ㄷ

ISBN 978－9946－31－178－4

ISBN 978-9946-31-178-4